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지은이 / 마틴 로이드 존스 외 다수  
 옮긴이 / 정 동 수

1판 1쇄 / 2009년 10월 31일 (1517년 10월 31일을 기념하며)  
 2판 1쇄 / 2023년 3월 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전화: 032-664-1611  
 웹사이트: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

ISBN 89-7508-021-8

정가 : 13,000원

잘못된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마틴 로이드 존스 외 다수  
정동수 역

## ▪ 일러두기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별다른 표시나 언급이 없는 한 모두 2021년도에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전서」 마제스티 에디션(그리스도예수안에 출판사, <https://keepbible.com>)에서 인용했습니다.

## 이 책을 캐나다의 구영재 선교사님\*에게 바칩니다.

1985년, 종교와 복음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던 때에 하나님의 섭리로 선교사님을 만나 인생 여정이 완전히 바뀌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영어 이름은 아모스인데 구약의 대언자 아모스의 생애와 선교사님의 생애는 많이 비슷합니다. 아모스는 드고아 출신의 목자였으며 뿔나무를 배양하여 생계를 보태는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 및 종교 행위에 대해 강력한 대언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암 7:14-15).

선교사님도 이와 비슷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에 순종하여 완고한 지도자들과 무지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진리를 대언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대언자처럼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핍박을 받고 억울한 누명을 씌어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리에 사로잡혀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해 얼마나 많은 이들이 크게 감명을 받고 복음으로 돌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번역하면서 계속해서 선교사님을 머리에 떠올렸으며 분명히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선교사님께 바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의 복음의 열정이 이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생생히 전달되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

\* 구영재 선교사님은 2013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그분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신다.

“천주교를 바로 알지 못하고 기독교를 제대로 알 수 있을까요?”  
 좀 아이러니한 질문 같지만 이에 대한 대답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종종 혼동하는 것은 우리의 종교적 열심이 구원을 이룬다  
 고 생각하거나 혹은 구원을 이루는 일에 일조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달리 경배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종교적 열심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이 —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 종교심으로 인해 열심을 내면  
 구원받는 줄 착각합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보다 열심이 있  
 던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  
 고 그 결과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종교적 열심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  
 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  
 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  
 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  
 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  
 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 (롬 10:1-4)

기독교는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분의  
 의를 소유하는 생명의 법이며 천주교는 과거 유대인들이 했던 것  
 처럼 전통과 사람의 명령들을 따라 자기 의를 세우고자 하는 사방  
 의 법입니다.

한국 교인들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만큼이나 종교심이 강합니다. 이제 그들의 종교적 열심은 도를 지나쳐서 유대인들이 저지른 실수를 범할까 크게 염려가 될 정도입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며 필요 이상으로 호화스럽게 치장하고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하며 고아와 과부의 사정을 듣지 않고 건물 짓기에 급급하며 매관매직하고 감투를 얻기 위해 교단 모임에서 싸우고 가짜 학위를 얻기 위해 현금을 축내는 모습이 종교 행위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교인들도 무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므로 이런 종교 행위를 수수방관하며 저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하나님께서는 이런 국가와 민족을 심판하시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겔 22:23-31).

사도 바울은 유대교라는 종교에 빠진 경험이 있어서 종교와 복음이 얼마나 다른가 극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여덟째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 사람들 중의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 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느니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 3:5-9)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려면 종교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천주교라는 종교 속에서 헤매던 마르틴 루터, 그가 종교 속에서 고민하던 것이 다 허사는 아니었습니다. 그 역시 그 고민 속에서 진리를 탐구하다가 복음을 발견했습

니다. 그에게 다가온 복음은 그 당시 유럽의 어느 누구도 심지어 교황도 저지할 수 없는 용기와 생명력을 주었습니다.

따라서 복음을 바로 이해하면 종교가 무엇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종교 생활의 경험이 복음의 빛과 함께 작용하면 그 효과가 큼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가 경험한 것이며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한 것입니다. 역자 역시 이를 경험했으며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보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옳은지 너희는 판단하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것들을 말할 수밖에 없노라, 하니 (행 4:19-20)

대언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지치게 되었습니다. 종교 행위를 멈추고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촉구하였지만 백성과 정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입을 막으며 온갖 핍박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그분에 대해 언급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분의 말씀이 내 뺨속에 갇혀 있는 타오르는 불처럼 내 마음속에 있어서 내가 참기에 지치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도다. (렘 20:9)

이것이 이 책을 출간하게 된 동기입니다. 종교심으로 가득하여 진리를 따라가는 성도들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세태를 바라보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종교와 복음의 진리를 밝혀야겠다는 심정으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로이드 존스, 아이언사이드 등 진리의 선구자들이 외쳤던 것을 더 늦기 전에 우리가 다시 외쳐야 합니다. 비록 이런 외침이 인기를 끌지는 못하지만 확고한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 성도들은 대언자 예레미야처럼 열정을 갖고 “**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라고 외쳐야 합니다. 종교에 파묻혀서 종교 일치 운동을 벌이며 많은 영혼을 파괴시키는 자들을 향해 진리를 보여 주어야 합니다. 바른 기독교를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부디 이 작은 책자가 진리를 탐구하는 적은 양 무리에게, 양심의 자유를 찾아 순례의 길을 걷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민족의 기독교 지도자들에게 진리로 조명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책을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랍니다.

역자 정동수

---

\* 2023년도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헌신적으로 교정 및 교열을 해서 책을 빛나게 해 주었다.



"적은 양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 (눅 12:32)

# 목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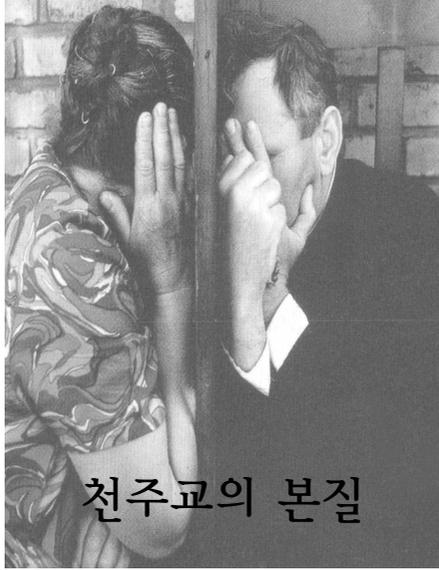
Contents

헌사 .....	5
역자 서문 .....	6
목차 .....	11
1. 천주교의 본질 .....	13
로마 카톨릭 체제 .....	16
로마 카톨릭교회의 중대 오류들 .....	21
결론 .....	37
2. 종교와 복음 .....	45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	46
낙타와 하루살이 .....	52
이단은 이단이다 .....	58
변하지 않으려고 변하고 있다 .....	62
새 시대(뉴에이지) 운동과 새 세계 질서 .....	63
3. 천주교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 .....	67
첫 번째 편지 .....	68
두 번째 편지 .....	76
세 번째 편지 .....	83
네 번째 편지 .....	92
다섯 번째 편지 .....	100
여섯 번째 편지 .....	110
4. 'Do' 종교와 'Done' 복음 .....	119
선교사와 선교지 .....	120
'Do' 종교와 'Done' 복음 .....	126

5. 천주교는 얼마나 종교적인가? .....	131
나는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	132
나는 100명을 고문했습니다 .....	140
의심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	143
성경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	148
의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	151
20년간 나는 내 믿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	159
글을 마치면서 .....	164
6. 로마 교황의 축복과 저주 .....	167
로마 교황의 축복 .....	169
로마 교황의 저주 .....	183
7. 천주교의 첨가물 .....	187
차이점 .....	188
역사의 사실들 .....	189
8. 배도와 종교 통합 .....	233
9. 마리아는 과연? .....	263
10. 새 세계 질서의 도래 .....	287
부록. 역자 추천 참고 도서 .....	318

# 1

## 천주교의 본질



‘마귀의 간계’를 주제로 한 시리즈 설교 중 하나인 본 설교에서 20세기의 영적 거장 로이드 존스 박사는 로마 카톨릭 시스템의 간교함을 조목조목 잘 보여 준다. 특별히 그는 구원에 대한 천주교 가르침이 성경 말씀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한 것으로서 사람의 영혼과 그리스도 사이에 파고 들어와 파멸을 가져옴을 보여 준다. 로이드 존스 박사의 성경적 천주교 분석은 과연 우리가 새로운 태도로 로마 카톨릭주의를 포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행한 대로 그것을 적극적으로 대적해야 하는지 잘 보여 준다(Evangelical Press, 136 Rosendale Road, London, SE21 8LG, England).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엡 6:11-12)

현재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사건들로 인해 이제 크리스천 지성인들은 불가피하게 로마 카톨릭주의가 무엇인지 알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로마 카톨릭주의와 프로테스탄티즘(개신교) 사이에 화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여러 운동이 일어나고 많은 회의가 개최됩니다. 또 이 같은 일을 기뻐하는 자들은 이제 우리 즉 로마 카톨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이 다시 가까워지기 시작했고 어떤 측면에서 서로 협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 자체가 크리스천 정신을 놀랍게 구현한 것이 아니냐고 말합니다.

바로 이 같은 움직임 때문에 우리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앞날을 내다볼 때 이 문제가 긴급한 문제임을 금방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모종의 개연성 때문입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현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머지않아 로마 카톨릭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하게 될 국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상당수에 달할 것이며 그럴 경우 우리가 계속해서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칙을 적용하게 되면 로마 카톨릭교도들이 다수를 차지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발생할 일들을 예상해 보기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사실 시간이 충분히 주어진다면 비카톨릭 국가인 우리 나라 — 영국 — 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을 다 감안해 볼 때 우리가 이 같은 입장을 점검해 보고 앞으로 직면하게 될 엄청난 사실을 주시하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이 일은 싫고 좋고를 떠나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일입니

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에 이런 일을 해 본 적이 없을 뿐 아니라 그런 일을 하는 어떤 프로테스탄트 단체에 소속된 적도 없고 그 같은 주제로 강연을 해 본 적도 없습니다. 사실 저는 로마 카톨릭 주의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기독교의 진리와 위대한 개혁 교리를 적극적으로 선포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 어떤 것도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했으며 앞으로도 마찬가지 일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항거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 카톨릭주의에 항거하는 일이 여러 해 동안 꾸준히 지속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여러 나라에서 로마 카톨릭교회가 실질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프로테스탄트들의 부정적인 항거 노력은 별 효과가 없음이 기정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이처럼 로마 카톨릭주의가 확산된 원인은 자기가 믿는 바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무지함과 무기력함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시간을 들여서 적극적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으로 인해 저는 이 문제 곧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의 활동들인 '마귀의 간계'에 대해 다루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찾아내었습니까? 먼저 저는 오늘 개개인에 관해 말씀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는 카톨릭 신자이면서 참으로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들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카톨릭 신자이면서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보여 드리고자 하는 바는 카톨릭교도로서 크리스천인 사람들은 그들이 속해 있는 체제 때문에 크리스천이 되지 않았

고 그런 체제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크리스천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 문제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로마 카톨릭교회에 속한 사람들 중에서도 개인적으로 구원받아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개개인을 고려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이 문제를 정치적 관점에서 고려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 측면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적 측면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음을 보여 주는 증거를 제시해 왔습니다. 우리는 로마 카톨릭 체제의 역사적 증거 기록을 알고 있고 정치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알고 있으며 그 체제가 스스로를 정치 세력이라 주장하고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점들을 고려할 때 정치적 측면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문제는 일반 성도들과 기독교 정치인들이 관여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직 영적인 측면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우리 앞에 제시하며 신중하게 생각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 로마 카톨릭 체제

자, 그러면 지금 우리는 무엇을 살펴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의 체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저는 전혀 주저하지 않고 로마 카톨릭주의로 알려진 이 체제야말로 '마귀의 가장 뛰어난 걸작품'이라고 단언할 수 있습니다! 이 체제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에서 심하게 이탈된 체제이므로 저는 주저하지 않고 16세기의 종교 개혁자들과 더불어 이 체제를 '배교 체제'라

고 단언합니다.

우리는 보통 배교를 가리켜 ‘기독교 진리로부터 전적으로 이탈한 것’이라고 정의 내립니다. 어떤 이들은 “글쎄요, 지금 당신은 로마 카톨릭교회를 지칭하는 겁니까?”라고 반문할지도 모릅니다. 사실 우리는 여기에 대해 무척 신중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로마 카톨릭교회를 배교 체제요, 배교 집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도대체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를 분명히 밝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문제를 이렇게 설명하고자 합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해서 배교 체제가 되지 않았고 기독교의 진리에 무언가를 첨가하고 거기서 이탈하여 배교 체제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 마귀의 온갖 간교함이 들어오며 마귀의 간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바라보게 되면 로마 카톨릭교회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정통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로마 카톨릭교회의 정통성에는 전혀 문제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라고 믿으며 예수님의 처녀 탄생을 믿으며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으며 예수님의 기적들을 믿으며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분의 대속(代贖)사역과 그분의 육체적 부활을 믿습니다.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또한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늘에 앉아 계심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 관한 로마 카톨릭교회는 절대적으로 정통입니다. 심지어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보다 훨씬 더 정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이런 점에서 정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로마 카톨릭주의

의 입장에 대해 두려움을 갖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의 사역에 대한 로마 카톨릭교회의 입장을 보더라도 그들의 정통성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은혜의 원리’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이 그들의 중심 교리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신적 영감과 권위를 주장하고 있으며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들은 이런 면에서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교회보다 나으면 나았지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단지 위와 같은 일반적인 방식으로만 바라본다면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정통적인 교회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점에서 교활함이 들어오고 어려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이 모든 것에다 ‘저주받아 마땅한 첨가물’ 즉 전적으로 비성경적인 것들과 사실상 성경을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들을 첨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우리가 그들이 가르치는 바를 그대로 받아들일 경우 결국에는 그 체제의 거짓말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위치로 우리를 몰고 갑니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 체제의 교리는 그럴듯한 위조품이며 성경이 기록한 대로 로마 카톨릭 체제는 다름 아닌 요한계시록의 음녀입니다.

참으로 이 문제는 지극히 교활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도 ‘간교함’ 즉 마귀의 간계에 대한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간교함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면 반드시 로마 카톨릭교회의 문서를 읽어 보아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 무척 방대하고 그 체제의 간교함은 너무나도 커서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틀림없이 이런 사례를 여러 번 접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여러분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이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카톨릭교도가 이혼할 경우 그는 교회로부터 파문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은 신문에서 일부 고매한 카톨릭교도들의 이혼 소식을 접하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라고 반문하곤 합니다.

글쎄요. 사실 그들은 이런 것을 쉽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결코 참된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까!” 실로 그들은 무엇이든지 해명할 수 있고 따라서 그들에게는 문제가 될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궤변 체제가 이러하며 고도의 논법이 이러하므로 그들은 동시에 모든 방향에서 오는 문제들을 다 대응할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달리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교회는 실제로 많은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이 나라 — 영국 — 의 로마 카톨릭교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또 아일랜드와 남아일랜드의 로마 카톨릭교회를 살펴보기 바랍니다. 미국의 카톨릭교회를 살펴보고 남미의 몇몇 라틴 국가들의 카톨릭교회를 살펴본다면 여러분은 즉시 그것들이 동일한 체제라고 믿기가 매우 어려움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페인과 이탈리아 및 기타 비슷한 조건의 국가들의 로마 카톨릭교회를 살펴보고 독일이나 기타 그와 비슷한 국가의 로마 카톨릭교회와 대조해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곧장 그 체제가 국가마다 서로 상당히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결코 그것이 동일한 로마 카톨릭 체제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을 터이지만 사실상 그것은 모두 같은 로마 카톨릭 체제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얼마든지 자기의 색깔과 모습과 형태를 바

꿀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 체제는 어디서든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귀의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자기 자신을 ‘빛의 천사’로 변형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 주었으며 여러분도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로마 카톨릭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자기를 변장하는 데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이 나라 — 영국 — 에서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아주 지성적인 형태로 나타나서 로마 카톨릭교도들에게 성경을 읽도록 권장하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을 금하며 또 비지성적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고의적으로 미신을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 나라에서는 천주교가 관용을 베풀고 기꺼이 의견을 들어 주며 토론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며 친근한 모습을 취하지만 다른 후진국에서는 아주 인내하지 못하며 사악하고도 비열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곤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여전히 동일한 로마 카톨릭교회요 동일한 체제이며 동일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증거들로 인해 저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마귀의 걸작품이라고 말합니다.

지난 수백 년 동안 로마 카톨릭 시스템이라는 저 거대한 교회와 체제는 온갖 간교함과 속임수 가운데서,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 온갖 불의의 속임수 가운데서 마귀의 간계를 온 천하에 드러내 왔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와 같은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미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보낸 둘째 편지 즉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서 이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이 예언의 말씀이 이것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는 분명히 이것을 설명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분은

이 체제가 부상하여 권력을 장악하게 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기관은 이미 세상의 권력을 장악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로마 카톨릭교회가 두 번째 짐승으로 묘사되어 있으며 또 요한계시록 17장에서는 일곱 언덕 위에 앉아 있는 '거대한 음녀' 로 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실 이 체제는 늘 이러했으며 지금도 이러하고 앞으로 이룰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역사 속에서 이루어져 왔으며 실제로 이 체제는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을 성취해 왔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기독교회 내로 몰래 기어들어 와 한때 기독교회 전체를 실질적으로 독점했던 체제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라는 이 체제가 천천히 간교하게 기독교회 속으로 기어들어 와 자기 방식대로 일하면서 기독교 세계를 장악했고 그 결과 로마 카톨릭교회는 이제 거의 보편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세상 권력을 장악해 버렸습니다.

## 로마 카톨릭교회의 중대 오류들

로마 카톨릭교회는 과연 어떤 일을 행했을까요? 이 문제를 적절히 다루자면 최소한 몇 달이 걸릴 것입니다.

이 설교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행하고자 하는 바는 저의 주장이 진실임을 보여 주는 몇몇 중요한 증거들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본 내용을 세 가지 주요 제목으로 나누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 저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어떻게 우상 숭배와 미신 행위를 도입했는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만큼 크게 정죄를 받는 행위는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교회는 형상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신도들이 형상들에게 경배하도록 가르치고 있으며 그래서 그들은 동상과 조형물과 초상화를 숭배합니다. 여러분이 큰 천주교 성당에 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가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는 사도 베드로의 동상이 있는데 여러분이 그 동상의 발가락을 자세히 보면 그 발가락 중 하나가 닳아서 매끈매끈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에 의해 희생물이 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발가락에 입을 맞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경외심을 가지고 절하면서 형상과 동상과 유물에게 경배합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어떤 성인의 유물과 뺏조각과 그가 사용하던 물건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것을 특별한 장소에 두고 그것에게 경배하며 그 앞에 절을 합니다. 사실 이것은 전적으로 우상 숭배입니다.

2. 우리가 심각하게 여겨야 할 커다란 오류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제주의 체제와 가르침이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 카톨릭교회의 오류들 가운데 가장 끔찍한 오류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로마 카톨릭교회 자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오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카톨릭교회 자체가 구원을 얻는 데 필수 조건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분명하게 “카톨릭교회 밖에서는 결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곧 로마 카톨릭교

회가 구원을 얻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건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 사이에 로마 카톨릭교회를 끼워 넣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교회는 스스로에게 그와 같은 위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약 성경 어디에서도 그 같은 주장을 찾아볼 수 없으며 이것은 단지 로마 카톨릭주의 안에서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자기만이 진리가 무엇인지 안다고 주장하며 자기만이 진리를 묘사하고 진리에 대해 정의를 내릴 수 있으며 진리를 해석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프로테스탄트들은 당연히 그와 정반대로 모든 신자의 보편적 제사장 체제를 가르치며 각 사람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성령님의 조명 하에서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 사실을 절대적으로 철저히 부정합니다.

그들은 오직 로마 카톨릭교회만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바르게 말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자기들이 지금까지 '지속적인 계시'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프로테스탄트들이 믿는 것과는 달리 하나님의 계시가 신약 성경의 종결과 함께 끝났다고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계시가 지속적으로 주어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주저하지 않고 성경의 진리에다 그런 계시들을 첨가해야만 한다고 말합니다. 물론 그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덧붙인 전통(전승 혹은 유전)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지니고 동일한 구속력을 지닌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로마 카톨릭교회가 취해 온 기만의 방식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들을 자기들의 전통에 첨가해 왔으며 바로 여기에 이 체제의 간교함이 놓여 있습니다.

결국 로마 카톨릭주의는 우리 모두에게 전체주의<sup>1)</sup>가 요구하는 그런 충성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이 체제는 우리가 믿는 것과 행하는 것까지 지배하려 듭니다. 그리고 또한 로마 교회는 자기가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책임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일러 준 대로 그리고 가르쳐 준 대로 절대적으로 철저히 굴복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시 말해 로마 카톨릭주의는 획일적인 전체주의 체제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 시스템은 공산주의가 자기 백성의 혼과 자유를 유린하는 것처럼, 군국주의의 히틀러가 자신의 잔혹한 체제 안에서 사람들을 획일적으로 인도했던 것처럼 자기에게 속한 신도들의 혼을 절대적으로 엮어매고 있습니다. 실로 여기에는 의심의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전체주의 체제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절대 권위를 가진 존재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버티고 서 있습니다. 이 문제를 잘 보여 주는 두 번째 증거 혹은 이 문제로 인한 당연한 논리적 귀결은 로마 교황과 교황에 대한 온갖 가르침입니다. 교황은 보통 '그리스도의 대리자'라 일컬어집니다. 그들은 사도적 계승을 주장하면서 교황이 사도 베드로의 영적 직계 후손이며 사도 베드로의 모든 권위를 이

---

1) 이론상 개인적인 자유를 전혀 허용하지 않고 개인 생활의 모든 측면을 정부의 권위에 종속시키고자 하는 정부 형태. 이탈리아의 독재자였던 베니토 무솔리니는 1920년대 초반 이탈리아의 새로운 파시즘 국가를 지칭하기 위해 '토탈리타리오'(totalitario)라는 용어를 최초로 만들었고 나아가 이를 "국가 안에 모두가 있고, 국가 밖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으며, 국가에 반대하는 그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고 기술했다. 제2차 세계 대전이 시작될 무렵에 '전체주의'라는 용어는 일당정부와 동의어로 사용되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어받았다고 말합니다.

저는 결코 그들이 주장하는 베드로의 수위권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결길로 빠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 즉 성부(Holy Father)라 부르며 극도의 신성모독을 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자도 너희 아버지(Father)라 부르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 곧 하늘에 계신 분이시니라.” 이들은 이 같은 명백한 말씀을 여기면서 교황을 ‘성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황의 추기경 회의에서 “권위 있게 선언한다.”라고 하면서 “교황이 절대 무오하다.”라고 말합니다. 비록 그들이 1870년에 교황 무오설을 교리로 규정하긴 했지만 사실 그보다 훨씬 오래 전부터 그것을 믿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규정되었기에 그가 선언하는 것들은 절대 무오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또한 교황의 선언은 그리스도 그분처럼 절대 무오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는 그가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여러분이 보드시피 로마 카톨릭교회의 권력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이 말씀하듯 하나님처럼 말하는 이 한 사람 밑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교황은 사람들에게 경배를 받고 있고 그들은 그 앞에서 절하며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바칠 수 없는 경의와 흠모를 그에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드러난 증거는 사제직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제들은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신자들의 ‘보편적 제사장 체계’ 즉 ‘전 성도 제사장 체계’를 믿지 않습니다. 그들의 제사장 즉 사제들(Priest)<sup>2)</sup>은 오직 카톨릭교회에서 훈련받고 카톨릭교회로부터 성직 수임을 받은 자들로서 ‘사도적

계승'에서 나오는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베드로 전서 2장 9절 말씀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선정된 세대요 왕가의 제사장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특별 소유 백성이니

다시 말해 이 구절은 우리 믿는 성도들이 다 제사장 왕국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교회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은 단지 평신도에 지나지 않으며 결코 제사장(사제)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교회에서 성직 수임을 받은 이 사람들만이 사제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제들이 기적을 행하는 것과 같은 독특한 권능을 지닌 자들이라고 주장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심각하고 중대한 문제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세례 때 사용되는 물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 사제가 세례 때 사용하는 물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그들은 사제가 '주의 만찬'에 사용되는 빵과 포도즙<sup>3)</sup>과 연관된 기적을 행할 능력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것은 종종 '화체설'이라고 불립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사제가 주는 빵이 더 이상 그냥 빵이 아니며 그리스도의 실제 몸으로 변한다고 주장합니다. 빵의 겉모습과 색깔은 그대로이지만 그 본질은 변해서 그리스도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

2) 천주교의 사제는 구약의 제사장을 뜻하는 'priest'이다. 그들은 신약 시대가 열렸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구약 시대의 제사장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사제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Father'라 부르며 한국에서는 이를 신부(神父)라고 한다. 이는 곧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는 것으로 신성을 모독하는 타이틀이다. 그래서 본서에는 'priest'를 신부라 하지 않고 원어 그대로 사제라 번역하였다.

3) 예수님은 주의 만찬에서 떡을 사용한 적이 없으며 또한 포도주를 사용한 적이 없다. 주의 만찬은 유대인들의 유월절에서 유래되었으며 그 기간에는 온 집에서 누룩을 제거해야만 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빵과 누룩이 들어 있지 않은 포도즙을 사용하셨다. 누룩은 썩게 하는 것으로 누룩이 들어간 빵과 포도주는 결코 우리 주 예수님의 순수한 살과 피를 상징할 수 없다.

그들은 이 화체의 기적이 그러한 기적을 일으킬 권능을 소유한 사제에 의해서만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같은 주장은 곧 바로 성사(혹은 성례전)에 관한 교리로 이어집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에는 일곱 가지 성사가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특별히 세례 성사와 성체 성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두 성사에서 기적이 일어난다고 서슴없이 가르칩니다. 그들의 이론은 이러합니다. 사제가 물과 빵과 포도즙에 기적을 일으키면 그로 인해 이것들에게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되며 이런 기적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같은 것을 가리켜 'ex opere operato' 를 이룬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세례 성사에 적용하자면 물은 더 이상 그냥 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부여된 물이므로 그 물을 어린이 위에 뿌리면 어린이 안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은 천주교 성찬식<sup>4)</sup>의 경우 신도가 빵을 취하여 먹으면 — 주의 만찬에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 포도즙은 일반 성도들이 마시지 못하게 합니다. — 그가 실제로 그리스도 자신의 몸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은 마귀의 간교한 속임수이며 치밀한 간계입니다. 이 모든 것은 천주교회가 첨가한 것으로서 신약 성경은 이런 것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사제에 대한 언급을 마치기 전에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곧 신도들은 로마 카톨릭 체제의 사제 앞에 나아가 자기의 죄들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카톨릭교회의 사제가 면죄를 선언하고 죄들의 용서를 베풀 수 있는 권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

4) 천주교에서는 주의 만찬을 성사 즉 자기들에게 은혜를 부여하는 성례전(sacrament)으로 여기기 때문에 성찬식이라고 하지만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단순히 주의 만찬이라고 부른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부여하는 수단이 아니다.

이처럼 특별한 능력을 할당받은 자들 곧 카톨릭교회의 사제들 외에는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도들은 성경에 그렇게 하라는 명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또한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들의 교회 안에서는 서로에게 잘못을 고백해야 한다고 가르치지 결코 사제들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드러난 증거가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로마 카톨릭 체제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사이에 교묘히 기어 들어 왔는지 보여 주려 합니다.



천주교의 고해 성사

여러분과 저는 크리스천으로서 그분께 나아가 죄를 고백하지만 카톨릭교도들은 사제들에게 가서 고백합니다.

이제 네 번째의 드러난 증거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를 가장 놀라게 하는 터무니없는 궤변 중의 하나입니다. 로마 카톨릭주의의 마리아 숭배는 이제 놀라울 정도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가리켜 ‘하늘의 여왕’으로 일컬으며 우리 모두가 일차적으로 그녀에게 찾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많은 성당에서 쉽게 볼 수 있듯이 성모 마리아상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리하고 있으며 그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마리아에 의해 가려져서 뒷전으로 밀려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 대해 그들은 이렇게 답변합니다.

성모 마리아는 사람이므로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훨씬 더 사랑스럽고 부드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 위대하고 강력하며 권위가 있으시므로 너무 엄격하신 분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가르침이며 마리아 숭배를 설명하는 내용의 전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너무도 무서운 분이시므로 우리가 그분께 직접 다가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마리아가 거기 있는데 그녀는 사랑이 넘치며 더욱이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中保)<sup>5)</sup>해 주시도록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가 우리 영혼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점진적으로 마리아의 권능에 무엇인가를 첨가해 왔습니다. 그들은 주후 1854년에 마리아의 ‘무염 시태’를 정식 교

---

5) Intercession: 두 사람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일

리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무염 시태’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이 태어나신 것처럼 성모 마리아도 또한 그렇게 태어났다는 것입니다.<sup>6)</sup> 또한 최근에 그들은 마리아의 ‘몽소승천’ 교리를 발표했는데 이것은 곧 마리아가 일반 사람처럼 죽어 묻힌 것이 아니라 자기의 아들 예수님처럼 문자 그대로 하늘로 승천했다는 것입니다.<sup>7)</sup> 이 같은 가르침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성모 마리아의 이미지를 세워 주고 그녀를 부각시키며 결국 그리스도를 시야에서 가리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에 이어 ‘성인’ 숭배가 추가됩니다. 로마 카톨릭교도들은 성인들에게 기도해야 한다고 교육을 받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러한 가르침이 나오게 되었을까요? 자, 그들의 가르침의 골자는 이렇습니다. 그들은 현재의 삶 속에서도 완전하게 살 수 있다고 믿으며 일부의 성인들이 이 세상에서 완전한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완전한 삶을 산 결과 그들은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은 양의 ‘공덕’을 획득하여 쌓아 올리게

---

6) Immaculate conception : 무원죄 수태설(잉태설)이라고도 함. 마리아는 원죄에 뒤따르는 악(惡)을 향한 마음이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견해는 영국인들의 마리아 수태 축하 의식에 관해 논쟁이 벌어진 12세기까지 분명하게 표명되지 않았다. 수태의 생물학적 측면에 관한 중세의 견해와 예수의 보편적 구원에 대한 신앙이 위협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우려 때문에 이 토론은 흐지부지되었다. 그러나 1854년 12월 8일에 이르러서야 피우스 9세가 전 세계 대다수 카톨릭 주교들의 촉구에 따라 ‘형언할 수 없는 하나님’(Ineffabilis Deus)이라는 이름의 대(大)칙서를 통해 이 교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므로 모든 카톨릭 신자들은 이것을 확실하게 믿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성모 마리아의 무원죄 수태를 기념하는 축일은 12월 8일이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7) Assumption : 성모 승천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의 몸과 영혼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친 후 승천했다는 로마 카톨릭과 동방 정교회의 교리. 이 교리의 타당성과 예수의 승천에 관련된 이미지를 확실히 드러내기 위해 여러 본문이 자주 인용되었지만 ‘신약 성서’에는 성모 승천에 관한 명백한 언급이 없다. 신학적으로 이 교리가 의미하는 것은 마리아의 구원이 그녀의 인격의 완전성을 내포하며 이로써 모든 인류에게도 그런 상태가 약속되었음을 예시한 것이다. 이 교리의 발전은 그녀를 일반적으로 기념하는 것에서 그녀의 죽음을 기념하는 축일(8월 15일)로 변한 마리아 봉헌 축일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1950년 11월 1일 교황 피우스 12세는 이 교리를 사도 현장 ‘무한하신 하나님’(Munificentissimus Deus)에서 카톨릭 교리로 선포했지만 동방 정교회에서는 계시된 교리로 보지 않으며, 개신 교회 가운데 여러 교회가 이 교리를 에큐메니컬 대화의 장으로 여기고 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넘치도록 공덕을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나 내가 공덕이 모자라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성인들에게 가서 기도하고 간청해서 그들이 보유한 여분의 공덕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이것을 '여분의 공덕을 나누는 일'이라 하는데 이것은 곧 성인들이 우리를 위해 중보할 수 있고 우리에게 공덕이 부족하면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 자기들의 공덕의 여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인들을 숭배하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며 그들에게 의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더 많은 공덕이 성인들에 의해 추가로 보충되어야 한다는 이단 교리를 접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전반적 체계 및 제도가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신자 사이에 교묘히 기어들어 오는지에 대해 간단히 다섯 가지 요점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완전한 신성을 부여하고 그분의 성육신, 처녀 탄생 및 기타 정통 교리들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같은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바로 이런 첨가를 통해 마귀의 간계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로마 카톨릭교회는 항상 옳은 것만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기에다 너무나도 잘못된 것들을 첨가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우리는 그 옳은 것 중에서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간계입니다.

3. 이제 저는 세 번째 오류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위치를 강탈할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저 위대한 구원의 영광과 완전함과 충분함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예로 그들이 칭의(Justification) 즉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지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가 살펴보겠습니다. 루터가 말했듯이 칭의는 교회의 흥망성쇠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프로테스탄트를 존재하게 만든 원인으로서 프로테스탄트들의 영광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칭의에 관한 그들의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우리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따금씩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이 과연 우리의 가르침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하곤 합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칭의가 무엇인지 알지 못할 때 로마 카톨릭 주의가 성장한다는 사실은 그리 놀랄 만한 일이 못됩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단지 선한 삶을 사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로마 카톨릭주의는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주의가 전 세계 많은 국가를 휩쓸고 있다는 사실은 놀랄 만한 일이 아닙니다.

칭의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죄성을 지닌 인간이라도 선행이나 공적을 쌓을 수 있으며 또한 사람이 자신의 칭의를 위해 무엇인가 기여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렇게 믿고 또 그렇게 가르칩니다. 반면에 우리 프로테스탄트들은 “의인은 없는데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아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기록하였듯이 배설물 즉 똥과 같고 그래서 가치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반면에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며 사람의 의에도 가치가 있으며 따라서 그것이 무언가를 할 수 있고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궁극적으로 사람이 세례를 통해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가르친다는 사실입

니다. 세례는 다른 모든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세례를 통해 여러분의 죄가 용서되고 여러분 안에 의가 주입되어 여러분이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가르칩니다. 비록 아무것도 의식하지 못하는 것 태어난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그들도 세례로 의롭게 되고 원죄가 말소되며 동시에 이 같은 긍정적인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고 로마 교회는 가르칩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리스도의 의를 말하지 않고 세례받은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의가 중요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오직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프로테스탄트 교리를 위협한 이단 교리라고 비난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이 체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아셨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신도들이 모든 것을 교회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과연 이런 체제하에서 사람이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가서 그분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 말씀합니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사제가 베푸는 세례를 통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체제 안에서는 모든 일에 교회와 사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들 없이는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따라서 여러분은 그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는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으며 반드시 중간에 낀 중보자들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한 중재자가 있으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 교황, 사제 및 모든 고위 성직자와 하위 성직자 이들 모두가 필요하다고 그들은 가르칩니다. 이처럼 그들은 중대한 칭의 교리에서 거짓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천의 생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또 다

른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거룩한 삶을 강조하기보다 의식과 의례를 준수하는 것을 더 강조합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거룩함을 추구하고 성화에 대한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미사에 참석하고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라고 가르칩니다. 이 체제 속에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야 할 책임을 강조하거나 신자들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염두에 두고 그대로 실행하도록 권면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의 규율에 순응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러분은 각종 의식을 지키고 그들이 하라고 일러 준 대로 행해야 합니다. 특정한 절기에는 금식해야 하며 이것은 하고 저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 사제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나 일단 미사에 참석한 다음에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행해도 됩니다. 미사를 통해 죄가 덮였고 여러분은 다시 올바르게 교정되었으므로 이제 계속해서 여러분의 길을 가도 됩니다.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룩한 삶 즉 아주 간단한 삶 대신에 여러분은 의식과 의례와 절기를 준수해야 합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또 다른 심각한 오류는 이들이 구원의 확신 교리를 전적으로 부인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구원의 확신 교리만큼 영광스러운 것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당신은 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십니까?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것을 전적으로 부인합니다. 이 세상 삶에서는 확실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확신할 수 있느냐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반박하

는 내용이며 이것은 어느 면에서 매우 논리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로마 카톨릭 체제는 마귀의 것을 확연히 드러냅니다. 사실 마귀 외에는 비범한 천재성을 발휘하여 이 모든 일을 성사시킬 만한 존재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의 원죄가 말소되고 여러분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게 됩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렇다면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의 세례는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를 모든 죄와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사역이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덮어 준다고 가르칩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단 한 번 이루신 사역만으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는 “결코 그렇지 않으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합니다.

세례받은 이후의 죄 문제는 전혀 다른 성격의 문제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죄들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가 반드시 사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해야 하며 오직 그만이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사제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생의 종말을 맞게 되면 세례 이후에 지은 죄 문제로 인해 지옥 정죄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그때 과연 그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아무 문제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고해 성사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제만이 여러분을 위해 그것을 베풀 수 있으며

그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고해 성사를 하면서 사제에게 특이한 고백을 하게 되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면죄를 받게 됩니다. 이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문제를 거의 다 풀어 주었지만 여전히 용서받지 못한 죄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은 “참으로 다행스럽게도 연옥이라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용서받지 못한 죄 즉 세례받은 이후에 지은 죄를 씻어 버리기 위해 우리는 그곳으로 갑니다.

그러면 거기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자, 여전히 땅에 남아 있는 우리의 친척들이 우리를 위해 돈을 지불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은 온갖 면죄부와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와 촛불과 그들이 지불한 돈을 소유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내면 낼수록 연옥에서 이러한 죄들이 더 빨리 처리되고 우리는 다음 장소로 속히 옮겨갈 수 있게 됩니다.

과연 여러분은 이 같은 주장을 성경에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물론 전혀 없을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지금까지 자기들이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추가 계시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으며 한마디로 첨가 그 자체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역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이 모든 것들에 의해 그분의 공덕이 보충되어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제가 이 같은 로마 카톨릭 체제를 배교 집단이라 부른다 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습니다.

## 결론

이 모든 것이 가져오는 결과는 무엇일까요? 로마 카톨릭교도들은 무지 속에 갇혀 있으며 미신에 빠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런 것으로 인해 그들은 우리가 종종 ‘대륙의 일요일’이라는 생활 방식에 젖어들게 되는데 이 말의 뜻은 여러분이 일요일 아침에 성당에 가서 미사를 드리기만 하면 그날의 나머지 시간은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 해도 좋다는 것입니다. 즉 미사 시간만 끝나면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스포츠와 쾌락을 추구하면서 그날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체제를 따르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또 이렇게 된다 해도 그리 놀랄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은 중요하지 않으며 교회로부터 그리하지 말라는 호소를 받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교회가 일러 준 대로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교회에 내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그들이 해야 할 일이며 궁극적으로 교회가 그들의 영혼을 돌보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 인해 마침내 그들은 진리의 길을 걷는 자들에게 잔인한 핍박을 가해 왔으며 사실 이런 핍박은 로마 카톨릭 체제의 두드러진 특징이 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를 흘렸고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기회만 주어지면 어느 곳에서도 그런 일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설교를 들으면서 시간만 낭비했을까요? 과연 우리가 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져야만 할까요? 다른 방향에서 로마 카톨릭주의를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이<sup>8)</sup> 있다는 사실로 인해 우리가 기뻐해야만

할까요? 프로테스탄트와 카톨릭이 다 같이 크리스천으로서 공산주의에 맞설 수 있다는 가능성으로 인해 기뻐해서는 안 된다 말입니까? 여러분이 직면해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저 자신은 이에 대해 답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습니다. 로마 카톨릭 체제는 전적으로 공산주의보다 훨씬 더 위험한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는 위조지폐와 같이 기독교를 위조한 체제이기 때문이며 또 그들이 이 모든 일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는 바로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자주색 옷과 주홍색 옷을 입은 여자'이며 가장 끔찍한 속임수의 극치를 이룬 체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이 체제가 공공연하게 그리고 명백하게 무신론을 따르면서 하나님을 닮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결코 편견을 지닌 열성분자들이 아니었으며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그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의 눈이 열렸고 칼빈의 눈이 열렸으며 나스의 눈이 열렸고 모든 개혁자들의 눈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열리면서 성경 속에서 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 체제를 저주하며 그것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일어서서 이 체제와 맞서 항거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괴물 체제가 진리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으로 얻는 칭의와 성경의 절대적이고도 최종적인 권위와 모든 믿는 자들의 제사장 체계 등을 주장하기 시작했

---

8) 이것은 곧 종교 통합을 추구하며 천주교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함.

습니다. 그들은 이 같은 성경의 진리를 위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었고 실제로 많은 이들이 진리를 위해 용감히 죽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엄숙히 경고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로마 카톨릭교회로 접근하려는 갖가지 시도를 기뻐한다면 그것은 곧 순교자들이 흘린 피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그런 시도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결코 스미스필드(Smithfield)<sup>9)</sup> 근처도 가지 말기 바랍니다. 바로 그곳에서 성경대로 믿는 프로테스탄트들이 화형에 처해졌습니다. 브래드포드와 나머지 프로테스탄트들이 로마 카톨릭주의를 부인했다는 이유로 그곳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런 화해의 시도를 수용한다면 그것은 곧 이 프로테스탄트 선구자들을 부인하는 것이며 그들에게서 등을 돌리면서 “그들이 잘못했어. 그들은 실수를 범했어!”라고 말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화해론자들의 그럴듯한 논쟁에 말려들지 말기 바랍니다.

천주교 문제가 더욱 첨예한 문제가 된 것은 무선 통신과 텔레비전 때문입니다. 대중 매체에 이들이 어떻게 비치고 있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매우 예의가 있고 친절하며 훌륭하고 무척이나 융통성 있게 보입니다.

---

9) 옛 런던시의 북서부 지역. 육류 시장으로 유명한 곳이며, 역사적으로는 1381년 와트 타일러가 리처드 2세와 비극적인 회합을 가졌던 장소로 알려져 있다. 이곳의 시장은 1183년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는데 종교 개혁과 단기간의 반종교 개혁 중에는 처형의 수단이었던 중세 기사들의馬上(馬上) 창(槍) 시험을 벌이는 장소이기도 했다. 또한 이즐링턴에 있는 칼레도니아 시장의 전신으로 여겨지는 유명한 런던 시장인 고대 바솔로뮤 장도 이곳에서 열렸다. 현재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 이 시장은 생육·냉동육·가금·장조림·생선·과일을 취급한다. 세인트바솔로뮤 교회는 1123년에 세워진 아우구스티누스 수도회 소속 수도원의 한 부분이다. 1137년에 설립된 세인트바솔로뮤 병원은 1730년초부터 개축되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그들은 종종 우리 프로테스탄트들보다 훨씬 더 훌륭해 보입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프로테스탄트들은 이렇게 천주교의 외양을 극구 칭찬하면서 금방이라도 로마 카톨릭주의의 미끼를 따먹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중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로마 카톨릭교회가 지금은 많이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목사님은 과거만 보려 하고 마치 16세기에 살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지금 목사님은 20세기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저의 대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로마 카톨릭주의가 가장 큰 교만을 부리는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거만하게 “로마 카톨릭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로마 카톨릭주의가 변할 수 있겠습니까? 만일 이 체제가 변한다면 그것은 곧 자기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체제는 “우리는 절대 무오하며 교황은 곧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결코 실수를 할 수 없다.”고 이미 굳게 선포한 바 있습니다.

만일 로마 카톨릭주의가 변할 가능성이 있다고 스스로 말한다면 그것은 곧 로마 카톨릭주의의 핵심 주장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 체제는 자기가 변하고 있다고 말하지도 않으며 앞으로도 결코 그런 말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항상 동일합니다. 혹시 변한 것이 있다면 상태가 더 나빠진 것뿐입니다. 실로 이 체제는 16세기에 자기가 가르쳤던 것들에도 교황의 절대 무오성 같은 교리들을 추가하였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만일 앞으로 이 땅에 하나의 거대한 세계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교회가 나머지 다른 교회들을 흡수하고 무지 속에 있는 그들을 삼켜 버렸기 때문입니다! 로마 교회가 이런 일을 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카톨릭교회야말로 위조품이요, 가짜 교회이며 가장 저질의 매춘부요, 세상에서 가장 마귀적인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이 체제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하고 있기에 우리는 마땅히 이것을 거절하고 정죄하고 적극적으로 맞서야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입각하여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기독교 뿐입니다. 듣기 좋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혹은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기독교는 단 1초도 로마 카톨릭교회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교도들의 숫자만 불러 줄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집회를 하면서 “아, 당신은 로마 카톨릭 신자시군요. 천주교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곧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경고해야만 합니다. 이 소름 끼치는 위조품 교회에 대항해서 맞설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의 가르침과 단 하나의 권능뿐입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 불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란 신약 성경의 진리를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바르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 개혁 시대에도 동일한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루터는 단지 피상적인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신학자였으며 칼빈도 그러했고 개혁자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구체적으로 진리의 체계를 제시하고 상세히 가르쳐 줄 때에 로마 카톨릭교회가 타격을 받고 그 체제 전체가 뒤흔들린 역사

가 일어났습니다.

현재의 카톨릭/프로테스탄트 교류 및 화해 상황을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법 중 이것보다 더 적절한 것은 없습니다.

크리스천 여러분, 여러분의 책임은 실로 막중합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알아야 하며 진리를 이해해야 하고 거짓된 가르침에 적극적으로 대항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와 같은 거짓 체제에 속아 넘어가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책임은 바로 이런 사람들의 눈을 열어 주고 그들을 바르게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똑바로 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열정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자격이 있으며 성령님의 복을 간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위에 서고 성경의 진리 위에 설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영께서 강력한 부흥과 함께 우리에게 임하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오직 이같이 강력한 부흥만이 이 가증한 체제 곧 자기를 로마 카톨릭교회라 부르는 저 큰 음녀를 쓰러뜨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시여, 이제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여 주시고 우리가 현시대를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며 너무 늦기 전에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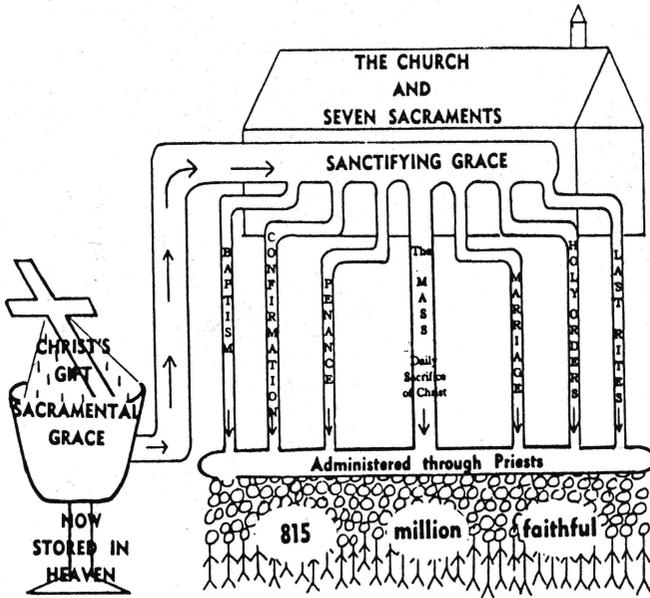
## No Forgiveness 'Directly From God,' Pope Says

By DON A. SCHANCHE, *Times Staff Writer*

VATICAN CITY—Rebutting a belief widely shared by Protestants and a growing number of Roman Catholics, Pope John Paul II on Tuesday dismissed the “wide, spread idea that one can obtain forgiveness directly from God” and exhorted Catholics to confess more often to their priests.

Officially called an “apostolic exhortation,” the 138-page papal document focuses on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and penance, informally known as confession—an obligation of all Catholics that has increasingly fallen into disuse, especially in the industrial countries. Changing life styles, particularly

The apostolic exhortation, which was defined by Cardinal Carlo Maria Martini of Milan at a press briefing as an “authoritative papal statement,” was the outgrowth of a worldwide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called by the Pope last year to study the sacrament of reconciliation and penance. It was issued in



Salvation by grace as taught by papal Rome and available only as dispensed by the priests of the Vatic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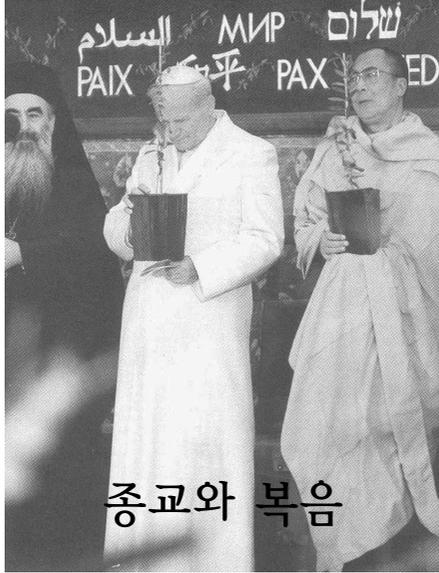
사제와 일곱 성사를 통해 구원을 보장하는 천주교

(LA 타임즈, 1984년 12월 12일)



## 2

## 종교와 복음



이 글은 벨기에에서 20여 년간 사역하다가 지금은 캐나다로 사역지를 옮기신 구영재 선교사님의 글이다. 바른 것을 알리려는 열정으로 고난의 길을 택하시고 전 삶을 바치신 그분을 기억하며 이 글을 통해 세상의 행로와 마귀의 계략이 만천하에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 구 선교사님의 '종교와 복음' 강연 비디오를 보기 원하는 독자는 출판사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로 접속하기 바란다.

##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죄 아래 있는 인류는 그 죄를 짊어지고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다. 인간은 종교라는 것을 만들어 하나님을 찾으면서 여전히 흑암 중에서 방황하고 있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세상 끝에”(히 9:26),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히 1:2). 죄들의 사면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지식을 주는 복음이 “높은 곳으로부터 우리를 찾아왔다”(눅 1:77-78).

세상 끝에 주어진 복음은 인류의 마지막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 기독교는 처음과 끝이 분명한 복된 소식이다.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내가 처음부터 끝을 밝히 알리고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들을 옛적부터 밝히 알리며 이르기를, 나의 계획이 설 것이며 내가 나의 기뻐하는 모든 일을 이루리라, 하였노라.”(사 46:10)고 말씀하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시작과 끝이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계 22:13)고 말씀하신다.

복음은 글자 그대로 ‘복된 소식’이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 중의 하나인 누가복음 2장은 인류의 영원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의 탄생을 고하는 천군 천사들의 대합창 소리로 짝 차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을 위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가져오노라”(눅 2:10). 천사가 “큰 슬픔의 종교를 너희에게 전하노라.”고 하지 않았음에 유의하라.

성경이 말하는 복음(Gospel)은 종교가 아니다. 이 복음을 종교의 하나로 전락시키려는 마귀의 꾀계는 늘 하나님의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가라지로 심졌다. 예수님 당시에도 예외는 아니었다. 구원자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헤롯에게 고했으면서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가

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종교적 무리를 향하여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나에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생명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는도다.”(요 5:39-40)라고 책망하셨다.

1984년, 로마 교황의 벨기에 방문을 앞두고 로마 카톨릭교회의 단넬스 추기경이 발표한 3·18 선언 즉 “카톨릭교도는 기독교인보다 더 종교적이다.”라는 말은 우리에게 적어도 두 가지 진실을 제공한다. 첫째, 로마 카톨릭교는 기독교와는 다른 별개의 종교라는 것이고 둘째, 그들 중 어떤 이는 대단히 종교적이란 사실이다.

칼 마르크스가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는 기독교를 포함한 모든 종교를 염두에 두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가 종교와 상관없는 ‘복음’임을 알지 못했다.

천주교 신자였던 어느 자매가 기독교인 신랑을 만나 그 집안을 존중해 스스로 기독교로 ‘개종’ 했다는 기사를 보았다.

우리가 은연중에 사용하는 ‘개종’(改宗)이란 단어의 의미를 독자는 잘 음미하길 바란다(장로교에서 감리교로 개종했다는 말은 쓰지 않는다).

구약 성경은 종교(Religion)란 단어를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다. 예수님도 종교라는 단어를 단 한 번도 사용하신 적이 없다.

전 성경을 통해 단 5번 언급된 이 단어는 종교성에 빠진 유대인들을 바로잡기 위해 바울과 야고보가 사용한 것이 전부이다(행 26:5; 갈 1:13-14; 약 1:26-27). 반면에 신구약 성경에 120여 번 줄기차게 언급된 복음 즉 복된 소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책으로 연결하고 있다.

기독교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종교적’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 … 이것이 그리스도 예

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살전 5:16, 18)고 말씀한다. 종교는 인간을 규율의 틀에 묶어 질식 상태에까지 끌고 가서 결국 복종하게 만든다. 우상의 본질은 인간을 종교라는 감옥에 처넣고 어떤 질문도 허락하지 않으며 인간의 자유 정신을 말살하여 자유로이 생각할 권리마저 박탈하는 것이다.

그러나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 8:32)는 약속을 받은 기독교인들은 “주의 영께서 계신 곳, 거기에는 해방의 자유가 있느니라.”(고후 3:17)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된다. 종교가 복음을 대신하게 되는 이유는 사람들이 종교라는 안전한 피난처를 추구하면서 신앙의 모든 결단과 모험으로부터 도망가려 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종교의 틀을 만들고 하나님을 자기 취향에 맞추기 위해 열심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종교 안에 머무실 수 없는 분이다. 종교는 전통과 제도와 의무를 분담해 줄 사제를 만들어 낸다. 사실 종교가 만든 규율 및 법전은 결단성 없는 자에게는 복음보다 더 편리한 것이다. 인간이 만든 종교는 인간의 마음에 들 때까지 변형된다. 이것이 바로 인본주의라는 우상의 고향이다.

기독교인은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일점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마 5:18)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위에 터를 닦고 우리의 ‘대제사장 이신 예수님’(히 3:1)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길을 발견한 천국 백성이다. 이렇듯 광야의 소리, 물가의 복음은 종교와 상관없이 갈릴리에서 시작되었고, 예루살렘의 종교는 염소들의 놀이터가 되어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늘 돌질로 맞이했다. 그래서 주님께서서는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내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마 23:37)라고 탄식하셨다.

오늘날 예루살렘시에는 여러 종교의 건본이 자리잡고 있다. 그러나 예수님의 복음은 처음부터 종교와 무관하였다. 종교의 상징이던 예루살렘시 바깥에 위치한 베들레헴의 구유통에서 온 세상의 구원자가 탄생하였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의 수천 가운데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에서 치리자가 될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그의 나아감은 옛적부터 있었고 영원부터 있었느니라”(미 5:2). 복음은 예루살렘시 바깥에 있던 갈릴리에서 힘을 얻었다.



멕시코의 천주교 부활절 행사  
(담배를 피우면서 십자가를 옮기고 있음)

인간의 전통에 중독된 자들의 질문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자주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선생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마 9:14) 등과 같이 온통 종교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었으나 예수님께서서는 종교적 규율에 매이지 아니하셨고 이것은 그 당시 예루살렘 성의 스캔들이 되었다. 그분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종교적 환경을 떠나 산꼭대기 변화산 상에서 변형된 자신을 보여 주셨다.

종교 안에서는 ‘나’ 를 부르짖지만 복음 안에서는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되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요 3:30)는 주님 제일주의가 생긴다. 종교는 전통 자랑, 건물 자랑, 이성의 자랑으로 꽉 차 있으나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배설물(dung) 즉 똥으로 보았던 것이다. 종교적 출세주의자들은 직분을 직위와 감투로 착각하고 섬기려는 자세보다 군림하려 들며 그래서 이들 때문에 신앙의 자유가 교회 안에서 방해를 받는다. 직분을 받은 자들이 종교 안에 머물 때에는 저 옛날 하나님의 대언자들이 소명을 받았을 때 토해 낸 고백 즉 “화로다 나여 ... 나를 떠나소서.”라는 두렵고 떨리는 고백을 이해할 수 없다.

종교인은 자기 편리한 대로 말씀을 써먹지만 기독교인은 말씀(그리스도)에 의해 쓰인다. 예수님께서서는 세리도 용납하셨고 간음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창녀도 그 자리에서 용서해 주셨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가지고 종교 놀이에 빠졌던 지도자들을 꾸짖는 곳에서는 가장 큰 분노의 음성을 발하셨다. 그분께서는 종교인들의 죄악에 대해 3년 반이나 물고 늘어지셨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 너희 눈먼 안내자들아, 너희 뱀들아, 독사들의 세대야, 회칠한 돌무덤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마 23장)

그들은 육백 가지가 넘는 율법을 지키는 데는 대단한 노력을 경주했으나 “서로 사랑하라.”는 그리스도의 한 가지 명령은 지키지 못했다(요 13:34-35). 실로 그분은 종교의 사슬에 매인 인류를 구하기 위해 말씀으로 임하셨다. 온갖 종교적 외양을 갖추고 있던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만이 유일하게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고 과신했다. 그 결과 그들의 교만은 시기 증오로 변해 결국 하나님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세상이 조롱하는 예수, 그분은 종교(예루살렘) 바깥으로 끌려나가 처형되었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종교는 부패한 인간 안에서 시작된 것이며 복음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중에서 나온 ‘복된 소식’이다. 이 길은 ‘좁은 길’(마 7:13-14)이기에 우리 주님은 “적은 양 무리야, 두려워하지 말라.”(눅 12:32)고 위로하셨다. 외형적인 것은 점점 크고 비대해지며 목청도 높아지는데 속은 비어가고 진리의 증언은 자취를 감춘다. 프란시스 웨이퍼 박사가 이 사실을 간결하게 들려준다.

외양의 크기로 성공을 과시하고, 내가 헌신자라면 많은 사람과 돈이 필연적으로 나를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것은 진리가 아니다. 하나님은 외양의 크기와 영적 세력이 병행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의 입장을 가르치신다(이것은 특히 예수님의 교훈에 나타난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자리를 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할 것을 가르치신다. 우리 인간은 큰 사업과 큰 자리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강조는 육에 속한 일이다. 넓고 중생하지 못한 이기적이며 자아 중심적인 나에게 귀를 기울이는 행위는 육에 속한 오락과 습관 이상으로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 낙타와 하루살이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21세기 초엽의 최대 사건으로 기록될 배교(살후 2:1-8)는 기독교와 천주교를 구분하지 못하여 사탄이 수천 년 동안 동원한 수법 즉 ‘대화로 풀어 보자’는 등의 감언이설에 속아 천주교와의 일치 운동에 빠진 자들 곧 하나님보다 더 선한 체하며 감상적이고 낭만적(?)인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이 양들을 이끌고 이리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절정을 이룰 것이다. 저들의 미소 뒤에 숨겨진 칼을 보지 못하는 소경 지도자들은 프란시스 웨이퍼 박사의 표현대로 ‘적응 및 타협의 명수’로 둔갑하였고<sup>1)</sup> 한국 기독교 100년사에 한국 교회는 이제 로마화 즉 바빌론화 되는 재난에 처해 있다. 오늘날의 기독교를 한 장의 그림으로 그린다면 붕괴되는 아파트와 같을 것이다. 아파트에 가만히 들어온 침입자(사탄의 에큐메니즘 세력)에 의해 아파트가 붕괴되기 일보 직전인데도 아파트에 들어가 살고 있는 주민들(교단 및 개 교회)은 자기 집 하나 꾸미기에 여념이 없어 건물이 붕괴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결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타 종교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검은색을 검다고 힘주어 말할 때 사탄의 세력은 그를 부정적인 자, 종교적으로 완고한 자로 몰아붙인다. 그래서 때로는 검은색을 희다고 거짓 주장을 하는 자 즉 진정한 의미의 완고한 자가 논쟁에서 승리하기도 한다. 인간이란 언제나 잘못을 범할 수 있는 연약한 존재이며 그래서 비열한 인신 공격은 결코 크리스천다운 행위로 간주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나는 결코 이런 인신공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기만해 오고 있는 조직 즉 ‘한 몸에 두 혼’(종교와 정치)을 공유

1) F. A. SCHAEFFER, The Great Evangelical Disaster, Crossway, 1984.

한 바빌론 조직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sup>2)</sup> 부디 이에 대해 오해가 없기를 바란다.

천주교가 주장하는 그 엄청난 가공할 교리들과 그 끔찍한 과거의 역사 앞에 어찌해서 다 병어리가 되었는가? 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탄의 최대 보루인 천주교에 무지하여 하루살이 이단들은 걸러 내고 오히려 이단들의 어미요, 초대형 이단(Super Cult)이라 할 수 있는 천주교(낙타)는 삼키는 일치 운동에 깊숙이 빠져 있다. 또 마땅히 입을 열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저런 핑계로 입을 다물고 있어 요한복음 12장 42-43절 말씀 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두머리 치리자들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분을 믿되 바리새인들로 인해 자기들이 회당에서 쫓겨날까 염려하여 그분을 시인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가 진리임을 뼈저리게 느끼게 된다.

지도자가 죽어도 흠어지지 않는 이단을 경계하라.

하나님의 교회를 철저히 파괴하는 자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요직을 잡고 있는 이러한 에큐메니컬 지도자들이다.

지금이야말로 먼저 교회 안을 급히 돌아볼 때가 아닌가? 바울이 배설물로 여긴 것들을 가지고 단순하고도 순전한 복음을 요란하고 복잡하게 만드는 자들 즉 스스로 지혜롭다 주장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이제는 점검해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한없이 멀리 떠났고 그래서 이제는 바빌론 종교를 답습하여 저들의 행위와 같은 행위를 하다 보니 심지어 저들이 변한 것으로 착각하기까지 이르렀다. 변한 것은 천주교가 아니라 기독교이다. 천주교와 일치 운동에 빠져 있는 자칭 기독교 지도자들과

---

2) Paolo PRODI, *The Papal Prince—One Body and Two Souls: The Papal Monarchy in Early Modern Europe*, Cambridge, 1988.

자신들을 기독교인으로 믿고 있는 천주교도들은 성경과 로마 카톨릭주의 이 둘을 다 오해하고 있다.

우리가 복음주의자로 자처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빛과 어두움을, 생명과 사망을 가르 것처럼 옛 대언자들의 기개를 가지고 삼과 거짓을 가르지 않는다면 양들은 계속해서 여전히 방황하게 될 것이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바티칸의 베드로 광장에 바빌론 종교의 심벌인 오벨리스크를 세우고 그 꼭대기에 세계 통치를 꿈꾸었던 카이사르(시이저 혹은 가이사)의 재를 담은 청동 지구본을 올려놓았다.<sup>3)</sup> 그리스도의 지상 대리자로 자처하며 지상의 세속 통치권을 주장해 온 로마 제국의 후예들은 그 재 위에 십자가를 세우고 세속 권세를 추구해 왔다.

천주교 사제 플레처(Philip Fletcher)는 그가 편집하는 천주교 기관지에서 “만일 교황이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아니라면 그는 적그리스도임에 틀림이 없다.”고 말했다.<sup>4)</sup> 일명 이그나티우스 사제로 불렸던 스펜서(Hon. G.A.Spencer) 경은 “로마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면 그것은 마귀의 걸작품이다. 그 중간이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sup>5)</sup> 로이드 존스(1899-1981) 박사는 그의 시리즈 설교 ‘마귀의 간계’ (엡 6:11)에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마귀의 최대 걸작품이다. ... 로마 카톨릭교회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로마 교회 즉 천주교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떻게 변할 수 있겠는가? 만약 로마 교회가 변한다면 스스로 과거에 잘못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 로마 교회는 같은 모습으로 남는다. ...만

---

3) R. KRAUTHEIMER, Rome, Profile of a City, 312-1308, Princeton, 1980,14)

4) The Vicar of Christ or Antichrist, (Guild of Our Lady of Ransom, Feb.1914)

5) B. PORCELLI, The Antichrist: His Portrait and History, Peters, 1943.

일 앞으로 이 땅에 하나의 거대한 세계 교회가 존재한다면 그것은 로마 카톨릭교회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교회가 나머지 다른 교회들을 흡수하고 무지 속에 있는 그들을 삼켜 버렸기 때문이다!<sup>6)</sup>

또한 그는 1969년 영국복음주의협회에서 선포한 메시지에서 고린도전서 14장 8절 말씀 즉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라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경고의 나팔을 울려야 할 것을 크게 강조하였다.<sup>7)</sup> 그는 또한 한 기고문에서 이렇게 말했다.

단순히 ‘예수께 나오세요.’ 혹은 ‘그리스도께 나오세요.’라고 설교하는 기독교는 로마 종교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 ... 복음주의 전도 캠페인을 벌리는 사람들이 “당신은 천주교인이세요? 그렇다면 당신의 교회로 돌아가세요.”라고 한다면 그것은 곧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경고해야 한다.<sup>8)</sup>

옥스퍼드 대학 출신의 고전 어학자이자 영국 왕실의 헨리 8세의 주치의로서 완미한 로마 카톨릭교도로 말년에는 로마 교회 사제로 서품을 받았던 리나크리(Thomas Linacre, 1460-1524)는 생전 처음으로 신약 성경을 읽다가 견디지 못해 그 책을 던지면서 “이 성경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다.”라고 부르짖었다.<sup>9)</sup>

그는 첫눈에 로마 교회의 조직이 신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회의 개념과는 상반됨을 발견하였던 것이다.

6) D. M. Lloyd-Jones, Roman Catholicism, Evangelical Press, London(이 책자는 본서의 앞부분에 실린 로이드 존스의 바로 그 글이다).

7) D. M. Lloyd-Jones, The Trumpet Yields an Uncertain Sound, British Evangelical Council Audio-tape, 1969.

8) Bible League Quarterly, Oct/Dec, 1981.

9) A. HISLOP, Two Babylons, Loizeaux Brothers, New Jersey, 1959/1916.

스페인의 로올라 심리 연구소 창설자로서 세계 천주교 심리학자 및 정신병 학자 모임의 국제 위원회 부회장이라는 요직을 겸하고 있던 전 예수회 사제 신학자 파드로사는 기독교 신학자들과 신학 논쟁 준비를 하기 위해 성경을 상고하다가 다시 태어난 후 로마 교회를 떠났다. 이것은 1950년대 전 유럽에 파문을 일으킨 사건이었다.

후에 복음주의 교회의 목사가 된 그는 여러 책을 집필하였고 기독교와 천주교의 차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다. “기독교는 기독교이다. 천주교는 완전히 다른 것이다.”<sup>10)</sup>

지난 20년 동안 36판이나 인쇄된 장기 베스트셀러 「이단들의 왕국」을 집필한 마틴 박사는 이단에 대한 정의를 잘 내렸고<sup>11)</sup> 맥도웰도 이단들의 특성 11가지를 언급하였다.<sup>12)</sup>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이 내린 이단들의 특성에 완전하게 부합될 뿐 아니라 그 특성을 다 가지고 있는 ‘큰 바빌론의 신비’ 즉 천주교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이로써 우리는 그들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처럼 눈이 가려져 있음을 보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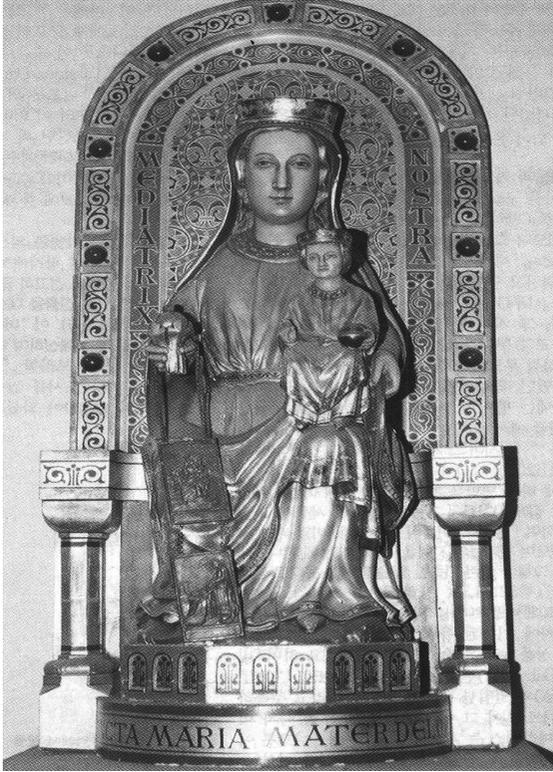
이 바빌론의 신비는 전 성경의 구석구석에 밝혀져 있다.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계 17:18)에 대하여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석가들도 별수 없이 저들의 교부들을 통해 전해 내려온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어거스틴(Augustine, 354-430)은 “두 번째 바빌론 로마, 서방의 바빌론 로마”로 언급하였고 제롬(Jerome, 342-420)은 “로마는 요한계시록에서 바빌론으로 불리고 있다.”고 기록하였다.

10) Luis PADROSA, Pourquoi ai-je quitte le catholicism?, Tell, 1973.

11) W. MARTIN, The Kingdom of Cults, Bethany House Publishers, 1985.

12) J. McDOWELL & D. STEWART, Understanding the Cults, Here's Life Publisher, 1982.



바빌론의 대신비 : 어미와 아기

사가이자 변증학자였던 이탈리아의 바로니우스(C. Baronius, 1538-1607) 추기경은 “요한계시록 안에서 로마가 바빌론이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음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라고 말하였다. 프랑스 예수회 학자 벨라르민(R. Bellarmine, 1542-1621) 추기경은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로마를 바빌론이라 부르고 있다.”고 썼으며 루이 14세로 하여금 낭뜨 칙령을 반복하게 함으로 프랑스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자유를 박탈한 장본인인 보쉬에(J.

B. Bossuet, 1629-1704) 주교는 “그 특징이 너무나도 분명하여 바빌론에서 로마를 찾아내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 모든 교부들은 요한계시록의 바빌론이 로마라고 가르쳤다.”고 시인하였다.

뉴먼(John H. Newman, 1801-1890) 추기경은 1840년 로마 교회에 가담하기 전에 로마를 ‘심판으로 멸망하는 도시’로 묘사하였는데 이는 분명히 ‘공포로 가득한 요한계시록의 궁벽한 땅 즉 매우 후미지고 으스스한 땅’을 지적하는 것이었다. 또 예수회 학자 헌터(S. J. Hunter)는 그의 저서 「교의 신학 개요」에서 “요한계시록에서 바빌론이 로마를 의미한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하였다.<sup>13)</sup>

루터의 개혁 이후 개혁자들은 한결같이 ‘로마의 특성은 바빌론으로, 교황의 권위는 적그리스도’로 평가하였다.<sup>14)</sup> 1970년, 로마 교황 바오로 6세의 추천문까지 실어 출판한 영문판 천주교 성경의 요한계시록 14-18장에 나오는 바빌론에 대한 관주 설명은 모두 그것이 로마임을 밝히고 있다.<sup>15)</sup>

## 이단은 이단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 교황권 조직이 거짓된 믿음에서 출발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

13) “Outlines of Dogmatic Theology”(Vol.1)

14) Andre CHASTEL, The Sack of Rome, 1527, Princeton, 1983.

15) Catholic Study Bible-New American Bible, Oxford, 1990/The New American Bible, Thomas Nelson, 1990+1971/La Bible de Jerusalem, Cerf, Paris, 1973.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다. (살후 2:9-12)

로마 교황권 제도가 무엇인가에 대하여는 과거 14년 동안 예수회 사제로 지낸 뢰스브뢰흐(G.p. Von Hönsbröch)가 지은 「사회 문명에 미친 교황권 제도」라는 책의 서문에 가장 잘 묘사되어 있다.

교황권 제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탁월한 제도로서 가장 치명적이며 동시에 가장 성공적인 기만의 조직이다. 교황권 제도 - 저 거대한 기만의 조직 ... 교황권 지상주의는 모든 점에서 가장 완벽하게 조직된 제도로서 오만하고 냉담하며 넓으면서도 은밀히 짜여지고 고도로 마무리된 조직이다.

또 그는 자기의 다른 저서 「교황권 지상주의 그 독과 해독제」에서 이렇게 말한다.

교황권 지상주의는 종교의 탈을 쓴 세속 정치 조직으로서 그 자체는 범세계적인 세속 권력을 추구해 오고 있다. ... 교황권은 그리스도로부터 그 존속 근거를 찾고 있는 신성한 기관이라 자칭하지만 ... 그 제도를 옹호하는 자들이 벨어내고 있는 무수한 허위로 둘러싸여 있다.<sup>16)</sup>

영국의 사회 철학자이며 정치 경제학자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 1723-1790)는 그의 명저 「국부론」에서 역사상 전무후무한 이 교황청 세력을 두고 다음과 같이 소신을 피력하였다.

로마 교회는 국가 정부의 권위와 안전에 반할 뿐만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이성 및 복지에 대적하는, 인류가 산출한 가장 가공할 만한 조직체이다.

---

16) 'Ultramontanism' '산을 넘어가는 주의' - 북서유럽의 산을 넘어가면 이탈리아가 있고 따라서 이것은 최후의 충성을 로마 교황청에 바친다는 뜻이다. 이 사상의 발전에는 재조직된 예수회의 공헌이 막대하였다.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역사가자로 5권의 방대한 교황사를 펴낸 후 영국 교회 감독을 지낸 크레이톤(Mandell Creighton, 1843-1901)은 이보다 더 단호하다.

로마 교회는 전혀 교회가 아니다. 조직에 있어서 하나의 국가다. 그것도 가장 사악한 형태의 국가 즉 전제 독재국이다.

로마 교회의 성직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가 통치와 지배에 관한 것이고 전 신약 성경을 꿰뚫고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겸허와 봉사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것이다. 빌라도 앞에서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요 18:36)라고 선언하신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아니라 늘 로마 제국주의의 영광인 세상 권력만을 추구해 온 로마 교회를 향하여 영국의 정치 철학자 홉스(Thomas Hobbes, 1588-1679)는 “그것은 패망한 로마 제국의 유령으로 그 무덤 위에 왕관을 쓴 채로 앉아 있다.”라고 기록하였다.<sup>17)</sup>

이 바빌론 세력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이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인가? 저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클리포드(W.K.Clifford, 1845-1879) 교수는 자녀를 가진 부모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충언하였다.

우리를 압도하는 한 가지 역사적인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이니 당신의 자녀들을 천주교 사제로부터 피신시키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당신의 자녀들을 인류의 적으로 만들 것이다.

‘설교의 왕자’로 알려졌던 스펀전(C.H. Spurgeon, 1834-1892) 목사는 “일어나 이 도시 여리고를 건축하는 사람은 **주** 앞에서 저주를 받으리라.”(수 6:26)는 말씀을 인용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

---

17) E. PARIS, Vatican Against Europe, Wickliffe, London, 1988-1961.

고 있다.

여리고성을 건축한 자가 저주를 받았으니 우리 가운데 로마 카톨릭교회를 재건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큰 저주가 있으리라. 우리 선조 시대에 로마 카톨릭교회의 거대한 벽이 믿음의 힘으로, 노력의 인내로 그리고 복음의 나팔로 무너졌다. 그런데 지금 그 옛 터전 위에 것처럼 저주받은 제도를 재건하려는 자들이 있다.

우리는 로마 교회의 죄악에 동조하는 자들에게 사려 깊게 그러나 담대하게 경고해야만 한다.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가르치고 선조 때에 로마 교회가 저지른 죄악의 진상을 이야기해 주어야만 한다. 사제들이 올빼미 처럼 햇빛을 싫어하므로 우리는 보다 철저히 온 땅에 빛을 전파해야만 한다.

로마 교회에 독과 해가 되는 성경을 반포하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건전한 복음 책자들을 해외에 보내고 있는가? 한때 루터는 “마귀는 거위 깃털 펜을 싫어한다.”고 말한 적이 있는데 사실 그는 성령님의 축복으로 쓰여진 책들이 마귀의 왕국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에 대해 확실하고도 충분한 체험적인 이유를 가지고 있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리들이 교훈을 받지 못한 양 무리를 약탈하고 있다. 올바른 가르침만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중흥무진하고 있는 이단들로부터 양 떼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다.<sup>18)</sup>

그는 또 미래의 사역자들에게 행한 강의에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선포하였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이리들이 교훈을 받지 못한 양 무리를 약탈하고 있다. 올바른 가르침만이 우리들 속에 들어와 중흥무진하고 있는 이단들로부터 양 떼들을 보호하는 최선의 길이다.<sup>19)</sup>

---

18) C.H. SPURGEON, *The Accursed City*, VPIF, Wales.

19) C.H. SPURGEON, *Lectures To My Students (V. Sermons— their Matter)*, Zondervan, 1954.

## 변하지 않으려고 변하고 있다

로마 종교의 본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 본질이 언젠가는 선한 것으로 바뀔 수 있으리라 믿는 것은 큰 바빌론의 신비를 오해한 것이다. 기독교가 종교가 아니라 복된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복음을 ‘종교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모든 악의 근원이 된다. 기독교회의 종교화 현상을 쳐다보는 것보다 슬픈 것이 어디 또 있을 것인가? 우상의 소굴처럼 둔갑한 오늘날의 교회 내의 장식과 강대상을 보라. 이것은 타락의 극치이자 최대의 위기이다. 이런 것들로 인해 사탄의 종교가 자기와 닮은 기독교에 침투한다. 그들은 기독교 용어를 구사하며 대화를 이끌어 간다.

오늘날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루터의 칭의론을 강의한다. 우리는 ‘파괴하기 위해 침투하라’ (Join to destroy)는 로마 교회의 정신을 경계해야 한다. 오늘날 로마 교회의 사제들은 ‘거듭난다(다시 태어난다)’, ‘구원 경험’, ‘구원의 역사’, ‘그리스도와의 만남’, ‘성령 세례’, ‘그리스도를 영접함’, ‘은사 경험’, ‘케리그마’ 등의 표현을 상투적으로 늘어놓는다. 사제나 수녀들은 복음적인 집회에 참석도 하며 기독교의 찬송가도 배운다. 그들은 지역 기독교회의 모임, YMCA 등의 모임에도 나타나며 기독교회의 메시지와 신학 용어도 자유자재로 인용한다. ‘구원 중심’이니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 저들의 간교한 표현에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속아 넘어간다. 그들은 기독교회의 목사들과의 만남에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능란하게 이야기한다.<sup>20)</sup>

그러면서도 천주교도들에게는 이와 상반된 거짓 교리를 가르친

---

20) A.O. DUNLAP, The Cursillo Movement - Rome's Successful Plan to Fool Sleepy Protestan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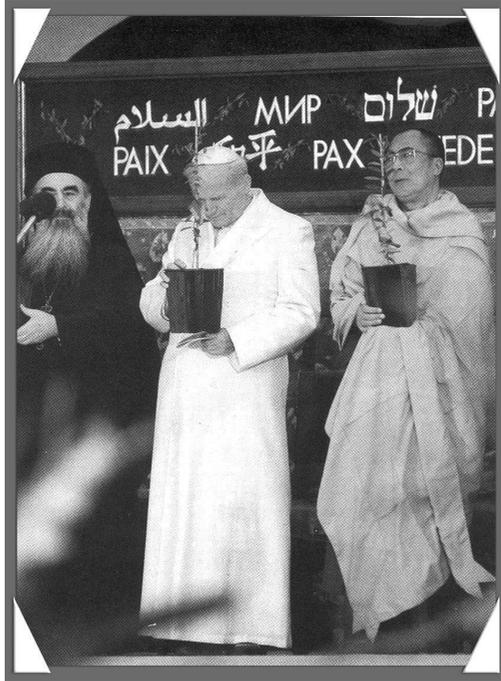
다. ‘반대하기 위해 인정하라’ (Agree to disagree. We agree to differ.)는 로마 교회의 생리를 모르면 저들이 변하고 있다고 속단하게 된다. 그래서 기독교의 어느 신학자처럼 “과거 카톨릭과 현대의 카톨릭은 구별해서 생각해야 하며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 카톨릭의 신학 사상은 개방적으로 변했다.”라는 어리석은 소리를 하게 된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변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교황 요한 23세, 바오로 6세의 선언이 밝힌 것같이 저들의 교리와 기본 가르침에는 조금도 변한 것이 없다. 무엇이 바뀌었던 말인가? 교황, 사제가 없어졌는가? 연옥의 불이 꺼졌는가? 마리아, 성자, 전통 숭배가 해제되는가? 저들이 변하고 있는 것은 변하지 아니한 것을 숨기기 위해 부지런히 옷을 갈아입는 것일 뿐이다.

성경은 사탄의 세력이 “빛의 천사로 변형하고”(고후 11:13-15),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마 24:4-28)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

## 새 시대(뉴에이지) 운동과 새 세계 질서

유럽 공동체의 대부 노릇을 해 온 로마 교황청은 유럽 통일뿐만 아니라 세계 통치를 목적으로 하는 새 시대 운동과 새 세계 질서를 추진해 왔는데 이 둘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 세력의 조종하에 있는 동일한 것이다. ‘질서’ (Order)로 알려진 이 단어는 세계에서 가장 완전한 피라미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로마 교회의 교단들을 부를 때 사용되는 명령 용어이다.<sup>21)</sup> 독일 튀빙겐 대학 로마 카톨릭 신학부의 실천 신학 교수인 글라이나헤르(N. Gleinacher)는 마가복음 10장 24-44절을 인용하여 독일의 시사 주간지 「슈



교황과 세계 종교 일치 운동

피젤」에 기고한 글에서 “로마 카톨릭교회는 우리 인간 사회에 남아 있는 최후의 전체주의 조직 중 하나이다.”라고 언급하였다.<sup>22)</sup>

비오 12세 이후의 모든 교황들이 새 시대 운동(NAM)과 새 세계 질서(NWO)를 지지해 왔으며,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소집했던 요한 23세의 측근으로 로마 교황청 신학교 교수였던 전 예수회 사

21) 천주교에는 교단이 없는 것으로 알지만 거기에도 많은 교단이 있다. 그런데 그것들의 이름이 한결같이 'Order' 를 담고 있다. Dominican Order(도미니칸 파), Jesuit Order(예수회), Franciscan Order(프란시스 파) 등등.

22) Der Spiegel(50/1991)

제 마틴(M. Martin) 박사는 최근에 자신의 저서에서 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그것을 지지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고 머지않아 로마 교황의 주도하에 세계 단일 정부 시대가 올 것임을 예고하였다.<sup>23)</sup>

예수회 창설자 로올라는 생전에 로마와 파리를 자신의 꿈을 펴기 위한 거룩한 도시로 여겼는데<sup>24)</sup> 오늘날 정확하게 이 두 도시는 로올라의 추종자들에 의해 ‘새로운 로마 제국’ 건설의 활동 무대가 되고 있으며 한 몸이 두 얼굴을 가졌던 야누스의 후예들은 이제 이 도시들을 본거지로 삼아 종교와 정치 권력을 가지고 새 시대 운동, 새 세계 질서를 조종하고 있다.

“외적인 종교로서의 로마 카톨릭교와 법률과 권력의 국가로서의 로마 카톨릭교회는 복음과 아무런 관계도 없으며 아니 근본적으로 복음과 모순이 된다.”는 하르낙(Adolf Harnack, 1851-1930) 교수의 충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성경을 상고해야 한다.<sup>25)</sup> 그리고 나서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 18:4)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열심히 묻고 상고해야 한다.

---

23) M. MARTIN, *The Keys of this Blood*, Simon & Schuster, 1990.

24) A. GOUGH, *Paris and Rome, The Gallican Church and the Ultramontane Campaign, 1848-1853*, Oxford, 1986.

25) 아돌프 하르낙, *기독교의 본질*, 삼성문화문고67, 1985.



# 3



## 천주교 사제에게 보내는 편지

이 글은 1914년에 미국의 Loizeaux Brothers가 발간한 「Letters to a Roman Catholic Priest」를 번역한 것이다. 아이언사이드는 유명한 복음 전도자로 많은 영혼을 구원한 인물이다. 이 소책자는 저자가 A.M.S.라는 약칭의 한 천주교 사제에게 보낸 편지들을 모은 것이다. 저자는 기차 여행을 하다가 이 사제를 만났으며 교양이 넘치는 사제와의 대화로 인해 큰 기쁨을 느꼈다. 헤어질 때에 저자는 사제에게 성경의 일부분을 다룬 소책자를 주었고 이에 대해 사제는 후에 편지를 보냈다. 이 두 사람의 서신 교환은 저자의 병으로 인해 중단되었고 그로 인해 저자는 오랫동안 사제에게 글을 쓰지 못했다. 처음에 보낸 편지들은 지금 남아 있지 않고 나중에 쓴 것들은 두 장씩 썼기에 남아 있다. 여기 이 글들은 남아 있는 그 편지들이며 저자는 이 글들이 천주교를 바로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소책자로 펴냈다.

## 첫 번째 편지

A.M.S. 사제님께.

친애하는 사제님! 저는 아직까지도 사제계서 보내 주신 마지막 편지 두 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토록 오랫동안 그것들을 무시할 생각은 조금도 없었으나 사정상 긴 여행을 떠날 수밖에 없었으며 그 뒤에는 아파서 병석에 누워 몇 달을 지냈고 그러다 보니 그만 제때에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사제와 다시 편지 교환을 하기에 앞서 저는 천주교의 가르침과 역사에 대해 좀 더 알기를 원했으며 그래서 천주교와 기독교의 양쪽을 다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책들을 읽었습니다. 뉴먼(Newman)<sup>1)</sup>과 치니키(Chiniquy)<sup>2)</sup>의 책; 기본(Gibbon)과 리틀데일(Littledale)의 책; 「카톨릭 백과사전」과 프로테스탄트 역사가들의 글; 교부들의 글; 니케아 공회<sup>3)</sup> 전·후와 중세와 현대 신학자들의 서적들 등등.

---

1) 19세기에 큰 영향력을 행사한 카톨릭 성직자, 저술가. 처음에는 영국 성공회의 옥스퍼드 운동을 이끌었으며 나중에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부제 추기경이 되었다. 그는 교회의 교리적 권위에 대한 강조를 되살리고 영국 성공회를 5세기까지의 '카톨릭', 즉 보편 교회의 형태로 개혁하라고 촉구하였다. 1845년 무렵에는 로마 카톨릭교회가 초대 교회에서 발전한 진정한 현대 교회라고 보게 되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뉴먼의 변절로 인해 많은 성공회 사제들이 천주교로 넘어갔다.

2) 로마 카톨릭주의의 본질을 가장 잘 밝혀 준 「카톨릭교회에서의 50년」같은 명저를 남긴 전직 카톨릭 사제.

3) 주후 325년 고대 도시 니케아(지금의 터키 이즈니크)에서 열린 그리스도교 교회의 첫 번째 에큐메니컬 공의회.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소집하여 개회식을 주재하였으며 논의에도 참석하였다. 그는 아리우스주의(알렉산드리아의 아리우스가 처음 내세운 이단 교리로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라 피조된 인간'임을 강조했음) 때문에 동방 교회에서 발생한 문제들을 이 공의회에서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랐다. 교황 실베스테르 1세는 이 공의회에 참석하지 않는 대신 특사를 보냈다. 이 공의회는 아리우스를 정죄하고, 일부 참석자들의 망설임이 있었으나 성자가 성부와 완전히 동등함을 나타내기 위해 성서에 없는 단어 '호모우시우스'('본질상 같은'의 뜻)를 니케아 신조에 포함시켰다. 콘스탄티누스 황제는 아리우스를 추방하였는데, 이는 교회와 국가의 공고한 유대와 교회의 일에 세속의 후원이 중요함을 뚜렷이 보여 주기 위해서였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사실 저는 어떤 편견 없이 또한 사실을 잘못 표현하는 일이 없  
 이 쟁점이 되는 문제들을 사제와 함께 살펴보기 위해 이 책들을  
 읽었습니다. 그 결과 저는 천주교 신자들에 대해 예전보다 한결  
 더 진지하게 친밀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점은 용서하  
 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번의 연구를 통해서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천주교 교리에 대해 큰 거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천주교가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 — 혹은 기독교론 — 를 깊이 인  
 정하는 데 대해서는 저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도 하나님  
 의 오른쪽으로 높이서서 통치자와 구원자가 되신 그리스도를  
 유일한 머리로 두는 한 몸 즉 보편적인 교회(The Catholic  
 Church)의 한 지체입니다.<sup>4)</sup> 이 땅에서 그분을 믿는 참 신자는 모  
 두 다 성령님의 침례를 통해 그 한 몸의 지체가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예전보다 더 확실하게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  
 은 다름이 아니라 로마의 주교 즉 교황과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크게 왜곡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제계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처럼 거짓 복음  
 을 선포하는 자들에게 심각한 저주의 말씀을 선언하였습니다. 자

---

4) 카톨릭은 '보편적'이란 뜻의 그리스어 'katholikos'에서 나온 말로서 2세기 이래로 교회의 저  
 술가들이 지 교회 혹은 이단 종파와 분파로부터 그리스도교 교회 전체를 구별하기 위해 사용한  
 용어이다. 처음 3세기 동안 그리스도교의 발전 과정에서 이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었는가를 잘  
 설명하고 있는 책이 예루살렘의 성 키릴루스가 쓴 「교리 문답 *Catecheses*」(348)인데, 이 책에  
 서 그는 교회를 카톨릭이라고 부른 이유를 교회의 세계적 보편성, 교리의 완전성, 모든 다양한  
 사람들의 필요에 부합되는 교회의 적응성, 도덕적이고 영적인 완전성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  
 다. 로마 카톨릭교회로부터 이단 혹은 분파주의자로 정죄받은 여러 집단들이 자신들의 보편성  
 을 결코 양보하지 않았기 때문에 카톨릭이라는 용어는 혼란스럽게 사용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  
 로마 카톨릭교회뿐 아니라 동방 정교회, 성공회 그리고 대부분의 주요 개신교 교회들과 여러 국  
 교회 및 다른 교파들도 자신들을 거룩한 카톨릭교회의 일원이라고 주장한다(브리태니커 백과사  
 전). 저자는 여기서 원래 의미의 '카톨릭'이란 단어를 들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편적 교  
 회의 일원이라고 말하는 것임.

기 자신을 가리켜 그리스도의 대리자요 지상에서 교회의 머리라고 주장하는 로마의 교황이 이처럼 두려운 저주 아래 놓이게 된다면 얼마나 두려운 일이겠습니까?(갈 1:6-9)

마지막에 보낸 편지에서 ‘복된 성사 안에 담긴 실제적 임재야말로 모든 문제의 핵심’ 이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sup>5)</sup> 그러면서 사제께서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천주교인들이 믿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복된 성찬 속에 실제로 임재합니까, 아니면 그것이 단지 상징에 불과합니까?” 이제 저는 아주 확신 있게 다음과 같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와 고대의 모든 기록은 사제의 주장 즉 미사에서 빵 조각이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변한다는 화체설을 반박합니다.”

저는 사제께서 그런 말을 할 정도로 무모하신 분이라는 점에 사실 크게 놀랐습니다. 분명히 사제께서는 교부들과 역사에 대해 잘 아십니다. 특히 교부들의 글에 대해서는 저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음을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사제께서는 니케아 공회 이전 시대의 교부들이 어디에서도 지금 사제께서 주장하시는 그런 교리를 가르친 적이 없음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천주교가 수세기 동안 그런 교리를 주장해 왔다는 것은 세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동방 교회 즉 그리스 정교회가 그런 교리를 주장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루터도 이와 비슷한 것을 가르쳤으며 헨리 8세 이후의 일부 영국 국교회 사람들 가운

---

5) 지금 저자는 천주교의 화체설에 대해 언급하고 있음. 화체설은 성변화(聖變化)라고도 하며 천주교에서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그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는 교리. 12세기에 처음으로 화체설이라고 불린 이 교리는 로마 카톨릭교회를 비롯한 몇몇 그리스도교 교회에서 신봉하고 있으며, 비록 빵과 포도주의 외형은 변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살과 피가 현존한다는 그리스도의 현존에 대한 문자적 진리를 수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13~15세기에 스킨라 신학자들이 잘 정의한 이 화체설은 트렌트 공의회(1545~1563) 문헌에 수록되었다. 신비스러운 변화에 의해 일어나는 실제 임재에 대한 신앙은 스킨라적인 형식을 갖추기 이전에 이와 유사한 용어로 그것을 설명했던 교부 신학자들에게서도 발견된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데 어떤 이들도 천주교의 교리에 동조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런 가르침들은 다 비교적 최근에 나온 가르침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고대의 가르침은 최근의 이러한 가르침들이 전적으로 잘못되었음을 보여 줍니다. 제가 지금 ‘고대의 가르침’이라고 한 것은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사람의 글을 가리키지 않고 ‘처음부터 있었던 것’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영감을 받아 기록한 권위 있는 기록들을 가리킵니다.

이제 저는 성경에 기록된 ‘주의 만찬’에 관한 말씀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을 사제 앞에 다 제시하면서 사제께서 가능한 한 니케아 공회 이후의 신학자들이 세워 놓은 이론은 잊어버리고 단지 이 말씀들만을 제대로 평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려 합니다. 이 과정에서 사제께서는 또한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들이 천주교의 해석을 지지하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26-2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 왕국에서 너희와 함께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의 기사도 비슷하지만 이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저는 마가복음 14장 22-25절을 인용하려 합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왕국에서 새롭게 마시는 그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 하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의 기사는 두 절(눅 22:19-20) 밖에 되지 않습니다(17-18절은 주의 만찬이 제정되기 전에 있었던 유월절의 잔을 가리킵니다).

또 그분께서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시고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준 내 몸이니라.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너희를 위해 흘린 나의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라.

사제께서 아시다시피 성도 요한은 기독교의 어떤 명절을 제정 한 것에 대해 언급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관해서는 나중의 편지에서 언급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3-29절에서 주의 만찬에 관해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내가 또한 너희에게 전해 준 것은 내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배반당하신 바로 그 밤에 빵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에 그것을 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긴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시고 저녁 식사 뒤에 또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잔을 집으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 너희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하셨느니라.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 빵과 이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가 있으리라.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이는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가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며 자기가 받을 정죄를 먹고 마시기 때문이라.

이제 주의 만찬에서 ‘잔’에 관하여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마태복음을 보면 주님께서 “이것은 많은 사

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새 상속 언약의 피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sup>6)</sup> 여기서 주님께서는 문자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십니까? 이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 있도록 저는 한 가지를 더 묻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미 피를 흘리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흘리지 않으셨습니까? 그분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나의 피니라”(This is my blood which is shed). 아직 피를 흘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미 흘렸다고 하시므로 “이것은 나의 피다.”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에 반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흘렸다.”(which is shed)는 표현을 사용하시면서 사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 주님께서는 잔에 담긴 액체를 가리켜 “포도나무 열매에서 난 것”(the fruit of the vine)이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이 액체가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변했다면 사실 우스운 일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논제는 마가복음 기사에도 마찬가지로 적용할 수 있으며 누가복음은 이를 더 강하게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상속 언약이니”(This cup is the new testament in my blood).

사제께서는 과연 그때에 주님께서 “이 잔 속에 새 언약이 담겨 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 잔을 마시면 새 언약을 마시는 것이다.”라고 문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일 주님께서 이 ‘잔’에 대해

---

6) 여기서 새 상속 언약은 New Testament이며 이는 곧 주님께서 구약(Old testament)을 폐하고 이제 신약을 여심을 뜻한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런 중요한 구절에서 천주교 사본을 따라 ‘새’ 즉 ‘New’ 라는 가장 중요한 단어를 삭제했다. 다시 말해 천주교에서는 제사장 체제 하에서 아직도 구약이 준수되고 있는 것이다.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음이 분명하다면 주님께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고 하실 때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말씀하셨다고 주장할 논리적 근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셨을 때 이미 그분의 몸이 우리를 위해 주어져서 희생되고 찢기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님께서 빵에 대해서도 상징적으로 말씀하셨음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를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기에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한 것입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떼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나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그 한 빵에 참여하는 자들이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한 빵이란 그리스도의 실제적인 몸을 상징적으로 가리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비한 몸인 교회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초기의 사도 교회들이 다 이런 것을 주장했습니다. 성경에서 예 언된 배도가 일어나기 전까지는 이런 것에 다른 어떤 의미도 첨가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혼과 신성이 하나 속에서 실제로 임재한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리와 그로 인해 일반 성도들에게는 잔을 주지 않는 것은 스스로 실재적 임재의 교리 즉 화체설의 교리를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입니다.<sup>7)</sup>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의 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니라.”고 말씀하신 것은 빵에 대한 것이며 그것은 죽음에 넘겨진 그분의 몸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

7) 천주교회에서는 미사에서 성도들에게 잔을 주지 않고 빵만 준다.

그러므로 잔은 그리스도의 몸과는 구별된 그분의 피를 가리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아직 몸과 피의 분리가 실제로 일어나기 전이었습니다. 기록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의 만찬을 대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경고하면서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고전 11:28). 여기서도 이것은 여전히 빵이며 잔입니다. 빵과 잔에 어떠한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빵과 잔 속에서 십자가에 달린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이제 저는 매우 심각하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제께서는 천주교의 미사를 행하면서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 구절 속에서 드러난 주의 만찬의 아름다움과 단순함을 조금이라도 발견하신 적이 있습니까? 교회에는 평신도와는 구별된 성직자 계급 혹은 거창한 고위 계급 같은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단지 크리스천 형제들이 함께 모여 기독교의 단순한 명절을 지키는 것뿐이며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을 경건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면서 그 빵을 먹으며 그 잔을 마십니다. 미사에 참여하는 평신도에게 잔을 주지 않는 천주교 교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

## 두 번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저는 이제 천주교에서 소위 평신도라 불리는 신자들에게 주의 만찬의 잔을 주지 않는 것에 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사제께서 하신 말씀이 오히려 역작용을 일으킴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으며 또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와 고대 자료들이 사제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점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사제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주의 만찬의 요소인 빵과 잔 중에서 신도가 빵에만 참여할 것을 명한 법령은 1415년 6월 15일에 통과되었는데 그 당시에는 천주교회에 교황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령을 통과시킨 공회가 1415년 5월 29일에 교황 요한 23세를 폐위시켰으며 그 뒤 1417년 11월 11일에 가서야 그의 후임자가 결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전에는 평신도라도 빵과 잔에 다 참여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변증가들은 교황이 주의 만찬의 두 요소 즉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빵과 그분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에 참여하라고 한 그리스도의 명령을 바꿀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제들은 원래의 주님의 명령대로 따르게 하고 평신도들은 한 요소에만 즉 빵에만 참여하게 하도록 명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또한 콘스탄스 공회의 이 법령은 그전에 내려온 천주교의 다른 법령들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위대한 교황 레오’ (Pope Leo the Great)는 마니 교도들을 비난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합당하지 못한 입으로 그리스도의 몸 — 물론 그는 지금 주의 만찬의 빵을 말합니다 — 을 받으면서도 우리를 구

속한 피 — 천주교 해석에 따르면 그는 지금 잔을 가리킵니다 — 를 받는 것은 전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형제들에게 이같이 신성을 모독하는 부류의 인간들이 있음을 알리며 이들을 사제들의 권위로 성도들의 교제권에서 추방할 것을 알리노라”(그의 41번 설교에서 인용함).

한편 교황 겔라시오 1세는 교황 레오보다 더 강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마조리쿠스와 요한 감독에게 보낸 편지에서 — 이것은 후에 천주교 법령집에 수록되었음 —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성스런 몸만을 먹고 거룩한 피의 잔에 참여하기를 거부함을 확인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어떤 미신적인 이유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진술했으므로 이런 자들은 성찬을 다 받든지 아니면 성찬에서 완전히 제외되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하도록 하라. 동일한 성찬물 즉 그 신비를 나누는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이다”(Corp. Jur. Can. Decre. 3:11-12).

교황 우르반 2세가 주후 1095년에 주재한 클레몽트 공회의 선언도 이와 동일합니다. “어쩔 수 없는 이유나 조심하려는 이유 이 두 가지 이유를 제외하고는 몸과 피를 동시에 받지 않는 자는 누구라도 제단에서 성찬에 참여할 수 없노라.”

그다음 세기인 주후 1118년에 교황 파스칼 2세는 클루니의 수도원장인 폰티우스에게 글을 쓰면서 성 키프리안(St. Cyprian)의 가르침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키프리안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주의 몸과 피를 받을 때 주님께서 정하신 전통을 지키도록 하라. 사람의 제도를 추종하면서 주인이신 그리스도께서 정하고 명하신 데서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라. 주님께서 빵을 따로 주시고 포도즙을 따로 주셨으므로 이 전통을 가르치고 성 교회에서 항상 지키도록 명령하라. 빵을 삼킬 수 없는 유아나 병자를 제외하고는 이를 지키도록 하라.’”

이런 중요한 문제를 다루면서 회의를 주재하는 교황도 없었던 종교 회의에서 네 교황의 가르침을 고의적으로 뒤집을 수 있었다면 천주교는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기들의 실행과 교리가 보편적이며(Catholic) 사도적(Apostolic)이라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선언할 수 있습니까? 사실상 천주교는 이 점에서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완전히 폐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카톨릭 신자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의 살을 먹고 자신의 피를 마시는 것’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천주교인들은 이 말씀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자연스럽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회가 사제가 아니면 잔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므로 이것은 일반 성도들에게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는 많은 논란을 일으킨 요한복음 6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연 이 구절이 주의 만찬을 가리킬까요, 아니면 이것이 단지 커다란 영적 진리를 보여 줄까요? 저는 후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sup>8)</sup> 만일 사제께서 제가 이 문제에 대해 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하신다면 저도 사제께서 이 구절에 대한 천주교의 가르침을 채택하는 일에 있어서 역시 사적인 판단을 내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물론 사제께서는 아니라고 하실 것입니다). 저는 천주교회의 해석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성과 성경의 가르침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저는 이 구절에 대한 천주교회

---

8) 천주교의 영향을 받아 성찬식을 행하는 개신교에서도 이 구절을 인용하여 주의 만찬을 설명하지만 이것은 어불성설이다.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정하신 것이며 요한복음 6장의 기적은 그보다 훨씬 이전의 일이다. 따라서 주의 만찬을 행할 때 이 구절을 인용하여 마치 빵과 피가 신자들에게 무슨 효력을 주는 것처럼 만드는 것은 천주교의 잘못된 전통을 답습하는 것이므로 속히 폐지해야 할 것이다.

의 해석보다 성경의 가르침이 더 큰 권위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질적 이익을 구하던 유대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어 없어지는 양식을 위해 수고하지 말고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도록 항상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수고하라. 그것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주리니 이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봉인하셨기 때문이라, 하시니라”(요 6:27).

사실 그들은 그분께 광야에서 자기 조상들에게 만나를 베푸는 모세에 대해 언급하면서 그분께서 자기들에게도 문자 그대로 빵을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결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35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내가 곧 그 생명의 빵이니라”(47-48절).

이 말을 듣고 불신에 찬 유대인들은 서로 다투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찌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할 수 있느냐?”(52절) 이에 예수님께서서는 이같이 대답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사람의 아들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그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안에 생명이 없느니라. 누구든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나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53-54절).

이것이야말로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에 관한 우리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이 구절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무엇을 행하려 했는지를 보여 줍니다. 그들은 곧 주님의 몸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심으로써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주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지도 않았고 또 그분의 몸도 죽음으로 상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구

원자로 믿고 그분께 나온 자들은 주님께서 주시고자 한 새 생명을 이미 소유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은 영적인 것이며 57절은 이것이 문자적 의미가 아님을 확실히 보여 줍니다.

이 구절에서 주님께서 “살아 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고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같이 나를 먹는 자도 그렇게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십니까? 그것은 곧 믿음으로 사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까? “내가 그분 즉 아버지를 신뢰하리라.”는 말은 그분께서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늘 하시던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이것이 곧 우리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님의 피를 마시는 것이 아닙니까? 이 점을 명확하게 보여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63절에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며 육은 아무것도 유익하게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들, 그것들은 영이요 생명이니라.”

더 이상 무슨 증거가 필요합니까? 저는 여기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 아직 제정하지도 않은 주의 만찬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그 당시에 그분을 믿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던 영적 진리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천주교의 어떤 공회도 이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폐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 단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행동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던 주님의 제자들은 이미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제자들은 아직 단 한 번도 주의 만찬에 참여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온 세상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 주신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으면 그는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시며

이로써 영원한 생명 즉 천주교 미사를 통해서는 결코 소유할 수 없는 생명을 소유한다고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천주교 신자 중에 미사에 참여함으로써 자기가 영원한 생명 — 결코 위조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생명 — 을 소유할 것이라고 믿을 사람이 과연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요? 이 미사라는 성례전도 천주교의 다른 모든 성례전과 마찬가지로 그 참여자에게 마지막 결말에 대해 확실하게 가르쳐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거기 참여해도 결국 장래에 대한 확신이 없으므로 불안에 떨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47절)라는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과는 달리 확신을 갖게 됩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이제 저는 실례가 되지 않게 정곡을 찌르는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사제께서는 자신을 믿는 모든 자에게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큰 선물 즉 영생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사제께서는 스스로 영생을 소유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사제께서는 천주교를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봉사했으며 천주교의 명령에 복종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사제께서는 죄 문제에 대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리십니까? 사제께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 드린 희생 제사로 인해 모든 죄가 용서되었고 제거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사제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었습니까?

오 친애하는 사제님, 만일 사제께서 이런 간단한 질문들에 대해 긍정적인 대답을 내리지 못한다면 이제 잠시 멈추어 서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토록 충성을 다한 천

주교회는 어찌하여 사도적 기독교를 기뻐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확신과 평화를 주지 못하는가?”

혹시 사제께서는 지금까지 길을 헤매지 않았습니까? 사제께서 책임지실 일은 아니지만 실로 사제께서 속한 천주교회는 어떤 면에서 볼 때 사도 시대의 단순한 복음을 떠나서 심각한 배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갔습니다. 다음 편지에서 저는 천주교 성찬식에서 미사의 성격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진실한 벗 드림

## 세 번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전에 약속드린 대로 오늘 저는 매우 비성경적인 가르침으로 보이는 천주교의 소위 미사라는 희생 제사 제도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이해하기로 사제께서는 미사를 살아 있는 성도들과 죽은 성도들의 죄로 인해 계속해서 드리는 피 없는 제사라 주장하셨습니다. 또한 사제께서는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적어도 2세기까지는 기름 부음받은 사제들에 의해 문자 그대로 제단 위에서 이 희생 제사가 드러졌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다음과 같이 질문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역사의 초기에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그토록 중요한 교리 즉 교회의 전 체계의 중심이 되는 이 교리에 대해 오류를 범했겠습니까? 혹은 전혀 오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마지막 사도가 죽은 지 채 5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진리 속에 포함될 수 없으므로 폐기해야 할 그런 황당한 제도를 만드실까요? 그렇다면 ‘지옥의 문들이 그것(교회)을 이기지 못하리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진리의 영이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등과 같은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 같은 질문을 받고 사실 저는 조금도 당황해 하지 않았습나다. 그리스도의 약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며 진리의 영께서는 자신의 백성 한가운데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다 해도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며 지옥의 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이것은 다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시기에 — 마지막 사도가 죽은 지 채 50년도 지나지 않은 시기가 아니라 — 이미 오류들이 홍수처럼 밀려들어 왔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보낸 감동적인 편지의 증거를 살펴보십시오. 갈라디아 사람들 사이에 퍼진 이단 교리는 은혜의 언약에다 율법의 행위를 더한 것이었으며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은 “1세기의 이단 교리가 오늘날에는 정통 교리가 되고 말았다.”고 잘 말했습니다.

오늘날 이와 같은 공동체 즉 갈라디아 사람들의 오류가 없는 교회 공동체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이런 오류가 하나도 없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천주교회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천주교회에는 다른 어떤 교회와는 달리 갈라디아 사람들의 이 오류가 세력을 장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갈라디아서의 핵심인 이신칭의 교리 즉 사람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교리를 마치 폭풍과 같이 몰아치던 종교 개혁 시대에 새로이 발견된 교리처럼 간주했으며 이것을 막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또한 골로새 지방에 몰래 기어들어 온 오류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에는 진리로부터 떠난 세 가지 중대한 오류가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사도들이 생존해 있던 시대에 발생한 것입니다. 지금 저는 다음의 세 가지 중대한 오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계시를 대치하려는 이성주의 철학적 경향이며, 둘째는 은혜의 진리를 대체하려는 율법 중시 경향이며, 셋째는 가장 심각한 것으로서 머리되시는 주님을 붙들지 않고 스스로 몸을 학대하고 천사들을 숭배하는 무서운 의식주의의 제도화 경향입니다. 저는 이제 사제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직하게 대답해 주

시기 바랍니다. 사제께서는 이 같은 오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현대 천주교 안에 그대로 존재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뿐만 아니라 디모테전후서도 오류들이 급속히 퍼져 나감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기 전에 즉 그의 생전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고 말한 것은 참으로 특기할 만한 일입니다. 다른 곳의 기독교회들이 아직 믿음을 굳게 잡고 있을 때에 가장 오래된 모임이 형성된 아시아의 교회들이 진리를 떠나 배도의 길을 걸었다는 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보낸 편지 역시 이 점을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회의 초창기부터 많은 교회들이 주의 만찬의 상과 단순한 기념 명절을 버리고 실제로 제단을 만들어 거기서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닙니다. 또한 초기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이 성경적이라거나 사도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며 물론 참된 의미에서 보편적(Catholic)이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세기 무렵에 제단이 주의 만찬의 상을 대체하고 미사라는 희생 제사가 주의 만찬을 대체했음을 보여 주는 신빙성 있는 증거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 글을 남긴 사람들 즉 니케아 공회 이전의 교부들 가운데 어느 누구도 이 같은 인상을 우리에게 남겨 주지 않았습니다.

순교자 저스틴은 그 누구보다도 주의 날에 크리스천들이 모이는 집회에 관해 상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제께서도 아시다시피 그는 초대 크리스천들이 구원자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기 위해 빵과 포도즙에 참여하였음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트라얀 황제에게 보낸 플리니의 저 유명한 편지도 그가 살던 때에 여전히 그와 똑같은 일이 있었음을 사실로 보여 줄 뿐입니다. 플

리니는 자기의 상관인 트라얀 황제에게 크리스천들에게서는 어떤 악도 찾아볼 수 없으며 신성모독이나 범죄 행위를 발견할 수 없음을 확신시키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정탐꾼들은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 찬송을 드리며 빵과 포도즙으로 구성된 간단한 식사를 나누는 것을 목격했을 뿐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이 같은 단순함에서 이탈하여 그리스도의 단번 희생 제사와 그분께서 단번에 끝내신 십자가 사역에 관한 진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주 후대의 일입니다. 이때에는 사도 바울이 엄중하게 예언한 대로 사나운 이리들이 그리스도의 양들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말들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자들을 위탁한 곳은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 뿐입니다. 그는 결코 교회의 권위나 공회의 결정이나 교황의 무오류성 같은 것에도 그들을 위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서 산 자나 죽은 자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희생 제사를 지금도 드릴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9장과 10장을 주의 깊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곳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린 희생 제사 즉 결코 반복될 수 없는 희생 제사와 율법 아래서 이스라엘이 드린 모든 희생 제사 즉 그림자에 불과한 희생 제사가 생생하게 대조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율법 아래서 드린 예물과 희생물은 양심에 관한 한 결코 경배하는 자를 완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희생 제사들은 단지 계속해서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천주교의 미사 즉 천주교 사제가 드리는 희생 제사

의 경우에도 그대로 해당됩니다. 천주교에서 매일같이 성체 성사 즉 미사를 드린다고 하더라도 죄는 결코 제거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에 의거하여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해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히 9:11-12)

그리스도께서 이처럼 단 한 번 드리신 희생 제사의 효과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 신자들의 양심은 죽은 행실로부터 깨끗하게 되고 이로써 살아 계신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제께서는 이것이 천주교에서 매일 드리는 미사라는 희생 제사와 전혀 상충되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제께서는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사라는 천주교 희생 제사의 희생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입니다. 즉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갈보리에서 흘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미사의 희생물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 시간 제단 위에서 희생 제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제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미사라는 희생 제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위대하심과 우리가 그분께 의존할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만 드리는 희생 제사입니다. 우리가 성인들을 기억하면서 미사를 드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는 결코 그들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천주교의 미사라는 희생 제사는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능을 부여받기 위해 성직 임명을 받은 제사장들의 사역에 의해 제단에서 드러 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희생 제사를 드리는 주 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들의 손에 의해 자기 자신을 아버지께 드립니다. 즉 빵과 포도즙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바꾸시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부인하는 것이 바로 이 같은 주장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14절을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 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또한 히브리서 9장 24-26절은 이 점에 대해 아주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참된 것의 모형들이 손으로 만든 거룩한 처소들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려고 하늘 그 자체로 들어가셨기 때문이라. 그분께서는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으로 들어가는 것같이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 그래야 했다면 그분께서 세상의 창건 이래로 반드시 자주 고난당하셨어야 할 것이라. 그러나 그분께서는 자신을 희생물로 드려 죄를 제거하시려고 이제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여기서 “자주 자신을 드리려고 하늘로 들어가지 아니하셨나니”라는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결코 반복될 수 없는, 단 한 번 드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영원한 효력을 이보다 더 강력하게 증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분의 희생은 너무나도 완전하고 완벽하며 하나님께 만족을 드린 것이며 그래서 복되고 완전히 끝이 난 일이므로 그분께서는 결코 되풀이해서 그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일을

다 끝마쳤다는 표시로 이제 앉아 계십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서 죄들을 완전히 깨끗하게 하셨으므로 하늘의 전능하신 아버지의 왕좌 오른쪽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제 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며 천주교의 제단이나 그 밖의 다른 제단에서 또다시 자기 몸을 희생물로 드리기를 위해 땅으로 내려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그러한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의 죄와 불법은 단 한 번 자기를 드린 그리스도의 사역에 기초해서 영원히 용서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이제 이것들의 사면이 있는 곳에서는 죄로 인한 헌물이 더 이상 필요가 없느니라.”(히 10:18)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또한 사제께서 주장하는 천주교의 미사 즉 피 없는 희생 제사는 아무 소용이 없음을 보여 줍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면(赦免)이 없느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히 9:22)

이 세상의 어떤 논증으로도 이 같은 사실의 정당성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린 희생 제사는 죄를 정결하게 하는 데 충분하며 따라서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이것이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천주교는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과연 저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사제께서는 어느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사제께서 보내 주신 편지를 다시 살펴보면 저는 사제께서 ‘주의 만찬’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을 부인함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즉 저는 천주교의 성체 성사가 주의 만찬에서 유래된 것이 아니라고 믿는 듯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제께서는 주의 만찬이라는 말이 단지 초대 기독교인들이 교제하러 모여서 함께 나누는 공동 식사 즉 애찬을 가리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제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주의 만찬을 오용한 것을 꾸짖은 다음에 어떻게 주의 만찬을 지켜야 할지 사도 바울이 상세히 가르쳤다는 점을 잊으신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는 우리가 주의 상에서 축복의 잔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서진 빵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한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주의 상에서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주의 만찬입니다. 만일 사제께서 이 두 가지가 다 ‘미사라고 하는 천주교의 희생 제사’와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저는 사제께서 옳다고 인정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천주교의 미사와 혼동해서는 결코 안 되며 주의 상을 천주교의 제단과 혼동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는 기독교를 의미하고 다른 하나는 유대주의와 이교도주의가 묘하게 혼합된 혼합물 즉 사도들의 가르침을 왜곡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로 천주교의 미사에 대해서는 성경이 단 한 줄도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이 중대한 주제에 대해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만일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이 아무 설득력이 없다면 제가 너무나 명백히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알려 드리려고 해도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사제께서는 천주교 신학자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보려 하며 저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만 배우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 편지를 맺으면서 간청하건대 부디 이 일들이 정말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드리신 희생 제사가 얼마나 완전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 달라고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사제의 영혼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제의 영혼

은 그리스도께서 단 한 번 이루신 십자가의 그 영원한 사역에 무  
엇인가를 덧붙일 필요가 전혀 없음을 확신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

## 네 번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이번에 저는 중재(Mediatorship)와 변호(Advocacy)라는 주제에 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경의 명백한 말씀보다 더 단순하고 명료한 것은 없습니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딤후 2:5)

흔히 크리소스톰의 글로 알려져 있는 ‘아담과 하와에 대한 설교’에 들어 있는 진술 즉 “성경 말씀과 배치가 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결코 보편적(Catholic)이라 할 수 없다.”는 말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중보라는 주제에 관한 천주교의 교리가 참으로 보편적인 것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천주교의 어거스틴은 “성경을 믿는 것이 모든 것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중재자는 오직 한 분뿐이며 다른 중재자는 없음을 보여 줍니다. 따라서 만일 천주교가 이와 상반된 것을 가르친다면 천주교는 결코 거룩하고도 보편적인 사도적 교회(the Holy Catholic Apostolic Church)가 될 수 없습니다.

사제께서는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 즉 은혜와 구속을 줄 수 있는 유일한 중재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변호자와 중재자를 많이 소유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성 요셉이 매우 거룩할 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공로를 가지고 있으

므로 특별 중재자라 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비록 사제께서 한 중재와 여러 명의 중재자를 구분하셨지만 우리는 성경에서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실 저는 사제께서 천주교의 교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조화시키려고 하는 의도와 목적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러나 사제께서 말씀하는 것 즉 유일한 중재자와 여러 명의 중재자를 구분하는 것이 과연 천주교 신학자들의 교리 서적이나 경건 서적에서조차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는지 사실 저는 의심이 갑니다.

천주교가 우리 주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진정한 의미에서 은혜와 구속의 중재자의 위치로 승격시킨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밑에서 제가 인용한 구절들, 즉 교황들이 허락한 기도 모음집인 「라콜타」(*Raccolta*) — 리틀튼이 편집하여 권위를 부여함 — 에서 인용한 기도문들을 통해 천주교가 마리아의 위치를 극도로 높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할 사람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제께서도 진정한 의미에서 이 인용문들의 권위를 인정하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왕이시요, 긍휼의 어머니시요, 우리의 생명이요, 감미로우시요, 기쁨이요, 희망이신 이에게 찬양을 드릴지어다! 이브의 추방당한 자손들인 우리는 당신께 울부짖나이다. 우리는 이 눈물 골짜기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통곡하고 탄식하나이다. 오 우리의 변호자시여, 당신의 긍휼의 눈을 우리에게 돌리소서. 이제 우리가 추방되었사오니 당신의 태의 축복의 열매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 주소서. 오, 긍휼이 많은 분이시여, 오 사랑이시여, 오 사랑의 동정녀 마리아시여!

오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거룩한 이시여, 우리가 당신의 보호 아래로 날아가나이다. 곤궁한 중에 부르짖는 우리의 간청을 멸시하지 마시고 모든 위험에서 우리를 항상 구하여 주옵소서. 오 영광스러운 축복의 동정녀시여, 하나님의 어머니시여, 동정심 많은 마리아여 … 천사들과 사람들의 존경을 다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여 … 선으로 가득하신 분이시여, 항상 우리의 고통

을 가엽게 여기는 분이시여, 부디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 주옵소서 ... 거룩한 교회가 당신 안에서 피난처를 얻게 하시오며 교회를 보호하시고 교회의 기쁜 피난처와 망대와 힘이 되어 주옵소서. ... 곤궁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시험에 빠질 때에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며 핍박을 받을 때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위험에 처할 때에 우리의 도움이 되소서. ...

친애하는 마리아의 마음이지시여, 우리의 구원이 되소서.

내 어머니시여, 나를 내 손안에 버려 두지 마소서. 그렇게 하시면 나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나이다. 내가 오직 당신께만 매달리게 하옵소서. 나의 희망이시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지옥에서 구원하소서.

리구오리가 지은 「마리아의 영광」(*Glories of Mary*)에서 발췌한 다음의 인용문을 읽고 난 뒤에 마리아가 은혜와 구속의 중재자로 간주됨을 의심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우리의 피난처요, 도움이요, 은신처이시다. 고대 유대에는 여러 개의 도피 도시가 있어서 범죄자들이 보호받기 위해 이곳으로 도피하면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같은 도피 도시가 많지 않으며 유일한 도피 도시는 오직 하나 즉 마리아뿐이다.

마리아의 탄생 이전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대언자의 입을 통해 자신이 죄인들을 징계하려 하는데 일어나서 막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하셨다. 사실 그분께서는 그런 사람을 발견하실 수 없었다. 왜냐하면 이 직무는 우리의 복받은 마리아 즉 하나님의 진노가 풀릴 때까지 그분의 팔을 붙들고 있는 그 분이 맡아야 할 것으로 내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마리아에게 의지하고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더 빨리 응답을 받고 또 보호를 받는 길이다.

하나님께 구하지만 얻지 못하는 것이 많이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마리아께 구하면 얻을 수 있다.

동정녀 마리아의 명령에는 만물이 복종하며 심지어 하나님도 복종한다.

모든 사람의 구원은 마리아의 사랑과 보호를 받느냐에 달려 있다. 마리아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구원받으며 그렇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마리아가 말만 하면 그의 아들이 모든 것을 집행한다.

천주교회는 죽어 가는 자들의 입 속에 “은혜의 어머니요, 공홀의 어머니인 마리아여, 원수에게서 나를 보호하시고 죽음의 시간에 나를 받아 주소서.”라는 구절을 넣어 주지 않는가? 이 말은 첫 번째 순교자 스테반이 죽으면서 한 말 즉 “주 예수여 내 영을 받아 주소서!”와 얼마나 다른가?

이제 다시 「라콜타」(*Raccolta*)로 되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발견되는 다음의 말보다 더 비성경적인 것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거룩한 동정녀시오, 하늘의 여왕이시오, 온 우주의 여주인이시오, 영원한 아버지의 딸이시며 그분께서 사랑하는 아들의 어머니시며 성령님의 가장 사랑받는 아내인 마리아시여, 나는 당신을 인정하며 당신을 존경하나이다! 위대하신 당신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내가 겸손히 기도하나이다. 하늘로 들어가실 때에 그토록 풍성하게 소유하셨던 하나님의 공홀로서 부디 내게 은혜와 동정심을 베푸소서. 또 나를 취하사 당신의 가장 안전하고 신실한 보호막 아래 놓으시고 당신의 행복하고도 총애받는 신하 중 하나로 삼으소서. 또한 나의 이름을 당신의 처녀 가슴에 새기시옵소서.

사제께서는 중보의 본보기로 성 요셉을 들고 계십니다. 그러나 요셉의 중보를 갈망하는 이들이 요셉에게 바친 「라콜타」(*Raccolta*) 기도들 가운데 들어 있는 다음의 두 가지 인용문을 볼 때 과연 제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의 보호자이신 자애로운 요셉이시여, 우리와 성 교회를 보호하소서.

동정녀들의 수호자요 거룩한 아버지이신 요셉이시여, 죄 없으심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동정녀 중의 동정녀이신 마리아를 신실하게 보호하신 분이시여, 내가 사랑스런 두 보증인 곧 예수와 마리아를 의지하여 당신께 기도하며 간청하나이다. 나를 모든 불결함에서 보존하사 흠 없는 생각과 순결한 마음과 정결한 몸으로 항상 정조를 지키며 예수와 마리아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는 천주교의 여러 가지 경건 기도서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완전히 제쳐놓고 그분보다 다가가기 쉽다고 생각되는 수많은 천사들과 성자들을 중재자로 내세운 예를 수도 없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후 200년에 알렉산드리아의 성 클레멘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일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천사들도 오직 그분께만 간청할 수 있다.”

진리를 위해 용감하게 투쟁한 아타나시우스는 주후 370년에 삼위일체 이단 교리인 아리우스주의<sup>9)</sup>를 비난하면서 아리우스주의 추종자들이 그리스도의 신격의 영광을 격하시키면서도 “주님은 가난한 자들의 피난처이시다.”라는 성경 구절의 주님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한 것을 조롱했습니다. 아타나시우스는 연이어

---

9) 4세기 초 알렉산드리아의 사제 아리우스가 처음 주장한 그리스도교 이단설. 그는 그리스도가 실제로는 신이 아니라 창조물이라고 주장했다. 그가 내세운 기본 전제는 스스로 존재하며 불변하는 하나님의 유일성이었다. 반면에 성자(聖子)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고, 신성은 유일한 것이어서 나누거나 전가할 수 없으며 신성은 불변하기 때문에 복음서에 나타난 성장하고 변화하는 성자는 하나님일 수 없다고 했다. 그러므로 성자는 무(無)로부터 존재하게 되었으며 ‘시작’이 있는 창조물로 본다. 게다가 성자는 유한하고 존재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성부에 관한 직접적인 지식을 가질 수 없다고 했다. 아리우스주의를 반박한 사람들 특히 주교 아타나시우스에 따르면 아리우스의 가르침은 성자를 반신(半神)으로 전락시켰고 성자에 대한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기에 다신론(polytheism)을 다시 도입했으며, 참된 하나님인 성자만이 사람과 하나님을 화해시킬 수 있다는 그리스도교의 구속 개념을 훼손했다고 논박했다. 이 논쟁은 니케아 공의회(325)가 아리우스와 그의 교리를 정죄하고, 정통 그리스도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신조를 공포함으로써 끝이 나는 것처럼 보였다. 오늘날에도 일부 유니테리언파가 그리스도를 단순한 인간으로 전락시키기를 원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그가 성부와 동일한 신성을 갖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아리우스주의자들이다. ‘여호와의 증인’의 그리스도론도 아리우스주의의 한 형태이다. 그들은 아리우스를 ‘여호와의 증인’ 운동을 시작한 찰스 타즈 러셀의 선구자로 여긴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들 즉 아리우스주의 추종자들이 그런 구절이 주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말한다면 — 아마도 그것은 사실일 것이다 — 성도들이 결코 창조된 존재를 가리켜 자기들의 도움이요 피난처라고 부를 생각은 조금도 없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아타나시우스는 진리의 성경 말씀과 일치합니다.

성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습니다.

내 어린 자녀들아, 내가 이것들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요일 2:1-2)

더 이상 우리가 무슨 다른 증거를 필요로 하겠습니까?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써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왕좌의 의와 자신의 거룩한 성품을 유지하실 수 있게 되었으며 그래서 “자신도 의로우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의롭게 하시는 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더 이상 다른 중재자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접근할 수 있으며 그분의 마음은 땅에 계실 때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인자하시며 그분의 사랑은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언제나 풍성히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육체를 따른 자신의 어머니나 우리를 대신해서 자신에게 간청할 어떤 성자나 천사 같은 중간 매개체를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자신의 백성이 자신에게 중보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 그리스도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는 대제사

장으로 동정심이 많은 분으로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로서 우리의 유일한 중재자가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분은 다른 어떤 중재자도 필요로 하지 않는 유일하신 중재자이십니다.

지난번 편지에서 사제께서는 신자들이 땅에서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하늘의 성도들이 변호해 주는 것으로 여기시면서 이렇게 적으셨습니다. “당신은 정말 사랑이 넘치는 그 편지의 끝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동료 신자인 당신을 위해 제가 끊임없이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이에 나도 당신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당신의 기도와 중보를 통해 하나님 곁에서 나의 증보자와 나의 중재자가 되어 주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저는 당신을 위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과 성령님께만 적용될 수 있는 중재자와 변호자의 신분으로 그리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단지 한 크리스천으로서 사제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할 뿐이며 결코 저의 개인적인 공로나 거룩함에 근거해서 응답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뿐입니다. 사제께서 읽으라고 보내 주신 설교 말씀 즉 사제께서 성 요셉의 증보에 관해 설교하시면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것과 저의 생각이 분명히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어머니에게 친근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조차도 경계할 만큼 조심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보여 줍니다. 어떤 여인이 그분의 어머니에게 복을 빌어 달라고 소리를 질렀을 때 우리 주님께서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저는 바로 이 복을 원합니다. 제가 만일 천주

교가 제시하는 수많은 작은 증보자들 즉 마리아와 성인과 천사들을 원하여 그 유일하신 증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버린다면 저는 영원토록 이 복을 소유하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

추신 - 저는 중앙 아메리카에서 사역하는 어떤 선교사가 천주교 성당의 사진을 정면에서 찍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당의 정문 위에는 라틴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는데 영어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마리아에게로 오라. 그녀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이 마리아를 은혜와 구속의 중재자로 여긴다는 단적인 증거가 아닙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기록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초청의 말씀을 이보다 더 무섭게 왜곡할 수 있습니까?

## 다섯 번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지난번 편지의 결론 부분에서 사제께서는 비록 영생이 하나님  
의 선물이기는 하지만 성경에 “너는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왕관을 네게 주리라.”(계 2:10)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영생은 기독교의 여정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킨 사람에게 주  
는 보상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고 애쓰셨습니다. 이 점을 보여 주  
는 적절한 예로서 사제께서는 주인의 명령을 끝까지 잘 지킨 자에  
게 주인이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이”라고 칭찬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부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사제께서는 두 가지 서로 다  
른 것을 크게 혼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는 결코 서로를 혼합할 수 없는 진리의 두 선(線)이 확연히 나타나  
있습니다. 이 중 한 가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왕좌의 모든 요구를 충족시키시며 자신의 생명을 버리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십자가 위에서 피 값으로 친히 사신 구원 즉 우  
리가 값없이 얻는 완전하고도 영원한 구원과 관계가 있습니다. 이  
로써 이제 하나님께서 친히 의로우시며 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의롭게 하시는 분이 되셨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엄청난 이 칭의의 복에 관해서 성경은 사람의  
행위와 사람의 공로가 아무 역할도 하지 않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  
다. 사람의 행위와 공로는 이처럼 엄청난 구속(救贖)을 얻는 데 필  
요한 속죄값에 아무런 기여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이것들은 구원

받은 뒤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이 엄청난 선물을 유지하는 데도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 선물은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수고하셔서 친히 이루어 놓으신 구원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지할 수 있는 구원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서 앞부분에서 제시한 것보다 더 명쾌한 설명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제께서 성경을 펴서 로마서 3장 1절부터 5장 11절에 이르는 이 중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읽어 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로마서의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철저히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완전히 길을 잃었음을 발견하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죄들로 인한 화목 제물로 제시함으로써 자신의 공의를 분명히 드러내셨음을 확실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여겨지게 되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救贖)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것에 더할 수 없으며 그 어떤 것도 이것에서 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은 완전한 사역이요 완성된 사역으로 이미 끝이 난 사역입니다. 사제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미 끝난 일에 무엇인가를 더하려는 시도는 결국 그것을 망치고 맙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 놓으신 일에는 사람의 어떤 공로도 필요가 없습니다. 고행도 필요 없고 성자나 천사의 증보도 필요 없으며 의식이나 예식도 물론 필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의롭게 만드는 일에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유효한 것입니다. 끌레르보의 성 버나드 혹은 베르나가 죽는 순간에도 평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같은 은혜의 선물 때문이었습니다. 사제께서는 아마도 틀림없이 그가 죽으면서 남긴 말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예수시여, 당신

의 상처만이 내가 내세울 공로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그분의 공로 위에서 있네. 나는 더 이상 안전한 기반을 알지 못하네. 임마누엘의 땅 영광이 거하는 곳이라도 그분보다 안전하지는 못하리.

이것은 행위와 상관없는 의(義)입니다. 다시 말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없는 의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4-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일하는 자에게는 품삯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겨지지만 일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이것이 바로 로마서 4장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만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일에서 우리의 행위가 조금이라도 기여를 한다면 필연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빚더미 속에 넣어 두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은 은혜에서 나지 않고 모든 신자가 선한 일을 했으므로 이로 인해 각 신자에게 빛을 지신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그 빛을 갚는 것이 되고 맙니다.

사실 이 성경 말씀은 이런 의미 외에 다른 어떤 의미도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 한 순간이라도 이런 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아무 공로도 없으며 사람의 의(義)는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공로는 오직 영광스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께서 단번에 성취하신 사역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로는 행하는 데서 의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은 선물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는 데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공로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믿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행하고 믿는 자에게 이런 선물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그 어떤 종류의 행위도 완전히 제외됩니다. 우리는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이 큰 선물을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기록한 에베소서 2장에서도 똑같습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8절)

또한 바울은 로마서 11장에서도 똑같이 말합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 된 것이라면 더 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라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6절)

우리는 결코 이 두 원리를 혼합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 자신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 구원받든지 아니면 전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와 공로에 의해 구원받든지 둘 중 하나로만 구원받습니다. 물론 성경은 이 두 가지 중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제께서는 그리스도인의 행위를 강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과 또 하나님께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사 지키고 따르

라고 하신 지침들에 순종할 때에 마지막 날에 이에 대한 보상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은 도대체 무엇이나고 물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든 성경 구절이 영혼 구원의 문제와 상관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받았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심판석에 앉아서 보상을 주실 자들의 행동과 관계가 있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사제께서도 확인해 보시면 이 점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심판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이 자신의 은혜로 영생을 소유하고 모든 죄로부터 떠나 의롭다고 여겨진 이후에 그들의 몸에서 이런 행위들에 따라 그들을 판단하고 보상을 줄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련한 처지의 죄인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순간 그는 본성과 행위로 인해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히 불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빠져 나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일에 의해 은혜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며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고 그 순간 영생을 소유하게 됩니다. 저 큰 대적자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소한다 해도 그 모든 고소가 우리의 죄를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무한한 효능에 의해 무효가 되기 때문에 그는 단번에 영원토록 구원을 받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 그것이 영원히 있을 줄을 내가 아노라. 그것에 무엇을 더하거나 그것에서 무엇을 뺄 수 없나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하시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 앞에서 두려워하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며 따라서 그것은 완전하고 영원합니다.

그러나 이같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그에 부응하는 생활을 하도록 부름을 받습니다. 그는 이제 무한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므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그

는 아버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으므로 주님께 복종해야 하며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통해 성령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제 그는 자기 자신의 길을 따라 걸어서는 안 되며 더욱이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와 같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대로 살아서도 안 됩니다. 이제 상태가 바뀌었으므로 그는 그리스도께서 걸으신 것처럼 걸을 책임이 있으며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신 것처럼 순종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우리가 그분 앞에 함께 모일 때에 여기 이 땅에서 그분을 섬긴 것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됩니다.

보상과 왕관을 언급하는 성경 구절들은 다 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제께서는 사도 바울의 말을 예로 들었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므로 이후로는 나를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나니 주 곧 의로우신 심판자께서 그 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딤후 4:7-8)

이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심판석에 앉아서 자신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에 거기에 자신을 위해 의의 왕관이 예비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제께서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그 일이 자기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다른 이들에게도 해당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내게만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시리라.”

여기서 왕관은 이기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제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여기의 왕관(Crown)은 왕들이 쓰는 관(Diadem)이 아니라 경기의 승리자들에게 주는 영예의 월계관을 가리킵니다. 결국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을 때 이미 획득한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예의 왕관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었으므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해 수고합니다.

사제께서 베드로전서와 야고보서 2장에서 인용한 성경 구절들도 결코 이 사실과 배치되지 않습니다. 신자들은 자기들의 삶 속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드러난 은혜를 나타내야 하며 성령의 열매를 밝히 드러내기 위해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우리의 믿음 고백이 거짓 고백이 아니라 참 고백임을 분명히 보입니다. 이로써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의 진리에 동의를 표하지 않고 하나님의 증언을 마음속에 받아들여 우리 속에 그 증언을 소유하게 됩니다.

실로 하나님의 자녀의 믿음은 선한 행위로 스스로를 드러내는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자기 육체의 소욕대로 행하는 자는 속이는 자이거나 속임을 당한 자입니다. 참된 믿음은 항상 열매를 맺으며 특별히 선행의 열매를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롭다고 여겨졌음을 분명히 보여 줍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사도 야고보는 이같이 말합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 위에 드릴 때에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이 그의 행위와 함께 일하였고 행위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지 아니하였느냐?”(약 2:21-22)

사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노인이었으며 세상의 눈으로 보면 아무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때에 그는 장차 자기에게 씨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걸려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이 강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성경은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았다고 증언합니다.

그 뒤 여러 해가 지나서 하나님의 약속은 이삭의 출생으로 성취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서 소년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를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희생 제물로 바침으로써 메시아가 이삭을 통해 오리라는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 달라는 요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때도 망설이지 않고 주님의 목소리에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능히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일으켜 세우실 줄로 생각하였고 죽은 자들로부터 그를 모형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믿음에서 나온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를 가치 있게 만든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그가 그토록 오랫동안 소유했던 믿음이 산 믿음임을 보여 준 증거였습니다. 이 사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신자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모든 신자는 자기 행위로 자기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보통 ‘신실한 말’ (faithful saying)이라 불리는 다음의 두 성경 구절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디모테전서 1장 15절 말씀으로 “이것은 신실한 말이요 전적으로 받아들여기에 합당한 말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말이로다.”이며 다른 하나는 디도서 3장 8절로서 “이것은 신실한 말이로다. 네가 확고하게 이것들을 단언(斷言)하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것은 하나님을 믿은 자들이 조심하여 선한 행위들을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들은 선하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입니다.

이 두 구절은 진리의 양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무궁토록 그분에게 모든 찬양과 모든 영광

을 돌려야 합니다. 한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부지런히 선한 행위를 이루어야 한다고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선한 행위로 인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입니다.

성도라고 해서 다 같은 정도의 영적 기쁨을 맛보지는 않습니다. 그 왕국에서 우리의 위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께 헌신했는가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즉 구원받은 자들도 보상에 관한 한 서로 다른 등급의 보상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도 동일한 형벌을 받지 않습니다. 어떤 자들은 많이 맞으며 어떤 자들은 적게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존전에서 추방될 것이며 하나님의 얼굴의 광채에서 쫓겨나 바깥의 어두운 곳 즉 불 호수에서 영원토록 거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낸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멸망하지만 그들이 받는 형벌의 정도는 그들의 죄의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자들도 그들의 유일하신 구원자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때문에 영원히 하늘나라에 거할 것이나 그 영원한 왕국에서 어떤 기쁨을 누리고 어떤 상급을 받느냐 하는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들이 얼마나 신실하게 그리스도께 헌신했느냐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사실 이 같은 성경의 가르침은 너무나 명백한 것이므로 과연 누가 이와 달리 생각할 수 있을지 의문이 갑니다. 따라서 저는 사제께서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살펴보실 것을 다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경 구절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과연 이것이야말로 성도들에게 단번에 전해진 그 믿음인지 아닌지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친애하는 사제님, 제 편지가 사제님을 괴롭게 하지는 않았으리

라고 생각합니다. 사제께서 보내 주신 편지는 너무 길었기 때문에 한 편지에서 길게 답변을 적기보다는 한 주제만을 다루는 것이 훨씬 좋겠다고 생각하여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사실 저는 사제께서 제기한 문제 중 하나라도 가볍게 대하고 싶지 않으며 사제께서 제게 보낸 답변에 대해서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저는 사제님의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고 싶지 않으며 단도직입적인 태도를 취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진실한 벗 드림

## 여섯 번째 편지

친애하는 사제님께.

사제께서 캘리포니아를 떠나 아일랜드로 가신다는 소식과 함께 제 서신을 받았음을 알리는 다정한 편지를 받고 감사를 드립니다. 편지를 읽고 저는 사제께서 제가 보낸 편지의 많은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또 동시에 천주교의 가르침과 정반대가 되는 성경의 가르침을 제시한 것에 대해 그리 불쾌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점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우리가 성경과 전통을 대하는 태도가 어떤 점에서 다른지 보여드리고자 이렇게 글을 드립니다.

전에 제게 보낸 편지 중 하나에서 사제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셨으며 저는 그때에 우리가 너무 본질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공통분모가 없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사제께서는 성경과 전통이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하는 전통이란 물론 천주교가 인정한 전통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만이 믿음과 윤리에 관한 유일한 권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하나님의 계시요 그 자체가 진리이므로 신자들이 진심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성경에 복종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그들의 삶의 모든 면에서 그들을 지도하기에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전통을 다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전통이 확실한 근거 위에 세워졌다면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한 다양한 의견들 때문에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명하지 못했던 성경의 표현들(결코 성경의 교리들이 아님)을 설명하고 해석

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어느 누구도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주의 날’이 한 주의 첫째 날 즉 일요일이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주후 1-2세기 경의 교부들이 만장일치로 그렇게 가르쳤고 그 이후로 어느 곳에서나(일부 파당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믿고 있음을 알게 되었으므로 지금 저는 더 이상 거기 나오는 주의 날이 일요일을 가리킨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도들의 뒤를 이었던 사람들이, 과거에 성경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의견을 전적으로 무시하고 혼자 힘으로만 성경을 읽으려고 하는 몇몇 현대의 논쟁자들보다 ‘주의 날’이라는 용어가 쓰인 용례를 더 잘 이해했을 것이라는 점을 시인합니다. 기독교는 세기마다 새롭게 나타나는 계시의 종교가 아니며 과거로부터 내려온 유산 즉 성경에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고 초기의 말씀 선포자들과 교사들에 의해 입증된 유산으로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초대 기독교의 화려한 전통이라 하더라도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시와 직접 마찰을 빚을 때에 저는 그것을 배격하며 오직 성경만을 믿습니다.

전통은 어려운 단어나 구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교리가 무엇인지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전통은 우리의 마음과 양심을 속박할 수 있는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전통을 가지고 사람의 양심을 속박하려 한다면 그것은 ‘사람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는 위험’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성경과 전통을 동등한 수준에 놓은 사람들이 끝에는 성경보다 전통을 더 위에 올려놓는 것을 여러 차례 본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천주교가 일반 백성이 성경을 접하지 못하도록 하

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는 점을 주시해 볼 때 바로 이것이야말로 지금까지 천주교가 펼쳐온 정책 중 하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누군가가 성경을 가리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번역해야 할 책”이라고 한 적이 있는데 천주교는 이런 중요한 책이 보통 천주교에서 평신도라 불리는 일반 사람들에게 널리 퍼져 읽힐 수 있도록 준비되는 것을 보고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이것 또한 성경보다 전통을 중시하기 때문에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점에 관한 한 천주교는 아직도 변화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 천주교 사제가 필리핀에서 성경을 소각한 사건이 이를 잘 보여 주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야만스런 행동이며 현대 문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무신앙의 행위입니까!

사실 우리는 성경 그 자체가 아니라 단지 잘못된 번역을 반대합니다. 이것은 더 말할 필요가 없는 사실입니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으로 인해 자극을 받은 천주교가 오류 투성이 역본, 수 세기 동안 한 번도 오류들을 수정하지 않은 역본을 널리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테스탄트들 중에 어느 누구도 그런 성경을 불태울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리 잘못된 역본이라 하더라도 어둠 속에 갇힌 영혼에게 빛을 비추어 줄 만한 하나님의 진리를 충분히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제가 독실한 카톨릭 신자들에게 「두에 랭스 성경」(*Douay and Rheims Bible*)<sup>10)</sup>을 건네준 적이 있는데 그로 인해 천주교 사제들이 제게 화를 냈습니다.

---

10) 라틴어 불가타(Vulgate) 성서의 영어 번역본. 영국에서 망명한 카톨릭 학자들이 두에(당시에는 스페인령 네덜란드 땅이었으나 지금은 프랑스에 속함)에 있는 잉글리시 칼리지에서 펴냈다. 「신약 성서」 번역본은 이 대하이 1578년 임시로 이전했던 랭스에서 1582년에 발행되었고

이 성경에는 분명히 로마 교황의 출판 승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천주교 신자들은 그 성경을 읽지 말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몇몇 이유 때문에 천주교는 참으로 성경을 두려워합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제께서는 “성서 공회들이 그토록 많은 성경을 만들어 배포함으로써 도대체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저는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영적인 일에서나 이 세상 일에서나 그 유익은 이루 다 셀 수 없습니다. 입으로 말할 수도 없으며 펜으로 다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유익은 대단합니다.”

환한 태양이 빛을 발해 박쥐나 해충을 물리치듯이 성경은 어디에서나 야만과 독재를 몰아내고 문명과 자유를 가져다주었으며 선구자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성경을 자유롭게 읽도록 허용하고 장려하는 곳에서는 성경이 미신과 무지를 몰아내었습니다.

영적인 유익에 관한 한 성경이 셀 수 없이 많은 영혼들에게 안

---

「구약 성서」는 그 후 곧바로 두에에서 번역되었으나 1609~1610년에 이르러서야 발행되었다. 이 영문판 두에 랭스 성서는 프로테스탄트의 이단에 대항하는 많은 논쟁적 요소들을 담고 있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두에 랭스 성경은 창세기 3장 15절을 변개한 것으로 유명하다.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 (KJV).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나 두에 랭스 성경은 이를 다음과 같이 변개시켰다.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thy seed and her seed; she shall crush thy head, and thou shalt lie in wait for her heel” (Douay-Reims).

성경은 여자의 씨 곧 메시아가 사탄의 머리를 강타할 것을 예언하지만 천주교 성경은 여자가 즉 마리아가 사탄의 머리를 강타할 것이라고 거짓을 말한다.

또한 에베소서 5장에서 흥정역 성경은 결혼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mystery)니라”(엡 5:31-32).

그러나 두에 랭스 성경은 뒷 부분을 ‘이것은 큰 성사(sacrament)니라’로 번역하여 천주교 교리를 억지로 꾸며 내고 있다.

겨 준 기쁨과 즐거움과 평안과 복을 감히 어떻게 말로 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물 위에 떠다니던 성경책이 한 일본 귀족에게 구원과 거룩함을 가져다주었고 그 일로 인해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수 세기 동안 출입을 통제당하던 천주교 선교사들이 오늘날 그 나라에서 평화롭게 선교 활동을 펼 수 있는 것도 바로 그 성경 덕택입니다.

저는 주석이나 해석이 없는 단순한 성경만을 읽고서도 아주 추한 죄인들이 구원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구원받은 사례를 많이 제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 번도 설교를 들어본 적이 없는 곳에서도 이런 일이 생깁니다. 국내나 국외의 선교 보고서에는 단지 성경만을 읽고 개종까지 하게 된 사례들 즉 거의 기적에 가까운 사례들이 가득합니다.

한국에 나간 장로교 선교부의 언더우드 박사는 동방의 고요한 나라의 한 마을에서 두세 복음서와 사도행전과 한두 서신서만을 읽고서도 이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나아온 사례를 우리에게 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당시 거기에는 아직 성경 전체가 발간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의 이 적은 분량의 책들이 산골 마을까지 들어가 사람들을 구원하였습니다.

사실 많은 선교사들이 어떤 나라에 들어가기도 전에 모든 기반이 닦여 있고 영혼들이 깨어 있는 것을 경험하곤 하는데 그 이유는 천주교가 미워하는 성경 보급자들이 이미 거기 먼저 들어가서 성경을 전하고 복음서 같은 성경의 일부 책자를 원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만이 구원의 길을 바르게 보여 줍니다. 이 복된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전통은 비록 그것이 아무리 유서 깊다 할지

라도 신뢰할 수 없으며 사람의 혼을 속이는 것입니다.

성경과 전통이 동등한 가치를 지닌다고 말하는 것은 사람이 만든 등불과 태양 빛이 같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성경의 교리 중에서 사람의 전통이 제거하려고 하거나 애매하게 만들려고 하지 않은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또한 성경이 가르치는 것보다 사람의 전통이 더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는 교리가 어디 있습니까? 아마도 사제께서는 제가 위에서 언급한 ‘주의 날’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단지 신빙성 있는 전통이 성경의 가르침을 단지 확증해 줄 뿐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또한 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크리스천의 교리가 아니라 ‘주의 날’이라는 용어의 용례와 의미였습니다.

원어에 대한 지식은 성경의 여러 구절의 의미를 분명히 밝히는 데 도움을 주지만 성경의 교리에는 아무것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과거의 신자들이 사용했던 성경 용어의 용례를 잘 아는 것이 때로는 새로 유행하는 잘못된 개념들로부터 신자들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러나 저의 취지는 결코 밝은 태양 빛을 보여 주기 위해 등불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며 단지 사람의 이성에 의해 어둡게 된 캄캄한 구석의 일부를 밝히는 데에는 심지어 그 미약한 등불도 유익할 수 있음을 보여 주려는 것입니다.

성경의 최종 권위를 인정하면서 전통들을 하나씩 하나씩 성경에 비추어 판단하고 만일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모두 교회 쓰레기통에 폐기 처분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것이 결코 늘어날 수 없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천주교 사제가 1년 동안 오직 성경만을 읽되 매일

같이 기도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성경만을 읽으면서 자기가 배운 것 중에서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다 거부하기로 결심한다면 열두 달이 지난 후에 그는 수많은 전통적 우화들을 폐기 처분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큰 복과 깨달음을 경험하였으므로 그 이후에도 오직 성경만을 주 연구 대상으로 삼을 것이며 또 완전한 날이 이를 때까지 점점 더 밝게 빛나는 의인들의 길 속에서 화평과 경건함 가운데서 걷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는 1년 동안의 성경 연구를 통해 하나님의 가르침을 충분히 받았으므로 자기가 폐기 처분한 사람의 전통과 교회의 교리들을 결코 동경하지 않을 뿐 아니라 한때 자기가 경시했던 성경 말씀 즉 하나님의 호흡이 있으며 빛과 진리의 말씀이 가득 들어 있는 거대한 하늘의 양식 창고 속에서 자기의 모든 영적인 필요가 충족될 수 있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오 친애하는 사제님, 부디 확신을 갖고 제가 무책임한 열성분자로서 이렇게 말하는지 아니면 어느 정도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로서 말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관한 책들을 읽는 것과 성경에 들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교리들에 관한 지침서들을 읽는 것은 결코 성경 그 자체를 읽는 것과 견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귀를 틀어막은 사람을 어찌 건방진 사람이라 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사제께서는 사도 바울이 교회의 타락에 대해 경고하면서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행한 엄중한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아노니 곧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 양 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따르게 하려고 왜곡된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리라. (행 20: 29-30)

이같이 경고한 후 사도 바울은 그들을 어디에다 위탁하였습니까? 전통의 권위입니까? 아닙니다. 그러면 공회의 결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의견입니까?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친애하는 사제님, 다음의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읽으시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를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맡기노니 이 말씀은 너희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히 구별된 모든 자들 가운데서 너희에게 상속 유업을 줄 수 있느니라. (32절)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도는 이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같이 명백한 교훈을 무시하였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인내심을 가지고 꾸준히 성경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오히려 오류 투성이며 수도 없이 반복된 전통과 교회와 공회를 따라갔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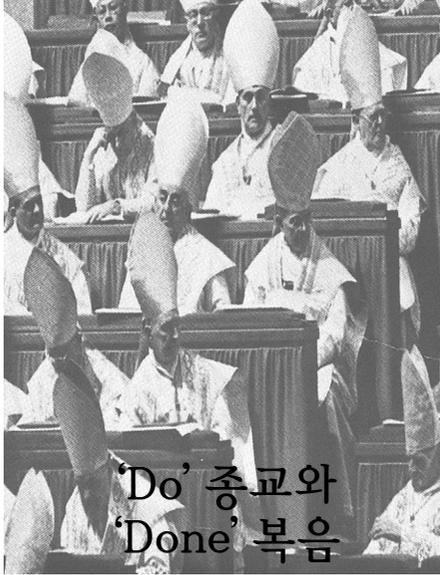
‘하나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 만 굳게 붙드는 제가 잘못하고 있습니까? 이제부터 사제께서도 이렇게 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당신의 신실한 벗 드림

추신 - 저는 사제께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으며 그래서 사제께서 더 이상 서신 교환을 원치 않으시면 다시 편지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 4



## ‘Do’ 종교와 ‘Done’ 복음

이 글은 Christians Evangelizing Catholics(P.O. Box 99141, Louisville, KY 40269, USA)에서 천주교인들과 이들에게 복음을 심어 줄 크리스천들을 위해 발행한 「*What Must We Do or Has Christ Done the Work for Salvation?*」(Dr. Bill Jackson)이라는 소책자를 역자가 번역하고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설교 형태로 만든 것이다.

크리스천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고 유익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신실한 증인이 되어 우리의 선교지에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Do' 종교와 'Done'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복음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믿는 바가 더 확실해져서 좋은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 선교사와 선교지

로마서 10장은 성경에서 선교사와 선교지를 가장 잘 보여 주는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장에는 복음 선포에 대한 도전의 말씀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선교사와 선교지가 무엇인지 잘 정의되어 있습니다.

먼저 선교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은 13-15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폭발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도 바로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이었습니다. 이것을 전

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도 하고 복음 선포자라고도 하며 선교사라고도 합니다. 선교사는 영어로 'missionary' 인데 이 말의 뜻은 사명을 가진 자, 사명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우리에게는 방금 읽은 13-15절 말씀처럼 화평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으며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누구나 선교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선교사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선교사'에 대한 진리는 4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니라. (4절)

여기에 나오는 '끝마침'은 영어로 'End' 인데 사실 이 단어는 짧지만 참으로 중요한 단어입니다. 길을 가다가 끝이 나면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없는 것이 바로 끝입니다. 그것이 'end' 입니다. 선교사는 바로 이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이 무엇을 뜻합니까? 말 그대로 끝을 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에 여러분이나 저 같은 사람이 더 이상 추가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다 끝냈다고 하는데 여러분이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려고 한다면 "다 이루었다."고 말한 사람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니면 그 사람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접시를 닦습니다. 그런데 제가 접시 닦는 일을 다 마쳤다고 하는데 제 아내가 또다시 닦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를 모욕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를 못 믿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고 하셨는데 여러분이 자꾸 거기에다 무엇을 더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되며 결국 그분을 모욕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끝내신 일 즉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주석서를 썼지만 이 일에 대한 가장 좋은 주석서는 성경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1-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사장마다 날마다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희생물들을 드리지만 그것들은 결코 죄들을 제거할 수 없으나 이 사람은 죄들로 인해 한 희생물을 영원히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셔서 그 이후부터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 받침이 될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과는 달리 지금도 서서 일하시지 않고 일을 다 끝내시고 앉아 계십니다. 일이 다 끝났으므로 서 계시지 않습니다.

자 이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2,000년에 성령님의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역사를 통해 구원을 얻어서 2,040년에 죽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천국에 가기 위해 이 40년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교회에 열심히 나가고, 십일조를 하고, 주일 성수하고, 큰 죄를 짓지 않고, 선행을 베풀고, 전도하고 등등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참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당연히 선행을 베풀고 큰 죄를 짓지 않고 남을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여러분을

하늘나라로 보내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고도 충분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이분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용서(시 103:12)와 완전한 구속(사 53:5-6)을 얻으며 사실 이것을 위해 그분께서는 무한대의 값을 치르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선물은 누구나 값없이 얻을 수 있지만 값이 싸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 크리스천은 로마서 10장 4절의 진리 안에 살고 있으며 그래서 모두 선교사입니다.

로마서 10장은 이처럼 선교사가 누구인지 가르쳐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선교지가 어디인지도 자세히 가르쳐 줍니다. 다 같이 로마서 10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알지 못하여’로 번역된 ‘ignorant’라는 단어는 결코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고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학식이 많은 사람도 칼국수 만드는 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여인이라 해도 자동차가 고장나면 그것을 고치는 방법을 모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모르는 것이 있는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학식 있는 사람들도 로마서 10장 4절의 말씀 즉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일을 모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의를 따르려고 노력합니

까? 그들은 자기가 세워 놓은 기준으로 일들을 행하고는 가슴 뿌듯해 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우리의 선교지입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그들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끝마침이 되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범주에 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독자는 어떻습니까? 선교사입니까, 선교지입니까?

힌두교도들은 영원한 복을 얻기 위해 반드시 갠지스강에 몸을 담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프로테스탄트 교인들 중에서는 도덕률을 잘 지켜야만 구원받는다고 믿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목사가 하라는 대로 하면 구원을 받을 줄 알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천주교인들은 선행을 하고 주일에 미사에 참석하고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들 중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90%를 했고 나머지 10%는 각자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것은 모두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사역 즉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마치신 일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에 끝내신 사역을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에도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노력합니다.

일이 끝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스스로 계속해서 일을 해서 그것을 끝내려 할 것입니다. 사실 일이 끝났음을 알게 되면 참으로 큰 위안을 받습니다.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면서도 집에 가서 아직 끝내지 못한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손님들이 많이 와서 대접을 한 뒤에 설거지할 그릇이

수복이 쌓였다고 합시다. 그런데 식사 후 또 곧바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경우 제 아내는 교회 가서도 설거지 때문에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예배가 끝나면 빨리 와서 설거지를 해야 할 텐데 하는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런데 제 딸이 엄마를 생각해서 이미 설거지를 다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예배드리는 동안에 이미 설거지는 다 끝났지만 이 사실을 모르는 제 아내는 그것으로 인해 걱정할 것입니다. 딸이 이미 설거지를 다 끝냈음을 안다면 얼마나 큰 위안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이 끝났음을 알게 되면 언제나 위안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 사역을 다 끝내 놓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내 것으로 적용하면 구원받습니다. 정말로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선교사든지 선교지든지 둘 중 하나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단번 속죄의 복음을 들고 선교지로 나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심할 것은 선교지가 멀리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 가족, 이웃, 친구, 직장 동료 등 예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다 선교 대상이며 선교지입니다. 선교 후원금을 모금하고 다른 나라로 떠나야만 선교사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0장에서 바로 선교사와 선교지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 주셨습니다. 선교지와 선교사가 바로 붙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로마서 10장 4절의 진리 안에 있으면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의 선교지는 10장 2-3절에 있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 ‘Do’ 종교와 ‘Done’ 복음

이것을 좀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 두 개의 바구니를 비유로 들겠습니다. 하나는 여전히 자기 의를 세우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속한 ‘Do 바구니’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을 알며 믿는 사람이 속한 ‘Done 바구니’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추구하는 사람은 우리의 선교지로서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며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선교사로서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은 무엇인가 자신이 계속해서 해야만 의를 이룰 수 있다고 믿기에 쉬지 않고 일하며 자기의 의를 추구합니다. 반면에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완전하게 끝내 놓으신 일을 100% 신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 의를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이 차이를 보여 드리기 위해 검은색과 하얀색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을 구분하는 것은 너무 쉽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검은색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말에 검은색을 표현하는 말이 여럿 있습니다. ‘새까맣다.’ ‘까맣다.’ ‘검다.’ ‘거무튀튀하다.’ ‘거무스레하다.’ ‘거무잡잡하다.’ 도대체 어느 것이 거무잡잡하냐고 물으면 대답이 각양각색일 것입니다.

밤과 낮을 비교해 봅시다. 어떤 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낮과 다른 것같이 이것은 저것과 다릅니다.” 자 그러면 제가 묻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언제 밤이 시작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느 누가 절대적으로 밤과 낮이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있습니까? 저녁 6시면 밤입니까? 낮입니까? 물론 언제 낮이 시작되는지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 이처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는 것’ 즉 ‘Do’와 ‘이미 끝난 것’ 즉 ‘Done’ 사이에는 절대적인 구분이 있습니다. 너무 명확합니다. 다시 말해 어떤 일을 하고 있으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거의 끝난 것은 아직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하고 있는 것’과 ‘이미 끝난 것’은 확연히 구분됩니다. 이보다 더 절대적으로 확신 있게 구분하기 쉬운 것은 없습니다.

집을 떠나서 교회에 왔으면 집을 떠난 것입니다. 아직도 집에 있으면 교회에 안 온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찬송을 부르고 설교를 들으면 이미 찬송 부르는 것은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일을 하면서 동시에 일을 끝낼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여러분이 아직도 무엇을 하고 있으면 아직 끝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끝냈으면 더 이상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구원받은 것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구원에 필요한 속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보상의 문제요 구원받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선교사로서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고 선행과 학식과 지식과 재물을 통해 자기 의를 세우려는 사람은 선교지로서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전자는 복음에 속한 사람이고 후자는 종교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모양만 다를 뿐이지 다 같습니다. 거기 속한 이들은 다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모든 사람을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나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이나로 분류하면 됩니다. 정치가나,

종교인이냐, 잘 생겼냐, 부자냐, 학식이 많으냐로 구분하지 마시고 선교사냐 아니면 선교지냐로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 일들 뒤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네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아브람이 이르되, 주 하나님이며, 무엇을 내게 주려 하시나이까? 나는 아이 없이 지내오며 내 집의 청지기는 다마스쿠스 출신의 이 엘리에셀 이니이다, 하고 또 아브람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므로,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이니이다, 하매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요, 오직 네 배 속에서 나올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 이르시되, 이제 하늘을 쳐다보고 네가 별들을 셀 수 있거든 세어 보라, 하시며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씨가 그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아브람이 주를 믿으니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기시며 (창 15:1-6)

도대체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겨지기 위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신뢰할 때에 그분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습니다. 여기 나오는 아브라함은 바로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구절이 이와 비슷한 경우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디도서 3장 5절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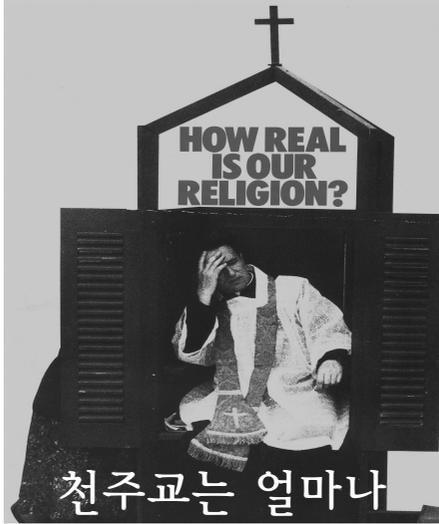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자신의 공흠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으며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그 일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아직도 구원받기 위해 여러분의 선행과 종교와 전통과 학식과 재물과 지혜를 따르시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Do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아니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어 놓으신 일을 신뢰하며 오직 그분만 의지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Done 바구니'에 속한 사람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에는 오직 두 부류의 사람뿐이 없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스스로 판단하셔서 '나는 Do 바구니에 속했다'고 느끼시는 분은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회개하고 주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그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신 일만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죄들의 용서와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Done 바구니'에 속하신 분들은 다 선교사입니다. 내 선교지가 어디인지 주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예수님의 'Done 바구니'의 복이 여러분 위에 영원히 임하길 기원합니다.





5

## 천주교는 얼마나 종교적인가?

이 글은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스펀 전이 세운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교회에서 「How Real Is Our Religion?」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한 소책자를 번역한 것이다. 전직 천주교 사제들의 간증을 통해 종교와 종교 의식이 어떻게 사람을 죽이는가를 확인하고 사람의 혼을 구원하는 복음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 나는 종교를 통해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헤거(Dr. Herman Hegger)



전직 천주교 사제  
헤거 박사

어려서부터 나는 영원한 지옥에서 벗어나는 최선의 길이 수도원에 들어가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으며 그 말대로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강한 의지력을 기르고 모든 열정과 욕망을 조절할 수 있도록 해 줍니다. 내가 들어간 수도원에서는 그러한 의지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종류의 육체적 고문도 동원하였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여러 차례 스스로 매듭이 달린 채찍으로 벗은 몸을 채찍질하곤 했습니다. 비록 채찍질이 아프긴 하지만 평온하게 참아 내면 관능적이고도 성적인 욕구들을 다 물리칠 힘을 얻게 된다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채찍질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범한 죄들을 속할 수 있고 따라서 장차 연옥에서 받을 형벌도 줄일 수 있다고 배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허리와 허벅지와 팔에 못이 박힌 참회의 사슬을 둘러서 그 못들이 살을 파고 들어와 고통을 주게 했습니다. 이외에도 몸을 다스리는 여러 종류의 단련법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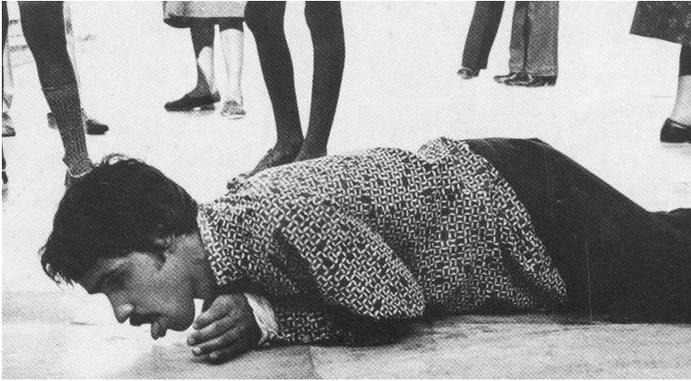
이같이 자기 스스로에게 벌을 가하는 것과 더불어 우리의 교만

과 허영을 없애기 위해 고안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 중 하나는 사제가 복도 옆의 마룻바닥에 엎드리면 다른 사제들이 거기를 지나면서 그를 밟고 지나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마다 나는 마치 사람들의 발에 밟히는 벌레가 된 것처럼 느꼈지만 이러한 자발적인 겸손의 행위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리라 생각했습니다.



비를 맞으며 고행하는 천주교인들

이런 일 중에서 가장 심하게 굴욕을 일으키는 방법은 마룻바닥의 일부를 혀로 핥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나는 마치 짐승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돼지가 진창에서 뒹구는 것이나 개가 빙빙 돌면서 코로 냄새를 맡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때때로 나는 먼지 속에서 기어다니는 곤충 같은 느낌을 갖곤 했습니다.



혀로 마룻바닥을 닦는 고행

그러나 아무리 나 자신을 벌하고 스스로 굴욕감을 느끼게 만들지라도 내 인격이나 태도에 어떠한 변화도 없었으며 그런 것들이 나아진다는 것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단지 나의 약하고 죄악된 본성이 여전히 살아 있다는 것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혀로 마룻바닥을 깨끗하게 닦고 난 바로 그 순간에 내 안에서는 허영심과 자부심이 아주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넌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의지력이 대단한데! 다른 사람은 감히 할 수 없는 일을 너는 해냈구나. 너 스스로 이런 고통을 부과하고 잘 참아 냈으니 정말 훌륭한데!”라고 생각하곤 했습니다. 나는 이런 부조리한 일들을 통해 나 스스로 교만을 부추기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도원 생활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을 장엄한 노력으로 이루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사제나 수도사가 그런 곳의 독방에 들어갈 때에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아이들의 고행 모습



멕시코 신도들의 고행 모습

사제로서 7년을 사역한 뒤 나는 브라질에 있는 로마 카톨릭 신 학교에서 철학 교수로 임명을 받아 승진했습니다. 그러나 심각한 의심들이 이미 내 안에서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 차례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내가 속한 천주교회가 정말로 이 책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중재자이시며 그분께서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죄의 형벌을 다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천주교회는 중재자가 여럿이며 그중에서도 마리아가 ‘모든 은혜의 중재자’라고 가르쳤습니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교황에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와 권세 즉 무오류한 권능을 주셨다는 것과 크리스천은 다 교황의 견해를 받아들여야 할 의무를 지닌 자라는 것에 대해서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교황이 성경의 분명한 말씀들을 뒤엎고 다시 진술할 수 있는 절대권을 가진다는 게 맞는 것일까?’ 마음에 이런 의심들을 품은 상태로 나는 더 이상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제로 남

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다른 없는 수도원 생활은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허울과 그림자의 생활을 버리고 마침내 나는 자유롭게 숨쉴 수 있는 멋있는 실제 세계로 나갔습니다.

나는 교수직을 사임하고 로마 카톨릭교회를 떠났습니다. 브라질의 열대 지방에서 쉽게 햇볕을 받아 달궂지는 사제복을 벗어버리고 반소매 셔츠 차림으로 경쾌하고도 자유롭게 걸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나는 마음 깊은 곳에 여전히 남아 있는 죄책감을 가지고 나가야 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로웠으나 마음속에는 안식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볼 수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리우데자네이루에 있는 복음주의 교회에서 많은 도움을 얻었는데 이 교회 회중들은 오직 성경의 가르침만을 믿음의 토대로 삼았습니다. 이들이 베푼 사랑이 내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이들은 돈이 없던 내게 옷을 사 입으라고 돈을 주었고 음식과 거처도 주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는 그들을 늘 감사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를 가장 강하게 사로잡은 것은 그 교회 목사의 설교였습니다.

성경을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듣기는 그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과연 내가 어떻게 비 로마 카톨릭 설교자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신학교 시절에 그리고 사제로 사역하던 시절에 나는 그런 교회들이 그릇된 것들을 가르친다는 말을 자주 들었지만 실제로 그 교회들이 가르치는 내용이



신학교 교수시절  
헤거 박사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나는 그 목사로부터 사람은 철저히 길을 잃었고 소망이 없는 존재이므로 자기 힘으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으며 자기의 어떤 노력으로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이 설교에 동의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나 역시 나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애를 썼지만 그리할 수 없음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기울이고 온갖 고행을 다 했지만 나는 다른 종류의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현재의 헤게 박사

그런데牧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죄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있으며 그것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완전한 용서와 새 생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이런 회심의 경험을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얻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히 자신을 신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고 이 풍성한 선물을 주신다고 그는 선포했습니다.

처음에 나는 그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동화책의 이야기처럼 너무나 좋은 것이어서 도무지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지만 동시에 너무나 쉽고 값싼 것으로 보였습니다.

로마 카톨릭 신자였던 나는 구원이란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었으며 그것은 곧 투쟁해서 하나님의 호의를 얻어 내는 그런 일

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카톨릭식 구원은 세상에서 가장 힘든 일로서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에 완전히 순종해야만, 다시 말해 완전히 무죄해야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또 우리를 대신해서 그 법의 모든 요구 조건을 만족시킨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인생의 전환기가 내게 발생했습니다. 내 영혼이 온전히 신뢰하는 중에 그리스도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나 자신이었음을 밝히 볼 수 있었습니다. 그분께서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눈부신 빛이 쓰레기 더미 같은 내 과거 생활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이제 내 영혼은 폭격을 당한 시가지처럼 내 앞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내 속에 파고 들어온 죄를 보면서 나는 고통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으며 진정한 크리스천으로 만들어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과 참된 크리스천들과의 관계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느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그렇게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요 10:14-15).

그때부터 나는 로마 카톨릭 사제로 지낼 때는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과의 친근한 교제가 무엇인지 깨달으면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죽은 율법주의는 뒤로 내버린 채 나는 크고 놀라우신 우리 하나님과 살아 있는 인격적 관계를 지속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한 무거운 짐을 느끼는 사람은 결코 고해소에서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가 고해소에서 그들의 사정을 들을 때 저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고 고향에서 미사를 드리기 위해 가고 있는 헤거 (1940년)

저는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여인이 아이를 원치 않아서 유산을 시켰습니다. 그 여자는 분명히 이것이 살인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아주 진지하게 슬픈 심령으로 이것을 고백했으나 그녀의 양심은 계속해서 '너는 살인자다. 너는 네 아이를 죽였다' 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은 매주 내게 나아와 같은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여인에게 천주교의 가르침에 따라 이제 더 이상 그 죄를 고백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녀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제가 그녀에게 이런 일이 생각날 때마다 '존경하는 마리아여' 라는 기도를 드리라고 말했지만

그것 역시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것 말고 더 큰 형벌이 없느냐고 물었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는 다 더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앞에서는 우리의 생활 자체가 다 더럽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범죄가 가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앞에서 우리 죄가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더러움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 앞에 엎드려 죄들을 회개하고 그 이후에 그분께서 주시는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향해 “네 죄들이 용서되었으니 평안히 네 길을 가라.”고 말씀하실 때에야 비로소 우리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구든지 진리로 인한 자유함을 얻으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합니다.

## 나는 100명을 고문했습니다

브렙산트(Jean Brepsant)

내가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 해 전의 일이며 이제는 안전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파리에서 리용으로 가는 열차 속에 있었으며 내 앞에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일하던 프랑스 장교가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입을 사제복을 보고 용기를 얻은 그는 내게 다가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종교를 대하는 것은 수많은 천주교인들의 태도와

같았으며 사실 그것은 로마의 큰딸인 프랑스 천주교인들의 태도였습니다.

이렇게 사제에게 나오는 사람들은 대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는 것을 거의 모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양심의 문제를 들고 와서 사제를 만납니다. 그 장교가 내게 고백한 것은 실로 고통으로 시달리는 마음을 털어놓은 것입니다.

“내가 고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를 고문합니다. 나는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정보 장교로 일하면서 100명이 넘는 베트남 사람들을 고문했습니다. 그중에서 10여 명이 내 손에 죽었습니다. 나는 오래전에 이미 고해 성사를 했으며 용서를 받았으나 여전히 화평을 찾을 수 없습니다. 사실 지금 고문당하는 장본인은 바로 나입니다. 매일 밤 나는 무서운 꿈을 꾸니다. 내가 희생시킨 사람들이 나타나서 나를 고소하고 나를 미워합니다. 그들은 나를 뺏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고문한 것처럼 우리도 당신을 고문할 것이다.’ 이렇게 고문당하는 것만 해도 괜찮은데 이외에도 다른 것이 있습니다. 사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음을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범한 죄는 너무나 큽니다. 나는 내가 큰 정죄를 받을 것을 압니다. 천국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고해 성사는 실로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화평을 줄 수 있습니다. 사제로서 고해 성사를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자기의 양심을 괴롭히는 중대한 죄들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가 그런 죄들이 용서받았음을 확신할 수 없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큰 죄를 지은 사람들이 화평을 얻기 위해 평생토록 고행을 한다는 사실이 이를 잘 보여 줍니다. 그래서 죄수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트라피스트회에 속한 가장 엄격한 수도원

에 들어가서 고행을 합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고해 성사를 통해 진정으로 죄들의 용서를 받을 수 없으며 로마 카톨릭교회의 용서가 실제로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장교의 고백을 들었을 때 나는 어디서 화평과 죄 용서를 찾아야 할지 몰랐으며 그래서 그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삶을 살면서 나는 사람들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 “예수님께서 가십시오!”라고 말하게 되었으며 지금도 로마 카톨릭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회개하면서 당신 자신을 완전히 주님께 내어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면 죄들의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당신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당신의 죄와 형벌을 다 담당하셨음을 믿어야 합니다.”

그 장교가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한 것은 아주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수백 번 십자가를 긋는 일이나 혹은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고 말하는 사제의 사죄 선언이 결코 자기의 죄를 없애지 못함을 마음속으로 느꼈습니다.

물론 로마 카톨릭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사람의 죄가 용서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고해 성사와 그에 따른 의식들은 결국 사제라고 하는 중재자 즉 인간 중재자를 들여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해 성사는 오직 그리스도만을 찾는 이들에게 방해물이 되며 그 결과 그들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단지 종교 의식만을 바라보게 되고 결국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의 의미를 즉 더 이상 다른 중재자가 필요 없다는 사실을 다 놓치고 맙니다.

참으로 죄들의 용서를 갈구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나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평안과 죄들의 용서를 줄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분께 직접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당신이 원하는 마음의 화평을 풍성히 주실 것입니다.

## 의심을 억누르지 마십시오

쿠리(Toufic Khouri)

나는 레바논에서 태어났으며 그 당시 시리아 천주교의 전통을 따라 세 번 물에 잠기는 의식을 통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 살 때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므로 나는 예루살렘에서 공홀의 자매들이 운영하는 기숙 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는 저메인이라는 이름의 수녀가 있었는데 그녀는 나더러 사제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뒤 열세 살이 되어서 나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사제 서품을 받은 뒤에 나는 많은 것을 의심했으나 상급자들은 이런 것을 다 ‘천사의 미덕’이라고 했습니다. 한번은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믿음에 대해 어려움이 있다 해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수호성인인 성 빈센트가 했던 대로 모방하십시오. 성 빈센트는 종이에 신조를 기록한 뒤 그것을 말아 두었다가 마음에 의심의 공격이 찾아오면 그 종이에 입을 맞추고 그것을 가슴에 껴안으면서 ‘주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래도 믿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이런 조언을 따랐고 잠시 동안은 평안을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오랫동안 지속될 만큼 강력하지는 못했습니다.

나는 신학교 강사로 임명받았는데 이 자리는 나를대로 여러 가지 새로운 문제를 가져다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학생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사들을 통해서 이러한 능력을 받아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성사들은 내게 도움이 되질 못했으며 그래서 성사들의 가치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사제직을 그만두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의 고해 사제 즉 프란체스코파 사제로 나이가 들어서 켓세마네 수도원에서 살고 있는 사제를 찾아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 사랑하는 젊은이, 저 위대한 성인들도 자기들의 믿음에 반대되는 유혹들을 받으며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사제직을 사임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평안을 가지고 직무를 수행하기 바랍니다.”

그로부터 5년 뒤에 나는 베이루트 교구의 사제로 임명을 받았으며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가까이 접하면서 그들의 고난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의 고통을 알게 되었고 어떤 영적인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려 했지만 내 영혼에 안식이 없었으므로 무기력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교황의 대리인을 찾아가서 사제직을 그만두겠다고 했으나 이번에도 거절을 당했습니다. 그는 내가 지쳐서 이런 말을 한다고 생각했으며 그래서 약 20파운드의 돈을 주면서 용기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 지갑은 두둑해졌지만 내 영혼은 점점 더 공허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아무 불평도 논쟁도 문제도 일으키지 않고 사제직을 그만두려 했으나 내가 속한 교회는 내가 조용히 떠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끔찍한 체제의 노예가 되었구나. 교회의 간부들은 나를 놓아주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전히 로마 카톨릭 신앙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으

므로 나는 말없이 교회를 나와 사제직을 버릴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오직 로마 카톨릭교회만이 구원을 줄 수 있으며 여기를 벗어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또 나는 로마 교회를 배반한 사제는 큰 탄핵을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사실 그들은 교만으로 가득한 존재들이며 짐승과 같은 본능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때까지 나는 양심이 더 이상 로마 교회의 가르침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로마 교회를 떠난 사제들이 많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어느 날 나는 교구 성당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제단을 치면서 ‘주님, 만일 주님께서 정말로 지금 이곳에 계신다면 제발 저를 도와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뒤 나의 카톨릭 믿음에 대해 회의를 품은 채 나는 다른 종교들에 관한 책을 구하려고 베이루트에 있는 성경 서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서점에서 초인종을 누르고 종교들에 관한 책을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때에 그들은 나를 환대했으며 단순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만 말했고 「확신을 얻기 위해」(*Towards Assurance*)라는 소책자를 주었습니다.

나는 이 소책자를 가지고 돌아와 매일 읽었습니다. 이 책과 함께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나는 크리스천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랍어, 라틴어, 아람어, 프랑스어로 된 성경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는 한 번도 그것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전까지 나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느껴 본 적이 없었는데 그 이후에는 배고픈 상태로 그것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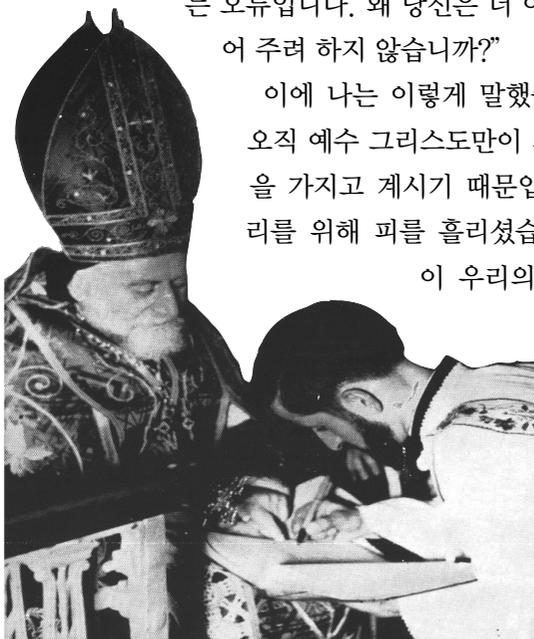
마침내 나는 성경의 지시에 따라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나 자신을 완전히 맡겨 버렸습니다. 나는 눈을 감고 주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 예수님, 주님만이 저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의 이름은 곧

구원자입니다. 나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에게 나 자신을 맡기오며 이제부터는 주님 외에 다른 것 위에 제 인생을 세우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그토록 원하던 기적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내 안에 새 생명이 생기자 드디어 로마 교회를 떠날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누구에게도 아픔을 주지 않고 나는 주교를 찾아가 로마 카톨릭교회를 떠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주교와 함께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뒤에 마침내 주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으로 이상한 사상을 가졌습니다.” “아닙니다. 주교님. 이것들은 이상한 사상이 아니라 복음에 있는 것들입니다.” “아닙니다. 그것들은 다 프로테스탄트들이 주장하는 오류입니다. 왜 당신은 더 이상 고해 성사를 들어 주려 하지 않습니까?”

이에 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들을 용서할 권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셨습니다. 바로 그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고 우

리의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습니다. 따라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들을 조금이라도 침해할 수



사제 서품을 받고 있는 레바논의 전직 사제 쿠리

없습니다.”

내 주교는 내 생각을 돌리기 위해 나보고 예수회 사제를 만나서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베이루트에 있는 신학교 교수에게 나를 보냈습니다. 그 교수는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해 물었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도란 내 영혼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당신은 성 빈센트에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사제님, 전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성모 마리아에게 기도하십니까?”

“아닙니다. 저는 예수님께만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성모 마리아를 믿지 않습니까?”

“물론 저는 그분을 존경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리를 취해 마리아에게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당신은 프로테스탄트 신학에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당신과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마침내 나는 로마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나는 일대일로 주 예수님을 만났으므로 마음의 화평을 누린 채 그 교회를 떠났습니다.

나는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전혀 알지 못했던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선물을 얻은 사람입니다.

이런 일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자기의 노력을 포기할 때 생깁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한 번에 이루신 일만을 신뢰하며 그분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실 것을 구하는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러

면 그분께서 우리 삶의 목적이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십니다.

## 성경이 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주니가(Benigno Zuniga)

나는 신 살이 될 때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철저히 영적 어둠 속에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사제 생활을 했지만 그리스도께 대한 내 지식은 아주 제한적이고 왜곡되었습니다. 사실 내게는 성경이 가르치는 참된 그리스도가 복잡한 종교적 가르침이라는 담요 밑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 카톨릭교회 밖에서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으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대표자로 활동하는 교황이 무오류하다고 믿었습니다. 교황에 대한 내 충성심은 매우 컸으므로 교황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생명까지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예수회 사제들로부터 교육을 받았고 열여섯 살에 예수회의 수도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는 페루, 에쿠아도르, 스페인, 벨기에 등에서 공부했고 나중에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그 뒤 나는 여러 해 동안 카톨릭 학교들에서 가르쳤고 신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했고 내 교구의 교회 법정에서 부법관으로 활동했으며 군대에서 군목 사제직을 수행했고 내 조국의 두 교구에서 사제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구 사제로 지내던 때에 나는 내 지역에 사는 프로테스탄트 신

자들을 적대시켰습니다.

나는 그들을 이단으로 취급했고 우리 교인들에게는 그들이 도덕적으로 가장 천한 자들이라고 가르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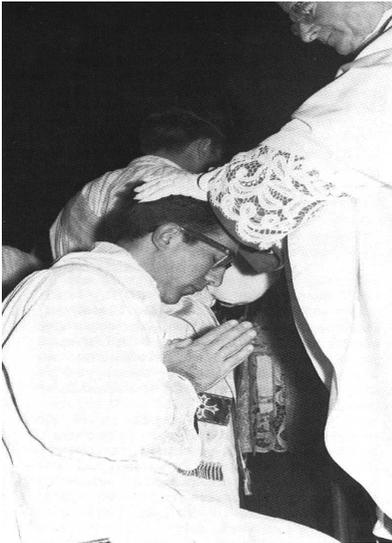
프로테스탄트 신자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권위를 주장하기에 나는 성경의 빛으로 그들의 오류들을 밝히 보여 주기 위해 책을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성경을 한 장씩 공부하면서 나는 그들이 아니라 바로 내가 오류에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실로 이것은 큰 충격이었습니다. 프로테스탄트 이단들을 논박하기는커녕 나 스스로가 로마 카톨릭 성경에 의해 논박당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 온 로마 카톨릭 믿음들이 성경에서 얼마나 멀리 벗어난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면 할수록 그동안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보다 사람의 생각에 복종해서 그것을 추종했음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한 장씩 공부하면서 얻게 된 것은 양심이 내 속에서 되살아난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나는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매우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제로서 성결의 이미지를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실제로 나는 온갖 죄에 굴복했고 완전히 세상적인 삶을 살아왔습니다.

내가 입은 검은색의 사제복은 내 마음의 어둠을 상



사제 서품을 받고있는 주니가

졌습니다. 아무리 많은 성사를 드리고 성인들에게 기도하며 참회하고 성수를 받고 사람에게 고백 성사를 해도 내 영혼이 갈구하기 시작한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없었습니다.

비록 신 살이 넘었고 또 카톨릭교회의 사제였지만 나는 마침내 내 마음을 하나님께 처음으로 내놓았습니다. 비록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내게 실제적으로 살아 계신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과 함께 슬픔에 싸여 내가 악한 삶과 지독한 죄들로 그리스도께 상처를 입힌 것을 회개했습니다. 나는 마음속으로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를 영적 어둠의 무덤에서 불러내시고 자기를 알고 느끼게 인도하셨습니다. 참된 영적 승리의 비결은 진실하고 생동감 있는 믿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만나는 데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영적인 복들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천주교 공회

## 의식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무니즈(Celso Muniz)



어릴 때부터 나는 끊임없이 실존과 확실성을 얻고자 노력했습니다. 젊었을 때 나는 사제가 되는 것이 진리를 경험하고 영혼 구원을 얻는 가장 좋은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번은 학교에서 선생님이 “사제가 멸망하는 것은 돌멩이가 물에 뜨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12년 과정의 신학교에 들어가서 로마 카톨릭교회의 규율

에 따라 완전히 내 삶을 바쳤습니다. 거기서 나는 여러 형태의 금욕을 실천했고 나중에 스페인의 오비에도에 위치한 메트로폴리탄 신학교에서 학장으로 또 ‘금욕주의 및 신비 신학’ 교수로 임명되었을 때에는 금욕주의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욕주의란 자기 자신을 정복하고 극도로 엄격한 자기 훈련과 절제와 혹은 육체에 가하는 징벌로 사람의 모든 열정과 욕구와 정욕을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강의를 통해 학생들에게 추구하라고 가르친 자기 통제와 마음의 평정과 확실성 등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생긴 불안과 더불어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성경과 비교해 볼 때 생긴 실망감 등으로 인

해 나는 매일 갈등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영적 싸움을 하던 시절에 해외에서 송신된 프로테스탄트 라디오 방송을 주의 깊게 듣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갈망하게 되었고 결국 성경을 내 영혼의 빛과 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업고 마루를  
기어 다니면서 고행하는 카톨릭교도



할머니들의 고행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싶었기에 나는 오직 성경만을 믿음의 유일한 인도 기준으로 삼는 교회로 알려진 교회와 접촉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그 교회 교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아주 새로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그분이야말로 오직 믿음을 통해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야 하는 완전하신 구원자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계속해서 연구하면 할수록 나는 로마 카톨릭주의의 오류들을 점점 더 뚜렷하게 볼 수 있었으며 결국 성경이 가르치는 회심을 나 스스로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속한 교회에

꽂꽂 묶여 있었으므로 나는 로마 카톨릭주의를 버리지 않은 채 그러한 경험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점점 더 로마 카톨릭교회가 스스로 만든 잘못된 가르침들과 고도로 복잡한 교회 조직을 통해 그리스도를 옆으로 치워 놓았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내게 무척 고통스런 일이었습니다.

나는 회심하던 날 밤을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내가 주님과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피난처로 삼고자 하던 날 드디어 내면의 갈등을 겪던 것이 모두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나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사실 나는 기도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서 기도가 솟아 나왔고 나는 기도를 멈출 수 없었습니다. 과거의 그 어느 때보다도 내 죄 짐이 매우 무거움을 느꼈습니다. 나는 정말로 나 자신이 죄성으로 가득한 존재임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아무 소망도 없이 비참한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염려가 되었습니다.



아스팔트 위에서 고행하는 카톨릭교도

나는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쓸모없는 존재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임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나는 성경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

을 깨닫고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어떻게 희망을 주셨는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봉대로 두르고 고행하는 카톨릭교도

그날 나는 그분께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용서와 평안을 거저 주시면서 나를 이끄시는 것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참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그들의 죄들로 인한 형벌을 기꺼이 받으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나는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버리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 자신을 맡겼습니다. 주 예수님, 내게로 오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만을 나의 유일한 구원자로 맞아들이며 주님께 나를 다 드립니다.

그 몇 시간은 마치 몇 분처럼 빨리 지나갔습니다.

나는 주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었음을 느꼈으며 사실 이것은 그전에 한 번도 느껴 보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나는 마음 깊은 곳에서 ‘오 주여,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영원토록 나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도대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나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리저리 흔들리고 의심하고 방황하던 것이 다 사라졌으며 그때 얻은 행복감은 완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택할 것인가, 로마 카톨릭교회를 택할 것인가를 두고 고민했으나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나는 결심했습니다.

나는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내 영혼을 자신에게 맡긴 것을 보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면서 내가 자신과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순히 이 길로 가면 된다고 길만 보여 주는 착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길 자체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단지 진리를 가르치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 진리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어떤 인간적인 목적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린 영웅이 아니라 자기에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직접 생명이 되어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금욕주의 신학 교수로서 무니즈는 자아를 제어하는 방법과 사람의 열망을 통제하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연구를 통해 불교의 승려들이 사용하는 기법들도 조사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거룩한 삶을 창출하기 위해 사람이 고안한 방법들을 잘 아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전문가가 사람의 본성은 무기력해서 자아를 향상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준수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무니즈 교수는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예를 듭니다.

나 자신의 죄성으로 가득한 본성이 완전히 부패한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나는 마치 파선해서 멀리 떨어진 해안을 바라보는 사람과 같았습니다. 그는 해엄을 쳐서 그 해안에 다다르기만 하면 안전을 얻을 것입니다. 그 해안은 멀리 떨어진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해안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단지 바닷물로 인해 가깝게 있는 것처럼 보인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해엄을 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해안에 가까이 다가갔을 때 갑자기 해류가 밀려와 그를 다시 바다 한가운데로 밀어 넣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해엄을 칩니다. 이 해류를 극복하고 해안에 닿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꾸자꾸 반복을 하지만 끝내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자연의 법칙이 자기를 밀어내어 자신의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한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제 절망한 상태로 그는 죽음을 기다립니다.

바로 이것이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자기 스스로를 구원하지 못함을 깨닫습니다.

그 영원의 해안에는 거룩한 하나님이 거주하시며 그분은 자신의 명령들을 사용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유지합니다.

이 명령들은 바로 그 영원한 해안의 앞에 있는 큰 파도와 해류입니다. 사람은 결코 자신의 힘으로 그것들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본질상 너무 약하고 죄성으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이 그림을 좀 더 확대해 보기 위해 해안에서 헬리콥터가 이륙했다고 상상해 봅시다.

조종사가 물에 빠진 이 사람을 볼 수 있을까요? 드디어 헬리콥터는 이 외로운 사람이 아무 소망 없이 파도를 이기려고 허우적대는 그 지점으로 가서 그의 머리 위로 밧줄을 내립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그 밧줄만 붙들면 헬리콥터는 그를 물에서 건져서 파도 위를 지나 안전한 해안으로 데리고 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것을 가장 잘 보여 줍니다. 그분께서는 영원한 곳에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 아버지 편에서 우리 쪽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죄의 형벌을 당하시면서 하나님의 진노의 파도 속에 친히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나와 여러분처럼 파선당한 사람들을 구조하십니다.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의 파도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서는 구원의 손을 내미십니다.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정죄의 바다에서 구출되어 새 생명을 얻습니다.

이제 다시 물에 빠진 사람을 보도록 합시다. 만일 그가 밧줄을 무시하고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해서든 해안에 다다라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분명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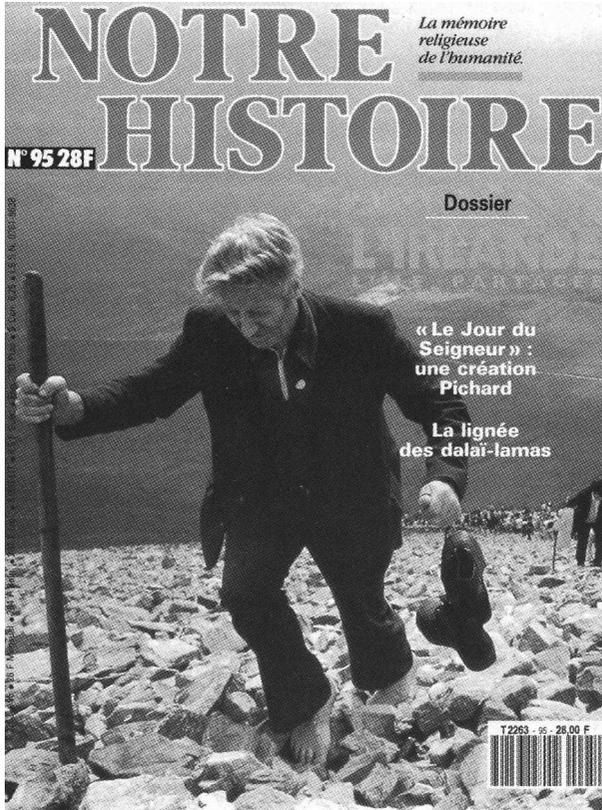
그가 반쯤만 신뢰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한 손으로는 밧줄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헤엄을 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는 양쪽 모두 실패할 것이고 결국 익사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성사와 면죄부와 선행과 성인들의 공로를 신뢰한다면 결코 주님이 주시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우리가 100%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때에 우리에게 거저 주어지는 것입니다.



돌산을 맨발로 오르는 고행 (아일랜드)



프랑스 베네딕트파 수도원

## 20년간 나는 내 믿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디 로렌조(Renato Di Lorenzo)

내가 로마 카톨릭교회를 떠난다는 것은 결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으며 더더욱 사제직을 버린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만일 누가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예언했다 하더라도 나는 절대로 그럴 리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열다섯 살에 살레시오파 수도원에 들어갔고 적절한 때가 되어 사제 서품을 받았습니다. 나는 주로 청년들과 함께 일했으며 사실 그 일을 기뻐했습니다. 이렇게 10년을 사제로 사역하던 중에 수도원장이 내게 징계를 내리면서 로마로 가서 한 달 동안 영성 훈련을 쌓고 오라고 했습



이탈리아의  
전직 사제 디 로렌조

니다.

내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한 젊은 여자에게 사랑을 느꼈다고 그에게 말했다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와 관계를 끊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내가 정말로 그 여자를 사랑하는지 확신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며 또한 이미 내 인생을 하나님께 바쳤으므로 내가 하는 일을 다시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런 결정 속에는 교만과 이기심도 많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제의 소명에 신실하지 못했다고 고백하

는 것은 사실 내게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나는 수도원장에게 다른 수도원으로 가게 해 달라고 부탁했지만 그는 내게 아버지처럼 따뜻한 훈계를 주지 않고 대신에 징계를 하겠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내 인생에서 이것이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것이며 또 윗사람들로부터 이로 인해 항상 의심받을 것임을 알았습니다.

로마에서 한 달을 지내는 동안 나는 좌절감을 느끼고 참담한 생각만 하게 되었습니다. 종종 어디로든 도망치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나폴리에서 일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나는 그때 깊은 좌절의 순간들을 보냈습니다. 주님께 기도했지만 내 주변의 일들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감옥에서 지내는 것처럼 나는 철저히 혼자가 되어 끊임없이 고통을 받고 나 자신의 결백을 확증하곤 했습니다.

그 수도원은 구 로마 시가지 근처의 셸리에 산에 자리 잡고 있었으므로 로마 시가지와 콜로세움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서 나는 내 밑으로 흘러가는 일상생활을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서로 사귀를 즐기고 서로를 사랑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정말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인지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들과 섞이고 싶었습니다. 나는 검은색 수사복과 사제복을 벗어던지고 다른 사람들처럼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고 싶었습니다. 사실 이런 옷들은 나 자신을 실제 사람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느 연로한 사제에게 이야기하면서 내 감정을 그대로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는 내 수도원장에게 과거의 사역지로 돌아가도록 허락해 달라는 내용의 편지를 쓰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보냈더니 수도원장은 내 죄와 범법으로 인한 대가로 이런 불쾌한 경험을 갖는 것을 고행으로 알고 이겨내야 한다고 하면서 그날은 외출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수도원장은 내가 순례자의 자세로 로마를 걸어다닐 것을 원했지만 나는 여행객처럼 로마를 관광했습니다. 그날 나는 저속한 신문과 잡지를 사서 보았지만 만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나는 여러 사제들에게 조언을 구했습니다. 그들의 논조는 항상 한 가지로 귀결되었습니다. 내 문제를 절대로 수도원장에게 말해서는 안 되며 나만의 비밀로 간직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수도원장은 교회의 법을 아주 엄격한 방법으로 해석했으며 있는 그대로 그것을 내게 적용했습니다.

나는 나폴리로 되돌아갔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서 사역을 계속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모님께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에서 지내는 동안 나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라 순종하며 지내온 날들을 되살펴보고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나는 로마 교회의 가르침이 성경에서 나온 것이 아니며 로마 교회는 자기의 가르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성경을 그릇되게 인용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는 오직 로마 교회를 통해서만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으므로 로마 카톨릭교회를 믿고 추종해야 한다고 배워 왔습니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은 곧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리하는 자 즉 교황에게 복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징계를 받는 독방에서 복음서를 읽으면서 나는 이 가르침이 복음서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마에서 나는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주소를 알기 위해 전화번호부를 자주 뒤적거렸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프로테스탄트 신앙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프로테스탄트들과 접촉하고자 했던 유일한 이유는 로마 교회를 떠나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해 도움을 받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나는 그들이 내 믿음의 갈등에 도움을 주리라고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나폴리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 프로테스탄트들을 만나 봐야겠다는 생각이 다시 들었고 혹시 그들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나는 사제로서의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만 일곱 달 동안 미사를 겨우 스무 번밖에 집례하지 않았고 고해 성사는 그보다 더 적게 했으며 설교를 해야겠다고는 아예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일요일에 나는 미사를 드리지 않고 밖으로 나가 무작정 걸었습니다. 걷는 도중에 나는 어느 건물에서 성경과 관련된 서적들이 진열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은 복음주의 교회의 입구였습니다. 당시에 나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제복을 입고 있었으므

로 혹시 이런 복장으로 들어가면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그 교회 목사에게 전화를 걸어 개인적으로 그를 만나 내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내게 전직 로마 카톨릭 사제들을 소개해 주었으며 그들은 내게 큰 도움을 주었지만 그때까지도 나는 내 교회를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 징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것이 조금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사제로서 그리고 젊은이들의 영적 지도자로서 내 임무를 다시 수행했습니다. 그러나 열정적으로 종교적인 일들을 많이 했지만 마음속에서는 그런 일들에 대한 혐오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미사를 믿지 않았고 사제로서 고해 성사를 듣는 것도 믿지 않았습니다. 새로 온 수도원장과 자주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내가 프로테스탄트 신앙 쪽으로 표류해 간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나더러 마리아에게 잃어버린 신앙을 되찾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이제 드디어 나는 불가피하게 사제직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있다가 나는 나폴리를 떠나 전직 사제들의 유명한 피난처가 있는 곳 즉 네덜란드의 벨프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께 죄들의 용서와 도움을 간구한 결과 나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나는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서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회심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탄생에는 수고와 고통이 있게 마련입니다. 20년간의 수도원 생활과 로마 카톨릭 신학교에서의 신학 훈련 그리고 고집이 센 내 성격이 더해져서 내가 하나님을 구하고 발견하는데 큰 장애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나는 어린아이 같은 자세로 주님께 나 자신을 드리고 “주님, 제가 믿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기쁨과 슬픔을 통해서 내 믿음을 강하게 해 주셨고 자신을 살아 계시고 개인적인 친구와 구원자로 내게 알려 주셨습니다.

## 글을 마치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딸이 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거듭거듭 참된 크리스천은 자기를 알며 자기와 동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기도와 죄들의 자백을 가지고 그분께 직접 나아옵니다. 그러면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알리며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삶 속에서 그분의 임재를 느끼며 그분의 크신 도움을 느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에게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허락하지 않는 종교를 믿고 있는데 이것은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며 변화를 받지도 못하고 도움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주 하나님과 그분의 사랑과 친절을 알고 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우리의 종교는 실제적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시간만 낭비하면서 내가 그럴 것이라고 믿는 종교를 믿고 있습니까? 그냥 “나는 천주교인입니다.” 혹은 “나는 장로교인입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마지막 날에 많

은 사람들이 “주님, 제가 종교를 추구하면서 이것을 했고 저것을 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서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교회나 종교 행위로 인해 자기들을 받아 주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크리스천이란 단지 다음과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참된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회개합니다. 그들은 진심으로 자기들의 죄에 대해 부끄러워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께 복종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전적으로 변화시켜서 새 생명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2,000년 전에 두 손을 활짝 벌리고 죄인들을 영접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회개하며 자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 주십니다. 우리가 그분에게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전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더 이상 종교를 신뢰하지 말기 바랍니다. 혼의 구원을 가져다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신뢰하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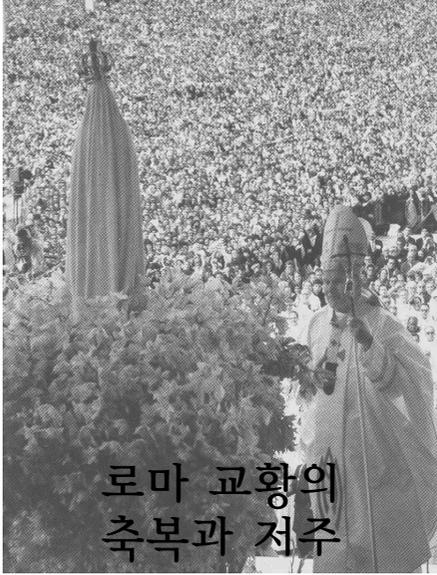


아시시 대성당



# 6

## 로마 교황의 축복과 저주



이 글은 영국과 호주에서 Protestant Publications(Box 551, Epping, N.S.W. 2121 Australia)가 발행한 「Papal Blessings and Curses」라는 제목의 소책자이다. 캐나다의 구영재 선교사님께서 번역했다.

1990년 이탈리아에서는 월드컵 세계 축구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특별히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 팀을 축복하고 다음날의 경기에서 승리할 것을 기원하였다. 그러나 교황의 축복은 오히려 아일랜드 팀에게 패배를 안겨다 주었다. 홈 그라운드의 이점을 살려 세계 제패를 꿈꾸며 결승에 진출했던 이탈리아 팀 역시 바티칸에서 로마 교황의 특별 축복을 받고 출전했으나 역시 패배의 잔을 마셔야만 했다. 이탈리아의 신문들은 로마 교황의 축복에 대해 의심했으며 로마 카톨릭교회의 주간지 「카톨릭 위클리」(*Catholic Weekly*, 1990년 7월 25일자)조차도 로마 교황의 축복의 효력에 대해 의아하게 생각하는 글을 실었다.

우리는 역사 공부를 통해 1588년 스페인 함대에게 일어난 일을 잘 알고 있다. 무적함대(Armada)를 자랑하던 스페인의 필립 2세는 영국을 정복하여 로마 교황에게 되돌려 주려고 금과 군인과 로마 교황의 축복을 가득 실은 아르마다 함대를 출항시켰다. 그러나 로마 교황의 축복이 그들에게 너무나 무거운 짐이었음이 곧 드러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쳐서 흩어 버리시고 그들 대부분을 산 채로 수장시켜 버리셨다. 역사는 로마 교황의 축복이 가져다주는 치명적인 것들에 대한 수많은 예를 우리에게 들려준다. 이 작은 책자를 통해 독자는 로마 교황의 축복과 저주가 어떻게 일관성 있는 결과를 가져왔는지 이제 보게 될 것이다.

이 책자는 오래전에 런던에서 ‘프로테스탄트진리협회’가 출간한 것이며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보강하여 이렇게 소책자로 만들었다. 천주교에 대해 바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프로테스탄트들 가운데 많이 생기기를 바란다.

## 로마 교황의 축복

1. 로마 교황 비오 9세(1846-1878 재위)는 시실리아의 왕에게 '황금 장미'<sup>1)</sup>를 보냈다. 그런데 이 왕은 그 축복을 받은 지 채 일 년이 못 되어 왕좌에서 쫓겨났다.

2. 역시 같은 로마 교황 비오 9세는 오스트리아의 황제를 축복했지만 황제는 일 년이 못 되어 베네치아를 잃었고 사도좌에서 참패를 당했다.

3. 로마 교황 비오 9세는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다. 그러나 얼마 후 그녀는 왕좌에서 쫓겨나 망명 중에 죽었다.

4. 로마 교황 비오 9세는 프랑스의 위제니 왕후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다. 그러나 일 년이 채 못 되어 왕과 왕비는 권좌에서 쫓겨났고 둘 다 망명 중에 죽었다. 그들의 외아들이었던 왕자는 아프리카에서 줄루족에 의해 살해되었다.

5. 브라질의 왕후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삼 일 후 왕후의 다리가 부러졌으며 왕과 왕비는 권좌에서 쫓겨났고 귀양 중에 죽었다.

---

1) 일반적으로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 박힌 금장식품. 교황이 사순절(라이타레 일요일) 4번째 일요일에 축복하며, 그가 표시할 수 있는 대표적인 영예들 가운데 하나로서 뛰어난 사람, 교회, 종교 공동체에 보내며, 만일 보낼 만한 적임자가 없을 경우에는 교황청에 보관한다. 매우 가치 있는 이들 금세공 예술품들의 역사적 건본들 중 많은 것이 녹여졌다. 이 관습의 기원은 불분명하지만, 최초의 신빙성 있는 이야기들은 11세기부터 유래한다. 물질적인 의미보다는 상징에 더 뜻을 두고 있는 장미는 보통 교황의 잔과 같처럼 종교적인 이유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로 설명을 적은 편지와 함께 보내진다(브리태니커 백과사전).

6. 브라질의 왕위 상속자였던 공주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녀는 곧 기형아를 출산했으며 망명 중에 죽었다.

7. 로마 교황은 멕시코의 막시밀리안 황제를 축복하였다. 그러나 황제는 곧 권좌에서 쫓겨났으며 자기 국민들에 의해 살해되었다.

8. 로마 교황은 역시 그 황제의 과부를 축복하였으나 그녀는 불치의 정신병에 걸려 망명 중에 죽었다.

9. 1870년 로마 교황은 수녀들을 가득 싣고 남아프리카를 향해 떠나는 증기선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이 배는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고 실종되었다.

10. 로마 교황은 몬테비데오에서 부에노스아이레스로 가는 호화 여객선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이 배는 이틀 후 침몰하고 말았다.

11. 로마 교황은 프랑스의 로마 카톨릭교도였던 블랑제(George Boulanger, 1837-1891) 장군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채 2주가 못 되어 그는 추방되었고 그 후 자신의 정부(情婦)의 무덤 앞에서 자살하였다.

12. 미국 남북 전쟁의 영웅이었던 셔만 장군의 부인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금 장미를 받은 직후에 죽고 말았다.

13. 윈드호스트(Ludwig Windthorst, 1871년에 결성된 독일 로마 카톨릭 중앙당의 지도자) 박사는 로마 교황이 수여하는 그리스도 훈장(Order of Christ)을 받은 뒤 채 일 년이 못 되어 죽었다.

14. 1895년 다마스쿠스의 대주교는 빠티리아에서 스페인의 군대와 함대에게 로마 교황의 축복을 기원하였다. 그 결과 스페인은 두 개의 함대와 두 개의 군단을 잃었다.

15. 1897년 로마 교황의 사절단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대자선 바자회를 축복하였다. 그러나 5분이 채 못 되어 바자회는 불길에 휩싸였고 오스트리아 황후의 자매를 비롯해서 거의 150명의 상류 인사가 사망하였다.

16. 가련한 오스트리아 황후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황금 장미를 받았다. 그 후 황후는 스위스의 제네바 호숫가에서 살해되었고 그의 아들은 자살을 했으며 왕위 계승자였던 그녀의 조카 페르디노는 사라예보에서 암살당해 그 결과 제1차 세계 대전을 불러일으켰다. 그 후 오스트리아는 힘을 잃고 더 이상 제국으로 불리지 않았다.

17. 로마 교황을 방문한 영국의 국왕 에드워드 7세는 교황 자신의 서명이 들어 있는 교황 레오 13세의 사진을 기념 선물로 받았다. 그러나 곧바로 영국군이 소말리아에서 역전을 당했다는 소식이 들렸고 왕의 건강은 악화일로로 치달아 죽을 때까지 회복되지 못했다.

18. 로마 교황은 영국 국왕의 특사였던 덴비 경을 축복하였다. 바로 그날 남아프리카의 영국군은 참패를 당했고 메투엔 경은 충상을 입었다. 영국 의회의 로마 교황 신봉주의자들은 이 뉴스를 듣고 기뻐했다.

19. 1923년 바텐베르크의 에나 공주는 결혼식 날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열나흘이 채 못 되어 그녀는 로마 카톨릭

무정부주의자들의 습격을 받았으며 13명이 사망하고 80여 명이 부상당하는 와중에서 겨우 도망쳐 목숨을 건졌으나 그녀의 결혼 예복은 피로 범벅이 되었다. 1931년 5월 그녀와 그녀의 남편(알폰소 13세 왕)은 왕좌에서 쫓겨나 스페인으로부터 탈출하였다.

20. 1906년 로마 교황은 로마 카톨릭교회로 개종한 세르비아의 나탈리 여왕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망명 중에 죽었으며 그녀의 외아들은 왕위에 올랐다가 살해되었다.

21. 오를레앙 가에 속한 포르투갈의 한 왕비는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왕이었던 그녀의 남편과 장남은 마차를 타고 가다가 왕비 옆에서 살해되었고 간신히 목숨을 건진 왕비는 살아 남은 다른 한 아들과 함께 영국으로 망명하였다. 그 후 포르투갈은 공화국이 되었다.

22. 권세가 극에 달했던 독일의 황제는 1908년 로마 교황을 방문하고 그의 축복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1918년에 왕위를 잃었고 망명 중에 죽었으며 독일은 패망하여 약소국으로 전락하였다.

23. 1914년 영국의 재벌 에드워드스는 로마 교황의 신봉자가 되었으며 그 뒤 1916년 로마를 방문하고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았다. 그리고는 4일 후에 갑자기 죽었다.

24. 1926년 로마 교황은 벨기에의 엘리자베스 왕비에게 황금 장미를 보냈다. 그러나 1934년 왕 알베르 1세는 등반 사고로 죽었고 그들의 며느리였으며 왕비가 되기 위해 천주교로 개종한 스웨덴 출신의 아스트리드 왕비 또한 스위스에서 교통사고로 죽었다.

25. 1928년 로마 교황은 비행선 ‘이탈리아’를 축복하고 북극

짐에 놓을 십자가도 주었다. 그러나 결과는 치명적이었다. 비행선은 추락하여 두 동강이가 되었고 승무원의 절반은 실종되었다. 노빌 장군은 부상을 입었고 그 후 사건 조사 위원회로부터 심한 견책을 받았다. 이 사건은 그 당시 최악의 사건이었다.

26. 무솔리니가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학살하고 그 땅을 약탈했을 때 로마 교황은 이탈리아 국민을 '위대하고 선량한 국민'이라 치켜세우면서 축복하였으나 무솔리니와 그의 정부(情婦)는 살해되어 거꾸로 매달린 채 군중에게 공개되었다.

27. 1961년 영국의 여왕 엘리자베스 2세는 로마 교황청의 요청대로 검은색 의복을 입고 로마 교황을 방문하였다. 그 이후로 해가 지는 일이 없었던 대영 제국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으며 로마 협약에 의한 유럽 공동 시장에 가입함으로써 그 주체성을 잃고 경제적으로 로마에 예속되는 길을 걷게 되었다. 또 영국 왕실 왕족들이 로마 교황과 잦은 접촉을 가짐으로써 자신들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정치/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안겨 주었다.

28. 1963년 3월 7일 소련의 흐루시초프 수상은 로마 교황을 직접 접견하지는 않았지만 바티칸 - 소련 간의 관계 개선을 증진시키기 위해 딸과 사위인 아주벨을 로마에 보내어 로마 교황을 접견하게 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 년 반이 지난 후 1964년 10월 16일 그는 권좌에서 밀려나 당 서기장직을 사임하였으며 그 이후로 정치 세계에서 잊혀진 인물이 되었다.

29. 1963년 7월 2일 미국의 케네디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고 축복을 받았다. 그 후 그는 월남 파병 병력을 증강시킴으로써 미국을 월남전에 깊이 개입시켰고 그러다가 1963년 11월 12

일에 암살당하고 말았다.

**30.** 1964년 로마 교황은 황금 장미를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보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영토 내에서는 특히 '거룩한 장소' 로 불리는 그곳에서는 끊임없이 소요가 일어나고 있다.

**31.** 1964년 5월 12일 요르단의 후세인 왕은 로마 교황을 접견했다. 그러나 그로부터 일 년 후 1965년 6월 5일 요르단군은 '6일 전쟁' 에서 이스라엘군에게 대패하였고 그는 많은 영토를 잃게 되었다.

**32.** 1964년 10월 12일 인도네시아의 수카르노 대통령은 자기의 권력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로마 교황을 접견하고 평범한 신도로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명예를 받았다. 그러나 그는 1967년 2월에 축출당하고 말았다.

**33.** 호주의 노동당 당수인 콜웰은 로마 교황으로부터 기사 작위를 받았다. 그러나 곧이어 그의 정치 생활은 끝이 나고 말았고 결국 정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34.** 1965년 10월 5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뉴욕시를 방문해서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였다. 존슨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로마 교황을 방문하였고 미국을 위해 참으로 뜻깊은 방문이라며 환영하였다. 대통령은 자신의 부인과 딸을 로마 교황에게 소개하였고 그 뒤 그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미사에 자주 참석하였다. 1968년 4월 1일 그는 차기 선거에 나서지 않을 것을 선언함으로써 사실상 은퇴하였으며 일 년 후 사망하였다. 그가 임기를 치른 3년은 미국 정치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시기였다. 50만 명 이상의 미군이 월남에 파병되었으나 전쟁은 교착 상태에 빠졌다. 대학가에서

는 반전 데모가 한창이었고 흑인 폭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났다. 해외에서의 미국의 위신은 크게 실추되었다.

**35.** 1966년 4월 24일 그리스의 콘스탄틴 왕과 마리 왕비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일 년 후인 1967년 4월 21일 일단의 육군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콘스탄틴 왕을 폐위시켰다. 같은 해 12월 12일 친왕파가 일으킨 쿠데타가 실패하자 왕과 그 가족은 그리스로부터 탈출했다.

**36.** 1967년 2월 5일 로버트 케네디 상원 의원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함과 동시에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68년 6월 6일 그는 암살되고 말았다.

**37.** 1967년 6월 1일 프랑스의 드골 장군은 독일, 이탈리아, 일본 등의 전쟁 주축국이 항복한 후 형성된 평화 위원회에 바티칸 대표를 절대 용인하지 않겠다는 종래의 태도를 바꾸어 로마 교황과 화해하기 위해 로마 교황을 접견했다. 그러나 1969년 8월 24일 드골 대통령은 헌법 개정안이 부결된 후 사임하고 말았다.

**38.** 1967년 5월 12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포르투갈의 파티마를 방문하여 그 당시 수상이던 살라자 박사로부터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일 년 후인 1968년 9월 8일 살라자 수상은 중풍에 걸려 사임하고 캐타노 박사가 새 수상이 되었다.

**39.** 1969년 7월 31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아프리카의 우간다를 방문하여 자신을 초청한 오보테 대통령에게 기사 작위를 수여하고 우간다 국민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1971년 1월 오보테 대통령은 이디 아민이 일으킨 쿠데타에 의해 하야했고 국외로 추방되었다. 그 후 8년 동안 우간다 국민은 이디 아민의 폭정에 시

달렸다. 1975년 9월 10일 이디 아민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79년 4월 12일 인접한 탄자니아에서 온 해방군이 그의 군대를 격파하였고 이디 아민은 해외로 탈출하였다.

**40.** 1970년 9월 29일 닉슨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방문하고 월남전에서 미군을 모두 철수시킬 계획을 말하였다. 이때 그는 로마 교황으로부터 냉대를 받고 축복도 받지 못하였다. 1972년 닉슨 대통령은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하였다. 불행하게도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닉슨 대통령은 미국 헌법이 바티칸의 공식 대표부를 두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자신의 개인적인 특사를 바티칸에 보내어 로마 교황청과 타협하였다. 1972년 12월 21일 닉슨 대통령의 딸 패트리샤와 사위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74년 8월 24일 닉슨 대통령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 불명예스럽게 대통령직을 사임하였다.

**41.** 1970년 10월 10일 에티오피아의 셀라시에 황제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 1972-1973년에 걸쳐 에티오피아는 극심한 기근과 가뭄에 시달렸다. 그러다가 1974년 8월 그는 쿠데타에 의해 폐위당하고 군부가 권력을 장악하였다. 결국 그는 1975년 8월 27일 감옥에서 죽고 말았다.

**42.** 1970년 11월 30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파키스탄을 방문하고 폭풍으로 인한 피해 상황을 돌아보며 난민들을 동정하였다. 그러나 1971년 3월 내전이 일어나 일 년 이상 계속되었고 수십 만의 사람이 죽고 수백만 명이 난민이 되었다. 1972년 4월 로마 교황의 방문을 허락하였던 칸 대통령은 인도와의 전쟁에서 패배한 후 하야했다.

43. 1970년 12월 로마 교황 바오로 6세는 호주를 방문하여 하나님의 복이 위대한 호주 위에 함께 하기를 기원하고 또 평화와 번영이 함께 하기를 기원하며 호주를 축복하였다. 그의 추종자들은 매우 기뻐하며 국가 위에 큰 복이 임하기를 기대하였으나 실제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1973년 4월 27일 위트랩 수상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고 몇 달 후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지도 않고 호주 역사상 최초로 바티칸과의 외교 관계를 열었다. 그 후 많은 노동 쟁의가 일어났으며 절제 없는 임금 인상 요구, 경제 불황, 17%에 이르는 높은 인플레이션, 심각한 실업률 등은 1982년이 될 때까지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1974년 12월 25일 다윈시는 무서운 폭풍우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1975년 12월 13일 호주 노동당은 선거에서 패배했다. 그 뒤 프레이저가 수상이 되었고 다시 한 번 노동당이 참패하면서 위트랩은 당수직에서 물러났다.

44. 1972년 10월 5일 영국의 히드 수상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 뒤 1973년 12월 17일 영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최대의 경제적, 산업적 위기에 빠지게 되었다. 1974년 3월 4일 보수당이 패배하고 히드 수상은 사임하였다. 그리고 1975년 2월 마가렛 대처가 당수가 되고 히드는 당수직에서 물러났다.

45. 1972년 11월 14일 망명 중이던 아르헨티나의 전 대통령 페론은 새 대통령으로 부임하기 전에 먼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74년 7월 2일 그는 일 년간의 공직 생활 후 심장 마비로 죽고 말았다.

46. 1973년 4월 9일 월남의 티우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75년 7월 24일 월남군은 월맹군과 베트남에 의해 완전히 축출되었고 티우는 사임하고 해외로 탈출하였다.

47. 1975년 6월 4일 미국의 포드 대통령 부부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 뒤 1976년 11월 4일 포드 대통령은 선거에서 패배하고 카터가 새 대통령이 되었다.

48. 1977년 6월 4일 호주 수상 프레이저는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런데 이번에는 프레이저 수상에게 재앙이 내리는 대신에 1978년 8월 6일 로마 교황 바오로 6세가 죽었다. 그런데 그로부터 세 달이 지나서 새로 선출된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1세도 급작스럽게 죽었다. 그러나 프레이저 수상에게 올 재앙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그의 인플레이션 대응책은 큰 실패로 돌아갔고 호주는 최대의 실업률로 인해 큰 곤경을 당했다.

49. 1978년 2월 14일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81년 10월 7일 그는 암살당했다.

50. 1979년 12월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터키를 국빈 방문하여 디미렐 수상의 영접을 받았다. 그러나 1980년 9월 12일 디미렐 수상은 에브렌 장군이 이끄는 터키 군부의 무혈 쿠데타에 의해 하야하고 말았다.

51. 1979년 10월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미국을 방문하자 교황에 대한 찬사를 늘어놓았을 뿐 아니라 백악관에까지 초청하였고 의회 연설까지 하게 했다. 그리고 연이어 카터 대통령은 1980년 6월 23일 개인적으로 바티칸을 방문하였다. 1980년 12월 선거에서 그는 레이건에게 압도적인 대패를 당했다. 로마 교황의 두 번에 걸친 축복도 그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다.

52. 1981년 2월 오히라 수상은 일본을 방문한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환영하였다. 그러나 같은 해 6월 12일 그는 심장 마비로 사망하였다.

**53.** 1981년 2월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필리핀 군도를 방문하여 관습대로 땅에 입을 맞추며 필리핀을 축복하였다. 그 이후 이 나라는 태풍으로 인해 수많은 인명과 재산을 상실하였다. 마닐라의 대주교 신 추기경은 필리핀의 경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The Age』, 1981년 2월 1일자). 마르코스 대통령은 굴욕스럽게 쫓겨났고 새 대통령이었던 아키노는 인기를 잃었다. 재앙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 것이다.

**54.** 1980년 5월 9일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가나의 아크라를 방문하여 리만 대통령의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1982년 1월 1일 로링스는 군사 혁명을 일으켜 리만 대통령의 부정부패를 규탄하고 그 정권을 축출했다. 그 뒤 리만 대통령은 해외 탈출을 시도하다가 체포되었다.

**55.** 1980년 6월 2일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프랑스를 방문하여 데스땡 대통령으로부터 국빈 예우를 받고 개인 면담을 가졌다. 그러나 일 년이 채 못 된 1981년 5월 그는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당 당수인 미테랑에게 패배당했다.

**56.** 1980년 7월 1일 로마 교황은 10일 간에 걸쳐 브라질을 방문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1982년 브라질 정부 관리들은 900억 달러의 외채를 지고 있음을 시인하였다. 또 1983년에는 지난 5년 동안의 가뭄으로 인한 기근이 브라질 일부 지역을 휩쓸었고 브라질은 경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다.

**57.** 1981년 11월 11일 인디라 간디 인도 수상은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그러나 1984년 11월 그녀는 시크 교도인 자신의 경호원에 의해 살해되고 말았다.

**58.** 1982년 2월 로마 교황은 나이지리아를 방문하여 세가리 대통령의 영접을 받았다. 그 뒤 1984년 세가리 대통령은 바하리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군에 의해 축출당했고 1985년에는 바하리 대통령도 다고나라 장군이 이끄는 쿠데타 군에 의해 축출당했다.

**59.** 1982년 6월 로마 교황은 아르헨티나를 방문하여 야외 미사에서 갈티에리 장군을 비롯한 군 수뇌 장성들을 축복하였다. 그러나 그로부터 4일 후 아르헨티나군은 포크랜드섬의 스텔리 항구에서 영국군에게 항복하고 갈티에리 장군은 사임하였다. 1983년 10월에는 아르헨티나 공군의 고위 장성 두 명이 비행기 사고로 사망하였다. 그중 한 사람은 공군 사령관 플레시 장군이었다. 그 뒤 갈티에리 장군은 전쟁 실패로 인해 12년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이 얼마나 큰 복인가?

**60.** 영국은 사상 초유로 로마 교황이 영국을 방문하겠다는 호의(?)를 수락하였다. 그러나 1982년 5월로 예정된 로마 교황의 영국 방문을 몇 주 앞두고 영국은 국민의 95%가 로마 카톨릭교도인 아르헨티나와의 전쟁에 휘말려들었다.

**61.** 1982년 9월 모나코의 그레이스 왕비는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 이 사고가 있기 약 2년 전 왕과 왕비는 로마 카톨릭 선전 영화를 촬영하는 동안 로마 교황을 접견하였다.

**62.** 1984년 5월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푸아뉴기니를 방문하여 열광적인 환영을 받았다. 같은 해 9월 뉴브리튼섬의 울루웨이 화산이 분출하여 섬 주민들이 급히 대피하였고 1985년

에는 집단 강간, 살인, 강도 등의 폭력 사건이 온 섬에 만연하였다. 또 1986년에는 그 당시 지도자였던 소매어가 윈티에 의해 축출당했다.

**63.** 1984년 5월 로마 교황은 구아달카날과 호니아라를 방문하여 솔로몬 군도를 축복하였고 아울러 인근 피지와 바누아투섬에서 온 방문자들도 축복하였다. 그런데 1985년 1월 에릭이라는 이름의 태풍과 니젤이라는 이름의 태풍이 연달아 섬들을 강타하였다. 이로 인해 특히 피지와 바누아투에 있는 가옥과 농장이 큰 피해를 입었다. 1986년 3월 나무라는 이름의 태풍이 솔로몬 군도를 강타하여 그 지역을 황폐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섬 주민의 절반은 집을 잃었으며 이 태풍은 계속해서 시카이나, 말라이타, 구아달카날, 산크리스토크섬들을 강타하였다.

**64.** 1985년 8월 13일 로마 교황은 아프리카의 카메룬의 보멘다시를 방문하고 근처에서 야외 미사를 가졌다. 그로부터 1년 후 화산호(湖)인 니요스 호수에서 독가스가 분출되어 보멘다시 외곽 지대의 촌락에서만 2천 명이 사망하였고 짐승과 가축이 폐죽음을 당하였다.

**65.** 1986년 11월 22일 로마 교황은 랭 수상이 이끄는 뉴질랜드를 방문하여 환대를 받았다. 그러나 1989년 8월 랭 수상은 더 이상 정치적 압력을 견디다 못해 사임하였다. 비록 그가 속한 당이 1987년 8월 선거에서 이겼지만 그에 대한 개인적인 추문은 계속해서 그를 괴롭혔다.

**66.** 1986년 11월 25일 뉴질랜드 야당 당수였던 하워드는 의회에서 로마 교황을 환영하였다. 그의 환영 연설문 중 일부는 다음

과 같다. “로마 교황께서는 이 시대의 가장 존경받는 기독교인으로서 이곳을 방문하셨습니다. … 우리는 당신을 위대한 교회의 가장 추앙받는 지도자로 환영합니다. … 기독교 신앙의 최고 멤버로서 말입니다. …” 그러나 하워드는 1988년 총선에서 패배를 했고 결국 자유당 당수직에서 밀려났다.

**67.** 1986년 11월 26일 케넷은 비록 자신이 로마 카톨릭교도가 아니지만 그래도 플레밍톤 경마장에서 로마 교황이 집전하는 미사에 참가할 것을 선언하고 로마 교황을 만났다. 그러나 1989년 케넷은 빅토리아에서 있던 선거에서 패배했고 6개월 후에 자유당 당수직에서 물러났다.

**68.** 1986년 11월 26일 뉴사우스 웨일즈의 수상인 언스워스는 시드니에서 로마 교황을 영접하였다. 그러나 호주 노동당은 1988년 선거에서 패배하고 언스워스는 실각하였다.

**69.** 1986년 12월 1일 호주의 재벌 본드는 퍼쓰에서 로마 교황을 영접하여 무릎을 꿇고 교황의 반지에 입을 맞춘 후 교황과 개별 면담을 가졌다. 그 후 그는 사업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호주의 방송 심의 위원회는 본드가 방송 면허를 소유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하였고 그는 재정적으로 큰 위기를 맞게 되었다.

**70.** 1987년 로마 교황이 미국을 떠난 지 채 한 달이 못 되어 월가(Wall Street)의 주가가 폭락하였고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검은 월요일’(Black Monday)을 맞았으며 미국은 로마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가져다 준 복에 깔려 휘청거렸다.

## 로마 교황의 저주

아마도 지난 2,000년 동안 로마 교황 혹은 로마 교황청의 축복을 받고 망한 사람들을 세어 본다면 시간이 부족할 것이다. 두 번이나 로마 교황의 축복을 받은 한국, 그가 떠난 후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역대 로마 교황들은 거의 로마를 떠나지 않고 죽었으나 '슈퍼 스타', '날아다니는 교황'이라는 별명이 붙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지구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축복했다. 그러나 그의 발이 닿는 곳마다 재난이 생겼으며 이 사실은 온 세상에 임할 재앙을 우리에게 예고해 주고 있다. 로마 교황의 축복이 재앙을 동반한다면 그의 저주는 응당 복을 가져올 것이다.

1. 로마 교황 비오 9세는 이탈리아의 해방자 에마누엘 왕을 저주하였다. 또 이탈리아를 자유국으로 만들고 로마를 그 수도로 선포한 이탈리아 정부를 저주하였다. 로마 교황의 저주로 인해 이탈리아는 세계 열강의 하나가 되었지만 에티오피아를 정복하려 떠나던 이탈리아군을 로마 교황이 축복한 후부터 이탈리아 제국은 다시 붕괴하기 시작했다.

2. 가리발디는 그의 모든 애국적인 노력 때문에 로마 교황으로부터 파문을 당했다. 특히 시실리아 왕국을 전복시켰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그러나 가리발디는 이탈리아의 영웅이 되었고 그를 기념하는 기념물이 여기저기에 세워졌다.

3. 비스마르크와 프러시아의 왕이 제수이트(일명 예수회) 사제

들을 추방하자 로마 교황은 프리시아를 저주했다. 그러나 로마 교황의 저주는 복이 되어 프리시아는 세계 열강의 하나가 되었고 오스트리아와 프랑스를 격파하였으며, 그 이후 그 지도자가 로마 교황과의 친교 관계를 맺는 불운을 맞기까지는 오랫동안 서유럽에서 최강의 제국으로 군림하였다.

4. 헨리 8세와 엘리자베스 여왕에게 내린 로마 교황의 저주는 영국에게 큰 복이 되었다. 반대로 아일랜드에 내려진 로마 교황의 축복은 아일랜드를 황폐하게 만들었다.

마르틴 루터가 로마 교황 레오 10세로부터 받은 저주로 인해 온 세계의 기독교회가 누려온 복을 어찌 다 헤아릴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엄히 말씀하고 계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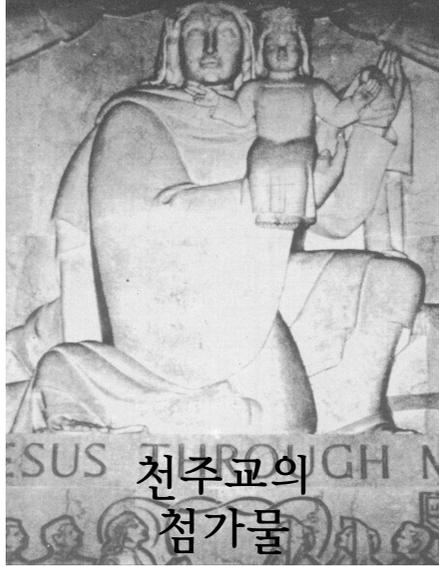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만일 너희가 들으려 하지 아니하며 그것을 마음에 두려 하지 아니하여 내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면 내가 심지어 너희에게 저주를 보내어 너희의 복들을 저주하리라. 참으로 내가 이미 그 복들을 저주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말 2:2)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대원군을 일으키사 프랑스 군함에 실려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세력을 막게 하였고 결과적으로 대원군의 쇄국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로마 카톨릭 국가가 되지 않았다. 세계 지도를 펼쳐 놓고 로마 종교가 들어간 나라들을 자세히 들여다 보기 바란다.

오늘날 로마 종교와의 일치 운동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의 낭만적인 에큐메니컬(종교 통합) 지도자들이 받을 저주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들이 범하는 죄악은 실로 너무나도 크며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약탈하는 이리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마 7:15-20)





## 천주교의 첨가물

이 글은 영국에서 1991년에 발간한 「Focus」지의 'The Split Between Roman Catholicism and Christ' 를 번역한 것이다. 성경과의 비교를 통해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과 얼마나 다른지 확인하기 바란다. 역사를 역사로 볼 때 동일한 실수를 저지르지 않을 것이다. 초대 순교자들과 중세 개혁자들의 피가 헛되지 않도록 성경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작금에 로마 카톨릭교회는 프로테스탄트들에게 로마의 교황을 전 기독교계의 수장(首長)으로 인정하라고 끊임없이 뻔뻔한 요구를 하고 있다. 그들은 역사의 논증을 들어가며 프로테스탄트 신앙을 교란하고 있으며 로마 카톨릭교회만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참된 교회임을 확신시키려 하고 있다. 이 소책자는 이 같은 허위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것이다.

### 차이점

성경에 기록된 단순한 복음과 겉으로 보기에 웅장한 로마 종교의 차이점은 처음부터 명백하게 드러났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골은 더욱 깊어만 갔다. 사람이 만든 교리와 교회의 요구 조건과 법령들은 천주교회라는 독재 체제하에서 하나님께서 부여한 신성의 법이 되었으며 그 결과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반드시 교황에게 복종해야 한다.”는(보니파스 3세의 교서) 법이 생기고 말았다.

## 역사의 사실들

역사의 사실들은 그리스도의 교회와 로마 카톨릭 체제 사이의 간극이 시간을 타고 가면서 얼마나 넓게 벌어졌는가를 잘 보여 준다. 또한 역사의 사실들은 현재 로마 카톨릭교회가 요구하는 바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사람이 만든 로마 카톨릭교회의 교리와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교리 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만 함을 분명하게 보여 준다.

이 소책자는 역사적 사실만을 보여 준다. 로마 카톨릭교회가 이런 것들을 들어 자기들에게 유리한 역사적 증거라고 주장하듯이 우리는 여기에서 역사가 진실로 무엇을 말하는지 보여 주고자 한다. 로마 천주교의 말 다음에는 비교를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적었다.

이제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려는가?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 주후 593년 연옥 교리 창안

#### ▪ 로마가 연옥을 창안하다.

“우리는 연옥이라는 곳이 있음을 믿음으로 아나니 그 곳은 사소한 실수나 혹은 죄로 인한 잠정적 형벌을 용서받는 곳이다.” (보스턴의 오코넬 추기경, 『The Catholic Church, The True Church of the Bible』, p.178)

- **하나님이 잠정적 형벌은 면제해 주지 않았다.**

“만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항상 모든 죄와 형벌을 사해 주시며 또 고해자들이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위해 속죄하셨다고 믿는 믿음으로 속죄를 받는다고 말하면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이다.”  
(‘트렌트 공회’ Session XIV, Canon 12)

- **면죄부는 잠정적 형벌을 면제해 준다.**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 거리에서 저 거리로 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한 이름을 부르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 어디에 있을까? 면죄를 위해 그 이름을 외치는 것은 더할 나위 없이 가치 있는 일이다. ‘예수님의 자비를!’ 하고 한번 외치면 100일의 면죄요, ‘예수님의 거룩한 마음이며, 당신을 믿나이다!’ 하고 한번 외치면 300일의 면죄요,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마음이며, 당신은 나의 사랑이십니다!’ 하고 한 번 외치면 300일의 면죄요, 통회와 사랑을 적절히 구사하면 1분 안에 1,000일의 면죄 즉 1,000일간 잠정적인 형벌이 면제되는데 예전에는 고해자가 1,000일간 재를 쓰고 뉘우칠 때에만 이 같은 면제가 가능했다.”(‘Messenger of the Sacred Heart’)

## 하나님의 말씀

- **성경에는 연옥이 없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의 강도]에게 이르시되,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눅 23:43)

– 심지어 강도에게도 연옥은 없다.

- 그리스도께서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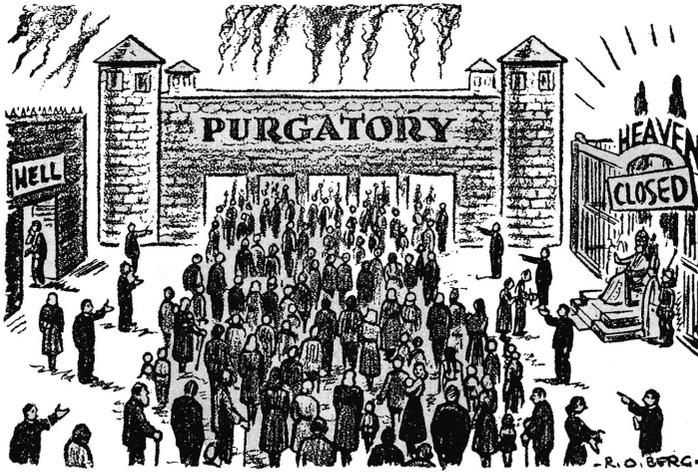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고정되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려 하는 자들이 갈 수 없고 거기서 오려 하는 자들도 우리에게 건너올 수 없느니라, 하니” (눅 16:26)

- 그리스도께서는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것을 알지 못한다.

- 기회는 단 한 번이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히 9:27)

- 죽은 뒤에는 심판이 있으며 연옥이 있지 않다.



From *The Concrete Catholic Magazine* of November, 1849

천국은 교황이 가로막아 폐쇄되고 연옥과 지옥만 열려 있음

- 하나님의 용서는 모든 죄를 포함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

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롬 8:1)

-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는 연옥이 필요 없다.

■ 그리스도를 통해 연옥 없이 하나님과 화해한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들을 그들에게 책임 지우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고후 5:19)

-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화해한다.

■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한 희생 헌물을 드리셨다.

“이는 그분께서 한 번 헌물을 드림으로써 거룩히 구별된 자들을 영원토록 완전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히 10:14)

- 연옥을 주장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헌물이 완전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 값없이 의롭다고 여겨진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롬 3:23-24)

- 천주교는 값없이 의롭게 됨을 믿지 않는다.

■ 모든 것이 용서된다.

“또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의 무할례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너희의 모든 범법들을 용서하셨으며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반대하던 것 즉 손으로 규례들을 기록한 것을 지우시고 그것을 길에서 치우사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며” (골 2:13-14)

- 면죄부가 필요 없다.

- 형벌이 제거된다.

“그분은 우리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며 우리 죄들뿐만 아니요 또한 온 세상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라.” (요일 2:2)

- 연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는다.

### 주후 754년 세상 권력

교황 스테반 2세는 프랑크의 피핀의 도움을 받아 이탈리아에서 교황의 권위를 세우려고 그에게 왕위를 주었다.

#### 하나님의 말씀

-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요 18:36)

- 프로그램을 써서 세상 권력을 추구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 주후 847년 이시도르 교령집

주후 847년에는 중대한 위조문서들이 모두 수집되었으며 이것



카이사르의 타이틀(Pontifex Maximus)을 탈취한 로마 교황

들은 다 교황의 우월성을 강조했다. 이 교령집은 이시도르라는 사람이 수집하여 편찬한 것으로 실베스터 1세(314-335 재위)로부터 그레고리 2세(715-731 재위)에 이르기까지 33명의 교황들의 서신을 담고 있다. 1580년에 발간된 「공식 교회법」(*Corpus Juris*)은 여전히 이 교령집이 진짜라고 선언하고 있다. 이 교령집의 목적은 전적으로 로마의 주교인 교황을 포함한 로마 카톨릭 주교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 이 문서는 에라스무스(1536년 사망)와 물랭(1556년 사망)에 의해 처음으로 위조문서로 증명되었다. 물랭은 종교 개혁에 참여한 로마 카톨릭교회법 학자였다.

로마 카톨릭교회의 기초가 된 이 교령집의 규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평신도는 주교를 고소할 수 없다.
- ② 사제는 상급자를 고소할 수 없다.

③ 주교에 대한 유죄 판결은 72인의 증인을 필요로 한다.

④ 주교는 세속 재판관 앞에서 고소당하거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는다.

교황 니콜라스 1세(858-867 재위)는 865년 1월 22일자 서신에서 마치 이 교령집이 로마 교회의 공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것처럼 가장함으로써 프랑스 주교들과 논쟁할 때에 이 문서들을 광범위하게 사용하였다. 11세기경에 이 위조 교령집은 로마 교회의 교회법의 일부가 되었고 그 결과 종교 개혁 시까지 교회법 교육에서 두드러진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 로마 교회가 위조 사실을 시인한다!

“이시도르가 위조자였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로 남아 있다. 하지만 위조자들 중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교황들이 이 위조문서의 덕을 보았음은 사실이지만 교황들의 훌륭한 믿음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시도르는 로마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문서들을 작성했다. 그것은 그다지 정직한 과정을 거친 것은 아니었으며 이시도르는 양심적이지 못했다. 하지만 9세기 사람들을 현대 문학의 도덕 규범에 의거하여 판단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러한 위조 행위를 묵과할 수는 없으나 위조의 역사는 우리에게 위조 행위들을 판별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제공해 주기도 하므로 이 같은 위조 행위는 소위 역사적 운명론이라는 것과 함께 작용해 왔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5권, pp.773-780)

**하나님의 말씀**

■ 교회의 프로그램은 오직 그리스도에게서만 나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 28:19-20)

- 만일 로마 천주교가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랐다면 위조문서에 의지할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만들어 교회에게 준 명령을 미워하신다.

“오히려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들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마 15:9)

- 사람이 고안한 명령은 필요 없다.

### 주후 858년 콘스탄틴의 거짓 기증

주후 858년에 나타난 콘스탄틴 황제의 문서들은 콘스탄틴이 로마에게 온 땅의 세속 권력에 대한 절대적인 우월권을 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증서는 콘스탄틴 대제가 교황 실베스터 1세(314-335 재위) 앞으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위조문서로 다른 여러 증여물과 함께 다음에 열거하는 특권과 재산을 로마 카톨릭교회에게 기증하겠다는 내용을 요지로 하고 있다.

① 성 베드로의 후계자인 로마 주교(로마 교황)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예루살렘의 네 주교를 관할하는 지상권을 가지며 전 세계의 주교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② 콘스탄틴 황제가 건축한 로마 교회의 라테란 바실리카는 온

교회의 머리로서 가장 상위에 선다.

③ 로마의 주교는 황제와 동등한 명예와 권한을 가지며 그중에는 제국의 왕관을 쓰고 자줏빛 망토와 튜닉을 입으며 제국의 모든 특수한 훈장과 표식을 부착할 수 있는 권한 등이 포함된다.

④ 황제는 로마의 주교와 라테란 궁전의 후계자들에게 로마 시의 모든 교구는 물론 이탈리아의 모든 주, 성, 도시 및 서방 지역들을 기증한다.

⑤ 황제는 동쪽에 그의 이름을 따서 콘스탄티노플이라는 새 수도를 건립하고 행정부를 이 신도시로 이주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독교의 수장이 거하도록 정한 곳에서 세속 정부가 권력을 갖는다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⑥ 이 문서는 이 같은 기부 행위를 감히 위반하려는 사람들을 저주하며 콘스탄틴 황제가 손수 서명하고 성 베드로 묘지에 갖다 둔 것임을 명백히 밝히고 있다.

교황은 샤를마뉴 대제의 지지를 얻기 위해 이 같은 ‘콘스탄틴 황제의 기증서’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독실한 신앙을 가진 콘스탄틴 대제와 그의 관대함을 통해서 거룩하게 기념되고 있는 복되신 실베스터 로마 주교의 시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로마 카톨릭 사도 교회가 높임을 받고 존중을 받으며 이들 서방 지역에 권위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당신과 우리에게 있어서 지극히 행복한 이 시대에도 복된 성 베드로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약동하고 전진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교황 아드리안 1세가 주후 778년에 샤를마뉴에게 보낸 서신)

#### ■ 로마 교회가 이 사실을 시인한다!

심지어 종교 개혁 기간에도 로마 카톨릭교회의 저술가들은 이 기증서를 여전히 옹호해 왔다. “15세기에 이 기증서의 진위에 대

한 논란이 있었으나 그 후에도 상당히 오랫동안 대부분의 교회법 학자나 법률가들은 이 문서의 유효성을 주장해 왔으며 16세기 내내 이 기증서는 진본으로 인용되어 왔다. ... 그러나 오늘날에는 이 기증서가 콘스탄틴 대제의 위조문서라는 것과 또 이 문서에 의해 많은 특권과 많은 부가 로마 교황과 로마 교회에 주어졌음을 모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5권, ‘Donation of Constantine’, pp.118-121)



콘스탄틴이 세례와 나병 치료로 인해 라테란 궁과 로마의 치리와 이탈리아와 서방 세계를 교황에게 넘긴다는 증여서를 교황에게 전달하는 그림. 이 문서는 15세기에 가서 위조임이 드러남.

▪ 다른 교황들도 이 기증서를 진본 문서로 사용했다.

1054년 교황 레오 9세는 당시의 정치 권력에 대한 교황의 수위

권을 주장하기 위해 이 위조문서를 공식적으로 사용했다. 교황 우르반 2세도 1091년 코르시카섬에 대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이 위조문서를 사용했다. 교황 이노센트 3세, 그레고리 9세, 이노센트 4세 역시 세속 정권에 대한 교황의 권위를 증명하기 위해 이 위조문서를 진본으로 사용했다.

## 하나님의 말씀

### ■ 하나님은 거짓말을 정죄하신다.

“너는 네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 (출 20:16)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엡 4:25)

### ■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거짓말하는 것을 정죄하신다.

“대언자들은 거짓으로 대언하고 제사장들은 자기 방법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렇게 하는 것을 사랑하니 그것의 마지막에는 너희가 무엇을 하려느냐?” (렘 5:31)

### ■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하도록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릴 것이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바로 그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마 5:19)

## 주후 1075년 독신 생활

교황 그레고리 7세는 사제들의 결혼이 다 무효라고 선언했다. “사제들의 결혼에 대한 우리의 판단은 이러하니 이런 결혼은 다 파기되어야 한다.” (제1차 라테란 공회, 1123년, 법령 21)

### 하나님의 말씀

#### ■ 결혼은 누구에게나 중요하다.

“결혼은 모든 사람들 가운데서 존귀한 것이니” (히 13:4)

– 사제에게도 결혼은 존귀한 것이다.

“시몬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으로 앓아누워 있으므로 그들이 곧 그녀에 관하여 그분께 고하매” (막 1:30)

– 초대 교황으로 알려진 베드로는 결혼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함께 결합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막 10:9)

– 그런데 천주교 법령은 정반대를 가르친다.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받을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깨어 있고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있으며 행실이 바르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며 가르치는 재능이 있고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기 자녀들을 모든 위엄으로 복종시키는 자라야 할 것이며” (딤후 3:2, 4)

– 사도 바울은 감독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령께서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유혹하는 영들

과 마귀들의 교리들에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들은 위선으로 거짓말을 하며 자기 양심을 뜨거운 인두로 지진 자들이라.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것이나 음식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사 진리를 믿고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게 하셨느니라.” (딤후 4:1-3)

### 주후 1100년 미사를 드릴 때 돈을 바침

“미사를 드릴 때 사제에게 얼마간의 돈을 바치는 관습은 7세기 또는 8세기경에 생겼으며 보편화되어 시행된 것은 12세기경이었다. 어떤 사제에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분량 이상의 미사 집례 요청이 들어오면 그는 헌물을 거의 받지 못하는 가난한 교구의 사제나 해외 선교에 관여하는 사제에게 그것을 양보해야만 한다. 미사에서 급료를 받는 관습은 오직 전통에 의해 승인된 것으로 과거 1,200년간 로마 카톨릭교회가 승인해 준 것이다. 그리스도의 계시를 가르치는 거룩한 선생으로서의 교회는 자연법 또는 적극적인 신성법에 역행하는 그 어떠한 보편적인 법도 만들 수 없다.” (Conway, 『The Question Box』, p.271)

#### 하나님의 말씀

■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로 생각하였으므로 네 돈이 나와 함께 썩어 없어질지이다.” (행 8:20)

- 돈을 주고 하나님의 선물을 사는 것을 베드로는 반대하나 로마 교회는 승인한다.

■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 너희 전통 곧 너희가 전해 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효가 되게 하며 또 그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니라.” (막 7:9, 13)

-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하는 사람의 전통을 미워하십니다.

## 주후 1184년 종교 재판소

교황 루시우스 3세는 이교도들 그리고 자기 교회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불순종자들)을 처단하기 위해 이 재판소를 열었다. 이 전제적인 종교 기구는 로마 카톨릭주의에게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를 남겨 주었다. 이 종교 재판소는 1184년 베로니 공회에서 통과되었고 수 세기를 지나면서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한 고문과 살인과 잔혹성을 보여 준 가장 무서운 제도가 되었다. 거짓 교회 즉 로마 카톨릭교회의 손에 순교당한 참 기독교 신자의 수는 무려 5천 5백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교회는 단 한번도 종교 재판을 비난한 적이 없으며 교황권은 그 잔혹한 행위에 대해 결코 유감의 뜻을 표명한 적이 없다.

종교 재판소는 교황의 가르침을 전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고문을 주도록 결정했으며 1213년에 교황이 직접 이단에

대한 사형법과 함께 종교 재판소를 창설하였다.

■ 교황이 고문을 승인하다.

“매우 이상하게도 고문은 형벌의 한 유형으로 여겨지지 않았고 순전히 진리를 유도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간주되었다. 고문 형은 1252년 5월 15일 교황 이노센트 4세의 교서인 「Ad Extirpanda」에 의해 처음으로 승인되었고 이 교서는 1295년 11월 30일 알렉산더 4세와 1265년 11월 3일 클레멘트 4세에 의해 추인되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8권, 'Inquisition', p.32)

■ 투옥은 종교적 형벌이다.

“투옥은 적절한 의미에서 항상 형벌로 간주되지는 않았고, 오히려 참회하는 기회로, 배교를 방지하는 대책으로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방편으로 간주되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8권, 'Inquisition', p.33)

■ 비카톨릭교도에 대한 사형 제도

“이단으로 선고된 자들을 주교나 그의 대리인 또는 종교 재판소가 민간 정부에 넘겨줄 때 시의 주임 판사는 즉시 그들을 인수하여 늦어도 5일 이내에 그들에 대한 이단법을 집행해야 한다.” (교황 이노센트 4세 「Bull Ad Extirpanda」, 1252년)

■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

스페인의 종교 재판소는 교황 그레고리 9세에 의해 세워졌다. 악명 높은 이 재판소는 비오 7세(1800-1823 재위)를 포함한 여러 교황에 의해 승인되었고 지금부터 1세기 전인 1820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스페인 혁명에 의해 철폐되었다.

## 하나님의 말씀

### ■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잡는 자들은 다 칼로 망하리라.” (마 26:52)

- 예수님은 결코 자기 교회가 칼로 세워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다.

### ■ 교회의 검은 말씀이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엡 6:17)

- 영적인 검 즉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 ■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마 11:29)

- 종교 재판에서 예수님의 온유함을 찾아볼 수 있는가?

### ■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러므로 주의 간히 자가 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너희가 부르심을 받을 때에 얻은 소명(召命)에 합당하게 걷고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 주며” (엡 4:1-2)

- 종교 재판에는 사랑이 없다.

### ■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의로 인해 핍박받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하늘의 왕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이라. 나로 인해 사람들이 너희를 모욕하고 핍박하며 너희를 대적하여 거짓으로 온갖 종류의 악한 것을 말할 때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

고 크게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보상이 크니라. 그들이 너희 전에 있던 대언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마 5:10-12)

- 그리스도께서는 자기를 위해 고난받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 주후 1190년 면죄부 판매

교황 클레멘트 3세는 주후 1190년에 처음으로 면죄부로 죄를 용서하도록 허용했다.

### ■ 여러 종류의 면죄부(대사)

“대사(大赦) 즉 면죄부는 죄로 인해 받게 되는 현세의 모든 형벌에 대한 사면을 의미하므로 더 이상 연옥에서의 속죄 행위가 필요치 않다. ... 부분 사면이란 형벌 가운데 일부분만을 감해 주는 것이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7권, ‘Indulgences’, p.783)

### ■ 누가 면죄를 주는가?

“교황은 지상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서 어느 신자에게나 모든 종류의 면죄를 허락할 수 있다. 교황 비오 10세(1903년 8월 28일)는 성인의 이름을 따라 이름을 붙인 교회와 주교 관구의 추기경들에게는 200일의 면죄, 대주교에게는 100일의 면죄 그리고 주교에게는 50일의 면죄를 주도록 허락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7권, ‘Indulgences’, p.784)

### ■ 면죄의 근거

“면죄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는 다른 사람들이 성취한 속죄를 한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이외에도 죄로 인한 어떤 징계에도 약화되지 않는 성모 마리아의 속죄 사역이 있고 성인들 곧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들의 죄로 인해 받아야 할 잠정적인 모든 형벌을 상쇄시키고도 남는 그들의 덕행과 참회와 고난 등이 있다. 이것들은 2차적인 보증으로서 교회의 보화 창고에 저축된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7권, ‘Indulgences’, p.784)

## 하나님의 말씀

### ■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죄를 제거하신다.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르되,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양을 보라.” (요 1:29)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요일 1:7)

–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데 사람이 만든 면죄부가 무슨 소용이 있는가?

### ■ 오직 하나님만 죄를 용서하신다.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죄들을 용서할 수 있느냐?” (눅 5:21)

– 도대체 교황을 포함한 이 세상 사람들 중에 누가 하나님께 속한 이런 권능을 탈취할 수 있단 말인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요일 1:9)

■ 아무도 다른 사람의 혼을 구속할 수 없다.

“그들 중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자기 형제를 구속할 수 없고 그를 위해 하나님께 대속물을 바칠 수도 없나니 (이는 그들의 혼을 구속하는 일이 귀중하며 또 영원토록 멈추어 있기 때문이니라.)” (시 49:7-8)

- 어느 누구도 **카톨릭교회의 성자라도 다른 사람의 혼을 위해 대속물을 줄 수 없다.**

## 주후 1215년 화체설

주후 1215년 제4차 라테란 공회에서는 화체설 즉 주의 만찬의 빵과 포도즙이 실제의 그리스도의 몸과 피와 신성으로 변한다는 설이 로마 교회의 공식 교리로 선포되었다. 언뜻 보기에는 그리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은 이 교리는 시간이 지난 뒤에 성체(빵 조각) 숭배라는 이교도들의 풍습을 불러일으켰다.

■ 빵과 포도즙이 실제의 몸과 피로 변한다.

“빵과 포도즙을 거룩하게 드림으로써 빵은 우리 주 그리스도의 몸으로, 포도즙은 그분의 피로 실제적으로 변한다. 이 같은 변화를 로마 카톨릭교회에서는 실제 변화라고 한다.” (트렌트 공회, Session XIII, Canon 4)

## 하나님의 말씀

### ■ 화체설은 성경에 없다.

“이는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분께서 오실 때까지 보이기 때문이라. 오히려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리한 뒤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고전 11:26, 28)

“우리가 축복하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떤는 빵은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니냐?” (고전 10:16)

- 로마 교회에게는 안 된 일이지만 빵은 여전히 빵이며 포도즙은 여전히 포도즙이다.

## 주후 1226년 성체 숭배

### ■ 성체 숭배의 기원

미사 시에 경의를 표하도록 성체(빵 조각)를 내보이는 것은 주교 코르비가 루이 7세의 알비파에 대한 승리를 기념 축하하는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이러한 성체 전시 행위는 밤낮으로 경의를 표하려는 많은 무리를 끌어들였고 교황은 후에 이것을 승인했다.

### ■ 로마 교회는 이것이 최근에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한다.

“성례전 이외의 다른 어떠한 형태의 숭배 행위 흔적도 초대 교회의 기록에서 찾아볼 수 없다. 이는 중세 후반에 처음으로 나타난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권, 'Perpetual Adoration', p.153)

1592년 이후에 영구적으로 빵 조각을 경배하는 협회들이 우후

죽순처럼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이들에게 특별 면죄가 허락되었기 때문이다. 이 협회들 중 중요한 것은 1882년에 로마에 설립된 '카톨릭 백성들의 영구적 경배' 라는 것으로 이것은 영원한 도시 로마를 대표한다.

#### ■ 특별 면죄

“이런 협회들에게 속한 특별 면죄를 일일이 열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권, 'Perpetual Adoration', p.151)

### 하나님의 말씀

#### ■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요 4:24)

- 그리스도께서는 빵 조각 숭배가 결코 살아 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 안에 이방신을 두지 말고 어떤 이방 신에게도 경배하지 말라.” (시 81:9)

- 도대체 빵 조각을 이방신으로 삼는 이유는 무엇인가?

## 주후 1229년 성경 읽기 금지

교황 그레고리 9세는 1229년 툴르즈 모임에서 성경을 금지된 책들의 목록 안에 넣도록 명했다.

### ■ 성경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전통을 더해야 한다.

“미국 및 영국의 성서 공회에 대해 로마 교회는 명확히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로마 교회는 스스로를 신성에 의해 임명된 성경의 보호자요 해석자로 믿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를 모순에 빠뜨리지 않고서는 설명이나 주석이 없는 성경의 반포를 허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것은 로마 카톨릭 신앙의 가장 첫째의 원칙 즉 계시뿐만 아니라 관찰을 통해 도달하게 된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다. 성경만으로 일반 독자들에게 믿음과 도덕의 확실한 지식을 전해 주는 것은 충분하지 않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2권, ‘Bible Societies’, p.545)

### ■ 로마 카톨릭교회는 성서공회를 정죄했다.

“이 시대에 여러 교단의 비카톨릭 신자들이 카톨릭 신자들을 유혹해서 카톨릭 신앙의 거룩함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돌리게 하고 있으며 이런 주요 조직 중에서 성서 공회가 가장 두드러진 역할을 하고 있다. 성서 공회는 처음에 영국에서 발족되어 점차 확산되어 왔다. 이제 우리는 이들이 전투 태세를 취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성서 공회는 성경의 여러 책을 여러 나라 말로 번역하고 수많은 책들을 찍어 내며 기독교도들이나 이교도들에게 차별

없이 책들을 펴뜨리고 어느 누구라도 아무런 지침도 없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음모를 꾸미고 있다.” (Pope Gregory, XVI Encyclical Inter Praecipuas, 1844년 5월 8일)

### 하나님의 말씀

■ 성경은 예수님에게도 충분했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는데 그것들은 내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들이니라.” (요 5:39)

– 성경만으로 충분하다.

■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에게도 충분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6-17)

– 하나님의 사람들을 완전하게 하고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는 성경을 왜 로마 교회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가?

■ 성경은 구원을 준다.

“또 어린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기록들을 알았는데 그것들은 너를 지혜롭게 하여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있느니라.” (딤후 3:15)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며 그것들이 그러한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기록들을 탐구하므로” (행 17:11)

## 주후 1303년 교황이 정치적 수위권을 주장함

교황 보니파스 8세는 자신의 저서인 「Bull Unam Sanctam」에서 공식 문서를 발표했는데 이 문서는 오늘날 훌륭한 종교법이 되었다.

- ① 모든 사람은 구원을 받기 위해 로마 교황에게 승복해야 한다.
- ② 물질의 검(劍)은 교회를 위해 빼야 하고 영적인 검은 교회가 뺏는다.
- ③ 교황의 수위권은 세속적인 일에서도 행사되어야 한다.
- ④ 세속 정권은 교회를 상위 권세로 여기고 승복해야만 한다.

### ■ 교황은 오늘날에도 이렇게 주장하는가?

“교회가 비행자에게 체형을 선고할 뿐 아니라 스스로 이러한 형벌을 가하는 것이 합법적이냐 아니냐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처럼 교회가 민간 정부에게 교회의 선고를 집행하도록 촉구하는 권한을 가진다는 것은 교황 보니파스 8세의 교서인 「Bull Unam Sanctam」이 단언한 그대로이다. 이 문제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이다. 왜냐하면 민간 정부는 교회 당국이 결정한 것을 집행하는 일에서 이미 오랫동안 그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는 일은 온 국가가 영적으로 ‘카톨릭’일 때만 가능하며 이런 상황에서 교황의 결정에 대한 권위는 모든 사람의 양심에서 늘 요구된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2권, ‘Pope’, p.266)

## 하나님의 말씀

- 한 지도자가 있다.

“또 너희는 지도자라 불리지도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 곧 그리스도이 니라.” (마 23:10)

– 오직 그리스도 한 분!

- 교회의 사명은 단 하나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서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막 16:15)

– 오직 복음 선포!

- 교회와 정부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카이사르의 것이니이다, 하매 그때에 그분께서 그 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 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마 22:21)

–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세상을 치리하라고 하신 적이 없다.

주후 1415년

미사에서 포도주를 평신도에게 금함

- 미사에서 단지 빵만을 주라.

“무언가를 축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평신도와 성직자가 두 가 지 즉 빵과 포도주로 미사 성사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다. 믿는 자 들의 구원을 위해서 미사 때에 빵이나 포도주 중 어느 한 가지만

을 받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이렇게 하는 것이 믿음에 상처를 주지는 않는다.” (트렌트 공회, Session XXI, Canon 1)

### 하나님의 말씀

- 주의 만찬에서 반드시 두 가지에 다 참여해야 한다.

“예수님께서 빵을 집어 축복하시고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다 그것을 마시라.” (마 26:26, 27; 막 14:22; 고전 11:24)

– *빵과 잔에 참여한다.*

- 예수님께서서는 두 가지를 다 주셨다.

“또 잔을 집어 감사를 드리신 뒤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이 다 그것을 마시매” (막 14:23)

– *천주교 사제가 일반 성도들에게 빵만 주고 포도즙은 주지 않는 것은 주님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다.*

### 주후 1545년 전통을 성경과 동등한 권위로 만들

- 프로테스탄트들의 견해를 정죄함.

“프로테스탄트들의 신조는 오직 성경뿐이라는 것이다. 그들이 의하면 성경이야말로 신학의 유일한 근원이며 성경에 있는 진리

를 제외하고는 제시된 진리가 없다. 그들에 의하면 성경만이 유일한 믿음의 척도요 성경에 의해서 그리고 오직 성경만으로 모든 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성경만이 유일한 권위를 가진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5권, ‘Tradition’, p.6)

#### ■ 로마 카톨릭주의의 견해

“한편 로마 카톨릭교회는 성경에 포함된 진리 이외에도 반드시 다른 종류의 제시된 진리가 있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5권, ‘Tradition’, p.6)

“성경은 결코 하나님이 당신의 교회에 계시한 신학의 유일한 근원이 아니다. 성경과 더불어 전통이 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5권, ‘Tradition’, p.7)

이런 견해는 마침내 트렌트 공회(1545-1563)에서 ‘전통’이 되고 말았다.

#### ■ 로마 교회는 자기들이 더 이상 그리스도의 복음만으로는 규정될 수 없음을 시인한다.

“우리 카톨릭교도들은 아무런 수치심도 없이 오히려 긍지를 가지고 카톨릭교회의 정체가 원시적 교회와 심지어 그리스도의 복음에 의해 전적으로 규정되지 않음을 시인한다. 이는 마치 거대한 참나무의 정체가 조그마한 도토리에 의해 규정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우리에게서 어떤 기계적 정체성은 없으나 유기적 정체성은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몇천 년 후에는 카톨릭교회가 오늘날보다 더 부유해지고 호화스러워지며 교리, 도덕, 법, 예배에 있어서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주후 5000년대에 사는 종교 역사가는 아마 인도, 중국, 일본 등에서 나온 카톨릭교회의 개념 및 형태 등을 아무 어려움 없이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칼 아담의 「카

톨릭주의의 영」(*The Spirit of Catholicism* by Karl Adam, Macmillan, New York, 1928, p.2)

이 책의 저자인 아담은 로마 카톨릭 사제였으며 그의 책은 권위 있는 로마 카톨릭 작품으로 뉴욕 교구 검열 위원회의 옴스탯과 작고한 추기경 헤이즈의 출판 인가를 갖고 있다.

### 하나님의 말씀

#### ■ 전통이 아니라 목격자를 보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오심을 너희에게 알려 줄 때에 우리는 교묘히 꾸며 낸 이야기들을 따르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우리는 그분의 위엄을 눈으로 본 자들이었노라.” (벧후 1:16)

#### ■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보라.

“이는 내가 너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하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결심하였기 때문이라. 또 나의 말과 나의 복음 선포를 사람의 지혜의 유혹하는 말들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과 권능을 실증함으로 하였으니 이것은 너희 믿음이 사람들의 지혜 안에 서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권능 안에 서게 하려 함이라.” (고전 2:2, 4, 5)

#### ■ 전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보라.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초보 원리들을 따르는 것들이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들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또 너희는 모든 권력과 권능의 머리이신 그분 안에서 완벽하며” (골 2:8-10)

– 성경이 충분하므로 천주교의 전통은 필요가 없다.

## 주후 1545년 칭의를 부인함

### ■ 로마 카톨릭주의의 견해

“마르틴 루터의 모든 실수는 ‘칭의’ 라는 것으로 용해되었는데 바로 이 칭의로 말미암아 그는 성례전, 사제들의 권위, 연옥, 미사 희생, 죄에서 사함을 받는 모든 조치의 효력에 대해 단호한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 그러므로 대조적으로 로마 카톨릭 교리의 몸을 세우려 하는 자는 믿음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는 이단 교리를 전복시켜야만 한다.” (Giovanni del Monte, soon to be Pope Julius III, at the Council of Trent, 1545-1564)

### ■ 성경의 교리를 저주하다.

“만일 누가 사람을 의롭게 만드는 믿음이 예수로 인하여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확신이라 말하거나 또는 이 같은 확신만으로 우리가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트렌트 공회, Session VI, Canon 12)

## 하나님의 말씀

### ■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겨진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이 율법의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다고 결론을 내리노라.” (롬 3:28)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감독 교사였으니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게 하려 함이라.” (갈 3:24)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엡 2:8-9)

- 과연 이 같은 칭의의 교리가 이단 교리이기에 로마 카톨릭교회는 이를 뒤집어엮으려 하는가?

■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에게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느니라.” (요 6:47)

- 주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소유했다.

■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빌 3:9)

- 이제 예수님과 사도 바울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다.

## 주후 1600년 스카폴라리오

■ 스카폴라리오란 무엇인가?

스카폴라리오(Scapulars)란 루터의 종교 개혁 이후 16세기에 생긴 것으로 모직으로 된 긴 천 조각을 옷의 안이나 위에 걸쳐는 것으로 성의(聖衣)라고도 불린다. 이 같은 성의(聖衣)의 목적은 이런 성의를 축복한 그룹들이 제공하는 면죄를 얻기 위함이다. 여러 가

지 스카폴라리오가 있지만 ‘갈멜(카르멜)산의 우리 숙녀의 스카폴라리오’가 가장 널리 알려져 있다.

▪ 스카폴라리오의 능력은 다음과 같다.

“비록 지금 죄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신실한 종으로서 일생 동안 그녀의 배지를 달고 다니면서 스카폴라리오를 기적을 일으키는 부적으로서 신뢰하지 않고 오직 마리아의 능력과 선함만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는 마리아가 그녀의 능력과 어머니로서의 중보를 통해 진실한 회개와 선한 인내를 위한 필요한 은혜를 가져다 줄 것을 소망할 수 있다.”

“이것이 갈멜(카르멜)파의 스카폴라리오의 첫 번째 특권이 의미하는 중요한 점인데 이는 말로 다 표현될 수 없다. 즉 누구든지 이 스카폴라리오를 죽을 때까지 달고 다니면 지옥에 가지 않을 것이다.”

“스카폴라리오의 두 번째 특권은 이것을 걸친 자기의 종들을 위한 마리아의 모성적 도움이 죽음 뒤에도 계속되고 마리아에게 성스럽게 봉헌된 토요일에 특별히 그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으로 간략히 정의할 수 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3권, ‘Scapular’, p.510)

▪ 스카폴라리오 메달

“1910년 12월 16일부터는 한두 개의 작은 스카폴라리오를 걸치는 것 대신에 메달을 다는 것이 허용되었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3권, ‘Scapular’, p.510)

▪ 스카폴라리오는 그것을 입고 있을 때만 효력을 발생한다.

“한 사람이 오랜 기간 스카폴라리오를 입지 않았다면, 비록 무

관심으로 그리했다 할지라도, 이 기간에는 면죄를 얻을 수 없다. 그러나 단지 스카폴라리오를 다시 입기만 하면 그는 다시 면죄와 특권에 참여하게 된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13권, ‘Scapular’, p.510)

### 하나님의 말씀

■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돌보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강력한 손 밑에서 너희 자신을 낮추라. 그러면 정해진 때에 그분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벧전 5:6-7)

■ 한 변호자가 계신다.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우리에게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요일 2:1)

■ 한 중재자가 계신다.

“이는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 (딤후 2:5)

-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도대체 누가 로마 카톨릭교회의 스카폴라리오를 필요로 하겠는가?

## 주후 1854년 마리아의 무염 시태

주후 1854년 교황 비오 9세는 다음과 같이 동정녀 마리아의 무염 시태라는 새로운 교리를 선포하고 정의했다.

“그녀가 임신하는 첫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유일한 특권과 은혜로 인해서 인간의 견해로 볼 때 동정녀 마리아는 원죄의 모든 더러운 흔적으로부터 제외되었다.” (Pius IX, 「Ineffabilis Deus」, 1854년 12월 8일)

1931년 성탄절에 교황 비오 11세는 모든 카톨릭 신자들이 동정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증보자임을 믿어야 한다고 선포했다. 동시에 교황은 프로테스탄트들도 마리아에게 경배드리는 일에 합류할 것을 호소했다.

■ 로마 카톨릭교회는 성경에 이런 교리가 없음을 시인한다.

“이 교리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 혹은 명백하고 유력한 증거를 성경에서 취할 수는 없다.” (『카톨릭 백과사전』, 제7권, ‘Immaculate Conception’, p.675)

### 하나님의 말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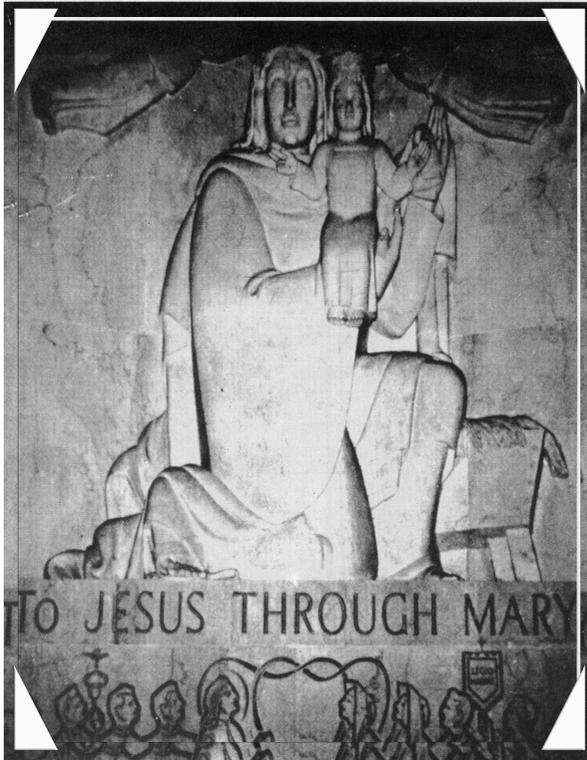
■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 (전 7:20)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 3:23)

- 마리아 역시 죄를 지어 구원자를 필요로 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눅 1:46-47)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께 :  
천주교 신학의 핵심 교리 (미국 워싱턴 DC 마리아 무염 시태 성당)

## 주후 1864년 80가지 죄의 목록

교황 비오 9세가 1864년에 선언한 이 회칙은 바티칸에 의해 재가되었다. 이 회칙은 로마 교회가 승인하지 않은 종교나 양심이나 언어나 출판이나 과학적 발견의 자유를 억제했다. 이 회칙은 또한 세상의 모든 규율에 대한 교황의 세속적인 권위를 주장했다. 이 회칙은 언론의 자유, 프로테스탄트, 공산주의, 성서 공회, 사제를 통하지 않은 결혼, 공립 학교 등 천주교회가 중대 오류라고 생각하는 80개 사항에 대해 반박을 했다. 여기에 포함된 오류들 가운데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15) “모든 사람은 양심의 자유에 따라 자기가 진리로 믿는 종교를 수용하고 믿을 수 있다.” - 로마 카톨릭주의는 이 같은 인간의 기본 권리를 오류라 정의하고 있다.

(55) “교회와 국가는 반드시 분리되어야 한다.” - 이것은 대부분의 민주 국가에서 기본 원칙으로 정한 것인데 천주교회는 이를 반대한다.

### ■ 종교의 자유는 어떤가?

현재 로마 카톨릭교인들이 미국 인구의 육분의 일을 차지하고 있고 특히 군인들 가운데는 그 비율이 더 높으므로 종교의 자유에 대한 그들의 견해가 참전 이후의 계획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할 것이다.” (Connell, 「Freedom of Worship」, The Paulist Press, N.Y., 1944, p.3)

### ■ 자유에 대한 로마 카톨릭주의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하나님의 법에 관한 한, 어느 누구에게도 로마 카톨릭주의 이외의 다른 종교를 받아들일 참 권한이 없고 카톨릭교회 이외의 다른 교회의 회원이 될 참 권한이 없으며 카톨릭교회가 명하거나 인가한 것 이외의 어떠한 다른 형태의 예배를 행할 권리가 없다. 진실하게 되려고 어떤 사람이 어떤 종교를 신실히 믿는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 사람에게 그 종교를 받아들일 순전한 권리를 주지는 않는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자신의 종교적 신념을 제한 없이 행하도록 허용할 의무가 없다.”

“만일 한 국가가 독특하게도 카톨릭 국가라면 민간 정부의 치리자들은 카톨릭주의를 적대시하는 교파의 활동을 제한하거나 방제한 것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또한 그들이 카톨릭주의를 반대하는 문서나 언어에 의한 공격 행위와 카톨릭교인들의 교회에 대한 충성심을 약화시키기 위해 언론이나 우편을 사용하는 것 등을 억제시켜도 그런 것들은 정당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Connell, op. cit., p.10.)

이 팸플릿은 1944년 미국에서 출간되었다.

## 하나님의 말씀

- 강제로 사람을 종교적이 되게 할 수는 없다.

“강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속 4:6)

-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또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 어떤 강압도, 심지어 로마 카톨릭교회의 강압도 사람을 크리

스천으로 만들 수는 없다. 오직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 ■ 교회와 국가

“카이사르의 것들은 카이사르에게, 하나님의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라.” (마 22:21)

- 로마 카톨릭교회가 성경과 미국의 인권을 무시하면서 이런 분리의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또다시 종교 재판의 위험이 다가올지도 모른다.

### 주후 1870년 교황 무오설

“이 교리는 1870년 교황 비오 9세에 의해 선언된 것으로 로마 카톨릭 신학에서 교황은 최고의 교사로서 그리고 특정 조건 하에서 신앙이나 윤리에 관한 문제를 가르칠 때 잘못을 범할 수 없다는 교리이다.”

“교회 무류성에 대한 더 포괄적인 이해의 한 요소인 이 교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를 가르치도록 위탁받았으며 그것이 그리스도로부터 위임된 것이기에 성령의 도움으로 그 가르침에 충실할 것이라는 믿음에 토대를 두고 있다. 이처럼 교황 무류성은 무부패성이나 교회에게 약속된 은총이 종말까지 이어진다는 교리와 비록 구분은 되지만 연관성을 갖고 있다.”

“무류성이라는 용어는 초대 교회와 중세 교회에서는 거의 언급되지 않았다. 이 교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교회사에서 교황들이 이단설을 가르쳤다고 전해지는 여러 경우를 지적한다. 그 대표적

인 예는 교황 호노리우스 1세(625~638 재위)로서, 그는 제3차 콘스탄티노플 공회(680~681, 제6차 에큐메니컬 공의회)에서 단죄를 받았다.”

“제1차 바티칸 공의회(1869~1870)가 상당한 논쟁을 겪은 뒤에 내놓은 규정은 교황을 가리켜 오류가 없다고 혹은 권위를 지닌다고(ex cathedra : 최고 교사로서의 ‘권좌로부터’) 말할 수 있는 조건들을 진술했다. 그 전제 조건은 교황이 특정한 신앙이나 윤리의 면에서 전체 교회로부터 철회할 수 없는 동의를 요구할 의도를 갖는다는 데 있다. 교황 무류성 교리는 적용할 만한 경우가 거의 없었으며 제2차 바티칸 공의회(1962~1965)에서 주교들의 권위를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20세기 말에 벌어지고 있는 교회 일치를 위한 노력에 큰 장애물로 남아 있었으며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였다.”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

“교황 무류성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으로서 만일 이를 믿지 않는다면 믿음이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바티칸 공회 포고령, 1870년, Session IV, Chapter III)

“어느 누구라도 이런 가르침에 반발하고자 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티칸 공회 포고령, 1870년, Session IV, Chapter IV)

## 하나님의 말씀

■ 적그리스도의 표적은 다음과 같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 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살후 2:3-4)

- 성경에 이런 경고가 있는데 어떻게 교황이 감히 하나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주후 1908년**  
**신랑 및 신부의 종교가 달라서**  
**천주교 사제가 집례하지 않은 결혼을 다 무효화시킴**

■ 이 같은 결혼은 1908년 4월 19일 이전까지만 해도 유효했다.

“미국의 경우 1908년 4월 19일 이전에는 카톨릭교도와 침례받은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결혼이나 두 카톨릭교도 사이의 결혼을 목사나 치안 판사가 주례하는 경우 그 결혼이 유효했다.”(Conway, 『The Question Box』, The Paulist Fathers, N.Y., 2nd ed., 1929, p. 337.)

■ 그런데 이 같은 결혼이 1908년에 무효로 선포되었다.

“교황 비오 10세의 ‘Ne Temere’ 법령은 1908년 4월 19일 부활 주일부터 효력을 발생하였는데 이 법령이 선포한 바는 교구의 사제 또는 지역 사제 혹은 이 둘 중 하나를 대신하는 사제와 적어도 두 사람의 증인 앞에서 계약을 맺는 결혼만이 유효하다는 것이다.” (Canon 1904) (Conway, op. cit. pp. 337-338)

불행하게도 이 법령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사람에게 의해 고안된 것이지 이러한 불법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든 것이 아니다.

### 하나님의 말씀

- 사도 바울은 교회의 이런 터무니없는 법령을 반박한다.

“그리스도께서 해방의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 속박의 멍에에 얽매이지 말라.” (갈 5:1)

### 주후 1950년 마리아의 몽소승천

마리아의 몽소승천에 관한 새 교리는 교황 비오 12세가 1950년 11월 1일에 선언한 것이다. 이것은 마리아의 육과 혼이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카톨릭주의의 가르침을 신앙의 규정으로 만들어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의 고통을 주려는 것이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들은 마리아의 몽소승천이 일어났던 것으로 생각되는 시기와 장소에 대해 서로 견해가 다르다.

“이 사건을 직접적으로 기록한 내용이 성경에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도 동의한다. ... 몽소승천의 축제는 첫째로 마리아의 거룩하고 평화스러운 죽음, 하늘로 들려 올라간 것 그리고 천국에서 여왕으로 왕위에 오르는 것 등에 경의를 표하는 것이다. 이 축제는 6세기 이래 교회를 통해 세계적으로 지켜져 왔다.”

“수 세기에 걸쳐 기독교인들이 세계적으로 지켜온 축제는 항상 사실에 근거한 것으로 간주되어 왔는데 이는 성 어거스틴이 쓴 것 같이 ‘기독교의 모든 것이 하나같이 다 틀릴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는 다른 철학자들과 함께 우주적인 믿음이야말로 진리의 표준이 된다는 견해를 갖고 있었다.”

“성경은 몽소승천의 교리를 참으로 가능한 사실로 만들어 주는 여러 가지 정보를 제공한다. 바울 사도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으며’(롬 5:12)라고 말하면서 죽음이 죄에 대한 징벌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원죄 없이 수태된 마리아는(마리아의 무염 시태) 전혀 죽을 필요가 없었다. 자기의 어머니를 택할 수 있었고 또 스스로 그녀를 택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현세의 죄든 원죄든 간에 죄 아래 두기를 허락하셨다고 믿는 것은 모순이다. 그리스도는 마리아의 몸으로부터 육신과 피를 받았으며 그분은 바로 이 육신과 피로 죄를 대속하셨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그리스도의 몸이 여자에게서 났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 하나님의 말씀

어느 누구도 성경에서 마리아가 승천했음을 보여 주는 구절과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

#### ■ 이것은 사람의 전통이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너희 역시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마 15:3)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저버리는도다.” (막 7:9)

- 여기서 예수님께서서는 철저한 종교인들 즉 자기들의 전통을 하나님의 명령으로 만들려는 자들에게 말씀하신다.

■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여졌으나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벧전 1:18-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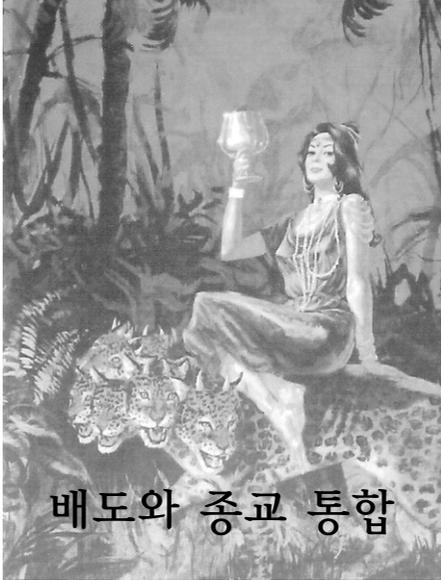
-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지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구속하셨지 마리아가 한 것이 아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 이신 그리스도께서 동시에 전적으로 사람이 되심을 입증하는 도구에 지나지 않았다.



극도의 마리아 숭배(벚꽃처럼 보이는 무수한 카톨릭교도들)



# 8



## 배도와 종교 통합

이 글은 1994년, 미국의 데이브 헌트가 지은 「짐승 위에 탄 여자」(*A Woman Rides The Beast: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Last Days*)의 26장을 번역한 것이다. 1994년 3월 29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도들은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인들의 연합 : 셋째 천년에서의 크리스천 선교'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라는 제목의 역사적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로마 카톨릭교회와 기독교가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루터 교단은 자기들이 천주교회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헌트는 과연 천주교가 변했는지,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누구인지, 천주교 주도의 종교 통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에 대해 역사적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하며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글이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 줄 것을 기도한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적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기도해야 한다. 제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가 어떠한 존재인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없다. 만일 로마 교회의 교황이 그가 아니라면 이 세상에서 그 이름으로 불릴 자는 단 하나도 없다. 그는 그리스도에게 상처를 입히며 그리스도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그리스도의 구속(救贖)의 자리에 성례전들을 대신 얹혀 놓으며 구원자 대신에 한 조각의 빵을 들어 올리는 자이다. 그가 그리스도를 대적하므로 만일 우리가 그를 대적하여 기도하면 우리는 사람들의 오류들은 미워하지만 사람들은 사랑하게 된다. 우리는 그들의 교리들은 혐오하고 가증하게 여기지만 그들의 영혼은 사랑하게 될 것이다. - 스펠전(Charles Haddon Spurgeon)<sup>1)</sup>

나는 나의 사전에서 프로테스탄트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있다. 사실 나는 어떤 것에 대해서도 프로테스트 즉 항의하지 않는다. 이제는 카톨릭교도들과 비카톨릭교도들이 다 함께 성령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때다.

- 크로치(Paul Couch, Trinity Broadcasting Network)<sup>2)</sup>

지금은 프로테스탄트 신도들이 목자 [교황]에게 찾아가서 “집에 돌아오려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라고 물어야 할 때다.

- 로버트 쉐러(Robert Schuller)<sup>3)</sup>

위에서 인용한 글들과 앞장에서 언급한 내용들을 통해 우리는 설교자 스펠전의 시대로부터 현재에 이르는 동안 로마 카톨릭주의에 대한 기독교 지도자들의 생각이 극적으로 변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난 350년 동안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신경들(Creeds)은 교황 제도를 적그리스도 체제로 간주해 왔다. 그러나 이제 그와 같은 일은 끝났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복음 전도자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현시대의 가장 위대한 종교 지도

1) Cited in Michael de Semlyen, All Roads Lead to Rome? (Dorchester House Publications, England, 1991), p. 183.

2) “Praise the Lord” program, Trinity Broadcasting Network, October 17, 1989, hosted by Paul and Jan Couch—guests were two Catholic priests, Fr. John Hamsch and Jesuit Fr. Herbert De Souza, and leading Catholic laywoman, Michelle Corral.

3) Los Angeles Herald Examiner, September 19, 1987, Religion page.

자' 라고 격찬하였다.<sup>4)</sup> 미국에서 가정 사역으로 유명한 한 지도자는 교황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가장 탁월한 종교적 지도자' 로 간주했다.<sup>5)</sup> 우리는 교황을 방문하고 돌아온 복음주의자들이 그가 다시 태어난 사람임을 확신한다고 말하는 것을 종종 듣는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가 수많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행위와 의식의 가짜 복음' 을 전하는 부패한 종교 체제의 수장으로 계속해서 앉아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오늘날에는 점점 많은 수의 복음주의자들이 카톨릭교도를 그리스도인으로 받아들이고 또한 세계 복음화를 위해 그들과 함께 일하는 것을 큰 문제로 여기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사실은 카톨릭주의와 복음주의 지도자들이 함께 만든 저 역사적 공동 선언 즉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도들과 함께: 셋째 천년에서의 기독교 사명'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 문서)에서도 분명히 나타난다.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도들은 복음을 전 세계에 전파하는 기독교 사명에서 서로 동역자임을 선언하고 서로가 상대방 신자들에게는 전도하지 않기로 했다. "한 진영의 기독교인들 [복음주의자들이] 다른 진영의 기독교인들 [카톨릭교도들]을 개종시키려는 일은 신학적으로도 적합하지 않으며 또 현명하게 우리의 자원을 활용하는 것도 아니다."<sup>6)</sup> 지금 일부 지도자급 프로테스탄트 복음 전도자들은 카톨릭교도들과 함께 전도 집회를 공동 주최하고 있다. 그러나 마틴 로이드 존스는 다음과 같이 자기가 영국에서 그와 같은 집회를 여는 것을 지지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

4) Billy Graham, The Saturday Evening Post, January-February 1980.

5) Focus on the Family Citizen, January 1990, p. 10.

6) From page 23 of the final draft of the joint declaration.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은 결코 편견을 지닌 열성 분자들이 아니었으며 결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통해 그 눈이 활짝 열린 사람들이었습니다. 루터의 눈이 열렸고 칼빈의 눈이 열렸으며 낙스의 눈이 열렸고 모든 개혁자들의 눈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열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눈이 열리면서 성경 속에서 이 끔찍한 괴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이 이 체제를 저주하며 그것에게 경고하는 것을 보았으며 그래서 목숨을 내걸고 일어서서 이 체제와 맞서 항거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로마 카톨릭교회를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경에 입각하여 바른 교리를 가르치는 기독교뿐입니다. 듣기 좋게 “그리스도께로 나오십시오.” 혹은 “예수님께로 나오십시오.”라고 선포하는 기독교는 단 1초도 로마 카톨릭교회를 대적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은 오히려 궁극적으로 로마 카톨릭교도들의 숫자만 불러 줄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들이 집회를 하면서 “아, 당신은 로마 카톨릭 신자시군요. 천주교회로 돌아가시면 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들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그들에게 경고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13장과 17장의 짐승이 다시 살아난 로마 제국과 적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것을 이미 보여 주었다. 로마에 본부를 둔 가짜 교회가 바로 짐승 위에 앉은 그 여자이다. 지난 수세기 동안 프로테스탄트들이 거의 만장일치로 신분을 확인해 준 그 여자에 대해 오늘날에는 불과 소수의 복음주의 지도자들만이 그 신분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다.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의 새로운 정신이 기독교 세계를 휩쓸고 있다. 「크리스처니티투데이」의 사설을 살펴보자.

우리가 [카톨릭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 복음의 의미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가를 토의할 때 우리는 서로 공통적인 신앙을 소유했다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전통적인 로마 카톨릭교도들은 은혜만으로 된다는

---

7) "What Separates Evangelicals and Catholics?" Christianity Today, October 1981.

교리를 받아들이고 있다. 그들은 [카톨릭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를 받으셨다는 그분의 약속을 서로 나누고 있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sup>7)</sup>

우리가 상세하게 보여 준 바와 같이 이 말은 사실과 엄청나게 다르다. 은혜, 믿음 그리고 구원에 관한 카톨릭 교리는 절대로 성경에 따른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카톨릭주의에 대한 오해는 끈질기게 지속되고 있다. 예를 들어 세계 복음화를 위한 로잔 대회의 국제 위원이었던 휴스턴(Tom Houston)은 1989년 마닐라에서 개최된 로잔 II 본회의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여섯 가지의 구원 사역이 있다: 성육신, 십자가, 대속, 부활, 승천, 오순절, 그리스도의 재림 등. 이제 이 모든 교회들(성공회, 로마 카톨릭교회, 루터 교회, 복음주의자들, 정교회, 오순절 교회들)은 이 여섯 개의 구원 사역을 믿고 있다. 로잔 약정서에 있는 대로 결속을 유지하는 것을 우리의 움직일 수 없는 목표로 삼자.<sup>8)</sup>

이로써 이제 우리는, 국제 위원장이 확인해 준 바와 같이, 로잔 약정서가 처음부터 로마 카톨릭과 정교회를 포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 같은 폭로로 말미암아 휴스턴이 부인한 로마 교회의 이단 교리들을 잘 알고 있던 대회 참가자들은 큰 충격을 받았다. 카톨릭주의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라틴 아메리카 대표들은 카톨릭교도를 그리스도인으로 포용하는 것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였다. 그들의 항의는 일시적으로 존중을 받았으나 카톨릭교도들과의 완전한 교제를 향한 추세는 이제 뒤집을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

---

8) World Evangelization, November/December 1989, January 1990.

로마 카톨릭주의와 동등한 동업 관계를 기대하고 있는 복음주의자들은 자명한 사실에 눈이 멀어 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와 그 이후의 카톨릭 종교 통합 문서들에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갈라져 나간 형제들’ - 프로테스탄트들을 가리키는 말 - 이라는 말은 그들이 말하는 ‘통합’ 또는 ‘일치’가 비카톨릭교도가 카톨릭교회에 참여함으로 성취되는 것을 보여 준다. 이 사실은 제2차 바티칸 공회 이전에 신실한 카톨릭교도들을 향해 발표된 교황들의 많은 발언들에서도 이미 밝혀졌다. 한 전형적인 예는 교황 비오 12세의 공문에서 볼 수 있다.

우리는 카톨릭 교훈의 진리를 그저 묵과해 버리거나 모호한 말들로 가려 두어서는 안 된다. 진정한 통합은 ‘갈라져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유일하고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다시 돌아옴으로써 성취된다.<sup>9)</sup> 왜냐하면 가시적 교회라는 몸에 속하지 아니한 자는 영원한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오직 카톨릭교회 안에서만 발견되는 도움과 하늘의 특혜를 박탈당한 상태에 있다.<sup>10)</sup>

이로써 우리는 또다시 로마 카톨릭주의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에게 와서 그분께서 자신의 죄를 위해 완전한 한 희생물이 되셨다는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지 않음을 보게 된다. 그들은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다른 도움과 하늘의 특혜’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그것들이 오직 카톨릭교회 안에서만 발견된다고 주장한다. 다행히도 이러한 교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임을 당하는 시대는 지나갔다. 그러나 그런 날이 다

9) Pope Pius XII, De Motione oecumenica, December 20, 1949.

10) Mistici Corporis, June 29, 1943.

시 어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속히 돌아올지도 모른다.

종교 통합(Ecumenism)이란 동등 자격의 동업 관계가 아니라 로마로 향한 일방통행을 의미한다. 카톨릭 변증가들은 복음 전도에 대한 오류와 부적합성에 대해 전면적인 공격을 가하고 있다. 하워드(Thomas Howard)는 로마로 향한 자기의 여정을 기술한 책의 제목을 「복음주의로는 충분하지 않다」로 붙였다.<sup>11)</sup> 이런 종류의 테이프나 책은 기독교 서적 판매업자들에 의해서 자유롭게 공급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기독교 서점들은 아무 반대 없이 이것들을 진열하고 있다. 그런데 이 업자들 중 많은 이들이 사실을 밝히 보여 주는 카톨릭주의 비판 자료들은 진열하기를 거부하고 있다.<sup>12)</sup>

### 새로운 전략: 종교 통합 운동

전 세계 대부분 국가에서 이제 공식 국가 교회의 신분을 상실하고 또 자기들의 믿음에 불복하는 자들에게 사형을 집행할 수 없게 된 로마 교회는 이제 새로운 전략을 채택하였다. 로마 카톨릭교회는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종교 자유의 선언」(*Dignitatis Humanae*)을 발표한 후 카톨릭교회만 허용된 소수의 국가들에서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도록 자진해서 협약들을 갱신하였다. 이러한 변경은 1973년 콜롬비아에서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모든 다른 종교가 허용되었고 종교와 국가가 분리되었다. 또 이와 비슷한

11) Thomas Howard, *Evangelical Is Not Enough* (Ignatius Press, 1984).

12) We could give a long list of stores and distributors but will refrain from naming them in the hope that they may change their policies.

조치가 1974년 스위스의 발레이주(Canton of Valais)에서도 취해졌다. 한편 1975년에 로마 교회는 1940년에 포르투갈과 체결한 조약의 24조를 폐기하는 데 동의하였다. 교회와 국가의 분리를 규정한 협약의 수정을 통하여 1976년에는 스페인에서 종교의 자유가 허용되었다. 이와 유사한 조치들이 1980년에는 페루에서, 1984년에는 이탈리아에서 취해졌다. 끝으로 1992년에 멕시코에서 비카톨릭교도들에게도 종교의 자유를 허용하는 법령이 시행되었으나 카톨릭교도들에 의한 박해와 살인은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실제로 로마 교회가 관용이 있음을 보여 주지 않는다. 그것은 단지 현대 세계에서 이미 불가피하게 된 일들을 선심 쓰듯 재빠르게 제거한 술책에 불과하다.

이제 로마 카톨릭주의는 프로테스탄트들 즉 ‘떨어져 나간 형제들’을 통합하는 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종교들을 한 교회 안으로 끌어들이는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운동의 지도자가 되었다. 1986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힌두교도들의 거대한 군중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인도의 임무는 막중합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인간에 대한 영적 통찰력에 지대한 공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인도가 세계에 가장 크게 기여한 것은 인간의 영적 비전에 대한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이 같은 고대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다행한 일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인생의 풍요를 발견합니다.”<sup>13)</sup> 교황이 이처럼 힌두교를 찬양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발전인가!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힌두 지도자는 친모이(Sri Chinmoy)이다. 그는 UN 본부에서 주 2회씩 직원들을 위해 명상 모임을 인도하고 있으며 UN의 구루(Guru)로 알려진 인물로서

---

13) “Spiritual Vision of Man”, Pope John Paul II, L’Osservatore Romano, February 10, 1986, p.5.

과거에 여러 교황들로부터 칭송을 받아 왔다. 그는 전 세계에 존재하는 80여 개의 자신의 명상 센터에서 수백만 명에 이르는 영혼들을 힌두교의 암흑세계로 인도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를 자기의 친구이며 동역자로 여기면서 다음과 같이 환영하였다. “당신과 당신의 회원들에게 특별한 축복을 기원합니다. 우리는 계속 함께 일해야 할 것입니다.” 교황 바오로 6세는 친모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힌두교도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삶이 함께 가야 할 것입니다. 당신의 메시지와 나의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이런데도 지금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복음과 로마의 복음이 똑같다고 로마에게 말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로마는 장차 전 세계 종교의 본부가 될 것이고 카톨릭 지도부는 모든 것을 통치할 것이다. 이미 로마 교회는 복음주의로부터 부두교(Voodoo)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기막힌 선언을 통해 그 길을 준비하고 있다. 그들은 동시에 복음주의를 공격하고 있다. 1993년 아프리카 여행을 하면서 교황은 부두교 신도들과의 공통점을 모색하며 그들이 기독교로 회심하여 자기들의 전통 신앙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암시하였다.<sup>14)</sup> 카톨릭 교회가 서로의 필요로움을 위해 여러 종교들과 긍정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원한다고 설명하면서 요한 바오로 2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제2차 바티칸 공회는 다양한 여러 종교와 전통 안에 무언가 진실하고 선한 것 즉 말씀의 씨앗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공회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관대하신 하나님께서 여러 민족들에게 분배하신 풍요함을 발견하기를 권장합니다.”<sup>15)</sup>

14) Los Angeles Times, February 5, 1993.

15) L'Osservatore Romano, February 10, 1993 as reprinted in The Christian News, August 2, 1993, p. 22.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 주위에 있는 우상 숭배 이교도들의 종교에서 ‘풍요함을 발견하라’고 권장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혹은 바울이 에베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이애나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방 종교에서 ‘풍요함을 발견하라’고 권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그렇다면 로마의 동역자가 되려는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 모든 종교 수용

테레사 수녀와 같이 요한 바오로 2세도 모든 종교를 다 받아들이고 있다. 그 예들은 태산같이 많지만 지면의 한계로 소수의 예만 제시하려 한다. 1985년,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에 있는 이슬람교도들에게 교황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교도들인 우리는 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각각의 거룩한 책이 가르치는 교훈을 실천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sup>16)</sup> 이슬람교도들의 알라신은 결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코란(꾸란)의 교훈을 추천할 수는 없다. 1993년 서부 아프리카에서 모슬렘 지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황은 그리스도인들과 이슬람교도들과 모든 자연물에 영이 있다고 하면서 토속 종교를 믿는 정령 숭배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종교의 믿음을 서로 존중하라고 촉구하였다.<sup>17)</sup> 성경은 우리에게 이방 종교들을 존중은커녕 정죄하라고 말하지 않는가!

1981년 도쿄에서 신도교도들과 불교 신도들을 향해 요한 바오

16) Abbe Daniel Le Roux, Peter, Lovest Thou Me? (Australia: Instauratio Press, 1989), p. 140.

17) National Catholic Reporter, February 19, 1993, p. 11.

로 2세는 각각의 인간 안에 있는 신의 임재를 보여 주는 그들의 고대 종교의 지혜에 대해 말하며 칭찬하였다.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종교적 은사들을 공급하신 것에 대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sup>18)</sup> 신도교와 불교의 오류들을 생각해 볼 때 이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발언이다! 1985년 도쿄에서 교황은 자기가 ‘처음으로 정령 숭배자들과 함께 기도하게 된 것’을 크게 기뻐하였다.<sup>19)</sup> 보수적인 카톨릭 비평가는 로마 교회의 놀라운 종교 통합 운동에 대해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

원래 종교 통합은 그리스도인들 간의 일치와 관련이 있었으나 이제는 점점 더 기독교든 비기독교든 상관없이 모든 종교의 통합을 추구하고 있다. 1964년 5월 19일, 교황 바오로 6세는 공식적으로 비기독교인들을 위한 한 새로운 부서를 창설하였는데 그것은 제2차 바티칸 공회의의 마지막 두 회의 기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수개월 후 우오즈틸라(Wojtyla, 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로 선출됨) 몬시뇨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기독교인들의 통합에 대한 향수는 전 인류의 통합과 같은 것을 공유하게 한다. 이로 인하여 교회는 다른 종교들에 접근하면서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와 같은 다른 종교들과의 접점을 찾고 있다. 이것은 그런 종교들의 영적 가치에 대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sup>20)</sup>

교황이 전 종교들을 포용하는 것에 대해 보수적인 카톨릭교도들은 충격을 느끼고 있지만 사실 그것은 전 역사를 통하여 카톨릭 교회가 추구해 온 입장이다. 이시스(Isis)와 호루스(Horus)의 형상들을 마리아와 예수라는 이름으로 바꾼 콘스탄틴의 때로부터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이 ‘로물루스와 레무스를 대체하며 로마의 수호신들이 되었다’고 자랑한 교황 레오 1세(주후 440-461년 재

18) Le Roux, op. cit., pp. 144-45.

19) La Croix, August 23, 1985.

20) Le Roux, op. cit., p. 45.

21) H. Chadwick, The Early Church (Wm. B. Eerdmans, 1967), p. 243.

위)의 때로부터<sup>21)</sup>, 로마 카톨릭교회는 자기들이 ‘기독교화한’ 백성들의 이방 종교를 수용해 왔다. 1984년 뉴기니를 방문할 때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원주민들을 위한 옥외에서의 ‘새 미사’를 집전하였다. 그 새 미사에서는 제사 행렬을 위해 준비된 제단의 주위를 날뛰는 춤추는 무희들이 오렌지 구름과 노란색 연기를 하늘에 뿜어냈는데 이것은 악귀들을 쫓아내는 이방 풍습이었다. 또 18세의 여대생은 전통 의상을 하고 허리 위가 노출된 모습으로 교황의 제단 앞에서 성경 구절을 읽었다. 뉴욕타임스는 그 미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였다.

그것은 서방 선교사들에 의해 개화된 그 사람들의 전통적인 의식과 문화 요소들을 카톨릭교회의 것들과 융합함으로써 카톨릭교회의 예배 의식을 좀 더 보편화하려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노력을 보여 준다.<sup>22)</sup>

이러한 융합은 로마 카톨릭주의만큼이나 오래된 것이다. 아이티에서 부두교의 모든 예식은 카톨릭교회의 기도와 함께 시작된다. 아이티는 전체 인구의 85%가 카톨릭을 따르고 110%가 부두교를 따른다고 할 정도로 부두교가 유행하는 나라이다. 전 미국에 폭발적으로 번지고 있는 산테리아(Santeria)라고 하는 정령 숭배 활동은 아프리카 토속 신앙과 카톨릭주의와 혼합된 종교이다. 여기서는 ‘신들’이 카톨릭 성인들로 둔갑을 하고 이 성인들은 마귀들의 안내자 역할을 한다. 어떤 성일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시내에 있는 공동묘지를 방문해 보면 신실한 카톨릭 신도들이 카톨릭 성인들뿐만 아니라 자기 조상신들에게 기도드리는 모습을 어디서나 볼 수 있다. 브라질과 쿠바에서는 정령 숭배자들과 여러

---

22) The Roman Catholic, June-July 1984, p. 32.

종류의 부두교 관련 아프리카 토속 종교들이 카톨릭주의와 혼합되어 버렸다. 라틴 아메리카 전역을 통해서 사람들의 토속 미신들은 카톨릭교도들 안에 그대로 남아 있다. 카톨릭주의 예배 의식의 많은 부분들과 형상 및 성수(聖水)의 사용 등은 이방 종교에서 받아들인 풍습이다.

### 카톨릭교회의 이교도 신앙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회 안에서 뉴에이지, 오컬트 마술, 신비종교 등의 모든 그림자를 발견할 수 있다. 「카톨릭 월드」(*Catholic World*)는 단 한마디의 정죄나 교정도 없이 한 권 전체에서 뉴에이지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sup>23)</sup> 수천 명의 사제들과 수녀들이 요가와 힌두교 혹은 불교의 신비주의 종교 관행을 실행하고 있다. 한때 건전한 교육 기관으로 간주되었던 전국의 카톨릭 학교들은 이제 공립 학교와 마찬가지로 초자연(혹은 마술) 종교와 뉴에이지 방법들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카톨릭 교육자의 영성」(*Spirituality of the Catholic Educator*)란 간행물은 오늘날의 카톨릭 교육의 한 단면을 잘 보여 준다.

뉴저지와 뉴욕 지구의 카톨릭 학교들은 ‘삶을 위한 활력’(Energetics for Living: A Curriculum Enhancement Program for Peace Education)이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짐(Vergilla Jim, O.S.F.)과 랭이(Claire Langie, O.S.U.)라는 수녀가 개발한 것이다. 그것의 목적은 그들 자아의 중심에서 발견되는 창조적인 에너지와의 접촉을 통하여 모든 생물의 상호 연결과 상호 의존의 경험에 도달케 함으로 궁극적으로 아이들을 안으로 부터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아이의 성스런 내부 중심과의 접촉은 정구적인 명상,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 긴장 이완, 호흡 조절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23) The Catholic World: The New Age, a Challenge to Christianity, May/June 1989

그들은 힌두교도들의 인사인 ‘나마스테’라는 말을 채용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에게 인사합니다’라는 뜻이다. 학생이 일단 자신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보게 되면 ‘감히 누가 하나님이나 혹은 그분의 창조물에게 폭력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라고 포담 대학(Fordham University)의 케리(Loretta Carey, R.D.C.) 수녀는 질문한다. 오마하에 있는 세인트메리 대학의 철학 교수인 오하라(Mary L. O’Hara) 수녀는 카톨릭 학교들에서 교육 효과 증진을 위해 불교 및 힌두교의 방법을 전문적으로 활용하고 있다.<sup>24)</sup>

전 세계에 산재한 카톨릭 수양관(피정 센터)에서는 기독교를 힌두교, 불교 그리고 모든 형태의 뉴에이지 방법들과 혼합하고 있다. 그중 전형적인 곳은 위스콘신주 윌라드에 있는 프란체스코 수녀원 명상 센터인 아쉬람야아짐(Ashram Ya Azim)이다. 여기서 그들은 각종 뉴에이지 기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의식하는 것을 추구하고 있다. 이 같은 행동을 변호하기 위해 미국 프란체스코 수녀회 회장인 바르타(Virginia Barta)는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카톨릭이면서도 동시에 모든 종교 안에 있는 신비한 진리들을 인정할 수 있도록 개방적이다.”<sup>25)</sup>

스스로 신이라고 말하며 자신이 원조 달라이 라마(Dalai Lama)의 14대 환생자라고 주장하는 달라이 라마가 미국에 처음 방문했을 때, 맨 먼저 그를 영접하여 잔치를 베풀어 준 곳은 뉴욕 지구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이었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이 사건을 쿡 추기경(Cardinal Cook)이 주최한 ‘타 종교 간의 특별 축제’라고 평하였다. “세계의 모든 주요 종교는 근본적으로 하나다.”라고 선언하자 장내를 채운 군중은 기립 박수로 달라이 라마에게 갈채를 보냈다.<sup>26)</sup> 쿡 추기경은 이 행사를 “우리 시대에 체험한 극적인

24) Momentum/April 1990, special section, Spirituality of the Catholic Educator.

25) Chicago Sun Times, December 24, 1989.

26) Time, September 17, 1979, p. 96.

영(靈)의 운동 중 하나이다.”라고 말했다.<sup>27)</sup> 물론 그것은 성령님의 운동이 아니다!

1990년 5/6월호 「카톨릭 월드」는 전체를 불교 특집 기사로 다루었다. 모든 기사들은 불교에 대해 동정적이었으며 교황의 발언 내용들도 인용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기사의 제목을 보라. ‘부처님은 크리스천 성자로 추앙을 받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불교와 모든 종교들에 대해서 포용하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는 자기의 친구 달라이 라마의 티베트 신 요가가 마술사의 기도, 영매들, 기타 모든 종교의 기도와 함께 ‘평화를 위한 새로운 풍토’를 조성하는 ‘심오한 영적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고 생각한다.<sup>28)</sup> 이와 유사한 예는 끝도 없이 많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의 한 기사는 다음과 같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방콕의 한 사원에서 태국 불교계의 최고 승려와 나란히 앉기 위해서 조용히 그리고 엄숙하게 신발을 벗었다. 로마 카톨릭 교황은 또한 동양 종교의 ‘오래되고 존경할 만한 지혜’를 칭송하였다.<sup>29)</sup>

사도 베드로가 불교 사원의 경배하는 자리에 참석해서 불교의 지혜를 칭송하는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혹은 바울이 요한 바오로 2세처럼 인도를 방문하면서 자기는 무엇을 가르치고자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풍요한 영적 유산으로부터 배우고자 왔으며 이제 세계는 인도에서 나오는 ‘사람에 대한 영적 비전’<sup>30)</sup>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는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가 이방 종교들의 풍습을 따르는 것처럼 종교 통합 운동을 따랐다면 결코 순교를 당하지 않았을 것이다.

---

27) Newsweek, September 17, 1979, p. 115.

28) Our Sunday Visitor, November 13, 1988.

29) Courier-Journal, May 11, 1984, p. A7.

30) “Spiritual Vision of Man,” op. cit., p. 5.

##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교황이 인기를 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건강이 약해지고 있는 것 같다. 그가 체력이 회복되어 활동을 계속하든 혹은 다른 교황이 후임으로 앉든 미래에는 큰 상관이 없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아주 특출한 인물로 가장 유능한 종교 통합론자이다. 하지만 그는 다만 전임자들의 길을 답습하고 있을 뿐이며 그의 후임자들도 똑같은 길을 답습할 것이다. 제2차 바티칸 공회를 연 교황 요한 23세와 제2차 바티칸 공회를 폐회한 교황 바오로 6세는 달라이 라마, 이슬람교도인 사다트, 불교도인 우탄트 UN 사무총장 등과 함께 종교 UN으로 알려진 ‘이해의 사원’ (Temple of Understanding)이라는 것을 창설하였다. 그 이후에 카톨릭주의는 하나의 세계 종교 설립을 위해서 탁월한 지도적 역할을 해 오고 있다.

요한 바오로 2세의 전임자들이 종교 통합 운동의 주역들이었다는 또 다른 증거로 바오로 6세는 1974년, 벨기에의 루뱅에서 개최된 제2차 세계 종교 및 평화 회의에 교황의 축복을 보냈다. 천주교의 주도 아래 진행된 루뱅 선언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불교도들, 그리스도인들, 유교도들, 힌두교도들, 제인교도들(Jains), 유대인들, 이슬람교도들, 일본의 신도교도들, 시크교도들, 조로아스터교도들 그리고 다른 모든 종교를 가진 우리는 우리의 다양하고 거룩한 종교적 전통 속에 있는 영의 음성을 듣기 위해 여기 모였다. 우리는 평화를 가져오기 위하여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엄청난 문제들과 지금까지 투쟁해 오고 있다. 우리는 인류의 종교들의 교만하고 차별적인 고립의 세기가 영원히 지나가 버린 것을 기뻐하며 또 그렇게 바란다.<sup>31)</sup>

---

31) Alan Geyer, "Religious Isolationism: Gone Forever?" *The Christian Century*, October 23, 1974, pp. 980-81.

많은 수의 카톨릭교도들은 여러 분야에서 교황의 교리들을 거부하고 있지만 종교 통합에 있어서만큼은 교황을 열광적으로 추종하는데 이것은 참으로 흥미 있는 일이다. 그러지 아니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카톨릭교회의 기본 교리들을 반대하는 대부분의 카톨릭교도들은 ‘넓은 것을 지향하는 기독교’를 수용하고 있다. 1989년의 한 여론 조사에 의하면, 미국 내 카톨릭교도들 중 25%가 죽은 후의 삶을 믿지 않고 46%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55%는 교회의 공식 교리를 따르지 않고도 카톨릭교도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2년의 조사에 의하면, 67%가 여자 사제 안수를 찬성하고 52%가 낙태를 용인하며 75%가 사제의 결혼에 찬성하고 87%가 산아 제한은 부부들이 결정할 문제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다.<sup>32)</sup> 1994년 4월의 조사에 의하면, 45세 이하의 카톨릭교도들 중 미사 때의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실제로 변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과 29%에 지나지 않는다고 한다.<sup>33)</sup>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의 상황은 더 놀랍다. 49%의 프랑스 카톨릭 신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않으며 60%는 천국을, 77%는 지옥을 믿지 않고 75%는 연옥도 사탄도 믿지 않는다.<sup>34)</sup> 사실 카톨릭 신학자들 중 삼분의 이가 사탄의 존재에 대하여 불신을 표시하고 있다.<sup>35)</sup> 90%의 이탈리아 사람들은 스스로 카톨릭교도라고 말하지만 주일 미사에 참석하는 수는 겨우 30%밖에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간 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탈리아의 국민 선거

---

32) The Oregonian, June 20, 1992, p. C 12; see also National Catholic Reporter, September 4, 1992, p. 15; see also National Catholic Reporter, June 17, 1994, p. 7 and Our Sunday Visitor, June 19, 1994, p. 2.

33) Our Sunday Visitor, June 19, 1994, p. 19.

34) Le Roux, op. cit., p. 49.

35) The Catholic World Report, July 1992.

에서 이혼과 낙태가 합법화되었다.<sup>36)</sup>

이 같은 배도의 길을 카톨릭교도들만 걸어가고 있지는 않다. 1994년 초에 실시한 한 조사에 의하면,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자처하는 사람들 가운데 40%가 절대 진리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음주의’란 말은 이제 ‘거듭난다’는 말처럼 무의미한 것인가? 미국 성인들 중 71%가 절대적인 것은 없다고 말한다.<sup>37)</sup> 상대주의와 종교 통합은 손에 손을 잡고 간다. 이처럼 느슨한 견해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강한 동기만 부여되면 누구에게나 동조하려 한다. 한(Hahn) 부부가 로마 교회로 전향한 것을 담은 「즐거운 집 로마」(*Rome Sweet Home*)라는 책의 서평에서 로빈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스코트 한의 개종은 비슷한 유형들 중의 하나이다. 이런 일은 로마 교회가 참 교회이기 때문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이 배도하기 때문에 일어난다. 복음의 전파가 가장 필요한 때에 프로테스탄트 강단에서는 복음을 듣기 어렵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또 다른 암흑시대로부터 또 루터가 ‘영혼의 도살장’이라고 부른 그 교회로부터 우리를 구원할 수 있을 것이다.<sup>38)</sup>

## 기도로 모든 사람을 하나 되게 한다

요한 바오로 2세는 1978년 교황직 수임 이후 다가오는 세계 종교를 향하여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 교황의 주요 통합 정책 중 하나는 기도회를 통하여 여러 종교 지도자들을 모으는 것이었다. 바티칸에서 발행한 한 서한에 의하면, 교황은 이집트의 시나산에서 이슬람교도들과 유대인들이 함께하는 ‘전대미문의 기도의 날’을

36) New York Times, June 4, 1985.

37)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ligion Report, February 21, 1994, p. 2.

38) John W. Robbins, “The Lost Soul of Scott Hahn,” *The Trinity Review*, March 1994, p.4

통해 새 천년을 맞이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sup>39)</sup>

요한 바오로 2세의 가장 놀라운 업적 중 하나는 1986년, 이탈리아의 아시시에서 130명의 세계 12개 주요 종교 단체의 지도자들이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회로 모이게 한 것이었다. 함께 기도드린 자들 중에는 뱀 숭배자들, 불 숭배자들, 영매들, 정령 숭배자들, 북아메리카 마법사들, 불교도들, 이슬람교도들, 힌두교도들, 기독교인들 및 카톨릭교도들이 있었다. 교황은 “우리 모두가 한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있습니다.”라고 선언하였다. 이 기도회에서 교황은 자기의 좋은 친구 달라이 라마를 위해서 아시스 소재 성 베드로 교회의 제단 위에 세워진 십자가를 불상으로 바꾸어 놓는 배려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와 그의 불교 신도들이 성 베드로 성당에서 불공을 드리도록 주선하는 배려도 잊지 않았다.

세계 통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두 개의 가장 긴요한 요인은 생태학과 평화 문제가 될 것이다. 평화가 어떤 높은 권세를 향해 기도를 드림으로 성취될 것이라는 믿음이 증대되고 있으며 한 메이슨 단원은 “그것이 어떤 신이든 상관없다.”고 말한다.<sup>40)</sup> 아시시에서의 교황의 모범적 행동에 자극을 받아 미국 내에서는 ‘교파 간 회의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고 이런 모임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기도하고, 모든 종류의 종교인들이 모여 사회 활동을 같이하게 되었다. 한 참석자는 모임 순서들 중에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힌두교도인 바스카라난다가 하나님께 기도문을 읊고 이슬람교도인 아메드도 하나님에게 짧은 기도문을 낭독하였다. 이들은 스리라마크리쉬나와 예수 그

---

39) Orange County Register, April 16, 1994.

40) Little Masonic Library (Macy Publishing and Masonic Supply, 1977), vol. 4, p. 32.

41) Carol M. Ostrom, “Trust is key, interfaith group agrees,” Seattle Times (Seattle, WA), March 11, 1987.

리스도와 부처의 그림들로 장식된 제단 앞에서 이렇게 기도를 하였다.<sup>41)</sup>

기도는 전 세계의 모든 종교를 통합하고 있으며 심지어 복음주의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으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1993년 워싱턴에서 개최된 전국 조찬 기도회에서 케리 상원 의원은 요한복음 3장 1-21절 말씀을 봉독하고는(16절은 읽지 않고 뛰어넘은 채) “그리스도께서는 영적 각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힌두교도, 불교도, 이슬람교도,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다고 말하였다. 부통령인 앨 고어는 “내 생각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이름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더 높은 어떤 힘에 대한 신뢰가 본질적인 요소이다.”라고 말했다.

하나님은 “내 이름으로 불리는 내 백성이 기도하면 내가 하늘에서 들겠다.”고 말씀하셨다(대하 7:14). 이 말씀은 바알 숭배자들 혹은 아스다룻이나 다른 신들을 숭배하는 자들을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기도드리라는 것이 아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증한 일이다! 그러나 오늘날 복음주의자들은 사회 정의와 평화를 위한 다는 명목으로 혼합 종교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일하고 있다.

## 전 세계적인 호응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자들이 평화와 환경 보호라는 이름으로 다른 종교들의 종교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실태를 볼 때 실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남미에는 지금 ‘라틴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방의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모임’(APD)이라는 이름으로 대규모 종교 통합 운동이 카톨릭교회의 축복을 받으면서 카

톨릭교도들, 프로테스탄트들 및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임으로 생겨나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제2차 바티칸 공회로부터 나온 말이다. 그리고 그 운동은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공헌에서 요약된 다원론주의에 기반을 둔, 봉사 지향적 교회의 모형에 생명을 불어넣어 왔다고 주장한다. 「미국 카톨릭 리포터」(*National Catholic Reporter*)는 최근의 브라질 총회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호의적인 기사를 실었다.

한 지도자는 캔들블이라고 불리는, 아프리카 토속신 예배 때 쓰는 은 홀(忽)을 들고 있고 다른 사람 곧 침례교 목사라고 하는 자는 카톨릭 십자가가 가로지른 세계 지도를 전시하고 있으며 그의 곁에는 아이티에서 온 부두교 사제가 향단을 쳐들고 온 회중들에게 에너지를 살포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 장로교 목사는 바울의 갈라디아서를 읽고 있었다. 축제 참여자들은 사제들이 목에 두르는 노란색의 긴 목도리를 높이 들고 있는 어떤 브라질 형제를 둘러싸고 다들 여러 가지 색깔로 채색된 수건에 입을 맞추었다.<sup>42)</sup>

이보다 더 크지만 유사한 성격을 가진 ‘세계 종교 의회’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가 1993년 9월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는데 여기에는 약 6,000명의 전 세계 종교 단체 대표가 참석하였다. 본회의의 연설자 중의 한 사람인 달라이 라마는 모든 종교가 주목해야 할 ‘전 세계적인 영적 대각성’을 촉구하였다.<sup>43)</sup> 이 의회의 주요 행사 중 하나는 ‘종교의 진보를 위한 템플턴 상’ (Templeton Prize for Progress in Religion)을 척 콜슨에게 수여하는 것이었다.<sup>44)</sup> 이 상은 세계적으로 가장 명망이 있고 약 120만 달러의 돈을 주는 종교 통합 상이다. 이 상의 목적은 분명하게

42) National Catholic Reporter, October 9, 1992, p. 13.

43) E.g. Washington Post, September 4, 1993, p. A 1, F8; Minneapolis Tribune, August 29, 1993, Orlando Sentinel, September 5, 1993, p. A-16; Seattle Times, WORLD, September 1, 1993; Christian News, September 6, 1993, p. 14; National Catholic Reporter, September 10, 1993, p. 4, 3 and September 24, pp. 11-14.

‘여러 위대한 종교들의 유익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이다. (엘리야가 바알 숭배의 유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수상을 하거나 바울이 이방 종교의 유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이런 상을 받았다고 상상해 보라!) - [역자 주: 한국의 한경직 목사가 탄 상이 바로 이 템플턴상이다.]

획기적인 종교 통합 운동 행사에 꼭 빠지지 않고 나타나는 사람들은 물론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이다. 참석자들 중에는 시카고의 버나딘 추기경(Joseph Bernardin)과 시카고 추기경 관구 소속 ‘종교 통합 및 타 종교 문제 사무국’ 국장인 바이마 박사(Thomas A. Baima) 등이 있었다. 로마 카톨릭 신학자인 쿡(Hans Kung)은 세계 교회 협의회(WCC) 사무차장인 아리아라자(Wesley Ariarajah) 목사를 포함한 대표자들이 거의 다 서명하고 그 종교 의회의 이름으로 발표한 ‘타 종파 간 협력 증진을 위한 지구 윤리’라는 문서를 작성한 주요 인물이다.<sup>45)</sup> 그것은 ‘역사상 최초로 전 세계의 종교들 즉 불교, 기독교, 힌두교, 이슬람교, 유대교 및 120개의 종교 단체 대표들이 모여 윤리 행위에 관한 공동 의견에 도달한 것이다. 바티칸 대표와 전국 카톨릭 주교 회의 대표들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그들은 이 문서에 호의적인 입장을 천명하였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로만 칼라 제복을 입은 로마 사제들이 사프롱을 입은 불교 승려들과 담화를

---

44) The 1993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registration information, p. 2 listed under "Glimpses of the 1993 Parliament, and p. 3 listed on the official schedule of the "1993 Parliament of the World's Religions" for Thursday night in the time slot (8:00) occupied by plenary sessions on every other night. This was the major Parliament event for that day, with the different location (Rockefeller Chapel) than normal listed because of the additional crowd anticipated. All Parliament registrants were bused from the Palmer House to the Rockefeller Chapel.

45) The Orange County Register, September 4, 1993, Religion page, Metro 9.

나누며, 서인도 제도의 흑인 민족주의자들인 라스타파리안들과 터번을 쓴 시크교도들이 서로 열띤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였다. 이 중 하룻밤에는 새로운 이방 종교인 위카(마법사) 추종자들이 만월제를 올리기도 했다.<sup>46)</sup>

## 가속화된 일치 운동

1980년 9월 16일, 요한 바오로 2세는 독일의 오스나부르크에 있는 카톨릭교도들에게 “여러분의 복음주의 형제들 [루터교도들]에게 은혜롭게 다가가서 신앙에 대하여 증언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종교 생활을 더욱 심화하도록 하십시오.”고 지시하였다.<sup>47)</sup> 교황은 지금 프로테스탄트들을 유인하고 있는가? 아니면 많은 카톨릭교도들이 염려하는 바와 같이 카톨릭교회의 문턱을 낮추고 있는가? 1983년 2월 6일, 교황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인 것을 다시 한 번 더 발견하기 위해 자기가 오해들을 뛰어넘는 일을 한 것에 대해 말한 적이 있었다.<sup>48)</sup> 이러한 종교 통합적인 표현들은 공통된 것들이며 카톨릭교회 내부의 보수주의자들로부터 비판을 받아 왔다.

의심의 여지없이 요한 바오로 2세는 자신의 통합 추구에 있어서 신천지를 개척하고 있다. 그는 캔터베리 대주교의 회당 제단 옆에서 그 당시 캔터베리 대주교였던 룬시(Robert Runcie)와 무릎을 꿇었고 이 두 지도자들은 서로 포옹하였다. 1981년 교황은 수석 대주교인 다마스키노스를 초청하여 자기를 대신해서 연설하도록 요청을 했다. 주후 1054년의 대분단 이후 정교회 고위 성직자가 바실리카의 의장석에 앉은 것은 이번이 역사상 처음이었다.<sup>49)</sup> 로

---

46) Los Angeles Times, September 5, 1993, p. A1.

47) D C of December 2, 1980, p. 910, as cited in Le Roux, op. cit. p. 110.

48) D C of February 6, 1985, p. 136 as cited in Le Roux, op. cit., p. 111.

49) Le Roux, op. cit., p. 122.

마의 서방 교회와 콘스탄티노플의 동방 교회가 상대방을 향해 서로 정죄한 것들은 1965년에 해제되었다. 중세의 종교 개혁 때 로마와 이별한 이래로 바티칸이 인정하지 않았던 스칸디나비아 3개국에 대해서 교황은 1982년 8월 2일 정식으로 외교 관계를 재개했다. 1983년 12월 11일, 요한 바오로 2세는 루터 교회를 방문한 역사상 최초의 교황이 되었다. 로마에서 행한 이 방문에서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기독교인들 사이에 완전한 통일을 찾기 위하여 주의 영께서 우리를 이 종교 통합 대화로 밀어 넣기 때문에 나는 지금 여기에 와 있다.

1987년, 동방 정교회의 대주교 디미트리오스 1세는 요한 바오로 2세에 의해 성 베드로 대성당 안으로 정중하게 인도되었다. 교황은 그를 ‘디미트리오스 1세 성하(聖下),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사랑하는 형제’라고 소개하였고 회중들에게 “성하의 말씀을 경청하라.”고 권면하였다. 미사를 마친 후 디미트리오스는 제단으로 돌아와서 신실한 자들을 축복하였다.<sup>50)</sup> 교황은 답사로 “카톨릭 교회와 정교회는 서로를 자매 교회로 인정하도록 은혜를 받았으며 또 완전한 교제를 향해 행진하도록 은혜를 받았다.”고 말했다.<sup>51)</sup> 1987년 12월 7일, 디미트리오스 1세와 요한 바오로 2세는 최근 미국에서 카톨릭교도들과 복음주의자들이 서명한 내용과 비슷한 선언문에 서로 서명하였다. “우리들 각자의 교회는 동일한 성례들을 받았고 그것들을 존중히 여기며 모든 형태의 개종 활동을 거부한다.”<sup>52)</sup>

---

50) Ibid., p. 124.

51) Ibid., pp. 124-25.

52) D C of January 17, 1988, p. 80, as cited in Le Roux, op. cit., p. 125.

## 서로 다른 꿈을 꾸는 자들

1994년 1월 31일, 중국 수상 리붕은 중국 국경 내에서의 외국인 종교 활동에 관한 규정인 종교법 144조와 종교 활동 시행을 위한 장소에 관한 관리 규정인 145조를 국법으로 확정했다. 홍콩 소재 친북경 일간지인 웨웨이포(Wen Wei Po)가 보도한 바와 같이 이 규정들은 외국인들에 의한 개종을 금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복음주의자들이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 이 땅의 모든 족속들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허용하면 공산주의에 대한 큰 위협이 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sup>53)</sup>

이와 유사하지만 자발적으로 실천한 ‘개종 금지’가 종교 통합 운동을 가속화하는 데 핵심적 요소가 되고 있다. 빌리 그래함의 ‘세계 선교 95 대회’의 경우에도 참가 교회들이 이러한 약속을 자발적으로 실천하였다. 예를 들면, 인공위성 중계망을 통하여 전 세계에 방송되는 이 전도 집회를 준비하면서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명한 지시가 내려졌다. “모든 교파들(카톨릭, 정교회 등 등)은 모든 신학적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모두 상호 권면하며 협조하여야 한다. 타 교회 간의 개종은 절대로 금지한다.”<sup>54)</sup> 아이러니하게도 프랑스 내의 사역 본부는, 독자들이 기억하고 있는 바와 같이, 교황 이노센트 3세가 자신의 교황 재임 기간 동안 육만 명을 몰살시킨 바로 그 베지어(Beziers) 마을에 있었다.

“모든 창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막 16:15)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은 복음주의자들이 이룬 ‘개종 금지 타협’ 중 가장 극적

---

53) Reported in The Voice of the Martyrs, June 1994, p. 6 (P.O. Box 443, Bartlesville, OK 74005).

54) Bulletin d'information #1, Novembre-Décembre 1993, Mission-Mondiale '95 France, BP 3017, 16, Impasse Bourdelle, 34500 Beziers, France.

인 것은 콜로라도에서 있었다. 최근에 복음주의 사역을 하는 단체들이 콜로라도스프링스에 모여들기 시작하였다. 복음주의 청소년들이 학교 친구들 중 유대인과 카톨릭교도들에게 전도하여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카톨릭과 유대인 지도자들이 불평을 제기하였다. 이 지역 사회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카톨릭 주교, 유대교 랍비 및 다른 대표들과 ‘상호 존중 언약서’에 서명하였다. 여기 서명한 복음주의 지도자들 중에는 제임스 답슨(James Dobson), 네비게이터 책임자 테리 테일러(Terry Taylor), 영라이프 책임자 맥고니갈(Terry P. McGonigal) 그리고 현지 복음주의 목사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 언약서가 1993년 4월 22일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가제트텔레그래프」에 ‘콜로라도스프링스 주민에게 보내는 메시지’라는 제목의 기사로 보도되었다. 기사의 내용은 그 언약서에 서명한 지도자들이 이 세 개의 신앙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유대-기독교 전통’을 인정하고, 복음화보다는 선의와 상호 존경의 정신으로 서로서로가 배우기로 약속하자는 것이었다. 한 카톨릭 신문은 의 기양양하게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콜로라도스프링스의 교구 주교인 헤니펜(Richard Hanifen)은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복음화하려는 노력들은 적대적 분위기를 조성해 왔다.”고 말하였다. 약 1년 전, 템플 샤롬의 히르쉬(Howard Hirsh) 랍비와 헤니펜 주교는 유대교 아이들과 카톨릭교회 아이들이 다른 믿음을 가진 청소년들에 의해 전도를 받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영라이프 청소년 사역국 책임자인 맥고니갈도 다른 기독교 청소년들이 학교에서 전도를 받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였다. 오해를 제거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역 내의 교회와 단체 지도자들이 이 사태에 대해 토의하려고 비공식적으로 모임을 갖기 시작하였다. 청소년 지도자들은 1992년 6월 26일, 처음 모임을 갖고 복음 전도 활동이 문제를 일으키는지 여부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결정을 내렸다. 헤니펜 주교는 “장래에 이 모임은 여러 다양한 종교들의 가치관과 성격에 관한 그들의 견해를 배우기 위해 각종 이슈들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라고 상대방을 설득하기보다는 우리가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을 이해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내 생각에는 이 사건이 각기 다른 전통들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정래에 어떻게 처신할 것인지를 보여 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것은 콜로라도스프링스를 위해서 매우 좋은 일이다.”<sup>55)</sup>

## 로마를 향한 은사주의의 다리

이상하게 카톨릭교도들을 전도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해 불평을 하면서도 로마 카톨릭교회는 역사상 가장 큰 전도 활동을 진행하고 있었다. ‘복음화 2000년’이라는 활동이 전에 언급한 포레스트 사제(Tom Forrest)의 주관하에 바티칸으로부터 전 세계에 파급되어 가고 있었다. 그는 향후 10년 동안의 복음화 운동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로 1990년 9월 바티칸 시국에서 전 세계 사제 수양회를 조직하였다. 흥미 있게도 [포레스트는] “수양회의 첫 번째 목적은 사제들을 복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수양회에 참가한 6,000명의 사제들 중 1,000명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요청에 응하였다.<sup>56)</sup> 만약 카톨릭교도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호소해야 한단 말인가, 더구나 사제들에게? 그리고 영구히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진 카톨릭 교리의 대부분을 부인하지 않은 채 어떻게 이 1,000명의 사제들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말인가? 포레스트가 여전히 로마 카톨릭 사제로서 미사를 드리며 연옥과 면죄부를 믿고 영원히 구원을 받았다고 감히 말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그가 성경적 복음을 결코 받아들인 적이 없음을 잘 보여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주의자

55) The Catholic Herald, June 2, 1993, pp. 3, 12.

56) Calvary Contender, January 1, 1991. See also Charisma, December 1990.

들은 그를 복음의 동역자로 받아들이고 있다.

포레스트는 은사주의자(Charismatic)이다. 카톨릭주의와의 교류가 크게 증대하는 것은 많은 경우 일부 은사주의 운동 지도자들 때문이다. 은사주의자들은 최초의 프로테스탄트-카톨릭 모임을 주최하였고 서로를 크리스천으로 인정하였다. 미국 내에서는 약 천만 명의 카톨릭교도들이 그리고 전 세계 163개 나라에서는 약 7,200만 명의 카톨릭교도들이 방언을 말하고 있다.<sup>57)</sup> 방언을 말하는 능력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른 은사주의자들은 카톨릭교도들이 중생했다고 간주하고 있다. 이처럼 방언 경험을 강조한 나머지 그들은 가장 중요한 차이점들을 간과해 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은사주의 운동은 로마를 연결하는 주요 다리가 되었다.

가짜 성령의 역사가 있음이 분명하다. 1960년대 중반 듀크스네와 노틀담 대학에서 시작된 카톨릭 은사 운동 중 발생한 최초의 예언들은 “파티마에서 마리아가 약속한 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sup>58)</sup> 그러나 파티마에서 마리아가 출현한 것은 마귀의 역사이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 장에서 취급할 것이다. 많은 카톨릭교도들이 마리아에게 기도드릴 때 ‘방언의 은사’라는 것을 받았다. 예를 들어 ‘아무개는 로사리오 기도문을 다 외우고 났을 때, 수녀 아무개는 복스러운 동정녀에게 묵도를 드리고 있을 때’ 방언을 받았다.<sup>59)</sup> 소위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카톨릭교도들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은 마리아 숭배에 더욱 심취되거나 로마 교회의 많은 이단 사상들에 더욱 열성을 내게 된다는 점이다.<sup>60)</sup> 그러한 이단을 인정하는 영은 또한 적그리스

---

57) New Covenant, January 1993, pp. 8-9.

58) Edward D. O'Connor, C.S.S., *The Pentecostal Movement in the Catholic Church* (Ave Maria Press, 1971), p. 58.

59) *Ibid.*, p. 128.

60) *Ibid.*, e.g. pp. 166-67.

도도 인정할 것이다.

1990년 3월 2-4일에 로버트 쉐러는 자신의 수정 교회에서 은자주의자들과 카톨릭교도들이 주관하는 '제6회 미국 서해안 성령대회'를 개최하였다. 회중의 대다수는 로마 카톨릭교도들이었고 강사들도 절반 이상이 카톨릭교도들이었다. 압도적 숫자의 카톨릭 청중은 쉐러의 다음과 같은 선언에 기쁨을 금치 못했다.

내가 이 수정 교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었을 때 '거룩한 아버지' (Holy Father)인 교황의 축복 없이 이것을 건축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로 가서 교황을 만났습니다. 나는 수정 교회의 사진을 가지고 가서 교황께 보이고 그분의 축복 기도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함께 사진을 찍었고 나는 그것을 12층에 있는 나의 사무실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역 30년 기념일에 나는 그의 손으로 직접 쓴 놀라운 메시지와 더불어 나의 거룩한 사역에 축복을 내리는 모습을 담은 '거룩한 아버지'의 아름다운 컬러 사진을 받았습니니다.<sup>61)</sup>

이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바로 우리 눈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본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신부를 하늘나라로 데려갈 날이 가까이 올 때 이 세상이 전혀 알지 못했던 종교적 미혹이 일어날 것을 경고하셨다(마 24:4, 5, 11, 24). 심지어 선택을 받은 자들도 속임을 당할 만큼 이 미혹은 크게 일할 것이다. 사람들은 표적과 기적을 행하는 자들이 결코 그리스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독교 지도자로 받아들일 것이다(마 7:22-23). 사도 바울도 같은 미혹을 경고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적그리스도를 위한 필수적인 준비이고(살후 2:3-4) 그 준비는 지금 분명히 가속화되어 가고 있다.

---

61) From a tape of "Praise the Lord" program (TBN), March 7, 1990 - a rebroadcast from the ceremony. (Schuller, Crouch, and Hayford on tape together.)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도들이 함께한다’(ECT)는 역사적 문서에 서명한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면서 한 침례교 지도자는 이제야 비로소 복음주의자들이 카톨릭교회로부터 합법적인 종교 집단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고 기뻐했다. 과연 중세의 개혁자들이 이와 같은 ‘인정’에 마음이 뿌듯하여 자부심을 가졌을까? 더구나 로마 교회는 과거에 모든 종교들을 동일하게 인정해 주지 않았던가? 거의 30년 전에 교황 바오로 6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카톨릭교회는 교회의 자녀들에게 다음과 같은 권고를 하달한다. “신중하고 사랑스럽게 타 종교 교인들과의 대화와 협동을 통하여 또한 크리스천 신앙과 삶을 통하여 다른 백성들에게서 발견된 영적/도덕적 선행들을 인정하고 유지하고 증진해야 한다.”<sup>62)</sup>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주의의 핵심이다. ‘로마의 기독교’란 모든 다른 종교의 믿음과 그들의 종교 행사를 다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종교이다. 지금 이 시간에도 로마에 본부를 둔 세계 종교의 기초가 차근차근 놓이고 있다.

---

62) Pope Paul VI, *Nostra Aetate*, 2, para. 6.

# 9

## 마리아는 과연?



이 글은 1994년, 미국의 데이브 헌트가 지은 「짐승 위에 탄 여자」(*A Woman Rides The Beast: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Last Days*)의 27장을 번역한 것이다. 1994년 3월 29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도들은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인들의 연합 : 셋째 천년에서의 크리스천 선교'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라는 제목의 역사적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로마 카톨릭교회와 기독교가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루터 교단은 자기들이 천주교회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헌트는 과연 천주교가 변했는지,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누구인지, 천주교 주도의 종교 통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에 대해 역사적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하며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글이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 줄 것을 기도한다.

오, 가장 거룩하신 마리아여, 당신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 성 게루마누스(St. Germanus)<sup>1)</sup>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것같이 오직 마리아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다. 우리는 당신을 통해서만 아들에게 나아갈 수 있나이다. 오 복받으신 어머니 곧 은혜의 발견자이시며 생명의 소유자이시며 구원의 어머니이시여. - 성 버나드(St. Bernard)<sup>2)</sup>

당신의 손에 나의 영원한 구원을 맡기나이다. 당신께 나의 영혼을 위탁하나이다. 당신이 나를 보호하시면, 귀하신 어머니여, 나는 두려워 할 것이 없나이다. 죄로부터의 두려움도 없나이다. 당신이 용서를 얻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들로부터의 두려움도 없나이다. 당신은 모든 지옥보다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나의 심판자이신 예수님으로부터의 두려움도 없나이다. 단 한번의 당신의 기도로 그분께서 노여움을 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 두려운 것은 내가 시험받는 순간에 당신께 기도드리는 것을 혹시 잊어버릴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는 비참하게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위해 내 죄의 용서를 빌어 주옵소서.

- '우리의 영원한 도움이신 어머니께 드리는 기도문'<sup>3)</sup>

어떤 사람이 그분께 고하여 이르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나이다,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하시니라. (눅 8:20-21)

그분께서 이것들을 말씀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어떤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분께 이르되, 당신을 뵈 태와 당신이 뵈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눅 11:27-28)

---

1) St. Alphonsus de Liguori, *The Glories of Mary* (Redemptorist Fathers, 1931), p. 171. De Liguori was a cardinal and saint and recognized as authoritative concerning Mary. He quotes the great saints of the Church on this subject in his book.

2) Ibid.

3) *Devotions in Honor of Our Mother of Perpetual Help*, official ed. (Liguori Publications, undated), pp. 46-47.

우리는 짐승 위에 앉은 여자가 바티칸 시국과 후일에 그곳에 자리 잡게 될 거짓 세계 교회임을 이미 밝혔다. 그러면 왜 짐승 위에 남자가 아니고 여자가 앉아 있을까? 왜 이 거짓 세계 교회는 여자로 나타나는가? 다시 한 번 이 같은 기준은 요한계시록 17장에 기록된 다른 모든 기준들과 마찬가지로 완전히 바티칸에 들어맞는다. 로마 카톨릭주의에서 가장 뚜렷한 존재는 바로 여자이기 때문이다. 이 여자는 심지어 하나님을 포함한 다른 모든 것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 카톨릭교도들은 하나님과 예수님께 기도와 관심과 영예를 드리기보다 마리아를 향해 더 많이 기도와 관심과 영예를 바친다. 마리아에게 봉헌된 성지들이 전 세계에 수천 개나 있고 다른 ‘성자들’에게 봉헌된 것들도 수백 개에 달하지만 그리스도께 봉헌된 것들은 불과 몇 개에 지나지 않는다.

어떤 카톨릭 지도자들은 심지어 이런 ‘여신 사상’과 ‘여자 해방’ 등의 태동에 대해서 카톨릭교회가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고 있다고 자랑을 한다. 즉, 지금은 여자가 최고의 영예와 권세를 잡고 있는 시대라는 것이다. 카톨릭주의에서는 여자를 통해서 모든 은혜와 은사와 축복과 권세가 흘러나오고 있다. 우리가 보게 될 이 여자는 심지어 이슬람교도들까지 포함하여 전 세계를 한 종교로 통합할 무서운 힘을 가진 존재이다. 그러나 이 ‘영원한 동정녀’는 성경의 마리아 즉 그리스도의 어머니일 뿐 아니라 요셉의 아내인 그 마리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공상의 인물이다.

###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

성경은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할 때까지만 처녀인 것을 가르친다. 그 이후에 그녀는 그녀의 남편 요셉과의 사이에 여러 아이를 두었다. 이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녀의 ‘맡아들’(마 1:25)이시

며 요셉은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까지 그녀와 동침하지 아니하였다(마 1:25)는 말씀들로 분명하게 입증된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거듭 언급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이름까지 기록되어 있다.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성장하신 것을 알고 있던 사람들은 그분으로 인해 놀라며 “이 사람의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물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기록한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동생들은 야고보와 요세와 시몬과 유다라 하지 아니하느냐? 그의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데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 모든 것을 얻었느냐? 하고 (마 13:55-56; 비교 막 6:3).

키팅(Karl Keating) 같은 카톨릭 변증가들은 “이 형제자매들은 실제로 그리스도의 사촌들이며 마태와 마가는 형제/자매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이유는 히브리어나 아람어에 사촌이라는 말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비성경적인 추정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다. 더구나, 마태나 마가복음은 그리스어로 기록되어 있다. 키팅은 그리스어에 ‘사촌’(anepsios)이라는 말이 있기는 하지만 유대인들이 그리스어로 글을 쓸 때는 모든 친척들을 다 형제/자매로 쓰는 히브리 관습을 따랐다고 주장한다. 그는 ‘70인역’에서 그 예를 들어 설명하지만 신약 성경에서는 그러한 예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에 그러한 예가 하나도 없기 때문이다. 사실 ‘anepsios’라는 말은 골로새서 4장 10절에서 바나바의 생질(누이의 아들)로 사용되고 있다. 더구나 예수님의 형제들은 대부분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으로 언급되고 있다. 그것은 곧 그들이 마리아가 돌보고 있는 마리아의 자녀 들임을 나타내며 만약 그들이 장성한 사람들이라면 마리아와 함께 여행을 다닌 직계 가족 들임을 나타낸다.

카톨릭주의는 또한 훗날 다른 아이들을 낳은 태에서 그리스도께서 출생했다면 그것은 그분을 약간 오염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한 주장은 또다시 비성경적인 주장일 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실 때 입은 그분의 인성을 제거해 버리는 일이다. 드로사(Peter de Rosa)는 예수님께서 출생한 이후에도 마리아가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는 것을 로마 카톨릭주의가 것처럼 강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흥미롭게 이야기한다.

우리는 사제들 특히 교황들이 ‘동정녀 마리아’ 숭배 사상을 진작시켜온 것을 지적했다. 독신자들에게 있어서 이상적인 여자란 아이를 출산한 무성(無性)의 인물이다. 마리아는 성관계 없이 아이를 출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완전 무결한 모형이다.<sup>4)</sup>

그러나 만약 마리아가 자신이 처녀임을 맹세하였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한 말이 그런 의미였다면 마리아는 (마르틴 루터가 지적한 바와 같이) 요셉과의 결혼을 허락함으로써 약속을 위반했을 뿐만 아니라 결혼의 신성한 언약을 경멸한 장본인이 된다. 심지어 카톨릭교회도 아내 된 사람이 자기 뜻대로 성관계의 절제 서원을 하는 것을 금하며 성경도 부부가 동침하는 것이 결혼한 부부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며(창 1:28; 2:21-24; 고전 7:3-5) 모든 사람이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한다(히 13:4)고 선언함으로써 성관계의 절제 서원을 금하고 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라고 가브리엘에게 묻는 마리아의 말(눅 1:34)은 분명하게 그 당시의 마리아의 상태를 나타낸다. 이 말은 결코 마리아가 독신 서원을 했다는 것이 아니다. 그랬다면 그녀는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을 것이

---

4) Peter de Rosa, *Vicars of Christ: The Dark Side of the Papacy* (Crown Publishers, 1988), p. 427.

다(27절). 그래서 만약 그녀의 ‘영원한 동정녀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마리아에 대하여 카톨릭주의가 발명한 다른 모든 신화들도 즉 마리아의 무염 시태, 몽소승천 등도 사실이 아니다.

## 마리아, 하나님의 어머니(?)

카톨릭주의의 ‘동정녀 마리아’에 대해 가장 권위 있는 책은 추기경 리구오리(St. Alphonsus de Liguori)가 쓴 것이다. 「마리아의 영광」(*The Glories of Mary*)이라는 제목의 이 책은 수 세기에 걸쳐 마리아에 대해 로마 카톨릭교회의 위대한 성인들이 발언한 주요 내용을 다 모은 것이다. 각 장의 제목을 보면 기가 막힌다. 그것들은 오직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되는 특성, 능력, 호칭 및 기능들을 마리아에게 돌리고 있다. ‘마리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아름다움’, ‘마리아, 우리의 소망’, ‘마리아, 우리의 도움’, ‘마리아, 우리의 변호자’, ‘마리아, 우리의 보호자’, ‘마리아, 우리의 구원’ 등. 구원을 위한 마리아의 역할에 대해 언급한 성인들의 발언 내용을 리구오리가 인용한 것을 잠시 살펴보자.

죄인들은 오직 마리아에 의해서만 용서를 받는다. 마리아를 신뢰하지 아니한 자는 넘어진 자요 상실한 자이다. 마리아는 하늘의 문이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녀를 통하지 아니하고서는 복된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구원의 길은 마리아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도 열려 있지 않다. 모든 인류의 구원은 마리아의 은총을 받고 그녀에게 보호를 받는 것에 달려 있다. 마리아의 보호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받지 못한 자는 상실한 자이다. “우리의 구원은 당신께 달려 있나이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중보 없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오, 하나님의 어머니여, 당신이 계시지 아니했다면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사오리까?<sup>5)</sup>

---

5) De Liguori, op. cit., pp. 82-83, 94, 160, 169-170.

‘하나님의 어머니’라고? 그렇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마리아는 그분의 어머니이다. 그러나 마리아는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의 어머니는 아니다. 그분은 마리아가 탄생하기 영원 전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 분이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실 때에 그분의 육체적 몸의 어머니였을 뿐이다. 그녀는 결코 하나님의 어머니가 아니다! 성경은 마리아의 역할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그러므로 그분께서 세상에 들어오실 때에 이르시되, 희생물과 헌물은 주께서 원치 아니하시고 오히려 나를 위해 한 몸을 예비하셨나이다. (히 10:5)

로마 카톨릭 전통에 의해서 마리아가 차지하게 된 ‘상상할 수도 없는 비성경적인 위치’는 그들의 기도에서도 나타난다. 조금 전에 인용한 것들은 이 가짜 마리아가 바로 로마 카톨릭주의의 심장이요 생명임을 나타내는 예들, 즉 문자 그대로 수천 개에 달하는 예들 중 몇 개에 불과하다. 이 문제에 관한 비판에 민감한 카톨릭 변증가들은 카톨릭교도들이 마리아에게 기도드리는 사실을 부인한다. 예를 들어 크립트는 이렇게 말한다. “카톨릭교도들은 [성인들에게 기도를 드리지 않고] 다만 자신들을 위해서 성인들이 기도해 달라고 부탁할 뿐이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살아 있는 사람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sup>6)</sup>

이런 주장과는 반대로 카톨릭교도들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자주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성인들에게 특히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이다. 더구나 이 기도들은 마리아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나 그리스도가 되지 않고

---

6) Bookstore Journal, "Official Publication of the Christian Booksellers Association," February 1992, p. 30.

서는 절대 응답할 수 없는 내용들을 포함한다. 1993년 8월, 덴버에서 열린 주일 미사 끝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모든 청소년들과 전 세계를 마리아의 보호와 인도에 맡기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드렸다.

새로운 강림(New Advent)의 마리아여, 다음 집회 [세계 청소년의 날] 준비를 지금 시작하오니 그 준비하는 것을 지켜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마리아여, 차기 세계 청소년의 날을 당신께 위탁하나이다.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마리아여, 우리는 세계의 모든 청소년들과 전 세계를 당신께 맡기나이다!<sup>7)</sup>

카톨릭교도들은 자신들을 위해 마리아가 기도해 줄 것을 부탁만 한다고? 친구에게 기도 부탁하는 사람이 “나는 당신의 보호를 간청하며 전 세계를 당신께 맡깁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응답할 수 있는 이런 기도들은 카톨릭교도들이 마리아에게 바치는 전형적인 기도이다. 그들은 마리아를 전지전능한 존재로 높이고 있으며 그녀를 신뢰하는 자들은 모두가 다 그녀의 돌봄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마리아, 하늘의 여왕(?)

시사 주간지 타임은 이렇게 말한다. “교황들에 의하면 마리아는 우주의 여왕이며 하늘의 왕비이고 진리의 근원이다.”<sup>8)</sup> 1993년 9월 리투아니아에서 행한 연설에서 교황은 마리아에 대해 “그녀는 교회의 어머니이며 사도들의 왕비이며 삼위일체의 처소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사제들과 사제 후보자들 그리고 남녀 모든 종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마리아를 바라보십시오. 그녀는

7) NRI Trumpet, October 1993, p. 14.

8) Time, December 30, 1991, p. 62.

여기 내가 순례의 길을 향하고 있는 오스로스바르티와 실루바의 성지들에서 송양받는 분이십니다. 마리아여, 당신에게 나의 전부를 맡기나이다.”<sup>9)</sup> 이런 신성모독이 대부분의 카톨릭 기도 즉 로사리오 묵주 기도에서 반복되고 있다. 그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을 들어보자.

성모 마리아여, [하늘의] 거룩하신 여왕이시여, 긍휼의 어머니, 우리의 생명, 우리의 인자하심, 우리의 소망이시여! 우리는 당신을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이브의 불쌍한 자녀들 곧 쫓겨난 자녀들인 우리는 당신께 우리들의 한숨을 토 하나이다. 이 눈물의 계곡에서 신음하며 통곡하나이다. 지선하신 변호자시여, 당신의 긍휼의 눈을 우리를 향하여 돌이키소서. 그리고 이 유랑 생활이 끝날 때 당신의 태의 열매인 예수를 우리에게 보이소서. 오 자비로우시며 오 사랑 많으시며 오 달콤하신 동정녀 마리아여!

마리아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소망이라고? 성경 말씀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이라고 밝히고 있다(골 3:4)! 마리아가 카톨릭교도들의 소망인 이유에 대해 신(Fulton J. Sheen) 주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빌리 그래함은 그를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대화자라고 말한 바 있다.<sup>10)</sup>

서품을 받을 때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복스러운 어머니께 성찬을 바칠 것을 결심하였다. 이로 인하여 내가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갈 때 그분께서 그분의 자비 가운데서 내게 “내 어머니가 네게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라고 말할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전 생애 동안 나는 프랑스 루르드의 ‘우리 부인’(Our Lady of Lourdes) 성지에 서른 번 그리고 포르투갈의 파티마 성지에 열 번 순례를 다녀왔다.<sup>11)</sup>

---

9) The Pope Speaks, March/April, vol. 39., no. 2, 1994, p. 105.

10) Quoted in numerous advertisements for videos of Fulton J. Sheen's television shows.

11) Fulton J. Sheen, Treasure in Clay, p. 317.

이 얼마나 불확실한 소망의 표현인가! 마리아에게 바친 헌신으로 인하여 그녀가 좋은 말로 자기를 거들어 주리라는 이 카톨릭 주교는 얼마나 가엾은가! 그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어떻게 되었는데? 카톨릭주의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해 지불하신 희생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들에게는 마리아의 은총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위에서 인용한 바와 같이 마리아가 천국에 들어갈 자들을 정하기 때문이다.

마리아의 ‘공홀의 눈’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실제로 다 보고 있던 말인가? 그녀가 실제로 ‘공홀의 어머니’인가? 하나님의 공홀이 마리아가 탄생하기 오래전부터 보고 계시지 않았는가?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공홀의 하나님’(시 59:17)에 대해서 ‘하나님의 공홀을 신뢰하라’(시 52:8; 눅 1:78 등)라는 말씀을 읽는다. 그러나 전 인류를 향한 마리아의 공홀에 대해서는 성경에 단 한 구절도 언급된 데가 없다.

하나님의 공홀을 아는 자들에게는 마리아의 공홀이 전혀 필요 없다. 만약 마리아가 전 인류에게 공홀을 베풀려면 오직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전능성, 전지성 그리고 무소부재성 등을 소유해야만 할 것이다. 바울과 요한은 ‘은혜와 공홀과 평강’이 하나님으로부터 믿는 자들에게 내려오고 있음을 언급한다(딤후 1:2; 딤후 1:2; 딤후 1:4; 요이 1:3 등). 그러나 마리아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홀을 베푸는 내용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그럼에도 로사리오 기도문은 사람이 하나님보다는 마리아를 의지해야 한다고 분명히 말한다. 정말로 마리아는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는가? 로사리오 기도문에 의하면 그렇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마리아가 ‘하늘의 왕비’라고?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것은 성경

이 밝히고 있다. 그러나 하늘의 왕비 혹은 여왕이 있다는 것은 절대로 비성경적이다. 더구나 그 여왕이 마리아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만약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왕좌를 함께할 자가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이다. 이 교회는 구속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지만 한번도 하늘의 여왕으로 불린 적이 없다.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늘의 여왕’으로 불린 자는 이방인들이 경배했던 우상이며 유다 여자들은 그녀에게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들였다.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들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렘 7:17-18; 44:15-23).

로마 교회는 이러한 이교도들의 풍습과 마리아 숭배가 연관되어 있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과시한다. 많은 카톨릭교도들은 마리아가 ‘하늘의 신 제우스와의 사이에서 헤르메스를 낳은 그리스 신화의 요정인 마이아(Maia)를 대신한 여신’이라고 자랑한다. 5월 즉 ‘May’라는 영어 이름은 5월의 여신인 마이아에게서 따온 것이다. 사실 ‘5월의 여왕’(Queen of May)을 동정녀 마리아로 대치하려던 예수회의 노력은 끝내 성공을 거두었다.<sup>12)</sup>

## 수많은 마리아

카톨릭주의 안에는 이런 ‘우리 부인’(Our Lady), 저런 ‘우리

---

12) The Catholic Sun, May 26, 1993.

부인' 등 수많은 마리아가 있다. 마리아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면 곧 그 마리아를 좇는 추종자들이 생겨난다. 어떤 카톨릭교도들은 '유고슬라비아의 메주고리예의 우리 부인' (Our Lady of Medjugorje)을 선호하고 어떤 사람들은 '멕시코의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 (Our Lady of Guadalupe)을 따르며 혹은 '프랑스 루르드의 우리 부인'을 따른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에게는 그가 좋아하는 두 마리아가 있다. 하나는 폴란드의 수호신인 야스나 고라(Jasna Gora)의 '검은 동정녀' (Black Virgin)이며 다른 하나는 '파티마의 우리 부인'이다. 후자는 그를 암살하려던 자로부터 입은 총상에서 그가 회복하고 있던 중에 나타났다고 한다. 이 마리아는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처음 나타났고 교황 암살 기도는 바로 그 마리아의 출현 기념일에 발생했다. 그녀는 교황에게 나타나서 "내가 너를 구원한 것에는 한 목적이 있고 그것은 전 세계가 너의 영적 최고 권위에 복종하게 하려는 표적을 삼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전해진다. 시사 주간지 타임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마리아 승배는 그가 그의 조국 폴란드에 있을 때 그의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있었다. 폴란드는 수 세기 동안 검은 마돈나가 이슬람교도들의 투르크 군대와 스웨덴의 루터교 군대를 물리쳐 주었고 1920년에는 러시아의 볼셰비키 군대를 물리쳐 주었다고 믿는다.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리아의 통합 일치 능력을 자신의 교황 무기의 중추로 삼아 왔다.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그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마리아 성지를 예방하였다. 그는 설교 때마다 기도 때마다 마돈나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sup>13)</sup>

교황이 미국의 덴버에서 언급한 '새로운 강림의 마리아' (Mary of New Advent)는 특별히 세계 청소년의 날과 관계가 있는 마리아

---

13) Time, December 30, 1991, p. 64.

아이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수년 동안 세계 청소년의 날을 홍보해 왔다. 이 마리아는, 헬리콥터를 타고 도착한 교황을 알현하기 위해서 덴버에 있는 체리 크릭 공원까지 걸어온 순례자들의 철야 기도 장소에 전시되어 있었다. 한 취재 기자는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저녁 9시가 훨씬 넘어서 세계 청소년의 날의 공식 상징이 제시되었다. 이 철야 모임의 이 부분은 '새로운 강림의 우리 부인인 동정녀 마리아상에게 경배하는 것'이라고 불렸으며 이 마리아상은 그때 순례자들에게 처음 드러났다. 그것은 아기 예수가 아직 그녀의 배 속에 있는 것을 그린 마리아 그림이었다. '새로운 강림의 부인' 상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들 중 가장 저속한 것이었다. 콜로라도 합창단과 청년 성가대가 '테제메그니피캣'(Taize Magnificat)을 부르는 동안 덴버에서 온 열 명의 청소년들이 '새로운 강림의 우리 부인'을 지켜보고 세 부분으로 된 무대 가까이 있는 전자기파 장치가 설치된 지역의 복도를 행진하고 있었다. 군중은 열광적으로 호응하였다. 카메라 불빛들이 터지고 꽃잎들이 우상 주위에 뿌려졌다.<sup>14)</sup>

다음 날인 일요일에 교황은 헬리콥터로 돌아갔다. 땅바닥에서 밤을 지새운 순례자들은 추위에 떨면서 다시 열광적으로 교황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는 3,000명의 사제들이 375,000명에 달하는 군중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게 하면서 여러 시간에 걸쳐 미사를 드렸다. 하늘에 있는 마리아에게 여러 번 직접 말을 전하면서 교황은 다음과 같이 연설을 시작하였다.

소망의 표적이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르는 믿음의 순례길에서 받는 위로의 근원이신 하늘의 여왕을 향해 내 가슴속의 깊은 찬송을 바치며 이 엄숙한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이 예배는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자인 마리아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오, 태양으로 옷을 입은 여자여,

---

14) Kathleen R. Hayes, "All-Night Prayer Vigil Becomes Devotion to Lady of the New Advent, a Heavenly Goddess," NRI Trumpet, October 1993, pp. 6-14.

전 세계의 청소년들이 뜨거운 사랑으로 당신께 인사합니다. 죽음을 이긴 최후의 승리가 마리아 안에서 이미 현실이 되었습니다. 오, 마리아여, 교회의 어머니로서 당신은 지금 계신 곳 하늘에서 우리를 인도하시나이다. 죄를 정복함으로 우리의 경건을 늘리도록 도와주소서.<sup>15)</sup>

## 마리아 경배와 우상 숭배

일찍이 1854년부터 교황 비오 9세는 교황 무오설의 시험 풍선을 불어 올렸다. 그것은 대단히 좋은 반응을 받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언제나 인기 있는 ‘동정녀 마리아’와 연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교황은 독자적으로 즉 자신의 직권만으로 어떤 공회나 교육부의 지원도 없이 모든 카톨릭교도들이 받아들여야만 할 교리 즉 ‘마리아는 수태되는 순간부터 모든 원죄로부터 오염되지 않았다’ 마리아 무염 시태(無染始胎) 교리를 발표하였다. 그것은 사실상 그 자신의 무오성에 대한 선언이었다. 즉 그것은 교황이 스스로 교황으로서 주교들이나 공회의 지원 없이도 독자적으로 구속력을 갖는 교리를 정의할 수 있다는 선언이었다.

1950년 11월 1일, 교황 비오 12세는 자신의 사도적 법령에 따라 “흠 없는 하나님의 어머니이며 영원한 동정녀 마리아의 몸과 혼은 그녀가 죽은 뒤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는 내용을 담은 ‘무니피켄티시무스두스’(Munificentissimus Deus)라는 이름의 소위 ‘오류를 범할 수 없다는 공식 선언문’을 발표하였다. 이 법령에서 교황은 마리아의 몽소승천(夢召昇天) 교리가 초대 교회로부터 만장일치로 인정받아 온 것이며 성경적으로 완전히 뒷받침을 받을 수 있는 교리라고 주장하였다. 사실 이것은 초대 교회들에게는 황당무계한 소리이며 완전히 비성경적인 이론이다. 교황의 이러한 선

---

15) Ibid.

언은 카톨릭교도들의 인기에 편승한 반응에 불과한 것이었으며 그 결과 마리아 숭배만 더욱더 강화되었다.

마리아 숭배는 배도가 득세함에 따라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갔다. 1993년 교황의 덴버 방문 때 출현한 마리아 경배 행태를 보고한 작가는 이렇게 기록하였다. “대영백과사전에 의하면 ‘마리아를 강조하는 것은 초대 교회 때에 전혀 흔적을 발견할 수 없는 관행이다.’<sup>16)</sup> 카톨릭 백과사전도 이에 동의한다. “초대 교회 시대에 복스러운 동정녀에 대한 언급들이 발견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결코 놀랄 필요가 없다.”<sup>17)</sup> 이에 대한 이유를 돌린저(Von Dollinger)는 이렇게 설명한다. “신약 성경이나 초대 교부들의 글에는 그리스도의 별세 후 동정녀의 운명에 관해서 남겨진 기록이 전혀 없다. 4세기 혹은 5세기 때의 두 권의 묵시 문학 작품 - 하나는 성 요한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데의 주교인 멜리토의 기록이라는 설이 있다 - 이 그녀의 승천에 대한 최초의 기록들이다.”<sup>18)</sup>

로마 카톨릭교회는 마리아에게 경배를 드리는 것을 부인한다. 그들은 그녀에게 다만 ‘하이퍼듀리아’(Hyperdulia) 즉 특별히 마리아에게만 드리는 경의를 드리고, 다른 성자들에게는 ‘듀리아’ 즉 로마 카톨릭주의에서 성인들이나 천사들에게 드리는 존경을 드리며 그리스도께는 ‘라트리아’(Latria) 즉 로마 카톨릭주의에서 하나님에게만 바치는 최고 경배를 드린다고 주장한다. 그러면 카톨릭교도들 가운데 성행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고려해 보자.

“예수님, 마리아와 요셉, 당신들에게 나의 마음과 나의 혼을 드립니다.” 왜 예수님에게만 이 모든 것을 드리지 않는가? 왜 다른

---

16) The Encyclopedia Britannica, vol. 15, p. 459.

17) Hayes, op. cit.

18) J.H. Ignaz von Dollinger, The Pope and the Council (London, 1869), pp. 28-29.

사람에게도 이런 것을 드리는가? 분명히 하나님만이 홀로 사람들의 마음과 혼을 요구하시며 실로 그분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 경배드리지 않는 대상에게 자기의 마음과 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어떤 사람이 한 순간에 (한번 숨 쉬는 그 짧은 순간에) 라트리아는 예수님에게, 하이퍼듀리아는 마리아에게, 듀리아는 요셉에게 드릴 수 있단 말인가?

독실한 카톨릭 신도들 간에는 마리아를 섬기는 일에 헌신한 사람들이 군대를 이루고 있다. 전형적인 것으로는 1921년 9월 7일, 아일랜드에서 시작하여 지금은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마리아 군단' (Legion of Mary)을 들 수 있다. 마리아 군단은 가는 곳마다 있으며 창설 이래로 다섯 교황의 추천을 받아 왔다. 교황 바오로 6세는 “마리아 군단은 현 세계의 악한 세력을 대적하여 싸우는 헌신되고 충성심이 강한 마리아 추종자들의 군대이다.”라고 말했다.<sup>19)</sup> 카톨릭교도들이 마리아에게 바치는 헌신이 하나님이나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헌신을 능가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 전지전능, 무소부재의 마리아(?)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파티마의 우리 부인의 청색 군대' (The Blue Army of Our Lady of Fatima) (약 2,200만 명의 회원을 가진 단체)의 기관지인 「Soul Magazine」은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마리아는 성령과 완전무결하게 연합하여 있으므로 성령은 오직 자기의 배우자를 통해서만 활동하신다. 순간순간 마리아가 친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시하고 인도하고 변화시켜서 자

19) Catholic Family News, April 1993, p. 13.

기의 형상을 닮게 한다. 그러므로 마치 예수님이 그녀 안에 살고 있고 성부께서 성자 안에 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는 우리가 아니라 마리아가 살고 있다.”<sup>20)</sup> 전 인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가 마리아의 손안에 있던 말인가! 마리아가 우리 모든 사람을 지시하고 인도하고 자기의 형상으로 변형시킨단 말인가? 그렇다면 마리아는 하나님이다!

성령이 마리아를 통해서만 활동한다는 말은 성경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다. 성령께서는 영원 전부터, 마리아가 탄생하기 전의 영원 전부터 활동해 오고 있다. 우리의 모든 삶은 마리아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 우리는 마리아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지시를 받고 인도를 받는다. 우리는 마리아의 형상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간다. 마리아가 믿는 사람들 안에 내주하고 있다는 사상은 성경 어디에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 이러한 약속들이 마리아 안에서 성취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가장 사악한 종류의 신성모독이며 진짜 마리아가 들으면 심히 노하고 꾸짖을 짓이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인들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되풀이해서 말한다(요 14:20; 골 1:27; 갈 4:19).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롬 8:1; 고후 5:17; 엡 2:10 등). 그러나 어떤 사람이 마리아 안에 있다거나 마리아가 어떤 사람 안에 있다는 말은 성경에 단 한마디도 없다. 내주하는 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하듯 마리아 안에서도 가능하려면 마리아는 하나님처럼 무소부재의 존재가 되어야만 한다.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들이

---

20) Soul Magazine, Nov.-Dec. 1984, p. 4.

이루어지려면 카톨릭교회에서는 반드시 중간에 마리아가 중보자로 끼어야만 한다.

## 참으로 가증한 일

‘마리아의 해’ (Marian Year)를 위해 거룩한 아버지 교황이 기도한 것을 들어 보자. 교황은 마리아가 전 인류를 위로하고 인도하고 강화하고 보호해 주기를 간구하고 있다. 이런 일을 하기 위해 마리아는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해야 할 것이다. 더욱 가증한 것은 기도의 마지막에 교황이 “오, 동정녀 마리아여, 우리의 믿음의 행로를 지켜 주시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소서.”라고 한 것이다. 이 신성모독을 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리아는 죄인들의 피난처요, 하늘의 문이요, 낙원에 이르는 우리의 문이다.”라고 공통적으로 선언한다.<sup>21)</sup>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고 또 자신의 피로 우리의 구원을 사셨다. 이것은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모두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이다. 바울이나 초대 교회들이 전파한 복음에는 어떤 종류로도 마리아에 대한 언급이 없다. 마리아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얻어 주어야 하거나 혹은 얻을 수 있다고 암시하는 것은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희생이 충분하다는 것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배척하는 것이다. 비록 카톨릭주의가 할 수 있는 한 부인하려고 하지만 사실 카톨릭주의의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하나님 위로 더 높이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다.

---

21) Catholic Twin Circle, August 26, 1990, p. 20.

## 마리아 연구와 마리아 숭배

일부 보수적인 카톨릭교도들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다른 종교들을 수용하므로 그가 자기들의 교회를 배반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들은 마리아 경배 안에서는 다 하나가 된다. 교황의 종교 통합 운동을 잘 보여 주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제목의 강력한 글은 ‘가장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의 죄 없는 심장’에 봉헌되었다.<sup>22)</sup>

마리아의 심장이 ‘무염(無染) 심장’ 즉 죄 없는 심장이 되려면 그녀는 무죄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로마서 3장 23절에서 선언한다. 실로 마리아 자신도 자기의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기뻐하였다(눅 1:47). 오직 죄인만이 구원자를 필요로 한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신다(마 19:17; 막 10:18). 마리아라고 예외가 되지는 않는다.

마리아가 그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이라는 비난을 받으면 모든 카톨릭교도들은 격렬하게 부인한다. 그러나 현실을 보면 그것이 사실이다. 심지어 마리아가 명령하면 하나님도 순종한다.<sup>23)</sup> 마리아에 대한 존경으로 시작한 것이 마리아에 대한 숭배로 변해 버렸다. 마리아에게 바쳐진 수천 개의 기도문들 즉 구원에서부터 전지전능성에 이르기까지 마리아의 속성과 능력을 묘사하는 이런 기도문들이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다음은 「로사리오, 하늘에 이

22) Le Roux, op. cit., dedication page.

23) This has been stated explicitly by some of the “saints” of the Church and it is implicit throughout the entire teaching of calling upon Mary from whom help is obtained more quickly than by calling upon God or Christ directly. See Liguori, op. cit., e.g. pp. 40, 130, 137, 156, 157, 174.

르는 당신의 열쇠」라는 제목의 대중 소책자의 내용이다.

로사리오의 구원의 한 수단이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참 자녀는 결코 구원을 상실하지 않으며 매일 로사리오로 기도하는 자는 마리아의 참 자녀이기 때문이다. 마리아는 우리의 전능하신 변호자이시며 자기의 자녀들을 위해 모든 선한 것을 자기 아들의 심장에서부터 얻어 낼 수 있다. 흠 없는 마리아에게 등을 돌리는 자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구속(救贖)의 가능성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로 인해 죽으시고 자신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는 사실도 만약 마리아가 없다면 전혀 의미가 없어지고 만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단 하나도 성경에 언급된 적이 없으며 바울은 이러한 내용을 어느 누구에게 설교한 적이 없다. 그럼에도 카톨릭 신자들에게는 마리아가 구원과 모든 은혜가 흘러 들어오는 결정적인 통로가 되어 버렸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모든 것을 통합하고 자기에게 바쳐지는 헌신을 통해 자기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물들을 분배하는 책임자는 바로 마리아이다. 이 신성모독의 교리를 로마 교회는 어떠한 성경적인 근거도 없이 가르치고 있다.

성경 어디에도 사람이 마리아의 자녀가 된다는 내용은 없다. 성경적 복음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의해 하나님의 아이들' 이 된다고 가르친다(갈 3:26). 그러나 카톨릭주의는 "마리아의 참 자녀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는 약속으로 인해 사람이 마리아의 자녀가 된다고 가르친다.<sup>24)</sup> 이로써 또다시 그녀는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고 말았다.

물론 카톨릭주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

---

24) Devotions in Honor of Our Mother of Perpetual Help, back cover.

는 것을 인정한다(딤편 2:5). 그러나 동시에 마리아가 인간과 그리스도 사이의 중보자가 되어 예수님에 이르는 지름길이 된다고 주장한다.<sup>25)</sup> “예수님은 모든 은혜의 붓물이고 마리아는 그 은혜들이 우리에게 흘러오는 통로이다. 예수님은 자기의 어머니가 우리의 변호자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우리가 그분께 우리의 소원을 부탁하면 그녀가 예수님께 그것을 제시할 것이다.”<sup>26)</sup>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통해 드린다 할지라도 마리아의 간섭을 필요로 한다. 참으로 모든 은혜는 마리아의 강력한 중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온다.

오 무한하게 선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이지여, 우리의 가장 거룩하신 어머니에 대한 위대한 확신으로 우리 마음을 채우소서. 우리는 그분께 ‘흠 없는 심장의 마리아’ (Immaculate Heart of Mary)라는 이름으로 호소하나이다. 우리가 필요한 모든 은혜들 - 영적인 것이나 세상의 것이나 - 곧 그 은혜들을 그녀의 가장 강력한 중보를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십시오.<sup>27)</sup>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나가는 것을 아주 분명히 기록한다(요 15:16; 16:23). 마리아를 통하여 그리스도께 나아간대거나 마리아에게 소원을 알린다거나 또는 마리아가 자진해서 그리고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한다는 내용은 성경에 결코 암시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카톨릭교회는 마리아가 그리스도께 이르는 중재인의 역할을 한다는 교리와 마리아가 자기를 의뢰하는 자들을 위해서 개입하고 보호하는 강력한 사역을 한다는 교리를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교인들에게 중

25) Catholic Twin Circle, August 26, 1990, p. 20.

26) The Fatima Crusader, Winter 1992, p. 16.

27) Prayer on a card published by The International Fatima Rosary Crusade, RD 1, Box 258, Constable, NY, 12926 bearing the Imprimatur: February 21, 1961, Francis Cardinal Spellman, Archbishop of New York.

언하고 있다.

감옥에 있는 한 죄수가 카톨릭으로 개종한 이야기가 키팅의 「이 반석」(*This Rock*)이라는 잡지에 실렸다. 그것은 개종하고 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고 또 성령이 다른 개종자들에게도 어떻게 일하였는가를 보여 준다. 그러나 거기에는 십자가 성호를 긋는 것을 빼고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거의 없다. 이야기의 대부분은 교회와 카톨릭 지역 사회에 대한 것이고 물론 마리아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 그 기사는 형무소 사역의 영적 열매들에 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개종한 죄수들의 완전한 헌신에 대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물론 그리스도나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고 흠 없는 마리아의 심장에 대한 헌신이다.

나는 어머니께서 그들 [죄수들]을 자기 가슴속으로 부르신 것을 알았다. 나는 립스콤(Oscar H. Lipscomb) 대주교가 견진 성사를 위해서 올 때 우리가 공개적으로 단체 헌신을 드릴 수 있을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우리가 그룹의 준비를 위해 다 함께 모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은 오락장에서의 아침 6시 30분뿐이었으므로 우리는 그렇게 33일 동안 계속해서 모임을 가졌다. 살인범들, 강간범들, 강도들, 마약상들, 방화자들인 이 사람들은 매일 하나님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 희생하며 모임을 가졌다. 그들은 매일 추위와 비바람과 조소를 참으며 완전한 죄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에게 자기들의 혼과 심장을 온전히 드릴 준비를 했다. 드디어 큰 날이 왔다. 미사를 다 드리고 사도적 축복을 내리기 바로 직전에 대주교 립스콤은 공개 헌신 순서를 허락했다. 우리는 빌려 온 '우리 부인'의 동상 앞으로 일렬로 나아갔다. 그리고 각 사람이 그 동상 앞에서 무릎을 꿇어 경의를 표하고 제단 앞에 줄지어 나가 무릎을 꿇었다. 나는 헌신 기도를 드리게 되어 있어서 내 주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 알지 못했다. 대주교와 그를 수행한 사제들은 격정을 참지 못하는 모습들이었다고 후에 들었다. 결국 1,300명의 흉악범들이 모두 개종하여 자기들의 어머니 발 앞에서 무죄하고 순진한 어린아이들이 되었다.<sup>28)</sup>

---

28) Russell Ford, "Criminal Rehabilitation—Catholic style," *This Rock*, February 1994, p. 17.

##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부수다

창세기 3장 15절은 성경에서 메시아에 관한 최초의 약속을 제공한다. 하나님은 뱀 즉 사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사탄]는 그[메시아]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카톨릭주의는 [자신들이 번역한 랭스두에 성경에서] 오랫동안 이 구절을 “여자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라고 번역해 왔다.

위에서 방금 인용한 「로사리오, 하늘에 이르는 당신의 열쇠」라는 소책자는 “마리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며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일에서 그녀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처럼 허구 속의 마리아 곧 카톨릭주의의 마리아가 죄와 사탄을 이긴 승리자 그리스도의 자리를 찬탈하고 있는데 이것은 카톨릭교회의 주요한 교리 부패 중 하나이다. 1849년 비오 9세는 ‘우비프림움’(Ubi primum)에서 “마리아의 발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였고 또한 마리아가 친히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모든 원수들의 큰 환난과 유혹과 공격들로부터 구출해 왔으며 그들을 항상 파멸로부터 구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마리아가 그렇게 하려면 그녀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1830년 11월 27일, 마리아가 발꿈치로 뱀의 머리를 밟고 있는 모습을 한 채 프랑스 파리에 있는 라부르(Catherine Laboure)에게 나타나서 사탄에게 승리한 모습의 마리아상을 메달로 만들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말이 있다.<sup>29)</sup> 그렇게 만들어진 ‘기적의 메달

---

29). John J. Delaney, ed., A Woman Clothed with the Sun (Doubleday, 1961), pp. 63-88.

의 우리 부인' (Our Lady of the Miraculous Medal)은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 이 메달은 아직도 수백만 카톨릭교도들이 호신용으로 목에 달고 다닌다.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메달을 달고 다닌 덕분에 기적을 보게 되었다고 간증한다.

‘기적의 메달의 우리 부인’은 수 세기 동안 전 세계적으로 동정녀 마리아가 나타났다고 하는 수천 건의 이야기들 중 한 예에 불과하다. 이러한 마리아 출현은 점점 더 증가하고 있으며 그 횟수도 최근에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sup>30)</sup> 어떤 이야기들은 교회에 의해서 인정을 받지 못했지만 많은 사례들이 교회의 인정을 받고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든 받지 못하든 그것들을 바라보는 로마 카톨릭교도들에게는 그것들이 모두 카톨릭주의의 마리아가 세계의 희망이라는 증거를 줌으로써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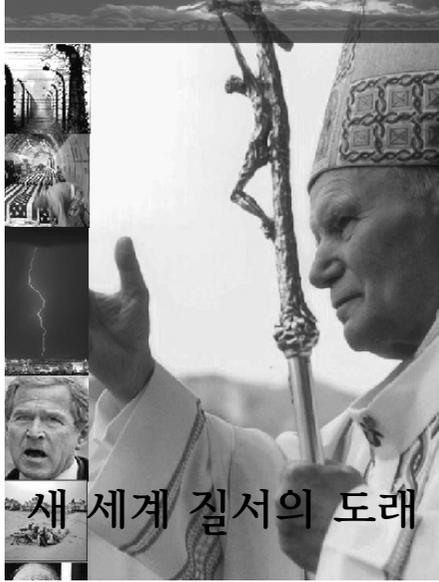
이 여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 본 ‘짐승 위에 앉은 그 인물’이다. 과연 이 사실은 적그리스도의 세계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로마의 조작품인 마리아가 수행할 전략적 역할도 포함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가능성을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

30) Time, December 30, 1991, pp. 62-63.

# 10

## 새 세계 질서의 도래



이 글은 1994년, 미국의 데이브 헌트가 지은 「짐승 위에 탄 여자」(*A Woman Rides The Beast: The Roman Catholic Church and The Last Days*)의 28장을 번역한 것이다. 1994년 3월 29일, 미국의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도들은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인들의 연합 : 셋째 천년에서의 크리스천 선교' (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ECT)라는 제목의 역사적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로마 카톨릭교회와 기독교가 같은 믿음을 공유한다고 천명하였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루터 교단은 자기들이 천주교회와 같은 믿음을 소유한다고 공표하였다. 이런 혼란의 와중에서 헌트는 과연 천주교가 변했는지, 계시록 17장의 음녀가 누구인지, 천주교 주도의 종교 통합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등에 대해 역사적 자료들을 자세히 분석하며 통찰력을 제공한다. 이 글이 진리를 탐구하는 모든 이들의 눈을 열어 줄 것을 기도한다.

우주의 탄생에 대해서 과학자들이 논쟁을 하고 있는 이때에 마리아에게 경배를 드리는 일과 이에 반대하는 일이 비상한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다. 동정녀에 대한 신앙심이 일반 대중들 사이에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나고 있다. 수백만 군중이 마리아의 상을 모신 성지들에 몰려들고 있는데 그중 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다. 더욱 괄목할 만한 현상은 지난 수년 동안 유고슬라비아에서 콜로라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마리아의 출현을 보았다고 하는 사실이다. - 타임지<sup>1)</sup>

바로로 6세는 요한 23세와 요한 바로로 2세와 더불어 세 명의 '가장 위대한 평화의 교황'으로 기억될 것이며 새 시대를 향한 카톨릭교회의 중대한 사명을 발전시킨 개척자로 기억될 것이다. - 전 UN 사무차장 물러(Robert Muller)<sup>2)</sup>

카톨릭교회는 매년 2월 11일 프랑스의 루르드 지방에 나타난 '우리 부인'의 출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릴 것이다. - 교황 요한 바로로 2세<sup>3)</sup>

시사 주간지 타임은 동정녀 마리아의 출현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20세기 후반은 이 같은 마리아 출현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수많은 성지들을 향한 '마리아 순례의 시대가 되었다'고 보고한다. 프랑스에만 현재 937개의 마리아 성지가 있다.<sup>4)</sup> 1961년부터 1965년까지, 스페인의 동북쪽에 위치한 가라반달(Garabandal)이라고 하는 마을에 약 2,000건의 출현이 있었으며 이때마다 마술적 현상과 전 세계를 향한 묵시적 메시지가 동반되었다. 1983년에는 이스라엘의 베들레헴 근방에서 수백 명의 팔레스타인 아랍 사람들이 동정녀 마리아를 보았다는 보도가 있다. 그녀는 현재 세계 구석구석에 나타나고 있다.

마리아는 도솔에서, 르완다의 키베호에서, 일본의 아키타에서, 칠레에서 나타

---

1) Time, December 30, 1991, p. 62.

2) NRI Trumpet, October 1993, p. 3.

3) Daughters of St. Paul, eds., Servant of Truth: Messages of John Paul II (St. Paul Editions, 1979, reprinted by permission of L'Osservatore Romano), vol. 2, p. 384.

4) Time, December 30, 1991, p. 62.

났고, 호주와 폴란드와 캐나다에서 그리고 이탈리아의 아시시의 산 도밍고에서, 암스테르담과 뉴욕 등에서도 나타났다.<sup>5)</sup>

이런 출현들로 인해 수백만 명이 카톨릭주의의 마리아를 믿게 되었다. 프랑스 루르드 지방에 있는 성지는 매년 550만 명의 순례자들이 찾고 있다. 폴란드의 검은 마돈나는 500만 명을, 포르투갈의 파티마의 마리아는 점점 많은 나라에서 매년 450만 명의 순례자들을 모으고 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다녀간 뒤 아일랜드의 낙(Knock)에 있는 마리아 성지에는 매년 순례자의 수가 배로 늘어 150만 명에 달하고 있다. “순례자들의 홍수를 감당하기 위해서 1986년 새 국제공항을 건설했다.”<sup>6)</sup>

또한 ‘마리아, 전 우주의 여왕’ 신전이 플로리다주 올랜도에 새로 건설되었다. 멕시코시티 근교에 있는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은 매년 2,000만 명의 방문자를 끌어 모으고 있다!<sup>7)</sup>

마리아가 강력하게 보호해 준다는 믿음이 전 세계적으로 경축되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기간에 일본의 침략을 막아 주었다는 ‘랑카의 우리 부인’ (Our Lady of Lanka)은 1948년 이후 스리랑카의 보호신이 되었다. ‘코파카바나의 우리 부인’ (Our Lady of Copacabana)은 볼리비아 해군의 수호신이 되었고, 코로모토의 우리 부인은 베네수엘라의 수호신이 되었다.<sup>8)</sup> 폴란드 대통령 바웬사(Lech Walesa)는 파티마를 방문하여 폴란드의 해방을 위한 감사의 기도를 드렸다.<sup>9)</sup> 요한 바오로 2세는 마리아가 유럽 전역에

---

5) Brother Michael of the Holy Trinity at the Sorbonne, “Messages from Heaven to Earth: Fatima, Medjugorje, Kibeho and Charismatic Renewal,” *The Catholic COUNTER-REFORMATION in the XXth Century*, November–December 1985, p. 1.

6) *Time*, December 30, 1991, p. 62.

7) *The Christian News*, September 13, 1993, p. 3.

8) *Our Sunday Visitor*, February 7, 1993.

9) *The Catholic World Report*, March 1994, p. 20.

공산주의의 종식을 가져다주었다고 믿고 있다.<sup>10)</sup> 모스크바의 대주교 콘드루시웁스도 그렇게 믿고 파티마를 찾았으며, 러시아 TV들은 이 사건을 프라임 타임 시간에 방송하였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직전 러시아에 나타났다고 하는 ‘파티마의 우리 부인’ 동상이 공산주의 패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조만간 모스크바에 건설될 것이다.<sup>11)</sup> 콘드루시웁스는 그녀의 신전이 그 위대한 정복을 영원히 기념하는 기념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sup>12)</sup>

이 같은 마리아 출현은 앞으로 도래할 적그리스도의 세계 종교를 계속해서 선포하고 있다. 모든 종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하며 평화를 위해서 하나가 되어야 된다. 카톨릭, 프로테스탄트, 이슬람교도 혹은 유대인들까지 다 수용할 수 있는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복음을 제공하면서<sup>13)</sup> 마리아는 ‘모든 사람이 자기 마음에서 편한 대로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sup>14)</sup> 이것은 남부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에 소재한 ‘메주고리예의 우리 부인’이 선언한 내용이다. 이곳은 우스타쉬 크로아티아의 심장부이며 그 출현을 보았다고 하는 자들은 지난 13년 동안 동정녀가 매일 나타났다고 주장한다.<sup>15)</sup>

## 마리아 출현과 공식적인 카톨릭 교리

만약 카톨릭주의의 공식 교리가 뒷받침하지 않는다면 마리아의

10) Time, December 30, 1991, p. 64.

11) The Catholic World Report, March 1994, p. 20. See also Houston Chronicle, July 27, 1991.

12) The Catholic World Report, March 1994, p. 23.

13) Miracle at Medjugorje, April '88, Wayne Weible, p. 8.

14) Christian News, January 2, 1989, p. 4, quoting an interview with “Seer Vicka Ivankovic” in the St. Louis Dispatch, December 25, 1988.

15) New Covenant, November 1993, pp. 7-11.

출현은 그와 같이 많은 추종자들을 모을 수가 없다. 카톨릭주의는 교인들에게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약속하고 있다. 제2차 바티칸 공회의 결의 사항을 인용하여<sup>16)</sup> 「카톨릭교회의 교리 문답서」는 “아주 오랜 옛날부터 복받으신 동정녀는 ‘하나님의 어머니’로 공경을 받아 왔으며 신도들은 위협과 필요에 직면할 때 그분의 보호 아래로 달려간다.”고 선언한다.<sup>17)</sup> 여기서 우리는 로마 카톨릭교회의 최고 권위 체제로부터 나온 교회의 공식 교리가 하나님에게만 속한 권세와 능력을 마리아에게 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장 잘 알려진 카톨릭교회의 변증 간행물인 「이반석」은 위의 내용을 인용하면서 비록 많은 수의 카톨릭교도들이 마리아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고 있지만 그 견해는 교회의 공식 교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sup>18)</sup> 그러나 “신도들 혹은 신실한 자들은 위협과 필요에 직면할 때 그분 [마리아]의 보호 아래로 달려간다.”는 인용문 자체가 이 사실을 입증하고 있다. 하나님 이외에 과연 누가 신도들에게 필요한 모든 보호와 다른 모든 필요를 공급할 수 있단 말인가?

성경에서 우리는 마리아에게 드리는 기도를 단 하나도 발견할 수 없다. 마리아가 다른 사람을 기적적으로 도와준 사건의 기록 역시 단 한 건도 없다. 또한 그렇게 도와줄 수 있다거나 도와주겠다는 어떠한 약속도 발견할 수 없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도를 위한 어떤 도움이나 보호는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

---

16) Austin Flannery, O.E, gen. ed., Vatican Council II: The Conciliar and Post Conciliar Documents, rev. ed. (Costello Publishing, 1988), vol. 1, Lumen Gentium, 21 November 1964, 66, p. 421.

17) Catechism of the Catholic Church (Libreria Editrice Vaticana-In the USA, The Wanderer Press, St. Paul, MN, 1994), section 971, p. 253, Imprimi Potest Joseph Cardinal Ratzinger.

18) This Rock, May 1994, p. 11.

도에게서만 나온다. 이 사실은 성경 안에서 무수하게 발견할 수 있는 진리이다. 다음과 같은 몇 개의 예들은 이 진리를 잘 보여 준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네 피난처이시며 네/ 밑에는 영존하는 팔들이 있도다. 그분께서 네 앞에서 원수를 쫓아내시며 이르시기를, 그들을 멸하라, 하시리로다(신 33:27);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고난 중에 그 즉시 만날 도움이시라(시 46:1);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시 62:7); 내가 주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분은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리로다(시 91:2); 너 벌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주 곧 네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가 말하노라(사 41:14); 주[예수님]여, 나를 구원하소서(마 14:30); 주[예수님]여, 나를 도우소서(마 15:25);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갈 것이니라(히 4:16).

무한하게 능하시고 긍휼이 많은 하나님과 또 아버지와 하나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약속하신 대로 수 세기 동안 자신들을 신뢰하는 자들을 보호해 오셨다. 그렇다면, 왜 우리가 마리아를 불러야 한단 말인가? 마리아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가, 더 긍휼이 많은가, 더 믿을 만한가, 더 빨리 응답해 주는가? 대부분의 카톨릭 교도들은 이 사실을 부인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의 마리아는 삼위 일체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다.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 동상은 최근에 미국의 여러 도시에 전시된 적이 있었으며 그 순회 기간에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다는 소문들이 있다. 멕시코에서 그녀가 받은 영예 중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회환으로 장식한 마리아 신전을 공공 버스 안에 부착하고 다니는 일, 나쁜 짓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동정녀 사진을 멕시코의 공장들 안에 부착해 두는 일, 매년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성당을 찾아와서 마지막 순례 여정의 하나로 무릎으로 기어가는 일 등.<sup>19)</sup>

도움과 보호를 받기 위해서 마리아에게 호소하는 것은 마리아를 적어도 하나님과 동등하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위에 두는 일이다. 이것은 곧 성경의 마리아가 아니라 짐승 위에 앉은 여자이다. 카톨릭주의의 마리아를 믿는 것은 세계 종교와 새 세계 질서와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위한 가장 확실한 길인데 이 믿음은 지금까지 수천 회에 달하는 마리아 출현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 놀라운 마리아의 고유 역할

전 세계적으로 여자들이 자신의 위치를 이처럼 강력하게 주장하고 나선 시대는 역사상 없었다. 일반 대중들의 생각과는 달리 “여자들이 가정 폭력을 더 많이 일으키고 있으며 남자들에게 더 많이, 더 심하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그리고 폭력은 남녀 부부 사이에서보다 여자 동성애자들 사이에서 훨씬 자주 일어나고 있다.<sup>20)</sup> 여자들이 한때 남자들만이 하던 일들을 떠맡고 있으며, 실업계에서나 정부 및 종교 단체들에서 최고 간부직을 독차지하고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지금부터 1,900년 전에 오늘날의 현실을 잘 보여 주는 환상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 주실 수 있었다. 그것은 곧 여자가 통제하는 것이다.

현재의 추세로 볼 때 여자가 짐승을 타는 일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역사상의 모든 여자들 가운데 로마 카톨릭교회의 마리아만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한 인물은 단 하나도 없다. 그녀가 전 세계의 수백만 명에게 나타나 눈부시게 능력을 과시한 것은 장차 짐승을 타고 앉아서 새 세계 질서 속에서 자신이 수행할 독특한 역할을 준비하기 위한 것은 아닌가? 이런 각본은 기막히게 잘 맞

19) National Catholic Reporter, January 29, 1993, p. 3.

20) USA Today, June 29, 1994, p. 15A.

아떨어진다!

요한 바오로 2세는 이렇게 말하였다.

마리아는 인류의 중생을 위한 카톨릭교회의 사도적 임무에 협조하는 모든 사랑을 고무시켜야 할 것이다. 교회는 역사를 통하여 동정녀 마리아가 이미 걸어온 길을 견고 있다.<sup>21)</sup>

이 마리아의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능력은 모든 종교의 추종자들이 추앙할 수 있는 신 즉 우리의 현대 정신에 보조를 맞춘 여신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심지어 프로테스탄트들조차 이런 일에 동조한다. 1993년 11월, 한 여성 회의에 참석한 2,000명 이상의 회원들이 한 기도문을 여신을 향해 읊조렸으며 이 여자들은 성만찬과 비슷한 의식을 집행하면서 여신을 경배하기 위해 젖과 꿀의 의식에 참여하였다. 아주 최신 스타일의 뉴에이지모임 같은가? 천만의 말이다. 참가자 대부분은 프로테스탄트 주요 교단의 교인들이다.<sup>22)</sup>

한 루터교 여자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였으며 다른 교회 지도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가부장적 이미지를 쳐서 부셔 버리라고 참석자들에게 역설하였다. 한국 출신의 신학자 정현경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불교, 힌두교 그리고 필리핀의 여신들로 구성된 ‘새로운 삼위일체’를 채택하자고 역설하였다.”<sup>23)</sup>

카톨릭교회는 한 걸음 더 앞서 가 있다. 그들의 마리아는 모든 종교들에게 적합한 여신으로서 이미 전 세계 인구 중 사분의 일의 경배를 받고 있다. 더구나 군중의 충성심을 받아내는 일에 있어서

---

21) Pope John Paul II, *Redemptoris Missio*, pp. 86, 92.

22) *Charisma*, May 1994, p. 76.

23) *Ibid.*

그녀의 능력은 수 세기 동안 여러 국가에서 입증되었다.

마리아는 1037년 우크라이나 민족의 여왕으로 선포되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헝가리는 국왕인 성 스테반에 의해 마리아에게 봉헌되었다. 리처드 2세는 1381년 엄숙하게 전 영국을 결혼 지침금으로 마리아에게 봉헌하였다. 프랑스는 1638년 루이 13세의 명령에 따라 마리아에게 봉헌되었다. 그는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는 특별히 우리의 몸, 우리의 국가, 우리의 왕위 그리고 우리의 신하들을 마리아에게 봉헌한다.” 폴란드는 1656년에 국왕 카시미르에 의해 그녀에게 봉헌되었다. 모든 “남미의 스페인 식민지들은 1643년 국왕 필립 4세의 명령에 따라 ‘엄숙한 봉헌식’을 통하여 마리아에게 바쳐졌다. 1664년에는 포르투갈과 그것의 모든 식민지들이 국왕 요한 4세의 봉헌 촉구에 따라 그녀에게 바쳐졌고 오스트리아는 그다음 해에 바쳐졌다. 1846년, 미국의 모든 주교들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 우리의 책임하에 있는 모든 자들을 거룩한 하나님의 어머니의 특별한 보호에 의탁한다.”라고 기록하였다.<sup>24)</sup>

## 마리아와 이슬람교

불교도들, 힌두교도들, 뉴에이지 추종자들 그리고 자유주의자들이 카톨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과 함께 하나의 세계 종교 안에서 통합된다는 것은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수십억 이슬람교도들은 특별한 문젯거리가 된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그들이 함께 통합 신앙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보인다.

---

24) Soul Magazine, March-April 1993, p. 19.

영국의 카톨릭 잡지는 “마리아 부흥이 전 아프리카에 번져가고 있다. 동정녀 마리아의 출현으로 인하여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그녀를 추종하게 되었다는 소문이 있다.”고 보도한다.<sup>25)</sup> 아프리카의 이슬람교도들도 동정녀 마리아의 출현을 목격하고 있으며 마리아를 추종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될 필요는 없다.<sup>26)</sup> 「Our Sunday Visitor」는 이슬람교도의 코란(꾸란)에 기록된 ‘마리아를 향한 경의’를 지적하면서 마리아와 무함마드가 귀여워했던 딸 파티마와의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도 또한 언급하였다.<sup>27)</sup>

신(Fulton J. Sheen) 주교는 이슬람교가 기독교로 개종될 것을 예언한 흥미로운 책을 저술하였다. 거기서 그는 하나님의 어머니에게 존경을 바치도록 이슬람교도들을 촉구함으로써 그 일이 가능해 진다고 말한다. 그의 논리는 다음과 같다.

코란에는 복스러운 동정녀에 대한 구절이 많이 있다. 무엇보다도 코란은 마리아의 무염 시태를 믿고 있으며 또한 그녀의 동정녀 수태도 믿고 있다. 그렇다면 마리아는 이슬람교도들에게 진짜 ‘사이이다’(Sayyida) 즉 ‘부인’(Lady)이다. 만약 마리아의 심각한 경쟁자가 있다면 그것은 무함마드의 딸인 파티마(Fatima)일 것이다. 그러나 파티마의 사망 후 무함마드는 “그대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여자들 가운데 마리아 다음으로 가장 크게 복받은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하였다.<sup>28)</sup>

신 주교는 계속해서 ‘우리 부인’이 얼마나 기막힌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그녀가 포르투갈의 파티마 마을 - 이슬람교도들의

25) The Tablet, February 29, 1992.

26) The Christian World Report, May 1992.

27) Our Sunday Visitor, May 29, 1994, p. 5.

28) Fulton J. Sheen, “Mary and the Moslems,” *The World’s First Love* (Garden City Books, 1952); see also Malachi Martin, *The Keys of this Blood: The Struggle for World Dominion Between Pope John Paul II, Mikhail Gorbachev and the Capitalist West* (Simon and Schuster, 1990), p. 285.

점령 기간 중 무함마드의 딸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지역 - 에 미리 나타나서 ‘파티마의 우리 부인’ 이 된 것에서 입증된다고 주장한다. ‘파티마의 우리 부인’ 동상이 아프리카와 인도와 다른 지방의 이슬람교도들의 지역들을 순회할 때 수십만 명의 이슬람교도들이 그녀에게 경배드리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것은 사실이다. 인도의 봄베이에 도달했을 때에는 이를 동안에 무려 50만 군중이 경의를 표하려고 운집했다.<sup>29)</sup>

### 마리아와 요한 바오로 2세

파티마 방문의 효과에 대해서 현 교황보다 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없다. 또한 그보다 더 마리아에게 헌신하는 사람도 없다. ‘자기 자신과 자신의 교황직을 우리 부인에게 봉헌한’<sup>30)</sup>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가 입는 제복에 마리아를 나타내는 ‘M’ 을 새겨 놓았다. 그의 개인적 모토는 라틴어로 자기 로브 안에 새긴 대로 ‘totus tuus sum Maria’ 인데 이것은 “마리아여, 나의 전부는 당신의 것입니다.”를 뜻한다. 교황에게는 이렇게 유별나게 마리아에게 헌신을 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그에 대한 암살 기도 사건이 1981년 5월 13일에 발생하였다. 그날은 바로 1917년 5월 13일,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처음으로 동정녀가 나타났다고 하는 기념일이었다.<sup>31)</sup> 그가 회복하고 있는 동안 환상 속에서 마리아가 나타나 그에게 “평화의 성취를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내가 네 목숨을 구출했다.”고 말했다고 한다.<sup>32)</sup> 회복한 뒤 바티칸에 돌아

29) The Fatima Crusader, Winter 1992, front cover and p. 3.

30) Ibid., November/December 1986, p. 9.

31) St. Louis Review, November 4, 1988, cited in Christian News, November 14, 1988, pp. 10-11.

와서 요한 바오로 2세는 자기의 직전 교황들의 묘지에서 “여기 또 하나의 무덤이 있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복스러운 동정녀께서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라고 기도하였다.<sup>33)</sup> 그는 감사와 경외감을 가지고 “그날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하여 나는 특별한 어머니의 보호와 돌봄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무서운 총알보다 더 강한 힘이었습니다.”라고 덧붙였다.<sup>34)</sup> 마리아가 우리를 보호한다면 하나님의 보호는 무엇 때문에 필요할까?

감사에 가득 찬 교황은 1982년 5월 13일 파티마를 향하여 엄숙한 순례의 길을 나섰다. 거기서 그는 파티마의 ‘우리 부인’ 동상 앞에서 기도를 드렸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그가 전에 마리아가 그에게 요구한 대로 전 세계를 마리아에게 봉헌하는 말을 듣고 보았다. 그 뒤에도 적어도 세 차례에 걸쳐서 - 1983년 10월 16일, 1984년 3월 25일, 1985년 12월 8일 - 그는 전 세계를 마리아에게 봉헌하였다.<sup>35)</sup> 이같이 봉헌하면서 그는 러시아 국민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하였다. 그런데 이제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러시아의 공산주의가 동유럽 전체에서 와해되어 버린 상황에서 이런 공적은 ‘파티마의 우리 부인 ‘이 그 약속을 지킨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다. 마리아의 그 약속은 만약 교황과 주교들이 전 세계와 러시아를 마리아의 ‘죄 없는(무염) 심장’에 봉헌하면 마리아의 무염

---

32) Malachi Martin, *The Keys of This Blood: The Struggle for World Dominion Between Pope John Paul II, Mikhail Gorbachev and the Capitalist West* (Simon and Schuster, 1990), pp. 626-27; see also interview with Malachi Martin, *Washington Times*, September 28, 1990, p. B6.

33) *La Croix*, August 17, 1981, as cited in Abbe Daniel Le Roux, Peter, *Lovest Thou Me?* (Australia: Instauratio Press, 1989), p. 18.

34) Cited on back of card with photo of Pope bowing to a statue of Our Lady of Fatima. “This prayercard was published to commemorate the visit of Pope John Paul II to Fatima on May 13, 1982, and especially for use during the worldwide All-Night Vigil sponsored by the Blue Army of Our Lady of Fatima (Washington, NJ 07882) on May 12-13, 1982.”

35) *The Fatima Crusader*, November/December 1986, p. 9.

심장이 승리를 거둘 것이며 러시아는 개종되고 평화가 올 것이라는 약속이었다고 한다.<sup>36)</sup>

이러한 발언은 성경의 분명한 가르침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성경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롬 5:1). 또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즉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주시는 것이다(골 1:20). 각 개인이 소유할 수 있는 화평은 누구든지 복음을 믿는 자들이 믿음에 따라 받는 것이다. 한편 세계 평화는 구약의 대언자들이 예언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여 예루살렘에서 통치를 시작하실 때에 성취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톨릭주의의 마리아는 평화의 길이 되실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신해 버렸다. 그리고 지금의 교황과 그의 교회는 이런 이단 교리를 지원하고 있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을 포함한 오늘날의 세계는 자신의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받아들이기에 급급한 나머지 그리스도를 뒷전으로 밀어내고 있다. 여자가 짐승 위에 비스듬히 걸터앉는다는 성경기록은 이런 출현들로 인한 이 가짜 마리아가, 앞으로 많은 사람을 멸할(단 8:25) 적그리스도가 가져올 가짜 평화를 위해 큰 역할을 할 것을 보여 준다. “주께서 세계 평화를 내게 위임했다.”고 선언하면서 ‘파티마의 동정녀’는 그리스도 대신에 자신의 평화를 제공하였다.

세계 평화를 얻기 위해 매일 로사리오로 기도하라. 기도, 기도, 기도하라. 그리고 죄인들을 위해 희생을 바치라,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서 희생을 드리거나 기도드리는 사람이 없으므로 지옥에 가고 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의 [마리아의] 무염 심장에 헌신하기를 염원하고 있다. 만약

---

36) Our Lady of Fatima's Peace Plan from Heaven (Tan Books and Publishers, 1983), inside back cover.

사람들이 지금 내가 네게 말하는 것을 행하기만 하면 수많은 영혼이 구원을 받을 것이며 평화가 올 것이다.<sup>37)</sup>

수많은 영혼들이 ‘그들을 위해 아무도 희생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지옥을 가고 있다’는 말이 사실인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유일하고도 영원한 구원의 희생을 드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가!

### 유혹하는 영

로마 카톨릭주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로 인해 완전한 희생을 치르신 것을 분명히 거부해 왔고 이단 교리를 진작시켜 왔다. 지난 60년 동안의 모든 교황들은 ‘파티마의 우리부인’에게 경의를 바쳐왔다.<sup>38)</sup> 그 신비적인 ‘마리아의 무염 심장’에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을 대체해 왔다. ‘우리 부인’에게 바치는 순종이 평화를 가져온다고 그들은 말한다. 그러나 이 여자의 출현은 결코 마리아의 출현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권위와 특성을 자기 것처럼 챙기면서 파티마에서 나타난 마리아는 이렇게 선언한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주신 약속이며 하나님만이 소유하신 무소부재의 신적 특성을 전제로 한 약속이다.] ‘나의 무염 심장’이 너의 피난처가 될 것이며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될 것이다. 죄인들의 회심을 위해 너 자신을 희생으로 바쳐라 [오직 그리스도의 희생만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다]. 또한 마리아의 무염 심장에게 범한 죄들을 속죄하기 위해 희생을 바쳐라.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를 가지고 내가 죽

---

37) Ibid., back cover.

38) The Fatima Crusader, November/December 1986, p. 1 of letter of appeal inserted in middle of the magazine, which starts, “Dear Fellow Catholic.”

음의 순간에 이 모든 사람들을 도우리니 이들은 곧 5개월 동안 계속해서 매일 첫째 토요일 날 고해 성사를 하고 성찬을 받으며 로사리오 기도를 50번 하고 나에게 속죄하는 마음을 가진 채 로사리오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나와 함께 매일 15분씩을 보내는 자들이니라.<sup>39)</sup>

이 사이비 마리아가 제공하는 ‘구원에 필요한 모든 은혜’와 ‘하나님께 인도하겠다는 약속’은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끝내 놓으신 일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이것은 사실 카톨릭 주의의 모든 교리와 의식들에 암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마리아에게 범한 악행에 대해 온 세상이 그녀의 죄 없는 심장에게 속죄를 해야 한다니 이것은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가르침인가! 다윗은 “내가 주 곧 오직 주께만 죄를 짓고”라고 고백한다(시 51:4). 죄는 오직 하나님에게 짓는 것이지 그분이 만드신 창조물에게 짓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에게 지은 죄로 인해 그녀에게 속죄의 보상을 치려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마리아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이다. 이 여자를 이렇게 높이는 것은 사도 요한이 본 요한계시록의 환상과 잘 맞으며 또 예언된 것과 같이 이방 종교와 기독교를 혼합한 것이다.

“평화를 얻기 위해 매일 로사리오 묵주로 기도하라.” 한 인기 있는 카톨릭 TV 프로그램은 “로사리오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존재할 수 없다.”고 광고하면서 필요한 정보를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무료 전화번호를 소개하고 있다. 로사리오 묵주 기도를 하는 사람은 주기도문을 되풀이하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 영광을’을 여섯 번 반복하고, ‘은혜가 충만한 마리아여’(마리아 찬가, Ave Maria)는 53번을 되풀이해야 한다. 자, 보라. 이 여자가 기도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이제 온 세상은 짐승 위에 탈 그 여자

---

39) Lucia Speaks on the Message, pp. 26, 29-31, 47.

를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런데 심지어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그들의 양 무리도 이런 미혹에 빠지고 있다. (성경 암송으로 유명한 한 복음주의 예언 전문가는 TV에서 교황에 대한 칭송을 되풀이하며 또 마리아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파티마의 우리 부인’의 말을 인용하고 있다.)

이런 마리아 출현들은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완성하신 희생 사역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통해 구원을 얻음을 가르치는 성경적 복음을 대적하며 모든 영광을 사이비 마리아에게 돌린다. 이제 유혹하는 영이 일하고 있다(딤후 4:1). 그럼에도 요한 바오로 2세는 “파티마의 메시지는 모든 인류를 향한 것이고 다른 어느 때보다 지금 이 시간에 필요하며 긴박한 메시지이다.”라고 말한다.<sup>40)</sup> 이제 세계 모든 곳에서 이 같은 거짓 마리아 출현들이 거짓 평화를 제공하고 있다. 「댈러스모닝뉴스」에 실린 ‘평화의 여왕 센터’의 광고 내용을 보자.

평화를 위한 처방. 한 여자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이 사건은 뉴욕타임스와 20/20 TV 프로그램과 시사 잡지 라이프와 타임과 월 스트리트 저널에 다 보도된 내용이다. 수백만 명이 이 성지를 방문하고는 대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신앙과 평화와 복음 말씀에 따라 살려는 열망을 가슴에 품은 채 돌아왔다. 우리는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의 메주고리에에 있는 동정녀 마리아 출현과 전 세계 수십 개 지역에서 나타난 마리아의 출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왜 동정녀 마리아인가? 복스러운 동정녀 마리아는 예수를 세상에 처음으로

---

40) Quoted at the beginning of each “Heaven’s Peace Plan”, a daily Catholic radio program produced by the International Fatima Rosary Crusade, hosted by Fr. Nicholas Gruner, who publishes The Fatima Crusader magazine (with an estimated 1 million readers). The radio program claims to reach millions of people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each week “with our Lady of Fatima’s urgent message.” The claim is also made at the beginning of each program: “It is only by obedience to our Lady of Fatima’s message that we here in North America shall avoid being enslaved by Communist Russia. It is only by prompt obedience to our Lady of Fatima’s message that the world will have peace....”

데려온 그릇이었다. 이제 그의 재림을 선포할 자가 또한 마리아가 될 수 있을까? “너희 가슴속에 먼저 평화를 창조함으로 시작하라. 그리하면 너희 가정과 세계에도 평화가 올 것이다.”라고 그녀는 말한다.<sup>41)</sup>

## 마리아에게 종속된 카톨릭 예수

그들은 이 마리아 출현들이 사람들을 예수께로 인도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마리아 성지들에 온 순례자들에게서는 그리스도께 헌신을 바치는 모습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언제나 영광을 받는 자는 마리아이다. 로사리오를 되풀이하고 읊조리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나 하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온통 마리아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마리아에게 헌신을 하면서 순례자들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마리아의 명령에 따르기로 한 ‘마리아의 종’으로 자처하고 있다. 그들은 평화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를 통해서 온다고 주장한다. 이것이 바로 세계를 위한 그녀의 평화 계획이다. 그들은 그녀에게 지은 죄에 대한 속죄 보상을 그녀에게 바치면 그녀가 자기 아들의 손을 붙잡아 심판하게 하지 못한다고 믿는다. 그래서 그들은 영광을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에게 드리고 있다.

더구나 마리아의 출현에서 언급되는 예수는 언제나 마리아에게 예속되어 있는 사이비 인물이다. 포르투갈의 파티마에 나타났다고 하는 마리아 출현은 그 사건 이후의 교황들과 많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요한 바오로 2세에게 큰 의미를 주었다. 그러나 그 출현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현저하게 격하시키고 대신에 마리아를 높이는 것이다. 마리아를 통한 거짓 구원의 복음은 마리아를 동반한 채 그리스도로 가장하여 나타나는 마귀도 심지어 인정하고 있

---

41) The Dallas Morning News, June 25, 1993.

다. ‘파티마의 우리 부인’의 출현들에 관한 공식 기록은 다음을 보여 준다.

1925년 12월 10일, 가장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가 빛의 구름 위에서 높이 들린 채 자기 곁에 아기 예수를 데리고 루시아에게 나타났다 [그리스도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다!]. 우리 부인께서는 루시아의 어깨에 손을 얹고 다른 손으로는 날카로운 가시들로 둘러싸인 한 심장을 들고 있었다. 그때 아기 예수는 이렇게 말하였다. “너의 가장 거룩한 어머니의 심장을 긍휼히 여겨라. 그것은 감사를 모르는 자들이 수없이 찌른 가시들로 덮여 있다. 속죄의 보상 행위로 그 가시들을 제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다.”<sup>42)</sup>

1926년 2월 15일, 아기 예수가 다시 나타나서 카톨릭교도들에게 “이런 헌신과 속죄 보상 행위를 자기의 거룩하신 어머니의 심장에 바치는 일을 널리 알리라고 말하면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속죄의 보상을 마리아의 무염 심장에 바쳐야 한다.”고 선언하였다.<sup>43)</sup> 여기서 다시 한 번 우리는 최악의 신성모독을 본다. 진짜 마리아나 진짜 예수님은 결코 이런 것을 말하지 않는다.

그리스도는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므로 아이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없다. 설령 그렇게 나타날 수 있다 할지라도 그래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의 죄로 인해 돌아가실 때 그분은 장성한 어른이었으며, 지금은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오른쪽에 영광의 몸으로 앉아 계신다. 그리스도가 아직 어린아이로서 자기 어머니를 졸졸 따라다닌다는 것은 모든 상식과 이성과 현실의 범위를 초월한 신성모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사 때에 전 세계 성당에 있는 수백만 개의 과자 조각 하나하나가 ‘전체적으로 완전한 그리

---

42) Lucia Speaks: The Message of Fatima According to the Exact Words of Sister Lucia, Published by the Most Reverend bishop of Fatima (Washington, NJ: Ave Maria Institute, 1968), p. 46.

43) Lucia Speaks on the Message of Fatima (Washington, NJ: Ave Maria Institute), pp. 26, 30-31, 47.

스도의 진짜 육체'가 된다고 믿는 것에 문제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하늘나라에서 지금도 (과자 조각만한 크기의) 난쟁이 몸으로 있으면서 동시에 이 땅에 어린아이로 나타나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참 예수님은 부활 후 자기의 제자들에게 “그러므로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곧 이 사람을 [예수님을] 통해 죄들의 용서가 너희에게 선포되었다는 것과 또 너희가 모세의 율법에 의해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없었던 모든 일에도 [마리아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 믿는 모든 자가 의롭다고 인정받았다는 것이다.”고 선포하셨다(행 13:38-39).

성경에서 마리아에게 속죄 보상을 바치라는 것은 흔적도 찾을 수 없다. 그 일이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은 더더욱 찾을 수 없다. 모든 마리아 출현들은 마리아와 연옥, 천주교의 식들과 행위 등 통상적인 카톨릭 성례들을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거짓 복음을 담대하게 선언하고 있다. 메주고리예의 우리 부인은 이렇게 말한다.

아무도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연옥에는 지금 수많은 영혼들이 갇혀 있다. (1982년 7월 2일)

하나님은 전적으로 나(마리아)를 신임하신다. 나는 특별히 나에게 헌신한 자들을 보호한다. (1982년 11월 6일)

크리스마스 때 가장 많은 영혼이 연옥을 떠난다. 연옥에는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는 영혼들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연옥에 있는 영혼들이 연옥의 존재를 알리도록, 그의 친척들에게 그들이 나타나는 것을 허락하신다. (1983년 봄)

분명히 우리는 사도 바울이 마지막 날에 나타날 것이라고 경고한 영들 즉 ‘어떤 사람들을 믿음에서 떠나게 하여 마귀들의 교리들

에 주의를 기울이게 하는 유혹하는 영들' (딤후 4:1)을 보고 있다.

이 같은 마리아 출현들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충분함을 부인하고 만유의 주로서의 그분의 위치를 거부하며 거짓 마리아를 그리스도 위에 올려놓는 '결정적인 마귀의 교리'를 가르친다. 이 거짓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르는 길이 되고 있고 하늘에 이르는 문이 되고 있다. 이것은 분명하게 비성경적이지만 카톨릭주의의 기본 교리이다. 미국 텍사스주의 샌엔젤로 교구의 주교 사무실에서 보낸 편지는 이 교리의 전형적인 내용을 보여 준다. 이 편지는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에게 봉헌하는 성지 건설에 관한 것이다.

우리의 복받은 어머니는 1531년 테페악의 언덕 위에 있는 후안디에고에 나타나서 자기에게 봉헌된 한 사당을 지으라고 명령하였다. 그러면서 그녀는 자기를 통해서 이 성지에 순례를 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도움이 쏟아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령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복받은 어머니에게 기도하자.' [서명자들] 그리스도와 마리아의 종들, 샌엔젤로의 파이퍼 주교(Most Reverend Michael D. Pfeifer, OMI),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 사목 에스트라다(Rev. Domingo Estrada, OMI).

성지 현금 봉투에는 “네, 나는 모든 사람이 그녀의 임재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우리의 복스러운 어머니께 봉헌하는 사당을 건설하는 것을 돕기 원합니다.”라고 인쇄되어 있다. 그러나 이미 '과달루페의 우리 부인'에게 봉헌된 사당들이 존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마리아 사당들이 수천 개에 달하고 있다. 그녀가 과연 이 모든 사당들에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단 말인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그녀는 하나님일 수밖에 없다. 실상, 카톨릭주의의 마리아는 전 세계의 카톨릭교도들에게 자기가 일일이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카톨릭교도들은 마

리아를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바라보고 있으며 하나님이나 그리스도보다 확실히 더 자비롭고 자기들에게 더 큰 은총을 베푸는 존재로 여기고 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과거에 여신들이 세상을 지배했던 것처럼 이제 이 여신이 멀지 않은 장래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고대 로마 종교의 부활

분명히 로마 제국이 적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일어남과 함께 종교 부흥도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 종교는 바로 기독교 용어의 얇은 판을 뒤집어쓰고 생존해 왔던 이방 종교이다. 이 이방 종교는 결국 로마 카톨릭주의로 알려지게 되었고<sup>44)</sup> 풍요의 신들은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 과거 로마 시대에서는 로마 황제들의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들 앞에 절하지 아니한 자들은 다 처형시켰다. 로마 황제들의 후계자들로서 교황들 역시 자기에게 충성하지 아니한 자들을 처형하였다. 이것은 반박할 수 없는 역사이며 성경은 적그리스도의 통치 하에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것을 예언하고 있다.

또 그 짐승[적그리스도]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또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말하여 그들이 칼로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을 위해 형상을 만들게 하더라. 또 그가 그 짐승의 형상에게 생명을 줄 권능을 소유하여 그 짐승의 형상이 말도 하게 하고 그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려 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죽이게 하더라(계 13:14-15).

44) See Dave Hunt, *Whatever Happened to Heaven?* (Harvest House Publishers, 1988), for a comprehensive account of how this came about.

교황이 적그리스도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는 그의 오른팔이 될 것이고 적그리스도(계 13:11-17; 19:20; 20:10)의 거짓 대언자가 될 것이다. 지금 이 시간 교황이 나타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적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경배하게 될 때 그 모습이 어떻게 될 수가 있다. 1993년, 덴버에서 열린 '세계 청소년의 날' 대회에 참석한 한 목격자의 말을 들어보자.

금식하며 '새로운 강림의 우리 부인' 상 앞에서 철야 기도를 드리기 위해 15마일을 걸어서 체리 크릭 공원까지 걸어난 순례자들이 다음날 아침 교황이 다시 돌아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뒤에 일어난 일들로 인해 거기에 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놀람을 금할 수 없었다.

갑자기, 음악 소리를 누르고 흰 지붕의 헬기의 소리가 들려왔다. "교황이다! 파파 아버지다." 군중들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하였다. 사람들은 서로 밀치고 앞을 다투어 나갔다. 어떤 사람들은 로사리오를 움켜쥐고 울음을 터뜨렸고 다른 사람들은 소리 질러 환호하였다. 오케스트라는 '아바 오제 팡파르'(Abba Ojczy Fanfare)- 교황의 공식 입장 음악 - 를 연주하기 시작하였다.

작은 몸집의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무대로부터 걸어 나오며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고 미소를 보낼 때 군중의 환호성은 귀를 찢는 듯 했다. 이 군중들이 이 사람에게 보여 준 경의는 보는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교황이 나오자 사람들은 보통 때의 방어적 태도를 모두 상실해 버렸다. 그들은 이 고지원의 '영적 인물' 앞에서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 그는 만족한 눈빛으로 미소를 보이고 자기에게 다가오는 사람들에게 키스하며 포옹을 했다.

요한 바오로 2세는 흰색 옷을 걸치고 보좌와 같은 참나무 의자에 이르는 계단을 걸어 올라갔다. 그는 다시 군중들에게 손을 흔들며 보이고 계단을 올라가서 의자에 앉았다. 음악이 낮은 소리로 연주되고 있는 동안 '국제 청소년 포럼'의 대표 아이가 무대 앞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낭독하였다.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양께 있도대!"

이런 상황 속에서 이 특별한 성경 말씀은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일종의 경악과 공포감을 유발시킨다. 이 성경 구절은 요한계시록 7장 9-10절로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좌에 앉으신 모습을 묘사한다.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는 참 교회이며 신부이다. 그러나 체리 크릭 공원에서 교황은 많은 민족과 언어들을 가진 청소년들의 한가운데서 보좌에 앉아 있다. 이 성경 구절이 낭독되는 동안 군중들은 그를 향해 큰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이 교황은 자기가 보좌에 앉은 그리스도이며 자기 밑에 있는 청소년들이 자기의 양들임을 던지시 보이고 있지는 않은가? 요한 바오로 2세의 외형적 겸손에도 불구하고 그의 오만은 참으로 압도적이다. 그러나 성경 구절도 모르고 폴란드 찬송가의 번역된 의미도 모르는 이들에게는 그런 오만이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도 않는다. 그들은 오직 사랑을 보고 느끼고 있을 뿐이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분명하게 엄청난 세력의 미혹의 영을 가지고 있으며 흰옷을 입고 보좌에 앉아 ‘아바 아버지’ (Abba/Father)라는 찬송가에 응답하고 있었다. 각 나라의 고유 의상을 입고 각 대륙을 대표하는 청소년들이 자기 나라 국기를 들고 앞으로 나오고 있다. 그들은 중앙 계단으로 올라와서 자기들의 국기를 강대상 앞, 문자 그대로, 교황의 발 앞에, 꽂아 놓고 있었다.<sup>45)</sup>

## 이제 또다시 시작이다

항제를 숭배했던 이교도 로마 사람들은 편협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많은 신들을 섬겼고 광범위한 믿음들을 포용하였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지 않았다. 그들은 다른 신들은 용납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성경의 하나님만을 믿었기 때문에 핍박을 받았다. 카톨릭주의 역시 모든 종교를 포용하고 자기 교인들이 자기 교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요가를 하는 힌두교로부터 부두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교를 허용한다. 인기 있는 여론 조사나 국가의 법들도

---

45) Hayes, Trumpet, October 1993, op. cit.

이러한 태도를 강화해 가고 있다.

이제 ‘혐오법’이 캐나다에서 입법화되고 있고 미국과 다른 나라에서도 유사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이 법의 핵심 내용은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의 종교나 도덕적 신념이나 실행이 잘못되었다고 지적하면 그것은 범죄 행위라는 것이다. 이처럼 멀지 않아 동성연애(호모섹스)가 죄라고 말하거나 어떤 종교가 잘못되었다고 말하면 위법이 되는 날이 올 것이다. 미국과 많은 다른 나라들이 조인한 (아직 실시되지 않고 있음) ‘대량 학살 조약’(Genocide Treaty)에 의하면, 어떤 사람의 종교적 신념이 거짓이라고 말하거나 다른 사람을 진리라고 생각되는 종교로 개종시키려고 하는 행위는 범죄 행위가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로마 카톨릭주의는 자신만이 유일한 참 교회라고 주장하면서도 지금까지 지적한 바와 같이 다른 모든 종교도 동시에 포용하고 있다. 이 점만 보아도 로마의 바티칸은 요한 계시록 17장의 짐승 위에 앉은 여자가 될 자격이 충분하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 바오로 2세가 모든 종교를 포용하는 것과 또 모든 신이 다 동일하다고 말한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는 유독 근본주의 그리스도인들은 공개적으로 정죄한다. 교황을 추앙하며 그의 친구가 된 로버트 솔러도 소위 복음적 견해라는 관점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좋은 종교와 나쁜 종교를 구별하는 길은 그것이 긍정적이나 아니냐에 달려 있다.” 솔러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 그들의 신학이 무엇이든지 간에 - 그들의 신앙을 긍정적인 말로 표현해야 하며 모든 종교의 지도자들이 세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종교적 가치의 긍정적 능력을 선포하기 위하여 단합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하였다.<sup>46)</sup>

---

46) Orange County Register, April 25, 1993, editorial, LOL.

‘세계 공동체 건설을 위한 종교적 가치’는 과연 모든 종교에서 다 수용될 수 있는가? 심지어 적그리스도도 이와 같은 뉴에이지의 감언이설에 더 이상 무슨 말을 첨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럼에도 로버트 솔러는 복음주의 지도자들로부터 칭찬을 받고 있으며 TV 전도자들 중 매 주일 아침에 가장 많은 군중을 모으고 있다. 솔러가 로마 카톨릭주의를 포용한 것과 프로테스탄트들을 ‘로마의 큰집으로 돌아오도록 권하는 일’은 완전한 기록으로 잘 남아 있다.<sup>47)</sup>

앞으로 다가올 세계 종교는 교묘하지만 매우 분명하게 반기독교적일 것이다. 그것은 히틀러의 나치당과 같이 긍정적인 기독교 형태를 띠지 않고 전 세계에 저항할 수 없는 호소력을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미 복음주의 교단들 안에서 목격하고 있는 바와 같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타락한 기독교가 될 것이다. 모든 종교를 수용하자는 바로 그 주장은 마리아의 출현들에서도 전달되어 왔으며 또한 카톨릭교회의 가장 호소력 있는 전도자인 마더 테레사에 의해서도 전파되어 왔다. 테레사의 탁월한 희생적 봉사 활동으로 인해 감히 아무도 그녀를, 테레사를 비판하지 못할 것이다. 인도 캘커타의 마더 테레사의 세계적인 명성으로 말미암아 카톨릭주의는 프로테스탄트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그녀의 희생적 봉사 활동을 마땅히 인정하고 있다. 로마 교회는 테레사를 “세계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의 한 사람이다.”라고 말하였다.<sup>48)</sup> 그러나 그녀의 ‘복음 전도’는 단 한 사람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없다. 어떠한 신이든지 그들이 믿는

47) E.g. Tidings, October 20, 1989; Los Angeles Herald Examiner, September 19, 1987, Religion page.

48) New Evangelization 2000, first issue, July-August, 1987, p. 15.

49) Desmond Doig, Mother Teresa: Her People and Her Work (Harper and Row, 1976), p. 156.

신을 신뢰하라는 것이 그녀의 ‘복음 전도’이다.<sup>49)</sup>

그들은 우리에게 몸의 절반은 없어져 버린 한 남자를 데려왔다. 벌레들이 온 몸에 기어 다니고 있었다. 나는 가서 그를 씻어 주었다. 그랬더니 그는 “왜 이런 귀찮은 일을 해 주십니까?”라고 물었다.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라고 나는 대답했다. “내게 당신은 고통스런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나는 오직 당신을 사랑하는 즐거움과 당신 안에 있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힌두 신사는 내게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이라고 말하였다. 그는 자기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sup>50)</sup>

사실 이 힌두 신사는 “그가 사랑받는 사람이다!”라는 가장 놀라운 증거를 결코 듣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인 그분이 그의 죄를 위하여 죽기 위해서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의 공의가 요구하는 그의 죄값을 다 치러서 그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다는 그 복음을 그는 들은 적이 없다. 그는 성경적 의미에서의 복음으로 전도를 받지 않았다. 그는 그가 가진 모든 미신과 거짓 신앙들을 그대로 간직한 채 여전히 힌두교도로 내버려져 있었다. 그는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그의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다. 비록 그가 ‘전 세계의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중의 한 사람’ 으로부터 사랑받는 한 힌두교도로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진리를 듣고 지옥으로부터 구출될 정도의 사랑은 받지 못했다. 이것이 바로 카톨릭주의의 새로운 ‘전도 활동’이다. 그들은 이것으로 주후 2000년까지 전 세계를 개종시킬 계획을 짜고 있다. “나는 모든 종교를 사랑한다.”고 테레사는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다가오는 세계 종교의 핵심 사상이다.<sup>51)</sup>

---

50) New Evangelization 2000, is. 9, pp. 11-12.

51) Time, December 4, 1989, p. 12; Masterpiece, Winter 1988, p. 6.

## 바티칸과 새 세계 질서

새 세계 종교는 이와 유사하게 기꺼이 서로 연합하면서 인류 구출이라는 자비로운 일에 협조하려는 모든 종교에게 관용을 베풀 것이다. 그러나 타협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통일과 평화를 방해한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할 것이다. 코레쉬(David Koresh)는 거짓 메시아였으며 텍사스주 왜코에서의 집단 학살은 적그리스도가 얼마나 쉽게 세계 종교로부터 이탈한 자들을 다 제거할 수 있는지 잘 보여 준다. 클린턴 대통령은 이렇게 말하였다.

이단에 가입해서 코레쉬와 같은 자들처럼 될 유혹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텍사스주 왜코 근교에 있는 코레쉬 추종자들의 본거지 갈멜산에서 발생한 집단 학살로 인한 참혹한 희생 장면을 봄으로써 자기들의 주장을 단념하기를 나는 간절히 소망한다. 불행하게도 전 세계적으로 이와 같은 광신적 부류가 증가해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는 또다시 그들과 마주쳐야 할 것이다.<sup>52)</sup>

미국의 대통령이 왜코 학살 사건을 종교적 극단분자들이 받을 정당한 일이라고 말한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각국의 정부는 로마 카톨릭교회와 동업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다. 이것은 과거의 일이 아니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요한 바오로 2세가 레이건, 부시, 고르바초프, 아라파트 등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가 이런 인물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불공정한 일은 외면해 버린 사례들이 그의 초기 교황 기간 동안에 있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는 아르헨티나의 삼두 집권 행정부를 방문하면서 군대에 의해 납치되어 행방불명된 20,000명의 가족들에게는 알현하는 것조차

---

52) Bill Clinton, President of the U.S., April 20, 1993, at press conference, The New American, September 6, 1993, p. 24.

53) National Catholic Reporter, June 19, 1992, p. 4.

거부했다.<sup>53)</sup>

초기에 적그리스도가 바티칸과 밀접한 동업 관계를 가지려는 이유는 모든 나라가 'UN 외에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광범위한 국제 조직을 가지고 있는 기관'과의 우호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있는 현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sup>54)</sup> 바티칸 주재 미국 대사인 플린(Raymond Flynn)은 “바티칸과 미국의 관계는 특별히 중요하다. 바티칸과 강력한 외교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미국의 국익에 이바지하는 길이다.”라고 말하였다.<sup>55)</sup>

클린턴 대통령은 덴버에서 교황을 만나는 것이 자기에게 극히 중요한 일이라고 간주하였다. 그는 교황과의 회담 준비를 위해서 플린 대사와 여러 차례의 모임을 가졌고 플린은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클린턴을 수행하여 교황과의 회담에 참여했다. 그리고 1년이 채 안 되어 클린턴은 바티칸에서 교황과 면담하기 위해 로마를 방문했다. 전 세계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으며 (물론 적그리스도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로마에서 워싱턴에 이르기까지 지정학 분석가들은 세계의 군사 대국인 미국과 세계의 영적 지도자인 교황 간의 '신 동맹'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sup>56)</sup>

조만간 이 동맹은 세계 지도자와 바티칸 사이의 동맹이 될 것이다. 실로, 여자가 짐승을 타게 될 것이고 이 여자의 역할은 중요할 것이다. 적그리스도는 종교 평화 없이는 정치적 평화가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모든 종교가 기꺼이 서로를 동역자로 포용하여 공동 목표를 위해서 일할 수 있기 전에는 지구의 진정한 평화를 기대할 수 없다. 그리고 교황은, 우리가 자세한 기록으로 제

---

54) Our Sunday Visitor, January 24, 1993, p. 2.

55) Inside the Vatican, October 1993, p. 41.

56) Ibid., p. 37.

시한 바와 같이, 완전한 종교 통합을 위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카톨릭교도로서 전 UN 사무차장을 지내고 평화 대학 총장(Chancellor of University for Peace)인 물리(Robert Mull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세계적 혹은 우주적 영성이 필요하다. 나는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모든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는 보편적인 법칙들을 정의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또한 교황이 2000년이 되기 전에 UN에 와서 지구상의 모든 종교와 모든 영성을 대표하여 말해 주고 셋째 천년이 어떻게 영적 천년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종교적 견해를 전 세계에 제시해 주기를 반드시 바라야 한다.<sup>57)</sup>

최종적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공동 목표 달성을 위해서 연합할 때 바로 그때 적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할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러한 (불완전한) 통합이 바티칸의 지도하에 지난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지속되어 왔다. 바로 그것이 앞으로도 재현될 것이지만 이번에는 현대의 컴퓨터와 인공위성들만이 수행할 수 있는 무시무시한 통제를 통해 이루어질 것이다.

### 하늘에서 오는 엄숙한 경고

어떻게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이 그런 전제주의를 용납할 것인가? 266개 회원을 가진 미국의 국가 교회 협의회(NCC)의 대표단이 1984년 6월 러시아를 방문한 사례를 보자. 그들은 14개 도시들을 방문했고 많은 수의 정부 인가 교회당을 방문했다. 이에 뉴욕타임스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NCC 대표들은 러시아 내의 종교 상태에 대해서 칭찬을 했으며 무기 경쟁에 있어

---

57) World Goodwill Newsletter, 1989, no. 4, pp. 1, 3.

서 미국의 역할을 비난하였다. 그리고 한 침례교회에서 예배드리  
는 동안 ‘이것은 자유 교회가 아니다’ 라는 현수막을 들고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는 두 명의 시위꾼들이 자기들 [NCC 대표들]이 방  
문하여 화음을 이루어 놓은 것을 망쳐 버렸다고 불평하였다.”<sup>58)</sup> -  
시카고의 맥코믹 신학교에서 온 NCC 대표 단장 릭돈(Bruce  
Rigdon)은 데모 행위에 불쾌감을 나타내고 이를 진압한 러시아  
당국에 경의를 표했다.<sup>59)</sup>

1993년 8월 4-13일, 스페인의 산티아고 데콤포스텔라에서 세  
계 교회 협의회(WCC)의 제5차 세계 신앙 대회가 열렸다. WCC  
회의에 로마 카톨릭 대표가 정회원으로 참석하기는 이번이 처음  
이었다. 참가자들의 목표는 하나의 세계 교회를 세우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믿음으로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전 세계  
의 눈에 하나로 보이는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의미하였다. 대표단은  
다음과 같은 선언문을 채택하였다.

교회의 통일을 위한 관심을 통합하고 세계의 갈등들에 관한 관심을 통일하려  
는 단일종교 통합 운동으로부터 이제 다시는 돌아설 수 없다.<sup>60)</sup>

이 의미심장한 선언문은 이제 세계 교회가 세계 정부와 공동 활  
동을 취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WCC 중앙 위원  
회 의장인 케쉬쉬안(Aram Keshishian)은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WCC는 자신의 교리적 작업이 사회적 윤리와 더욱  
밀접한 연관을 갖게 해야 할 것이다. 믿음과 질서 [위원회]는 교회  
통합을 추구하면서 사회/정치/경제적 차원을 무시할 수 없다. 기  
독교 신앙과 정치적 참여, 교회의 통일과 정의를 위한 투쟁 간에

58) The New York Times, June 21, 1984.

59) The New American, September 6, 1993, p. 27.

60) Cited in Foundation magazine, July-August 1993, p. 7.

어떠한 이중적 괴리가 있다면 그것은 곧 에큐메니컬 이단이다.”<sup>61)</sup>

그들의 이 목표는 달성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적그리스도와 사 이비 세계 교회의 ‘편의에 의한 이 결혼’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밀월이 끝나면 적그리스도가 등을 돌려 그 음녀를 멸할 것이다(계 17:16).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성취될 것이다(17절). 이 짐승 위에 앉은 여자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결정적인 정죄 사유는 이 여자가 값진 금은 그릇과 보석들을 매매했을 뿐만 아니라 ‘중 들과 사람의 혼들’을 사고 판 악행이다(계 18:12-13). 우리는 이 미 위에서 이런 행위들을 기록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렇게 일이 진행되는 동안 놀라운 음조로 하늘에서 음성이 들 려오고 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 앙들을 받지 말라. 이는 그녀의 죄들이 하늘에 닿았고 하나님께서 그녀의 불법들을 기억하셨기 때문이라. 그녀가 너희에게 갚아 준 대로 그녀에게 갚아 주고 그녀의 행위에 따라 두 배를 그녀에게 두 배로 갚아 주며 그녀 가 채운 잔에 두 배를 그녀에게 채워 주라. 그녀가 얼마나 많이 자기를 영 화롭게 하고 호화로이 살았든지 그만큼 그녀에게 고통과 슬픔을 주라. 그녀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아 있고 과부가 아니므로 결코 슬픔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받을 재앙들 곧 사망 과 애곡과 기근이 한 날에 닥치리라. 그녀가 완전히 불에 타리니 이는 그녀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께서 강하시기 때문이라(계 18:4-8).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의 복음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함께 진정한 동정과 사랑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을 이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구출해야 할 것이다.

---

61) Ibid.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하셨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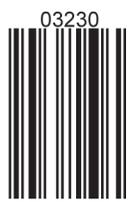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03230

ISBN 978-89-951587-8-4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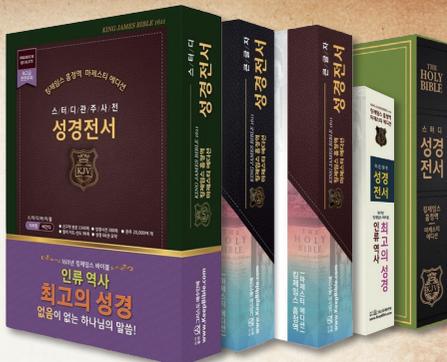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값 8,000원

# 킹제임스 흠정역

##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